

MAXIM

KOREA

TV's MOST BEAUTIFUL WOMAN

Elisha Cuthbert

〈내겐 너무 아찔한 그녀〉로 나타나서 미드 〈24시〉를 거쳐 미국 수컷들이 가장 사랑하는 TV 스타의 반열에 오른 그녀 엘리샤 커스버트가 4번째 MAXIM 표지를 장식하다!

TIME TO WAR AGAIN!

Save Yourself

7성급 호텔보다 끝내주는 MAXIM 벙커 전쟁이 내 재산에 끼치는 영향 진땀개 하나! 진땀개를 알아야 산다!

Survival Gear 10

죽음도 피해갈 최강 서바이벌 기어 10선

Shoot Them Up!

넉슨의 대국민 사격 훈련 〈워페이스〉

Sexiest Missile

MISS MAXIM 엄상미의 미사일 특집 화보

장도연

그녀가 〈코미디 빅리그〉에서 우스꽝스런 연기를 펼칠 때에도 당신은 이미 알고 있었다. 모델 뺨치는 기력지와 볼륨 넘치는 S라인을 꿰뚫어 보고 있었잖아, 안 그래?

2013년 5월호
정가 5,900원

Seoul Motor Show Special
BEST CAR AWARD
BEST CHICK AWARD

볼보의 결정구! 메칸더 V40 시승기

ICON

장우혁

이제는 전설이 된 HOT의 카리스마 장우혁이 MAXIM과 나누는 어른 남자 이야기

ULTIMATE SEX SURVEY

MAXIM의 월드 프로젝트 세계 5,000명의 여성에게 물었다

- 스리섬은 언제 허용?
- 섹스 중에 트위터한 적?
- 섹시한 남자 되는 폐북 관리법
- 통화 중 섹드립 허용 수위
- 25세 여성은 누적평균 몇 명과?



ISSN 2233-4270 바코드는 뒷면에



HELL DIVER

1942 SB2C



HELLDIVER

공식수입원 에이맨 인터네셔널 1644-3885 | 공식 홈페이지 <http://www.helldiverwatches.com>

- | | | | | |
|---------------------------|---------------------------|---------------------------|-------------------------|------------------------|
| 롯데백화점(노원점) 02-950-2490 | 롯데센텀점(부산점) 051-730-3198 | 롯데백화점(대구점) 053-660-3126 | 티파니(임산점) 031-931-5300 | 타임봄(부산점) 070-7530-1219 |
| 굿모닝시티2F(동대문) 02-2118-8075 | 이와치(명동점) 02-771-7033 | TIME 21(강변점) 02-3424-1210 | 워치보이(인천점) 070-8632-5300 | 교보문고(대구점) 053-256-1575 |
| 헬로APM6F(동대문) 02-6388-2927 | 이타임월드(신촌점) 02-313-4108 | 테크노파트61(신도림) 02-2111-1120 | 타임런(무평점) 070-7516-4545 | 삼성새대점) 053-422-3002 |
| 두산타워3F(동대문) 02-3398-5528 | 타임랜드(은평점) 02-350-8471 | 타임타임(신도림) 02-2111-1171 | 끼롱(부천점) 032-662-0686 | 엘가시계(대구점) 053-255-6940 |
| 두산타워5F(동대문) 02-3398-7527 | 이츠와치(홍대점) 02-323-0980 | 샤론주얼리(안양점) 031-463-9788 | 복와치(청주점) 043-223-1333 | 엘가시계(구미점) 054-451-6940 |
| 원타임(왕십리) 02-2200-1355 | 와와치(반포점) 02-537-8977 | 보석상자(안양점) 031-486-1014 | | |
| 프로워치(남대문) 02-779-6964 | TIME 21(강변점) 02-3424-7073 | 탑타임(안산점) 031-413-7616 | | |

BMW Motorrad
Korea



The new F 800 GT

The Ultimate
Riding Machine



일상은 짧게, 일탈은 길게

THE NEW BMW F 800 GT. UNSTOPPABLE TOUR.

지금 떠나십시오. 되돌아 서거나 뒤돌아 보지 마십시오.

The new BMW F 800 GT에 오르는 순간, Gran Turismo 투어링의 가슴 뛰는 여정은 이미 시작됩니다. 병렬 2기통 엔진 채움과 최대출력 90마력(66Kw)의 파워풀한 퍼포먼스로, 지루한 일상을 다이내믹한 라이딩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투어링에 최적화된 서스펜션과 ABS 시스템을 기본으로 장착하여 극한의 안전성을 보장합니다. 궁극의 자유를 느낄 수 있는 투어링 모터사이클의 모든 것 The new BMW F 800 GT. www.bmwmotorrad.co.kr

90주년 기념 이지라이드 파이낸스 할부 금융 ▶ 월 114,281원

예) 36개월, 고객공지금리 4.90%, 선납 50%, 상환유예원금 30%, 통합취득세 및 기타 비용 불포함 조건

90 YEARS OF BMW MOTORRAD.



**STANDARD ON
ALL MODELS.**

BMW Motorrad 공식 딜러 전시장 및 서비스 센터 BMW Motorrad 공식 홈페이지 www.bmwmotorrad.co.kr

서울 한남동 (02) 2279-7322 강남 (02) 3453-9990 영등포 (02) 2633-9997 분당 1577-2690 인천 (032) 261-9784 대전 (042) 672-1101 전주 (063) 245-5077 광주 (062) 527-7807 대구 (053) 954-6161 부산 (051) 757-9995 창원 (055) 244-9997

* 본 광고 이미지는 실제차량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사양 및 제원은 성능 개선을 위하여 사전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모델별 옵션 적용 사항은 가까운 BMW Motorrad 공식 딜러 전시장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금융프로그램은 비영리금융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주)에서 제공하며, 2013년 5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별도의 취급 수수료는 없으며, 연체 시 연체 이자율은 연 24%입니다. 총도해지 시에는 계약 경과기간에 따른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 경과 기간 6개월 이하 / 12개월 이하 / 12개월 초과 : 잔여 미상환원금의 3% / 2% / 1%) 고객공지금리는 대출신청금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검수 COMP-2013-04-002.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Contents

MAY / 2013



84

Elisha Cuthbert

캐나다가 우리에게 선사한 최고의 선물.
MAXIM이 선정한 가장 섹시한 TV 스타 엘리샤 커스버트.
미드 <24시>부터 최근의 <해피 엔딩>까지 주가를
사정없이 올리고 있는 이 유쾌한 금발 미녀의 네 번째
MAXIM 화보다!

Circus Maximus

- 20 금발 미녀의 장수 볼 처녀 예술리 밴슨
- 22 맥주 무한 리필에 PC방, 클럽까지 갖춘 판타스틱 MAXIM 대피 벙커
- 24 전쟁이 내 재산에 끼치는 영향
- 26 비상 경계 태세 진땀개를 알아야 산다!
- 28 오십전 선생(50 CENT)의 생애 마지막 인터뷰
- 30 라면 vs. 냉장면, 최후의 승자는?
- 32 굿시니스트 교양 만화: 여 해적 두목 차카이

How To

- 34 압호해독보다 더 어려운 상사 언어 해석법
- 36 인디카 챔피언한테 배우는 레이서의 몸 푸는 법
- 38 콘돔이 남아나는 에디터가 직접 보여주는 콘돔 재활용법(눈물 없인 못 봐요)
- 40 조세호(양배추)&남창희, 두 남자의 최강 자취스킬
- 42 초간단 이방 수업을 초간단 수업으로 만드는 법

Smoke&Drink

- 43 이달의 맥주: 여심 사로잡는 하와이 맥주
- 44 담배 참 맛있게 파우는 영화 속 형님들에게 배우는 짝연 스킬

Comment

- 46 기분은 더럽지만 괜찮은 영화 <노리개>
- 48 출판 역사상 가장 에로틱한 소설 5권
- 50 에디터가 선정한 봄의 노래

Game

- 51 치파오 입은 남자가 당신 가슴에 암기를 꽂는대 <카오스 온라인>의 리버스 레이든
- 52 넥슨이 고용한 FPS의 절대강자 용병 <워페이스>

Stuff

- 54 상반기 스마트폰 최중보스 갤럭시S4
- 56 이제는 HD 화질 전쟁: 옵티머스G PRO vs. VEGA No.6
- 58 공구를 잘 쓰면 미녀가 따른다! 파워풀한 남자의 공구와 모델 최별하기 만나 하얗게 불사른 화보가 무려 8페이지!
- 66 좀비도, 죽음도 피해갈 최강 서바이벌 기어 10선

Motor

2013 서울 모터쇼 특집

- 70 MAXIM Best Motor Award 올해는 음흉한 돼지같이 레جل 다리 찢고 안 그랬다. 철저히 차만 보고 평가했어
- 74 그 음흉한 돼지가 여기 있네! 섹시 터지는 서울모터쇼 레이싱 모델 특집
- 78 불보의 뉴페이스 v40 시승기
- 81 오너드라이버를 위한 초대박 이벤트

Sport

- 82 스포츠 전문 기자가 들려주는 'NC 다이노스'의 거침없는 도전기

PHOTOGRAPH JOHN RUSSO



SWISS + MADE



ESSENTIAL GEAR.

Navy SEAL Steel Colormark Series No. 3152: 44mm, stainless steel case, screw down crown & case back, carbon reinforced polycarbonate bezel, tempered scratch resistant mineral crystal, water resistant to 200 meters, stainless steel bracelet, and Luminox self-powered illumination. Swiss Made. Preferred timepiece of U.S. Navy SEALs.

www.facebook.com/luminox

www.luminox.com



Constant Glow for up to 25 Years.

공식수입업 및 서비스 센터 밀림시계(주) (02)757-9866, A/S센터직통 (02)735-9880, www.milimwatch.co.kr

루미nox 판매처

직영점 [롯데백화점] 본점 지하1층(모멘토) 02-772-3181 / 잠실점 1층(모멘토) 02-2143-1920 / 청량리점 1층(모멘토) 02-3707-1179 / 평촌점 2층(모멘토) 031-8086-9232 / 대전점 1층(모멘토) 042-601-2109 / 대구점 1층(모멘토) 053-660-3122 / 부산 광복점 1층(모멘토) 051-678-4039 / 울산점 1층(모멘토) 052-960-4533 / 아울렛 서울역점 2층(모멘토) 02-6965-2637 [현대백화점] 울산 킨텍스점 1층(모멘토) 031-822-2929 / 충청점 1층(모멘토) 043-909-4148 [AK백화점] 원주점 1층(모멘토) 033-811-5525

특약점 신도림 테크노마트 지하1층(TM 시계백화점) 02-2111-1120 / 강변 테크노마트 7층(타임21) 02-3424-7073 / 강변 테크노마트 1층(타임21) 02-3424-1210 / 동대문 오케이아웃도어닷컴 1588-8796 / 종로 YMCA 1층(타임존) 02-737-3627 / 종로 중앙상가(노블워치) 02-745-8789 / 동대문 두산타워 5층(매션존) 02-3398-7527 / 동대문 두산타워 3층(타임갤러리) 02-3398-5528 / 성내동(다이비스틀) 02-565-9897 / 상계동 하이힐링상가 A동(노라시계) 02-971-5334 / 종로 세운스퀘어 1층(정우상사) 02-2272-2688 / 이왕치(명동점) 02-771-7033 / 종로 피카디리 플래스 1층(정신사) 02-741-9678 / 삼성동 코엑스몰(타임워치) 02-2051-6244 / 을지로6가 굿모닝시티 2층(사또) 02-2118-8075 / 잠실 롯데월드 웨빙센터 1층(제네바) 02-419-5622 / 남창동 단암빌딩 1층(프로워치) 02-779-6964 / 은평 이마트 7층(스포츠킴) 02-389-8718 / 왕십리 민자역사3층(원타임) 02-2200-1355 / 인양 안양동(시계상사) 031-441-0158 / 인양 안양동(보석상사) 031-466-1014 / 부천 심곡동(톡톡) 032-662-2026 / 고양 정향동(타임24) 031-931-5555 / 성남 정자동(스포츠킴) 031-710-1260 / 용인 블루키 동백점 1층(타임클락) 031-679-0145 / 인산 고잔동(타임루트) 031-487-9057 / 평택 평택동(유빈) 031-658-6883 / 인천 출몰러스 기차점 2층(스위스) 032-578-2002 / 인천 구월동(원치보이) 070-8632-5300 / 대전 세이브존 1층(타임워치) 042-482-2328 / 이마트 대전터미널점 4층(스포츠킴) 042-615-1265 / 대전 가오동(에진시계) 042-280-9117 / 대구 삼덕동(엘가시계) 053-255-6940 / 천안 신부동(알파&오메가) 041-564-5465 / 청주 가경동(보보 스위치) 043-235-1510 / 청주 남문로27가(복워치) 043-223-1333 / 청주 메가박스1층(메가워치) 043-857-9125 / 진주 롯데백화점 5층(세광당) 063-289-3592 / 익산 롯데마트(원남상사) 063-833-8536 / 광주 첨단롯데마트(원남상사) 062-971-8523 / 광주 롯데마트 월드킴점(원남상사) 062-675-8521 / 포항 벨류플러스(조이텔) 054-613-1170 / 이마트 동구미점 2층(스포츠킴) 054-480-1260 / 구미 월평동(엘가시계) 054-451-6940 / 진해 롯데마트 1층(원남상사) 055-542-8521 / 부산 광복동(국제시계) 051-245-1230 / 부산 해운대(리브워치) 051-746-6112 / 부산 서면(엘가) 070-7569-5766

Contents

94

장도연

늘씬하고 예쁜 긴 다리와 시원한 피스.
장도연이 수많은 개그우먼들 사이에서
유독 눈에 띄는 건 알았지만... 이 이렇게
예뻐어?! 그동안 감춰왔던 볼륨감을 MAXIM
에 공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DRIVING CONCERT HALL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

ACTUNE

by HYUNDAI MOBIS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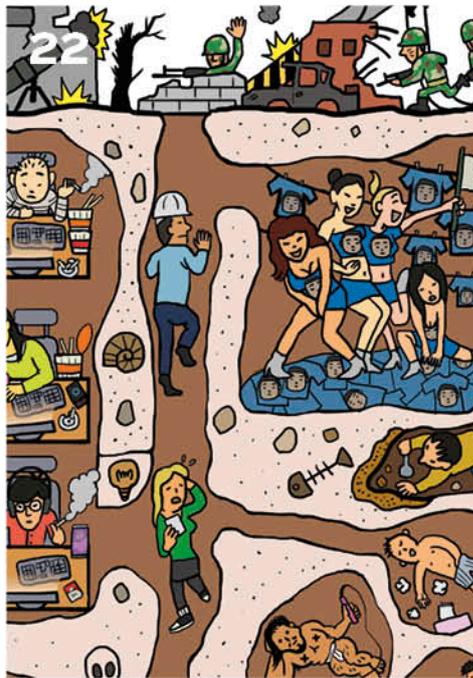
58



90



106



144

Circus Maximus

- 20 금발 미녀의 정수 볼 처녀 예술리 밴스
- 22 맥주 무한 리필에 PC방, 클럽까지 갖춘 판타스틱 MAXIM 대피 병커
- 24 전쟁이 내 재산에 끼치는 영향
- 26 비상 경제 태세 진땀을 알아야 산다!
- 28 오십전 선생(50 CENT)의 생애 마지막 인터뷰
- 30 라면 vs. 냉장면, 최후의 승자는?
- 32 굼시니스트 교양 만화: 여 해적 두목 치카이

How To

- 34 암호해독보다 더 어려운 상사 언어 해석법
- 36 인디카 챔피언한테 배우는 레이서의 몸 푸는 법
- 38 콘돌이 남아나는 에디터가 직접 보여주는 콘돌 재활용법(눈물 없인 못 봐요)
- 40 조세호(양배추)&남창희, 두 남자의 최강 자취스킬
- 42 초간단 이방 수영을 초간단 수영으로 만드는 법

Smoke&Drink

- 43 이달의 맥주: 여심 사로잡는 하와이 맥주
- 44 담배 참 맛있게 피우는 영화 속 형님들에게 배우는 꺾연 스킬

Comment

- 46 기분은 더럽지만 괜찮은 영화 <노리개>
- 48 출판 역사상 가장 에로틱한 소설 5권
- 50 에디터가 선정한 봄의 노래

Game

- 51 치파오 입은 난자가 당신 가슴에 암가를 꽃는다!
<카오스 온라인>의 리버스 레이트
- 52 넥슨이 고용한 FPS의 절대강자 용병 <워페이스>

Stuff

- 54 상반기 스마트폰 최종보스 갤럭시S4
- 56 이제는 HD 화질 전쟁: 옵티머스G PRO vs. VEGA No.6
- 58 공구를 잘 쓰면 미녀가 따른다! 파워풀한 남자의 공구와 모델 최별하가 만나 하얗게 불사른 화보가 무려 8페이지!
- 66 좀비도, 죽음도 피해갈 최강 사바이벌 기어 10선

Motor



ALBA

POSITIVE & SMART

수입원 삼성시계(주) 02)511-3182 •직영매장 세이코부티크 스타시티점 02)54-8400 / 현대아이파크 백화점 02)2012-4144 •직영 편집패장 요벤토 롯데백화점 02)772-3181 / 롯데점심점 02)2143-1920 / 롯데점심점 02)3707-1179 / 롯데점심점 031)8086-9232 / 롯데점심점 042)601-2109 / 롯데대구점 053)660-3122 / 롯데광복점 051)678-4039 / 롯데물산점 052)960-4533 / 롯데아울렛서울역점 02)6965-2637 / 현대킨텍스점 031)822-2929 / 현대충정점 D43)909-4148 / AK원주점 033)811-5525 •면세점 롯데 / 신리 / 워커힐 / 동화 / 신세계 / JDC / J10 / K10

전남점 서울(02) 중구 이화재(771-7033) 종로 타임존(737-3627) / 노블위즈(745-8789) / 정신사(741-9678) / 정우상사(2272-2688) 동대문 패션존(3398-7527) / 사도(2118-8075) 서초 시계독립(6282-2777) / 신비파(532-2121) 송파 타임존(411-0829) 강동 현대골드(484-2029) 용산 헤피타임(2012-0625) 서대문 타임월드(313-4108) 은평 타임랜드(350-8474) 관악 타임(6299-7666) 구로 시계백화점(211-1120) / 타임타임(211-1141) 양천 티파나(2648-8333) 강서 타임피스(2668-0871) 광진 TM타임(3424-7073) 성북 해시계(2117-1755) 노원 도라시계(971-5334) 인천(032) 남동 정타임(432-2430) 남구 타임랜드(862-5534) 부천 시계나라(329-0894) / 특목(662-2026) 경기(031) 고양 타임(24931-5555) 성남 AK프리지(781-8194) / 동성당(753-0766) / 타임24시(728-5370) / 연타임(707-1289) 수원 AK프리지(240-2196) / 현아클락(201-7100) / 지지한리선(221-4997) 안양 타임월드(383-8342) / 보석상자(441-1014) / 시계상자(441-0158) 통탄 타임플러스(371-8850) 부산(051) 중구 명상시계(253-5315) / 국제사(245-1230) / 불림(245-7966) / 타이더블(919-4704) 부산진구 클라이(922-2068) / 프로포즈(818-6573) / 동하사(644-5555) 울산(052) 금보당(960-4848) 경남(055) 마산 신세계시계(224-2711) 창원 롯데창원(279-3119) 진주 갤러리(791-1177) 대구(053) 중구 주얼리아(428-2668) / 바셀(425-8707) / 동아시계(252-8111) / 헤피타임(428-3088) / 엘가(255-6940) / 점미(428-0338) / 레츠(425-0157) / 삼성사(422-3002) 경북(054) 구미 타임프리지(465-2410) 포항 조이필(613-1170) / 주일리(244-9172) / 타임피어(253-8855) / 스위스(246-8944) 충북(043) 청주 명공사(256-4574) / 드림플러스(235-1510) 대전(042) 보육점(253-9241) / 세이백화점(257-7745) / 연비(255-6292) / 세이브존(482-2328) 충남(041) 천안 티파나(561-9438) / 말파와메가(564-5465) / 신세계예진(640-5081) / 루치타임(522-6505) 강원(033) 춘천 시계마을(253-7669) 광주(062) 굿타임(233-3050) / 이프유(225-0175) / 현대제일사(515-7172) / 시계명가(226-2251) / 골드루(410-0137) / 티타(222-3114) 전주(063) 새광당(289-2590) / 김투(285-7596) 제주(064) 순금사(758-1717)

LAYERED UP&DOWN



대니시디자인 | (주)거노코퍼레이션 |
www.danishdesign.co.kr | 02.3397.7100
공식쇼핑몰 유로타임 www.eurotime.kr



[직영점] 롯데백화점 분당 (031-738-2140) 대구백화점 프라자 (053-253-7133)
롯데백화점 미아 (02-944-2130) 하이힐 (02-2136-9743)
[면세점] 제주중앙면세점 (064-780-7671)
[판매처] 롯데백화점 영등포 (02-2630-6883) / 대전 (042-601-2253) 신세계백화점 광주 (062-360-1291) 현대백화점 부산 (051-667-1159) AK PLAZA 명덕 (031-646-6139) NC백화점 순천 (061-720-5124) / 뉴욕아백화점 안산 (031-8085-1708) / 울산 (052-210-4010) / 아람 (031-701-6841) 2001아울렛 분당 (031-786-1808) 세이백화점 대전 (042-257-7745) 이마트 자양 (02-455-6841) / 포항 (054-278-6848)

MAXIM

www.maximkorea.net

편집장 이영비
yb@maximkorea.net

Editorial / 편집부

편집 1팀		
에디터 김희성	대리/ 팀장	alice@maximkorea.net
조용재	주임	wj@maximkorea.net
김세형	인턴	kim@maximkorea.net
김소윤	인턴	sy@maximkorea.net
영상 에디터 이준걸	인턴	girl@maximkorea.net
편집 2팀		
에디터 손안나	주임	anna@maximkorea.net
박정욱	인턴	ok@maximkorea.net
이효선	인턴	hyo@maximkorea.net
영상 에디터 김슬기	인턴	sk@maximkorea.net
편집 3팀		
디자이너 서윤정	주임/ 팀장	yoon@maximkorea.net
이초롱	인턴	cr@maximkorea.net
주환성	인턴	joo@maximkorea.net
일러스트레이터 장재혁	인턴	jang@maximkorea.net

편집 4팀

수석 에디터 유승민		sm@maximkorea.net
에디터 김진욱	대리	14k@maximkorea.net
에디터 정민지	주임	min@maximkorea.net
뷰티 에디터 장혜민		style@maximkorea.net

객원 에디터 이용수	격투 칼럼니스트
김덕중	<엑스포츠> 기자
강산	<엑스포츠> 기자
김대영	<디펜스 타임즈 코리아> 편집위원
김광희	라면 리뷰어 '누들러'
박종현	라면 리뷰어 '누들러'
급사니스트	카툰 작가

Finance & General Affair / 경영지원팀

최인영	대리/ 팀장	joy@maximkorea.net
인사 장선영	주임	sun0676@maximkorea.net
유통 안재민	인턴	man@maximkorea.net
비서 손혜진	인턴	son@maximkorea.net

Marketing / 마케팅팀

김진욱	팀장	14k@maximkorea.net
광고마케팅 원정운	매니저	jw@maximkorea.net
정진선	매니저	js@maximkorea.net
PR 염윤희	인턴	yeom@maximkorea.net

Web & Mobile Service / 웹·모바일

토벤 서정민	팀장	oreiss@towen.com
남원규	팀장	wonkyoo.nam@towen.com

Photography / 사진

포토그래퍼 정기수	실장
박 울	실장
이진오	실장
오준섭	

교열

신선경	kshin0111@daum.net
-----	--------------------

Circulation / 유통

승주출판유통 이응관 대표

Printing / 인쇄 원색분쇄

(주)타라티피에스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성지센터 192-1 인쇄인 이현순

발행인 / CEO 유승민

이사 원혜진

광고 제휴 문의 partner@maximkorea.net
070-4010-9049

구독 문의 joy@maximkorea.net
02-323-1182



발행처 ㈜와이미디어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446-36 MAXIM KOREA 빌딩
TEL. 02-323-1182 / FAX. 02-6455-0193
2013년 5월호 통권 제37호 / 등록일자 2009년 12월 30일 / 등록번호 마포 라-00250

ALPHA MEDIA GROUP
EXECUTIVE CHAIRMAN: Jack Kliger
CHIEF OPERATING OFFICER: David Simcox
SENIOR ADVISER: David J. Fishman

MAXIM WORLDWIDE BRAND LICENSING

INTERNATIONAL PUBLISHING MANAGER: Stephanie Marino
INTERNATIONAL EDITORIAL DIRECTOR: Simon Clays
SR. INTERNATIONAL OPERATIONS MANAGER: Pauline Lam
INTERNATIONAL RIGHTS COORDINATOR: Jeff Whitacre



MEDIA NETWORK EDITORS IN CHIEF

ARGENTINA Germán Pittelli	CZECH REPUBLIC Pavel Vondracek	ITALY Paolo Gelmi	RUSSIA Sasha Malenkov	THAILAND Surawong Kraeafan
AUSTRALIA Santi Pintado	GERMANY Mike Bleibtreu	MEXICO/LATIN AMERICA André Félix Diaz Rojo	SERBIA Dragan Otašević	UKRAINE Sasha Malenkov
BULGARIA Hristo Zapryanov	INDIA Vivek Pareek	POLAND Krzysztof Papliński	SOUTH KOREA Young-Bee Lee	UNITED KINGDOM Alpha Media Group
	INDONESIA Ronald Adrian Hutagalung	PORTUGAL João Espírito Santo Araújo	SWITZERLAND Boris Etter	UNITED STATES Dan Bova

MAXIM KOREA는 글로벌 남상지 MAXIM의 공식 한국어판입니다. MAXIM 상표의 소유자인 미국의 알파미디어그룹은 한국의 ㈜Y Media에 독점적 상표사용권을 부여했습니다. ㈜Y Media는 국내에서 MAXIM 한국어판을 출판, 배포, 판매하고 웹사이트와 모바일 서비스를 운영할 독점권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알파미디어 그룹, ㈜Y Media 외에 어떤 제3자도 MAXIM의 트레이드마크나 로고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지의 글과 사진은 알파미디어 그룹과 ㈜Y Media에 귀속하므로 허락 없이 쓸 수 없습니다.

© 2013 Alpha Media Publishing, Inc. The name "MAXIM" and the MAXIM logo are registered trademarks of Alpha Media Group Inc., which trademarks have been licensed to Y Media Inc. MAXIM is a registered trademark owned by Alpha Media Group Inc. All rights reserved. The United States edition of Maxim is published monthly by Alpha Media Publishing, Inc. 415 Madison Avenue, New York, NY 10017. For international publishing or licensing inquiries: maxmworld@maxim.com



premium tobacco OFFROAD SNUS



경고 :
흡연은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 그래도
피우시겠습니까?
담배 연기에는 발암성 물질인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이
들어있습니다.
금연상담전화 1544-9030

SNUS
OFFROAD
WHITE PORTION

EXCITING
OFFROAD



경고 : 흡연은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 그래도 피우시겠습니까?
담배 연기에는 발암성 물질인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이 들어있습니다. 금연상담전화 1544-9030

OFFROAD RED WHITE
니코틴 / 4.40mg

Letter From MAXIM



Highfive of Teenager의 위업.

영원한 오빠

요즘은 방송국 가요 프로그램에서 옛날처럼 '순위제'를 다시 한다고 들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아무리 훌륭한 기교와 완벽한 안무를 자랑하고, 이에 호응하는 열성 팬들이 뿔뿔 뿔쳐 그 가수를 1등 자리에 올려놨다고 해서 그에게 선뜻 가왕(歌王)이란 호칭을 붙일 수 있을까? 대한민국 대중음악사에 딱 한 사람 있다. 바로 조용필이다. 어쩌면 가왕이란 호칭은 조용필이란 이름 석 자에 비하면 그리 대단해 보이지도 않는다.

가수의 존재감은 히트곡으로 증명된다. '허공', '킬리만자로의 표범', '꿈', '바람의 노래', '모나리자', '단발머리', '여행을 떠나요', '그 겨울의 찻집'... 그가 데뷔할 때 태어나지도 않았던 나도, 당신도 이 정도 히트곡은 즐줄이 될 정도로 그는 대스타다. 그가 없었다면 한국 가수가 '월드 스타'라는 말을 듣기까지 더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을 거고, 우리의 어머니, 이모들에게 용필이 오빠가 없었다면 그들의 청춘은 무척 지루했을 거다. 2013년 4월까지 총 19장의 정규 음반을 낸 가왕 조용필. 콘서트 실황을 담은 앨범과 베스트 음반까지 하면 51개의 음반이 그의 이름을 달고 나와 있다. 나는 최근 조용필이 10년만에 내놓은 정규 음반 <Hello> 중 미리 공개된 'Bounce'란 곡을 듣고 무릎을 쳤다. 세상에! 정말 놀랍고, 신선하다! 요즘 가요처럼 숨가쁘게 빠른 것이 아니라 적당히 기분 좋은 빠르기의 비트가 신나고, 심플하면서 흥겨운 기타리프는 귀가에 찰랑찰랑 부딪히며 상쾌하게 부서진다. '단발머리' 때처럼 바삭바삭한 신디사이저 사운드도 한뼘한다. 거기에 조용필 특유의 보컬이 리드미컬하게 얹히는데, 가사는 또 어쩌나 설레고 상큼한지 웃음이 난다.

"그대가 돌아서면 두 눈이 마주칠까 / 심장이 Bounce Bounce 두근대 들릴까 봐 겁나 / 한참을 망설이다 용기를 내 / 밤새워 준비한 순애보 고백해도 될까(...)/ Baby You're my trampoline / You make me Bounce Bounce(...)"

이게 진정, 곧 할머니가 될 나의 모친보다 다섯 살이나 많은 아저씨의 음악이란 말인가! '심장이 바운스 바운스'라니 이 얼마나 풋풋한가! 조용필 팬들은 정말 행복하겠다. 늘 누구보다 멋진 오빠를 변함없이 콘서트와 음반으로 만나 '바운스 바운스' 할 수 있으니 말이다. TV 출연 없이 그는 지금까지 매년 콘서트를 짝짝 채워왔다. 이 가왕 나으리는 스케일이 다르다.

만약 당신이 데뷔 때부터 지금까지 쪽 45년간 최고란 찬사를 들어온 사람이라면 '도전'보다는 '자기관리'에 더 무게를 둘 것이다. 그러나 1968년 데뷔 때부터 지금까지 '최고'라는 찬사를 받아온 조용필은 끊임없이 '도전과 혁신'을 거듭해왔다. 그에게 '철저한 자기관리'란 곧 '철저히 새로운 도전'이다.

이번 5월호 MAXIM의 ICON은 내 또래 세대를 완벽하게 사로잡은 '원조 아이돌' HOT의 장우혁이다. 중학교 시절, 짝이 팬과 HOT 팬이 서로 교실 안 VCR에 자기 오빠들 뮤직비디오 튼다고 다투다가 1반부터 8반까지 머리끄덩이를 잡고 싸우던 구경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장우혁의 외모는 지금이나 그때나 출중하고, "너 물래물래물래 다른 여자들과 비교 비교했자~!" 할 때의 춤 솜씨도 여전히 훌륭하다. 카리스마도 그대로다.

역시 '그룹에서 카리스마를 맡고 있는 우혁이'답다. 거기에 세월이 그에게 준 현명함, 깊이, 책임감, 생각들이 더해졌다.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최고의 아이돌에서 이제 자기 이름을 걸고 많은 사람들을 책임지는 '어른'이 되기까지 얼마나 치열하게 자신을 관리하고, 또 도전해왔는지를 엿볼 수 있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오빠. 동료의 교통사고로 가수 생활은 접었지만 호기심, 끊임없는 도전 그리고 철저한 자기관리로 긴 시간 동안 우리 옆에 있어준 'DJ 쿨' 구준엽도 만날 수 있다. (형광봉 어딴냐? 밥밥 디라래)

남자의 얼굴은 그가 살아온 인생을 그대로 보여준다. 건강하고 여전히 멋진, 그래서 더 반가운 그들의 얼굴을 보니 나이 먹는 게 그리 두렵지 않다. 우리 독자 여러분도 한 살 한 살 나이 먹어가며 더 멋진 남자의 얼굴을 갖게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5월의 잡지를 세상에 내놓는다.

MAXIM Number

이달 잡지를 만들어 우리가 발견한 숫자

15,000

화보(p.106~) 촬영을 위해 엄청난 다리에 끼운 죽부인의 가격(원).

1,500,000

그 죽부인이 경매에 나왔을 때 낙찰 예상 가격/모델 미포함(원).

24

걸스데이 헤리와 연애를 공개하며 만인을 정신적 해리 상태에 빠뜨린 토니안 때문에 분노한 마케팅 팀장이 헤리의 작찍 플라로이드 사진을 바라보며 마신 맥주캔 수(개).

12

자독한 볼 감기에 걸린 편집장이 감기 바이러스를 친히 나눠주어 골골대고 있는 MAXIM 스태프 수(명).



울 임마가 워든 주변 사람과 나누라고 가르쳐냈거든.

2013년 5월 편집장

이영희

사족: 그리고 보니 한 번에 꼭 하나씩은 있던 '우혁이 미누리'들도 이번 MAXIM을 보고 2주만에 마음 설레는 소녀로 돌아갔겠군. MAXIM 표지 서로 붙여가겠다고 머리채 잡고 싸우지 말고 두어 권씩 사세요.



ANTI-WRINKLE TREATMENT ESSENCE

Take care of men's wrinkled skin with this one drop!

M-CARE MASSAGER
Wrinkle Care Total Solution



www.mdock.co.kr



RELIEF GIFT SET

Moisture/Special edition



RELIEF TONIC

Feel the freshness with zero-stress relief tonic-



RELIEF FIRST PEELING GEL

Start with relief first peeling gel to remove dead skin cells of men's face.

Beyond Perfect Man's Skin!

Only Man's Cosmetic Brand

RELIEF ESSENCE EMULSION

Rich moisturization of essence — no more oily skin with silky finish!



RELIEF ESSENTIAL MASK

Amazing effect from botanical ingredients only for men

RELIEF FOAM CLEANSING

Foam cleanser best suited for man's skin type — feel the freshness.



MEN'S B.B CREAM

Present yourself with confidence by naturally covering widened pores and blemishes. (Triple function product)



국내최초 남성전문
피부타입별 화장품
엠도씨

HOME PAGE
www.mdock.co.kr

ONLINE SHOPPING MALL / 온라인 쇼핑몰
www.mdockkorea.com

M°C
M d o c



Just Scan!

This Month's Hot Click!



Seoul Motor Show 2013 Exclusive Pictures

제9회 '2013 서울모터쇼'가 지난 4월 7일 일산 킨텍스에서 막을 내렸다. 친환경을 주제로 다양한 신차와 콘셉트 카를 선보인 이번 전시는 역대 최대 규모를 자랑했다. 거기에 레이싱 모델들의 미모 또한 역대 급이었으니 행사장에 도착한 스타프들이 정신 줄을 놓은 것도 당연지사. 그중에서도 유독 분능에 충실하던 한 남자 스타프는 그녀들의 표정 변화를 나노 단위로 포착하려는 듯 연신 셔터를 눌러대다 드넓은 전시장에서 홀로 미아가 되기도 했다고. "동료는 잃었으나 아랫도리는 풍요로워졌다"는 게 구조 당시 그가 내뱉은 한마디였다. 미아가 되거나 탈진할 염려 없이 집에서 편안하게 HD급 모터쇼를 감상하고 싶다고? MAXIM 홈페이지 HD 직찍 기사판을 찾아오라! 오직 MAXIM에서만 제공하는 핫 보디 레이싱걸 화보가 팔딱거리며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그것도 고화질로!

홈페이지의 'HD 직찍' 메뉴를 클릭하면 레이싱 걸이 내 눈앞에!
www.maximkorea.net



MAXIM ONLINE SURVEY

MAXIM 독자들은 마음에 드는 여자를 만나면 이런 구애 행동을 한다!



1위
말이 많고 웃기려 애쓴다. 미친 농치럼. (135표 31.5%)



2위
아무 말 없이 쳐다본다. 툴.어.지.게. (113표 26.3%)



3위
"맘에 든다"고 남자답게 말한다. (97표 22.6%)



4위
그녀 팔, 다리를 자연스레 터치. (41표 9.6%)

여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MAXIM 독자가 가장 많이 하는 행동은 역시 '이빨 털기'였다. 개그맨들이 미녀 와이프를 얻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다! 소개팅에서 만난 그녀가 수지를 달았다면, 알나가 몽땅 빠질 각오로 영혼을 담아 이빨을 털자. MAXIM 홈페이지에선 재미있고 유용한 설문 조사가 항상 대기 중이다. 지금 홈페이지를 방문해 당신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자!

총 투표자: 429명 / 투표 기간: 2013년 4월 9일 ~ 진행중

MAXIM 모바일 페이지 오픈!

MAXIM 모바일 페이지가 오픈했다. MISS MAXIM 투표, 실시간 핫이슈, 매거진 기사까지! 휴대폰만 있으면 지하철에서도 버스에서도 당신의 모바일 기기에 최적화된 MAXIM 콘텐츠를 마음껏 즐길 수 있다. MAXIM 모바일 페이지에 접속하고 싶다면 지금 당장 상단의 QR 코드를 스캔하시라!



This Month's Hot Scan

지난 호에서 MAXIM 독자들이 가장 많이 스캔한 QR 코드는 사유리 화보 속에 있었다. 수천 명의 독자가 화보에서 못다 보여준 그녀의 4차원 섹시미를 영상으로 확인했다. 이번 달 MAXIM 기사 곳곳에 박힌 QR 코드도 놓치지 마시길. 에디터들의 바보짓이 라이프로 펼쳐지고 섹시한 그녀들이 살아 움직인다고!



This Month's Hottest Request

강예빈, 배소은, 이에빈, 한그림, 고두림 그리고 지주연까지... 당신이 모델을 추천하면 MAXIM이 접수한다. 이번 달 섭외 요청 기사판에 접수된 모델은 개그맨 장도연이었다. 지금까지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그녀의 여성미를 94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자!

홈페이지 좌측 상단의 '섭외 요청 기사판' 배너를 클릭하고 MAXIM에서 만나고 싶은 모델을 직접 추천하자!
www.maximkorea.net





Swiss made
Sapphire glass
Vertical cubic dial
ZASPERO Cal.3540D.Z1

VERTECALE

Classico Collezione 301

공식수입원 : (주)자스페로 코리아 1688-8907

- 적영점(여의도) 02)783-8910
- 롯데백화점(관악점) 02)842-7706
- 롯데백화점(중동점) 032)350-7559
- 롯데백화점(창원점) 055)279-3192
- 신세계백화점(센텀점) 051)745-2297
- AK백화점(평택점) 031)646-6139
- NC백화점(분당점) 031)780-3114
- 대동백화점(창원점) 055)212-8383
- 테크노마트(신도림) 02)3398-7527
- 두산타워(동대문) 02)3398-7527
- 타임센터(은평점) 02)350-8471
- 백화점(부천점) 032)662-0686
- 백화점(인천점) 031)413-7656
- 제이플러스(천안점) 041)564-5465
- 진보석(순천점) 061)725-3849
- 삼성사(대구점) 053)422-3002
- 조이퀵(포항점) 054)613-1170
- 중문면세점(제주점) 064)780-7665
- 롯데백화점(노원점) 02)950-2164
- 롯데백화점(광주점) 062)221-1573
- 롯데백화점(서면점) 051)810-4087
- 신세계백화점(천안점) 041)640-5496
- AK백화점(원주점) 033)811-5535
- NC백화점(부산점) 051)509-7221
- e-watch(영등포) 02)771-7033
- 두산타워2(동대문) 02)3398-5528
- 타임타워(신도림) 02)2111-1171
- 가든파이버(송파점) 02)2157-5000
- Watch F1(인천점) 032)501-7015
- 에스케이(대전점) 042)280-9117
- 타임뱅크(광주점) 062)410-0110
- 인터폴코롬(양산점) 055)911-7111
- 해피타임(대구점) 053)428-3086
- 타임북(부산점) 051)919-4704
- 롯데백화점(본점) 02)772-3908
- 롯데백화점(미아점) 02)944-2130
- 롯데백화점(울산점) 052)960-2500
- 롯데백화점(광복점) 051)678-3155
- 신세계백화점(광주점) 062)360-1934
- 현대백화점(부천점) 032)623-2163
- NC백화점(해운대) 051)709-5741
- 미금사(중랑점) 02)434-4880
- 헬로우APM(동대문) 02)6388-2927
- 디큐브시티(구로점) 02)2211-0149
- 와와치(강남점) 02)537-8977
- 타임런(인천점) 070)7516-4545
- 타임리치(대전점) 042)482-2328
- 골드케니언(광주점) 062)714-1121
- 타임프라자(구미점) 054)455-2410
- 교보문고(대구점) 053)425-9961
- 블링(부산점) 051)245-7965
- 롯데백화점(장성점) 02)2143-1922
- 롯데백화점(안양점) 031)463-2185
- 롯데백화점(천주점) 043)219-9108
- 롯데백화점(센텀시티점) 051)730-3198
- AK백화점(구로점) 02)839-5128
- 현대백화점(광주점) 062)510-7171
- 갤러리아백화점(수원점) 031)548-8996
- 정우상사(중로점) 02)2272-2688
- 멀리오레(동대문) 02)3393-1062
- W MALL(구로점) 02)2081-0921
- 티파니(일산점) 031)931-5300
- 엘가(구미점) 054)451-6940
- 공주나래(대구점) 053)256-0975
- 엘가(부산점) 070)7569-5766
- 롯데백화점(영등포) 02)2164-6191
- 롯데백화점(분당점) 031)738-2140
- 롯데백화점(무정점) 063)289-3191
- 신세계백화점(진주점) 063)430-1486
- 신세계백화점(의정부) 031)8082-0344
- AK백화점(분당점) 031)781-8194
- NC백화점(강서점) 02)2667-9514
- 대구백화점(대구점) 053)422-3191
- 이타임월드(신촌점) 02)313-4108
- 굿모닝시티(동대문) 02)2118-8075
- 테크노마트(강변점) 02)3424-0793
- 뉴코아아울렛(부천점) 032)624-8337
- 사론주얼리(안양점) 031)463-9788
- 보보스와치(대전점) 043)235-1510
- 골드북(광주점) 062)410-0137
- 탁(군산점) 063)443-0090
- 대백프라자(대구점) 053)253-7133
- 롯데백화점(건대점) 02)2218-2500
- 롯데백화점(무정점) 032)452-2146
- 롯데백화점(대구점) 053)660-3126
- 신세계백화점(의정부) 031)8082-0344
- AK백화점(수원점) 031)240-2199
- NC백화점(불광점) 02)350-8478
- 동아백화점(대구점) 053)780-1701
- 해피타임(홍신점) 02)2012-0625
- 원타임(왕십리) 02)2200-1355
- 원타임(노원점) 070)4136-5090
- 북북(부천점) 032)662-2026
- 시계상자(안양점) 031)441-0158
- 북와치(창주점) 043)223-1333
- 서울금방(광주점) 062)952-7720
- 엘가(대구점) 053)255-6940
- 타임피어(포항점) 054)253-8855

Letters

푸르른 5월의 고민 상담!

고민 없는 가정의 달 되시기를. 근데 뭐? 어린이 날이 일요일이라고?!



머리가 아니면 면도기를 달라

서른 셋 결혼을 앞둔 수컷이요. 이것저것 아무런 답이 없는 탈모 걱정에 대해 MAXIMI 확실히 답을 줬으면 하요. 아무런 방법이 없다면 차라리 없다고 하고 면도기라도 하나 사 주시오. 머리 밀고 해탈의 경지에 이르겠소. (벼대들게, 모바일 사연)



에디터 유승민 ➔ 내 애긴 줄 알았소. 자문자답 하는 것 같아 기분이 몹시 묘하오만, 당신에게 묻고 싶소. "탈모 현질 어디까지 해 봤니?" 20대부터 시작된 탈모로 인해 그간 대가리 털에 쏟아 부은 돈과 노력을 환산해보니 벤츠 SLK 한 대를 처발랐더이다. 하지만 탈모는 계속 진행 중이요. "야, 내가 벤츠를 모는 민대가리 문어인 게 좋냐, 아니면 지금 같은 훈남인 게 좋냐" 라고 후배 여직원에게 물었더니 자기는 그냥 키 큰 남자가 좋다고 하더이다. 이런 빌어먹을 동문서답에 격분한 나는 다음 달부터 탈모인을 위한 본격 독모 섹션 기사를 신설키로 했소. 내가 썼던 헛돈과 헛지랄을 독자들은 반복하지 않게 내 생생한 10년간의 모발 사수기를 풀 생각이요.

MAXIM 보는 미혼으로 살려나

하루는 남성잡지 가판대로 달려가 MAXIM 을 집어 들었는데 옆에서 어린 아들을 안은 아빠가 MAXIM을 보고 있더군요. 그런데 갑자기 아내가 나타나자 황급히 잡지를 내려놓고 발길을 재촉하는 걸 보고 웃음이 났습니다. 결혼, 꼭 해야 할까요? MAXIM도 못 보는데.

(료잔, 이메일 사연)



공각지가 남아나질 않아

제게는 사귀지 2년 된 여친이 있습니다. 분명 처음에는 예쁜 얼굴이라 생각해서 사귀기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안 예뻐 보이더군요. 심지어 제 여친보다 지나가는 여자 10명 중 9명이 더 예뻐 보입니다. 정 때기도 쉽지 않네요. 잘 헤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0101XXXX3240, 모바일 사연)



편집장 ➔ 미래의 아내가 MAXIM을 못 보게 할까 걱정하시라고요. 얼마 전에 어떤 여성 독자분은 자기 임신부인데 MAXIM 보고 태교하면서, 꼭 미스맥심 같은 딸 낳을 거라는 사연을 보내셨지요 (20년 뒤에 뵙겠습니다). 요즘 여성분들 MAXIM 많이 봅니다. 나중에 마누라가 구박하면 이렇게 반박하세요. "난 너 밥 먹고 똥 싸는 거 안 말리잖아!" MAXIM은 남자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잖아요.



에디터 손안나 ➔ 원래 남녀사이의 애정 감정은 2년이 한계라고 합니다. 게다가 여친이 안 예쁘다면서요. 처음 만나서 좋을 때야 눈에 고영옥 낮췄던만큼 두꺼운 공각지가 씌여 있으니 여친이 면전에서 코를 파도 예뻐 보이기 마련이지요. 정말 헤어지고 싶으면 한 달 동안 연락을 끊어 보세요. 아마 그녀도 스스로 마음을 정리할 겁니다. 하지만 사람 마음 모르는 법. 먼저 불잡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이달의 스페셜 (하계 소름 돋는)사연

에디터의 사생활이 궁금해!



왜 MAXIM은 폐북을 안 하나요? 빨리 MAXIMI랑 페친 맺고 싶어요! 특히 제가 제일 좋아하는 김희성 에디터에게 직접 폐북에서 메시지도 보내고 싶고, 그녀가 올리는 모든 사진과 일거수일투족을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MAXIM도 공식 폐북 열어서 에디터들 구경 좀 시켜주세요. 다 페친 맺고, 흥대에서 같이 놀아요!

(계부랄티, 모바일 사연)

알 수도 있는 사람



HeeSeong Kim
함께 아는 친구 11명



편집장 ➔ '일거수일투족'이라는 단어와 '에디터를 구경 시켜달라'는 표현에서 어쩐지 등골이 서늘해지네요. (독자사연 담당 에디터님, 이거 남량특집이 너무 이른 거 아닙니까?) MAXIM 에디터들도 개별적으로 폐북을 하긴 합니다. 자들 멋대로 싸지르고 있으니 잘 검색해보시면 나옵니다. 참고로 MAXIM 편집장인 저도 김희성 팀장과 페친이 아닙니다. 우린 서로가 폐북을 종종 하는 걸 알면서, 그리고 서로의 '추천 친구' 목록에 상대가 뜬다는 걸 이미 약 1년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둘 다 먼저 친구맺기를 청하지 않았죠. 나 지금 김팀장이랑 밀당 중인 거?



에디터 김희성 ➔ 요즘 회사생활 가이드 기사를 쓰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상사와는 절대로 SNS 친구를 맺지 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무리 친한 상사라도 회사 밖에서 원피스 찢고 머리 풀어헤친 사진을 보여줄 순 없는 법이지요. 아, 물론 제가 그러다는 얘기는 아니구요...

SUPERSTARI★

슈퍼스타아이

365 on SALE

하루 하루 바뀌는
유행과 스타일에
지친 남자들에게
언제나 파격적인 가격과
퀄리티 높은 옷을 위한 공간

www.superstari.co.kr

맥심을 통해서만 전해지는 10% 할인혜택
E00E-60B3-61BE-69C4

슈퍼스타아이 홈페이지 방문 후 쿠폰번호를 입력하면
10% 할인된 가격으로 전상품 이용가능합니다





순애보를 알아 주세요

작년 초부터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혼자 사는 그녀 집에 일주일에 3~4번씩 가서 청소도 해 주고, 먹고 싶은 것도 사다 주며, 부르면 바로 달려가며 지낸 게 벌써 1년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남자 만날 생각이 없다고 하더군요. 혹시나 자기를 좋아해서 그러는 거면 당장 그만 두라는데... 이런 저, 짝사랑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25년 솔로, 모바일 사연)

에디터 김희성 ♡ 실버스타인의 동화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생각나네요. 나무는 자신이 사랑하는 소년에게 그의 모든 것을 내어줍니다.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사과를 따서 팔라고 하고 집이 필요하다고 하면 가지를 베어서 집을 지으라고 합니다. 결국 나무는 밀동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 동화의 결말이 원치 아십니까?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돌아온 소년에게 나무는 "너에게 줄 것이 아무 것도 없다"고 미안해하며 남은 등걸마저도 내어줍니다. 이래도 일주일에 3~4번씩이나 그녀의 집에 들락거리며 호경 노릇하시겠습니까?

전역하자마자 전쟁이라니!

본인은 인제사 예비군 1년차에 속하는 대한민국의 젊은 장정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북에 있는 아들돼지가 맛이 제대로 갖는지 전쟁이니 뭐니, 서울 불바다니 말이 많아서 걱정입니다. 여친 앞에서는 "전쟁 안 난다" 라면서 썬 척 하고는 있는데 불안해서 잠이 안 올 지경입니다. 이 불안을 어떻게 떨쳐야 하겠소? <Jin Young Ko, 이메일 사연>



편집부를 당황케 한 이달의 무리수 사연!

본인은 넘치는 정력을 주체할 수 없어서 걱정입니다. 가끔 시도 때도 없이 장소를 불문하고 불끈불끈 거리는 존슨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모르겠소. 이 불쌍한 영혼에게 존슨을 다스릴 수 있는 극약처방을 좀 내려주시오. <정력왕, 모바일 사연>



에디터 조용재 ♡ 저도 예비역으로서 마음 졸이며 한반도 미사일 페스티벌을 우려하던 참이었는데 결국 안 날아오네요. 무수단인지 견지단인지 뭐 까짓거 떨어져 봤자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냥 마음 편히 가지세요. 불안에 떠는 여친도 위로해 줄 겸 오늘은 하반신의 조트리어드 미사일을 폭발할 듯이 가동해 여친을 불바다로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에디터 유승민 ♡ 마감 동안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사연이었습니다. 대체 남의 존슨을 어떻게 걱정해줘야 하나. 조루도 아니고, 발기부전도 아닌 것이 내 손으로 직접 다스려 주자니 이상하고... 그래서 저희가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고민은 MAXIM에게, 곤혹은 의사에게. 그냥 가까운 비뇨기과를 찾아주세요.

독자 사연 응모

가정의 달 맞이 독자사연 접수!

응모 방법

▶우편 접수

(121-841)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446-36 MAXIM 빌딩 4~6층 편집부

▶이메일 접수

reader@maximkorea.net

▶QR 코드 접수

독자 사연 페이지의 QR 코드를 스캔하고 댓글을 달아라.

▶방문 접수



시린 바람이 시원하고 향긋하게 코 끝을 자극하는 5월, 가정의 달이니만큼 무리하지 말고 정공법으로 사연을 투척하자. 브레이크 댄스도, 줄타기도, 잠입도 필요없다. 정성스레 고이 적은 사연만 있다면야 반갑게 맞이하지 않을 에디터가 어디 있겠는가. 비타민 음료를 좋아하긴 하지만 마음만으로도 충분하니까 부담 갖지 말자. 진짜로! 정말로! 진심으로! 괜찮다니까 그러네. 마음만 받을게요. 마음만 어하~, 거참 그냥 넣어두시라니까요... 이렇게 너무 사랑하는 것도 예의는 아니겠지?

이달의 독자 선물

세븐스타이크 여행용 미니 3중세트



→ 이름 그대로 피지를 류현진 삼진 잡듯 스트라이크로 잡아 주는 엠도씨의 여행용 팩키지다. 폼 클렌징, 토너, 세럼의 3중으로 구성된

이 패키지는 남성의 피부타입에 맞추어 묵은 각질과 노폐물을 제거해 주고 각종 보습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세안 후에도 오랫동안 촉촉함을 유지시켜 준다.

GIORGIO FEDON
1919



HAWK EYE

조르지오 페돈 | (주)거노코퍼레이션 | www.konocorp.com | www.giorgiofedon.co.kr | 02.3397.7100

[직영점] 롯데백화점 분당 (031-738-2140) 롯데백화점 미아 (02-944-2130) 대구백화점 프라자 (053-253-7133) 하이힐 (02-2136-9743)



Dear. Readers

장도연의 독자 고민 해결소!

무척 혼란스러워 했지만, 끝까지 성심성의껏 답해준 그녀에게 감사 인사 드립니다.

Q. 사권 지 얼마 안된 여자친구와 소개팅 어플에서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휴대폰으로 이상형 배틀을 하는데, 제 여친과 연결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움찔해서 살펴보니 프로필에 '같이 놀 남자 구함'이라고 써져 있더군요. 이거 어떡하죠? 열받아 죽겠네요!

(강충경충, 이메일 사연)

A. 자기도 그렇게 깨끗한 입장은 아닌 것 같은데 말이지... 너무 자기 화난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마친가지않아요. 이왕 이렇게 된 거 관계를 정리하는 것도 뭐... 연애 경험이 없어서 무슨 얘기를 해줘야할지 모르겠네(웃음).

Q. 오래 사권 여친이랑 헤어졌습니다. 권태기가 왔대요. 잡고 싶은 굴뚝같은 마음을 숨기고 몰한 척 알았다고 얘기했지만 더 잡을 걸 하고 후회가 되네요.

(w, 편지 사연)

A. 정말로 그랬을까요? 여자 마음은 여자인 나도 알 수가 없네요. 하지만 누구나 그런 말을 들으면 서운할 것 같아요. 헤어져도 아쉬울 게 없을 정도로 말이지요. 게다가 이제 와서 뭘 어쩌겠어... 내가 물어보고 싶네.

Q. 직장 여자 동료와 얘기를 하다가 처음으로 정색하고 화를 냈소. 평소 같으면 웃고 넘어갔을 텐데 그날따라 화를 버럭 냈다요. 그후 아예 빼졌는지 말을 걸어도 대답을 안 하요. 대체 어떻게 풀어야 하요?

(김계장나오리, 모바일 사연)

A. 회사 다니기 힘들시겠네요. 저는 말다툼이나 사소한 일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졌을 때, 텀이 길면 길어질수록 회복이 힘들어지더라고요. 지금이라도 빨리 얘기하는 게 좋아요. 커피라도 사 주면서요. 여자는 단순해서 "나도 미안하다"고 할 거예요.



독자 사연
여기에
남겨





ALL ABOUT YOUR DIET, WORLDGYM

당신을 위한 다이어트의 모든 것,
지금 월드짐에서 시작하세요!

SINCE 1976

WORLD GYM™

www.asiaworldgym.com

일산 본점 031-932-7010 여의도점 02-782-1003 교대점 02-593-7766 강남점 02-2052-0096 논현점 02-543-5800
개포점 02-3495-0200 부산 연산점 051-758-5554 (광고점 세종점 오픈)

Circus M

A MAXIM VIEW OF
THE WORLD

Ashley Benson

5월의 볼비는 봄꽃뿐 아니라 금발 섹시녀 애슐리
벤슨도 피어나게 했다. 영화 <스프링 브레이커스>
에서 섹시 여간도를 연기한 바로 그 미녀가 스스로를
봄의 여인이라 주장하는 이유를 들어볼까?

aximus



PHOTOGRAPH: CHRIS FORTUNA / GIGI: LILA BABO / GLUE MGMT: HARUMI KEN / YURIKO BONDIES / USING MAC COOPERATIONS: AGENT PROVOCATEUR / ONGOSSAMER, VICTORIA'S SECRET



장난치기 좋은 계절

“나는 만우절에 종종 매니저를 골탕먹이곤 한다. 작년엔 그와 그의 애완견 ‘로켓’이 유명 애완견 잡지의 모델로 선발됐다고 뺨을 쳤다. 매니저는 나에게 완전히 속아서 ‘나랑 로켓이랑 잡지 표지모델 됐다’고 온 회사에 기쁨의 이메일을 뿌렸다.”

낭만 넘치는 봄비

“이 계절의 봄비는 정말 로맨틱하다. 하지만 내가 사는 L.A.엔 봄비가 자주 내리지 않는다. 그래서 우습게도 여기 사람들은 비가 오는 날 어떻게 운전을 해야하는지 까맣게 잊고 살다가 비가 오면 당황하곤 한다. 다들 진정하라고 진정!”

불방학의 추억

“난 다른 대학생들처럼 광란의 불방학을 보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스프링 브레이커스> 촬영 중에 간접적으로 체험한 게 전부인데, 그것만으로도 난 충분하다. 아주 미친 듯이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거든.”

적절한 수영복 예절

“해변의 계절은 여름이 아니라 봄이다! 가끔 해변에서 타이트한 수영복을 입은 남자를 비난하는 여자들도 있는데, 난 이해할 수 없다. 몸매에 자신이 있다면,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입고 싶다는데 뭐가 문제인가? 남성 여러분, 타이트한 소형 수영복 대환영이에요!”

판타스틱 MAXIM 벙커

단 하루를 살더라도 간지나게
BY 김희성



1 지하 PC방

전쟁이 났다고 슬퍼하지 마라. 이젠 게임페인이 구국영웅이 될 일상일대의 기회다. 벙커 안 PC방은 당신이 키보드를 미친사람처럼 두드리고, 마우스를 광글하는 운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꾸는 일종의 발전소로 설계했다. 당신의 레벨이 올라갈 때마다 벙커 안의 에너지가 빠져간다. 그리고 이것은 곧 전체의 에너지원이 된다. 당신이 바로 애국자!

2 단체복

혹시나 북한군이 벙커 입구를 발견해 아래로 내려올 때를 대비해 감정은 얼굴이 그려진 티셔츠를 하나씩 입고 있다. 여자는 리폼해서 입을 걸 강추.

3 MAXIM PARTY

PC방 죽돌이가 발생시킨 에너지 중 일부는 클럽 죽순이의 혼을 쏙 빼놓는 사이키 조명에 쓰인다. 전쟁이 나도 MAXIM PARTY는 계속된다! 거기서 토끼춤을 추든 할렘 셰이크를 추든 그건 당신 마음!

4 랜덤굴

파티가 지루해지면 통로로 기어 나가보자. 숙주처럼 사방으로 뻗어 있는 지하로 기어가다가 랜덤으로 이성을 만날 수 있다. 축이 좋으면 단번에 짝을 만날 거고,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굴로 이동하면 된다. 이동하다 재수가 좋으면 합체 상태의 남자를 맞닥뜨릴 수도 있다. 눈치 봐서 당신도 은근슬쩍 끼든지...

5 호프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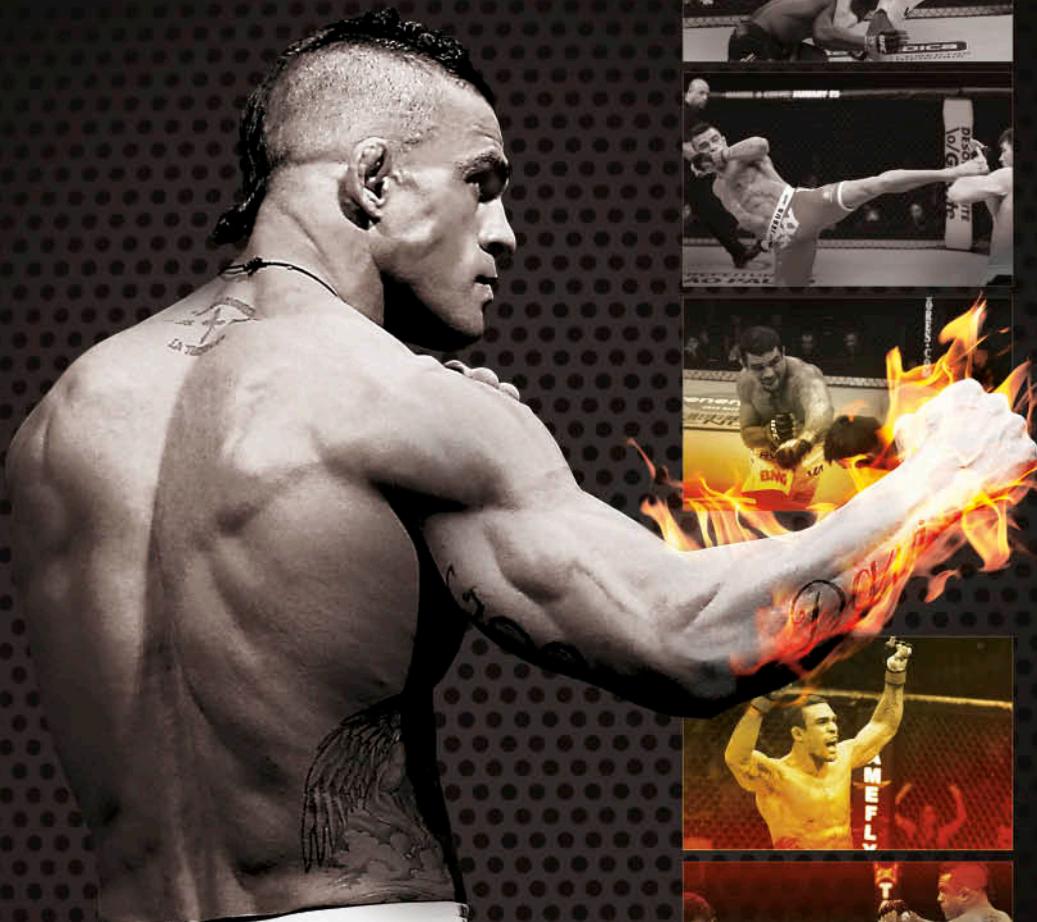
빨대만 꽂으면 술이 폭포처럼 팔팔팔 쏟아져 나오도록 땅 전체를 관통하는 관을 만들어냈다. 화수분처럼 마셔도 마셔도 줄지 않으니 여기가 바로 무릉도원이야. 술자리 왕게임 벌칙으로 '지상에 올라갔다 오기가 어떨까.'

6 지하 사파리

생화학 물질 발사와 방사능 물질 발사로 잉태된 기형 동식물을 한데 모아 만든 사파리는 벙커 속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로 딱이다. 그리고 벙커 입구에 수상한 기척이 느껴진다면 한 놈씩 지상으로 빵야빵야 발사!



그의 도전은 계속된다. 비토 벨포트



UFC

벨포트 VS 락홀드

5월 19일 일요일 오전 9시 50분

SUPER ACTION

Circus Maximus

War Economy

전쟁이 내 재산에 미치는 영향

내 피 같은 돈!!



한반도 전쟁 시뮬레이션



Q. 피난 갔다 돌아왔는데 우리 집이 흔적도 없이 무너져 있으면 어떡해?

A. 노숙인이 되신 걸 환영합니다.

전쟁 때 폭격을 맞아 당신의 집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건물이 존재해야 건물 소유주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당신이 건물 주인이라는 문서를 가지고 있어봤자 건물이 없으면 이를 증명할 길이 없다. 보험을 들어놨도 소용없다. 전쟁 중 건물의 손실에 대한 보험 상품은 없기 때문이다. 아주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다. 운 좋게도 당신 소유의 건물이 있는 지역을 정부가 재난 구역으로 선포하거나 전시에 건물을 사용했다면 손실된 건물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Q. 마지막까지 살아남으면 보험금은 두둑히 챙길 수 있겠나?

A. 과연 그게 니 소원대로 될까?

그래도 우리의 몸뚱이만큼 소중한 게 또 어디 있으리요. 전쟁 중에 "아예"하면 보험금은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지? 여기서 꼭 알아야 할 사실이 보험업법에 따르면 전쟁과 천재지변, 폭동 등 예측 불가능한 사태로 피해 규모를 가능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는 사안을 보험사의 면책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운 좋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도 있지만 못 받을 각오도 해야 한다는 말이다. 전시에 쌀 살 돈을 마련하려고 일부러 손발을 폭탄 맞은 것처럼 꾸뚀다 X될 수도 있다는 거다. 아, 피 같은 내 돈!

Q. 내 예금 다 날아가게 생겼네. 그냥 평평 쓸 걸...

A. 은행을 물로 보지 마!

전쟁에 금융업이 마비되는 사태에 대비해 은행은 별도의 전산 자료를 백업해둔다. 어디에 보관하는지는 비공개라 관계자가 아닌 이상 아무도 모른다. 전쟁으로 서고에 불이 나면 중요한 역사 자료가 다 타버릴 까봐 지역 곳곳에 사교(史庫)를 지어 사료를 보관하던 조선 시대처럼, 금융 업무가 마비되지 않도록 요새를 만들어놓은 거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예금해둔 돈을 못 받을 일은 없을 거라고 하지만, 그 비밀 기지들마저 다 폭삭 망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니들이 줄 거야? 응?

Q. 내 애미는 군수 물자가 되나?

A. SUV라면 망한 거야.

전쟁이 나면 예비군 동원령만 내리는 게 아니다. 드디어 마련한 당신의 새 차가 국가의 부름을 받을 수도 있다. 전쟁이 나면 차도 징발 대상이 되는데, 모든 차종은 아니고 개인 소유의 SUV나 각종 화물차, 특수차 그리고 고장날 우려가 적은 신차가 타깃이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차량 구매 후 나라에서 발송한 '중점 관리 대상 물자 지정 및 임무 고지서'를 받은 사람에 한해서 그렇다. 전시에 뚜벅이가 되고 싶지 않으면 SUV는 피하는 게 상책. 아직 흡집 한 번 안 난 차를 총알받이가 되게 둘 순 없잖아?

Q. 전쟁이 나도 계속 내 땅을 인정해 줄까?

A. 토지는 인간을 배신하지 않는다.

땅은 건물보다 백 만 배 낫다. 땅은 중병 서류만 있으면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거든. 북한이 은행이나 국가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를 미사일로 날려먹어도 당신 땅문서만 갖고 있으면 된다는 거다. 만약 갑작스런 공습에 땅문서를 미쳐 챙겨 나오지 못했거나 피난 가는 도중 잃어버렸다면 땅문서(등기권리증) 대신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면 당신 소유지임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니 요즘 같은 분위기에 상가나 주택 대신 그 건물이 있는 땅을 사는 게 낫단 말이다.

Funny Numbers

3,700,000

달에 땅을 산 사람의 수.

21

6분 동안 섹스를 하면 고작 21cal가 소모된다. 이걸 맥너겟 절반 정도의 칼로리와 비슷하다.

4

잃어버린 리모콘 중 4%가 냉장고에서 발견된다. 냉장고에 대고 아무리 리모콘을 눌러봤자 샌드위치가 '짹' 하고 나타나는 않을 텐데 거기엔 왜 넣었나..

야 이놈들아, 내 땅에서 씨 꺼져



분노의 질주 더 맥시멈



모든 것을 끝낼
사상 최대의 액션이 폭발한다!

5월 대개봉!

찍으면
영화티켓
쏟아!



비상 경계 태세, 진돗개

요즘 한반도가 심상치 않다. 이럴 때 갑자기 '진돗개 하나'가 발령되면 큰일이다. 그런 의미로 진돗개에 대해 알아 보자.



진돗개
[Jindo Dog]
1962년부터 천연기념물 제53호로 지정되어 있는 한국의 토종견.



귀
강아지일 때는 보통 접혀있으나 생후 8개월쯤 지나면 전방을 향해 쭉긋 선다.

머리
역삼각형의 머리와 곧게 선 귀가 특징. 군살과 주름이 없으며 입술이 처지지 않고 단단한 느낌을 준다.

꼬리
항문에서부터 수직으로 7~8cm 이상 올라갔다가 한 번 정도 말리는데, 너무 격렬하게 말리는 개새끼는 순종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길이는 보통 정강이에 닿을 정도다.

눈
시력은 다른 감각에 비해 그리 좋은 편은 아니다. 움직이는 물체는 분별하지만 특별한 냄새가 없는 정지 상태 물체는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심지어 색맹이다.

결벽성
진돗개는 따로 훈련을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불결하고 청결한 곳을 구분해 대소변을 가릴만큼 영리하다. 사람보다 낮네.

치아
녀석의 순진무구한 얼굴에 속지 마라. 뒤편 물면 가위처럼 자르거나 끊어버리고, 심지어 한 번 물면 놓지 않는 지독한 근성까지 갖췄다.

키, 몸무게
다 자란 키가 45~53cm 정도로 그리 큰 편은 아니다. 체중은 15~20kg 사이.

수렵성
외국 사냥개와 달리 특별한 훈련을 거치지 않고도 뛰어난 수렵견의 자질을 발휘한다. 예쁜 여자 물어와!

발정
진돗개의 70%는 봄 가을에 발정이 오며, 보통 일 년에 두 번 정도 발정한다. 생후 3~8개월 전후로 첫 발정 증상을 보이는데, 이때 너무 어리므로 3~4개월 후 재발정 시 교배시키는 것이 이상적이다. 암요. 첫 경험은 너무 빠르면 좋지 않아.

번식
1년에 2회 정도 새끼를 낳으며, 임신기간은 약 60일 정도다. 한 번에 3~8마리의 새끼를 낳는다.

구조건 진돗개가 없는 이유

진돗개는 인명 구조건으로 쓰이지 않는다. 한 번 문 것을 절대 놓지 않는 습성, 그리고 너무 강한 충성심이 때문이다. 훈련하면서 주인이 바뀌기도 하는데, 진돗개는 한 주인만 섬기기에 다른 사람 말은 듣지 않아서 구조 훈련이 어렵다.

개황당한 이야기

개에 얽힌 황당 에피소드들

만정이가 개갈대
한 연예부 기자가 이민정과 인터뷰를 하던 중 그녀에게 "가자님, 만화 속 귀여운 개 같이 생겼네요"라는 말을 들었다는 에피소드를 공개했다. 그 말을 당시자는 머릿속에 '개갈대'라는 말만 내내 맴돌았다고, 그래도 부럽다.

나들이 개맛을 알아?
미국의 한 남성이 경찰관에게 쫓기다 붙잡혀 몸싸움하다 오히려 개의 귀를 물어뜯는 사건이 있었다. 이를 본 경찰관은 황당해 하며 "사람이 살아있는 개를 물어뜯는 모습은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맞아. 우리도 회로는 잘 안 먹어.

개는 달리고 싶다
미국의 한 남자가 귀기러여 주차하려고 차에서 내려 잠시 뒤편 보던 중 자신이 키우는 대형 개새끼가 운전석에 뛰어들어 가속 페달을 밟는 바람에 차에 걸려 숨지고 말았다. 그러니까 평소애 고기 반찬도 주고, 산책 자주 시켜주지 그랬어요.



시나리오 쓰고 있네.

구라 차다 걸리면 피 보는 거 몰라?

소녀를 만나다 MAXIM 에디터의 소드걸스 TCG 예선전 참가기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고,
미소녀를 만나려면 소드걸스 매장을 찾아야지!



평소 왕가슴 미소녀를 탐닉하던 MAXIM 편집부가 <소드걸스 TCG> 예선전 현장을 찾았다. 터질 듯 부풀어 오른 미소녀의 왕가슴에 에디터의 아랫도리도 터질 듯 부풀어 올랐다. 순수 국산 기술과 일러스트로 플레이어의 소장욕구 역시 터질 듯 부풀어 오르는 미소녀 카드 게임 <소드걸스 TCG>. 각 플레이어가 선보이는 카드 세트 '덱(Deck)'을 이용해 배틀을 하는 게임 형태로 오프라인 카드 발매에 현재 인기몰이 중이다. <소드걸스> 입문자라면 전국 각 <소드걸스 TCG> 샵에서 열리는 다양한 이벤트에 참가해보는 건 어떨까?



소드걸스 TCG 챔피언십에 참가하자!



총 상금 1천만 원! 참가자 전원 선물 세례!
우승자에게 상금 200만 원과 <게임의 지배자> 프로모션 카드를 직접 기획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주어진다! 4등까지 총 1,0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64등 안에만 들어도 <소드걸스 TCG> 3탄 부스터 팩을, 참가자 전원에게 프로모션 카드 <흡혈귀 헌터 아이레 플라나>를 증정하는 등 푸짐한 상품이 기다리고 있다! 참가비는 게다가 무료!

- 준비물: 소드걸스 구축덱, 각종 게임용 액세서리(종이, 펜, 주사위 등), 당신의 욕심

- 날짜, 장소
예선: 4월 6일 ~ 5월 25일(토)
/ 전국 소드걸스 TCG 공인매장
본선: 5월 26일 일요일
/ 다이브다이스샵 대학로점

- 종목
예선: 제한 게임 혹은 구축덱 게임
본선: 제한 게임과 구축덱 게임 혼합 방식

자세한 사항은 소드걸스 공식 홈페이지 (www.sg-tcg.com)를 참고하십시오!



ROUND 1 탐색전

MAXIM 에디터에게 패를 살피본다는 것은 단지 미소녀 (의 가슴과 의상)를 살피본다는 것을 의미한다. 게임을 하는 건지, 미소녀를 감상하는 건지 에디터들의 입에선 나이아가라 폭포처럼 침이 흘렀다. 사상 최강의 미소녀 카드 게임이라는 수식어에 어울리는, 사상 최대의 아일라아제 홍수가 홍대앞 소드걸스 공인 매장을 적셨다.



ROUND 2 전면전

본격적인 게임이 시작되자 다들 눈빛이 변했다. 사랑하는 미소녀 캐릭터의 라이프가 줄어들자 마치 나라 잃은 백성 마냥 분노와 좌절이 교차했다. 희심의 카드를 이마에 붙이고 서로 도발하기도 했다. 그러다 에디터 중 한 명이 "카, 카드가 부족해! 카드개!" 하고 구슬피 울자 이를 구경하던 이들이 술술 자리를 피하기 시작했다.



ROUND 3 연장전

게임은 끝났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본선 진출지만 가질 수 있는 <흡혈귀 헌터 아이레 플라나> 카드를 훑어보다 피가 뜨거워진 그들. 카드 게임으로 승부를 내는 것으로는 모자랐는지 게임이 끝난 후에도 카드를 둘러보며 서로 자신이 고른 미소녀가 예쁘다고 싸운다. 이제 현실세계 여자도 만나봐야 할 텐데 걱정이야.

Circus Maximus

50 Hours To Live

50 Cent



올봄 새 앨범 <Street King Immortal>을 내놓기로 한 래퍼이자 연기자 겸 사업가인 '50전 선생'이 돌아왔다. 24시간은 너무 짧다며 26시간만 더 달라고 징징대던 그의 얘기를 어디 한번 들어보자.

아름 번이나 총에 맞은 걸로 유명하다. 후유증 같은 건 없나?
그냥 코깁기가 좀 심해진 정도? 별거 아니다.

죽기 전에 고백할 것이 있다면?
내가 입을 열기만 하면 꽤나 충격적인 사실들이 속사포처럼 쏟아져 나올 거다. 전부 진실이지만 대꾸할 가치도 없는 그런 얘기들 말이지. 아마 듣다 보면 FBI에 신고하고 싶어질 거야.

죽으면 당신은 지옥에 갈까 천국에 갈까?
아마 천국에 가지 않을까? 항상 선의를 갖고 인생을 살아가니까. 물론 여태껏 내가 한 짓과는 별개로 생각합니다...

천국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싶은가?
어깨까지 내려오는 긴 생머리를 하고 살 거다. 일도 안 하고 집 안에 틀어박혀 외출도 삼가는 대신 몸이나 왕창 키워야지. 새로운 천국 생활은 이 정도로 충분할 것 같다.

이번 앨범에서는 에미넬, 영 지지, 스눕독이 피쳐링을 맡았다. 생사를 불문하고 함께 작업하고 싶은 아티스트가 있다면?
투팍과 마이클 잭슨이지. 아마 지금쯤 천국 빌보드를 휩쓸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마이클 잭슨은 문워크 말고 새로운 춤을 추고 있을 것 같다. 천국에 있을 테니 '워킹 온 더 클라우드' 같은 춤을 만들지 않았을까?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먹고 싶은 것은?
퀸즈의 마르게리타 피자나 처묵처묵하다 가아지. 지금껏 살면서 그렇게 맛있는 피자는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

살면서 해본 일 중 가장 폭력적인 행동은 뭐였나?
말하면 웬지 누가 날 신고할 것 같아서 안 되겠다. 그 대신 살면서 해본 가장 변태 같은 짓을 말해주지. 집단 섹스들 중에 <Orgy World>라는 포르노가 있는데, 거기 출연한 적이 있다. 다행히 내가 나온 부분은 잘렸더군.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여자가 있나?
<코스비 쇼>에 나오는 필리사 라사드와 하고 싶다. 1948년생이지만 왕년에는 엄청 섹시했다니까 <코스비 쇼>의 옛날 에피소드를 보다가 완전 꽃혔지. 난 아직도 그녀가 아름답다고

생각한다. 예전에 비행기 안에서 마주쳤을 땐 기절할 뻔했다. 그녀 앞에서 찌질이 광팬처럼 호들갑을 떨었지.

이제 죽을 시간이 다 됐다. 당신 아이팟에서는 무슨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을까?
켈리 클락슨의 노래겠지. 아이팟을 처음 샀을 때부터 그녀의 노래를 항상 넣어 다녔는데, 요즘도 운동할 때마다 즐겨 듣는다. 그녀의 노래엔 이야기가 있어서 좋다.

당신의 관 앞에서 많은 사람이 뭐라고 수군댔을 것 같나?
"이 XX 새끼가 드디어 뒤졌구나. 젠장, 이제 돈도 없는데 누구한테 빌려야 하지?"

유언을 남긴다면?
왕년이 참 좋았지... 정도? ☹



I ain't ever put it down like this befo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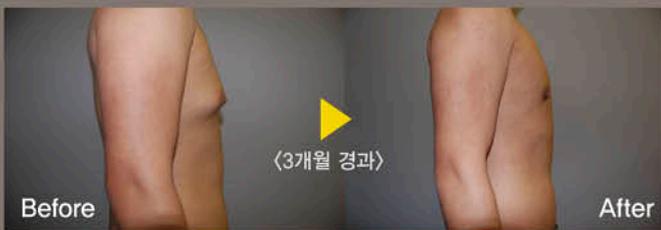


50 CENT
골든 히트
송!





그가 그녀를
잡을 수 없는 이유는...



여성형 유방증이란?

여성형 유방증이란 남성의 가슴이 비대하게 발달, 유방처럼 커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나요?

여성형 유방증은 남들과 달리 큰 가슴을 가져 목욕탕이나 수영장 등에서 위축되기 쉬우며 심각한 경우 사회 생활의 자신감마저 상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요즘은 의료 기술이 발달하여 수술로 비교적 쉽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드물게 수술 후 부작용으로 혈종 또는 비대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Circus Maximus Noodle

라면 vs. 냉장면

정냉 라면은 이대로 끝낼 걸까?

끓여 먹기
vs.
부셔 먹기



1 오뚜기 스파게티 vs. 롯데 웨푸드 스파게티 뽀모도로



군대에서 종종 즐겨 먹던 오뚜기 스파게티. 그는 고아였다. 스파게티의 역사도 모른 채 스스로 모든 맛을 연구하고 세상에 나왔다. 그는 케첩이아말로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소스라고 믿었다. 반면 롯데 웨푸드 스파게티 뽀모도로는 정통 이태리 유학파였다. 그는 레알 이태리 소스, 레알 이태리 면을 앞세워 라면을 입도했다. 오뚜기 스파게티는 치즈가루 분말까지 제공하며 반격을 시도했지만, 선진국에 들어선 한국 사람들은 이미 진짜 스파게티 맛을 알아버렸다. 적당히 썬 티 나는 맛도, 풍부한 소스와 차진 면 앞에 무릎을 꿇어야 했다.

3 농심 생생우동 vs. 대림선 해물맛 우동



누군가 '국물이~'라고 운을 떼면, 누군가는 '끓내줘요!'라고 외치던 시절이 있었다. 생생우동은 차원이 다른 진하고 깊이 있는 국물로 우동 시장에 충격과 공포를 선사했다. 부자집 도련님들은 외다워 그것을 구매하기 시작했다. 누구도 그의 독주를 막을 수 없었다. 여기에 대림선 해물맛 우동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그는 비교적 칼칼한 국물과 살아 숨 쉬는 면발로 생생우동을 위협했다. 얼리어답터들은 동전이 조금 부족할 때마다 600원 더 저렴한 대림선 우동을 구매하기 시작했다. 조짐이 심상치 않다. 하지만 그들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2 농심 올리브 짜파게티 vs. 롯데 웨푸드 생야채를 바로 볶은 짜장면



롯데 웨푸드 생야채를 바로 볶은 짜장면. 그는 북경 현지에서 수련에 수련을 거듭하여 레알 짜장 맛을 만들어 냈다(중국 유학생들이 편의점에서 이것을 섭취할 때마다 고향 생각에 운다는 소문이 있다). 하지만 농심 짜파게티는 보통대기가 아니었다. 그는 본격 신토불이 정신으로 스스로 짜장계의 새로운 계보를 만들더니, 이내 전 국민을 짜파게티 요리사로 탈바꿈시켰다(짜장 실록 제4권 15절: 일요일은 내가 짜파게티 요리사요). 나아가 짜파게티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었다. 이제 짜파게티는 짜장 그 이상의, 혁신의 아이콘이다.

4 농심 멸치 칼국수 vs. 한성기업 시원하고 깔끔한 바지락 칼국수



한성기업에서 회심의 일격으로 내놓은 시원하고 깔끔한 바지락 칼국수. 면발을 집는 순간 그 탱글탱글한 탄력감에 호흡이 가빠진다. 허나 건강한 먹을거리를 지향한 탓일까? 그의 국물에는 영혼이 실려 있지 않다. 사람들은 한성기업 바지락 칼국수를 먹으며 연신 '빌어먹을 저염식'이라고 외쳐댔다. 반면 농심 멸치 칼국수는 MSG를 앞세워 사람들로 하여금 다 비운 냄비도 할게 하는 마술을 선보였다. 비록 면발은 냉장면에 미치지 못하지만, 우리는 아직 저염식을 받아들이길 준비가 되지 않았다.

가장 비싼 라면 vs. 가장 싼 라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당신은 배가 고플 때 일류호텔에서 라면을 시 먹을 수도 있고, 인터넷 쇼핑몰에서 최저가 봉지 라면을 구매해 끓여 먹을 수도 있다. 선택은 당신의 몫! 아래의 가격을 참고하라.

1. 라면

서울 웨스턴	vs.	농심
조선호텔		신라면
해물라면		(오픈마켓)
26,000원		540원 x 48개

2. 스파게티

서울 W호텔	vs.	오뚜기
바닷가재		스파게티
크림 스파게티		(오픈마켓)
42,900원		900원 x 48개

3. 짜장면

서울	vs.	농심
신라호텔		짜파게티
짜장면		(오픈마켓)
22,000원		680원 x 32개

4. 우동

제주도	vs.	농심
포도호텔		생생우동
왕새우튀김우동		(오픈마켓)
18,700원		1,300원 x 14개

한 줄 평:

호텔 가면 그냥 한 번이라도 더해, 그게 꼭 먹어야겠지?

OD Musical Company and CJ E&M present

브로드웨이를 뒤집어 놓은 세상에서 가장 웃긴 뮤지컬!



뮤지컬

스팸어랏



Book and Lyrics by Eric Idle Music by John Du Prez & Eric Idle

2013년 5월 21일~9월 1일 두산아트센터 연강홀

프로듀서 신춘수 연출 데이비드 스완 출연 서영주 정준하 이영미 신의정 정상훈 조형균 윤영석 고은성 이훈진 김 호 정철호 공민섭 박경동 윤민우 정성진

제작 OD오디뮤지컬컴퍼니 CJ E&M 주관 오픈리뷰(주) 협찬 SPAM Loun.G 후원 K110 예술보육금 예매처 인터파크 오픈리뷰 옥션 예스24 두산아트센터 문의 오픈리뷰 1588-5212

A new musical lovingly ripped off from the motion picture "Monty Python and the Holy Grail" from the original screenplay by Graham Chapman, John Cleese, Terry Gilliam, Eric Idle, Terry Jones, Michael Palin

麥心

남중국해의
여해적두목
치카이

Woman Pirate

鄭一嫂

(1775~1844)



여러 위기, 긴장고조로 어수선한 이 봄.
막다른 골목, 최종결전의 위기를 앞두고 성공적인 협상으로
모두가 만족하는 해피엔딩을 만들어낸 여걸의 사례를 살펴봅시다.

어린 시절 광둥의 사창가에 팔려간 치카이는-
해적왕 정이에 의해 납치(구출)된 후
정이의 와이프가 됩니다.

그 후 정이가 청나라
조정 of 음모로
독살당하자-



엽소녀라고
차별하지
않습니다.

치카이는 동요하는 남편의 부하들을
규함. 두목으로 추대되고-

토벌은 청나라 함대를 전멸시킵니다.

복수
합니다!

청상과부
무서웁...

이러다가
언젠가는
여자 대통령도
나오겠구먼

치카이는 전성기에 8만 명의 부하,
1,800척의 함대를
거느렸다고 합니다.
(뺨이 좀 색났겠지만)

I'm on
a boat!

남중국해를 지배하며
동서양 선박을
가리지 않고
다 털어버립니다.

빠진 영국, 포르투갈,
청나라 연합함대가
몰려오고

사실 제가
서양세력 막는
애국자입죠

결국 1810년,
치카이는 부하들의
신변보장과 재산유지를
조건으로 조정에 항복

그 후 광둥에서 카지노를 경영하며
부유하게 살다 늙어 죽음.

으이구,
한심

언월도
₩30,000
M마켓

치카이 사망 4년 전에 청나라는 아편전쟁으로 영국에 털림



Subscribe

빠르고 안정적인 배송, 구독 중 가격 인상 없는 서비스, 푸짐한 사은품까지!
정기 구독을 신청하시면 이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최대
5만 원
할인!**



남성 피부 미백 및 보습에 효과적인
엠도씨 나이트 이펙트 화이트닝 젤

※ 한정 수량입니다. 사은품은 바뀔 수 있습니다.
기타 사은품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3개월	정가 17,700원
6개월	32,400원 (정가 35,400원) 3천 원 할인+1000떡 적립
12개월	63,800원 (정가 70,800원) 7천 원 할인+2000떡 적립
24개월	126,600원 (정가 141,600원) 1만 5천 원 할인+4000떡 적립
36개월	182,400원 (정가 212,400원) 3만 원 할인+6000떡 적립
48개월	233,200원 (정가 283,200원) 5만 원 할인+8000떡 적립

※ 떡은 MAXIM 홈페이지에서 결제 시 돈 대신 사용할 수 있는 현금성 포인트입니다. (1떡=1원)

정기 구독 신청 안내

www.maximkorea.net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 후 정기구독 신청 배너를 클릭하거나,
MAXIM KOREA로 전화하세요.
Tel. 02-323-1182

결제 방법

1 www.maximkorea.net 에서
신용카드나 휴대폰 결제

2 무통장 입금

(예금주: 주식회사 와이미디어)

하나은행	569-910012-00904
KB국민은행	185801-01-004866
농협	355-0006-4797-03
신한은행	100-026-074070
우리은행	1005-701-637646
기업은행	208-107032-04-013
SC제일은행	117-20-225316
우체국	012559-02-079161



MAXIM을 아이패드와 아이폰에서도 만나보세요!

대한민국 남성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매거진 앱! 종이 잡지보다 저렴한 가격! MAXIM의 아이패드 매거진에는 편리한 인터랙티브 디자인, 풀 버전 영상 화보, 종이 매거진에서는 볼 수 없는 미공개 화보와 깨알 같은 멀티미디어 콘텐츠가 담겨 있습니다.
앱스토어에서 MAXIM KOREA 또는 맥스 코리아를 검색하세요!

아이패드 매거진 : 1권 구매 시 \$2.99 / 1년 정기구독 시 \$19.99
아이폰 매거진 : 1권 구매 시 \$0.99

HOW TO

아 글썄, 저는 정기 구독
사은품이 아니려니까요!

Office Life Tip

#5. 상사 언어 해석법

상사의 말을 곧이곧대로 들어서는 안 된다.
숨은 행간을 읽으면 회사 생활이 편해진다.

BY 김희성 MODEL 2012 MISS MAXIM 준우승자 엄상미

섹시한
MAXIM
어시스턴트



상사 언어 1.

“자네, 요즘 안 좋은 일 있나?”

➔ 해석

“어디 감히 내가 얘기하는데 똥 씹은 표정으로 앉아 있나? 입을 확 찢어서 조커처럼 만들어버릴라...”/
“자네 요즘 왜 이렇게 실수가 많나?”/
“일을 왜 이 모양으로 하나?”

WRONG ANSWER

“네, 제가 감기 기운이 좀 있어서...”
“아뇨, 아무 일도 없는데요.”

PERFECT ANSWER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상사의 말은 문맥에 나타나는 의미대로 해석하면 절대 안 된다. 사적인 자리 혹은 당신만 밖으로 불러내 은밀하게 물어본 거라면 진지한 이야기를 꺼내봐도 좋지만 회의 중이나 회사 동료 앞에서 툭 던진 거라면 “표정이 구리니 인상 퍼라”하는 소리다. 설사 정말 몸이 안 좋더라도 일단은 “아닙니다!”라며 당장 잇몸 미소를 지어야 한다는 소리다.
상사가 당신의 상태를 자주 물어보는 건 당신이 일을 시원찮게 한다는 뜻이니 정신 바짝 차릴 것. 하지만 상사의 의중을 정반대로 해석해 도리어 어리광을 부리는 신입이 많다. 당신이 있는 곳은 학교가 아니라 회사다. ‘아프니까 관찰을 거야’, ‘난 오늘 감기 기운이 있으니까 이 정도는 이해해주겠지’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아직 사회생활 초짜다.

상사 언어 2.

“지금 급하게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언제까지 할 수 있을 것 같나?”

➔ 해석

“니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이 일을 끝내라.”

WRONG ANSWER

“내일 모레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 이거 좀 걸릴 것 같은데요?”/
“이거 꼭 오늘까지 해야 하나요?”

PERFECT ANSWER

이 말은 “급한 용무니 최대한 빨리 끝내!”란 소리다. 그것도 모르고 해야 할 일을 숙 훑어보며 “아... 이거 좀 걸릴 것 같은데요?”라며 업무 마감 일자를 견적내고 앉아 있으란 얘기가 아니다. 진짜 오래 걸릴 것 같은 일이라도 “최대한 빨리 해보겠습니다. 언제까지 마무리하면 되겠습니까?”라고 묻는 게 행간을 읽을 줄 아는 똑똑한 신입 사원이다. 어차피 업무의 마감 기한은 상사의 머릿속에 있지 당신이 견적 낸다고 나오는 게 아니다.

상사 언어 3.

“아까 내가 시킨 거 어떻게 됐나?”

➔ 해석

“빨리 좀 해서 갖고 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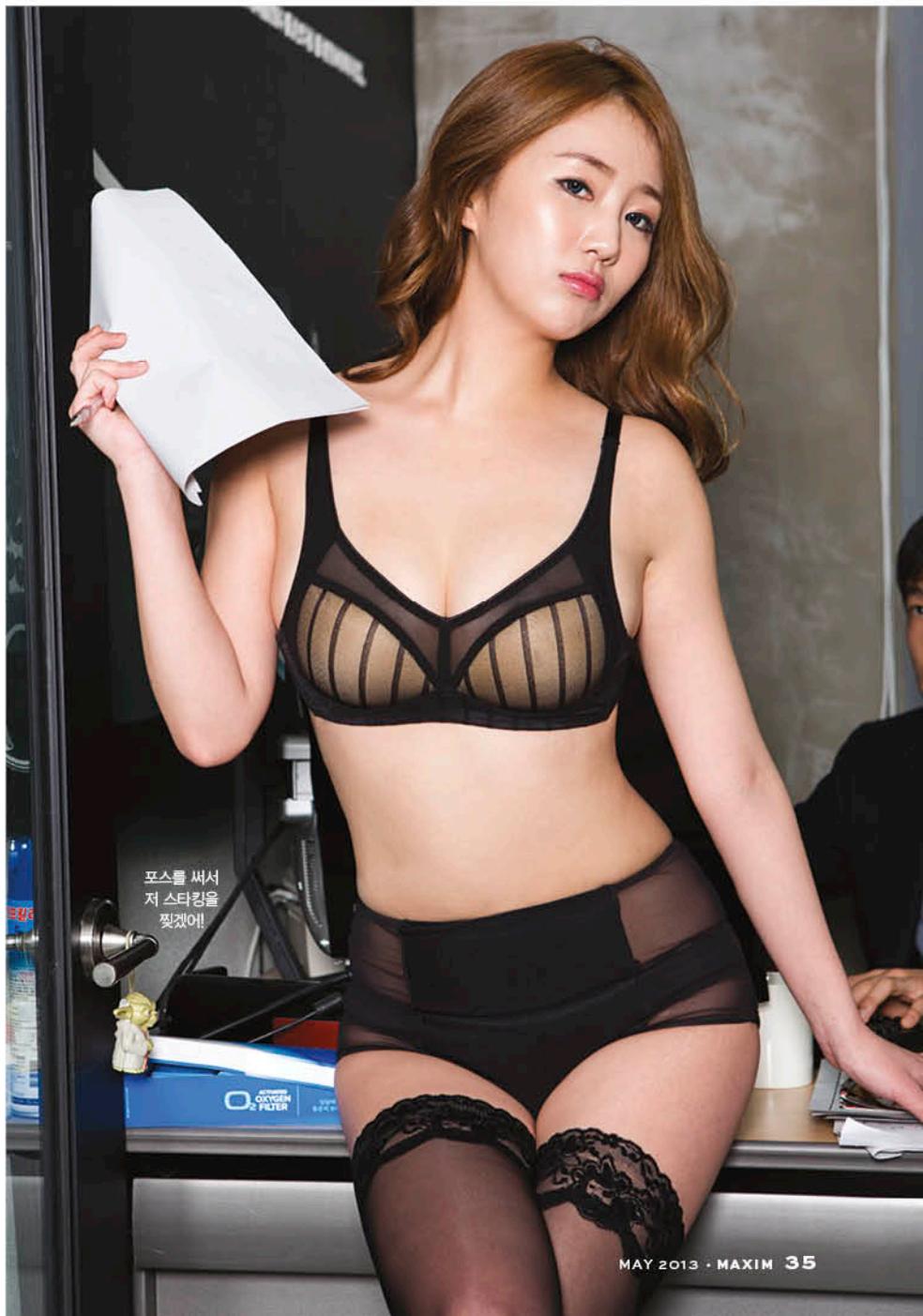
WRONG ANSWER

“지금 하고 있습니다.”/“아직 덜 했습니다.”

PERFECT ANSWER

상사의 입에서 이 말이 나온다는 건 지시한 업무를 끝내길 오매불망 기다리다 지쳐 물어보는 거다. 일단 현재 업무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문제가 있으면

달어놓으며 조언을 구하면 된다. “현재 40% 정도 진행했는데 두 시간 뒤면 끝날 것 같습니다”라고 디테일하게 보고하란 말이다. 잔소리 들을까 봐 업무 중 막히는 점을 공공 숨겨두면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일이 커져 수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지도 모른다. 상사와 문제점을 얘기하다 보면 분명 더 좋은 해답이 나오고 예상치 못한 더 큰 난관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많은 신입 사원들이 상사가 지시한 업무를 자기 선에서 완벽하게 끝낸 뒤 ‘짹’ 하고 내놓으면 인정받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어차피 상사가 100% 바라는 완벽한 결과물을 내놓을 수 없으니 중간 점검을 받는 게 더 현명하다.



포스를 써서 저 스타킹을 찢겠어!

How To

Race



레이서가 몸 푸는 법

질주는 남자의 본능이다. 인디카 챔피언 라이언 헨터-레이에게 몸을 레이싱카에 최적화한 상태로 만드는 훈련법을 배워보자. 옆자리에 여친을 태우고 멋지게 도로를 질주하면 그녀가 당신의 품에 쏙 앵글 거다. 한 팔로 후진하며 목에 선 핏대를 보여주는 품도 이제 식상하잖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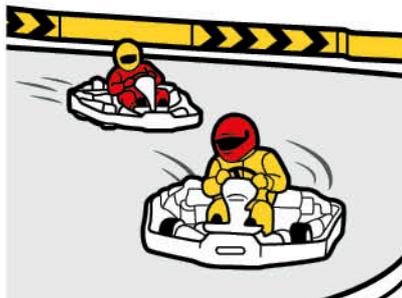
1 목 운동
 “레이싱 도중 코너를 들 때는 평소시의 최대 4배나 되는 중력 가속도를 견뎌야 한다. 보통 머리 무게가 5kg 이니까 코너에서는 20kg이 되는 거다. 헬트 양쪽에 추를 달 수 있는 밴드를 달아 좌우로 당겨보자. 코너에서 중력을 버티지 못해 목에 힘이 빠지면 평형 감각을 잃고 참혹한 꼴을 당할 수 있으니 부지런히 연습해둬라.”



2 코어 운동
 “핸들을 잘 다루려면 몸의 중심을 단련하는 훈련이 매우 중요하다. 나는 평소에 무거운 짐볼로 상체운동을 한다. 공을 들고 좌우로 움직이거나, 다리를 펴고 팔꿈치로 상체를 받쳐 올리는 플랭크 자세로 중심 잡기 연습을 한다. 이때 팔이나 다리 한쪽을 들어 올린 채로 최대한 오래 자세를 유지한다. 헬스 기구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몸무게를 버티는 운동이 훨씬 도움될 거다.”



3 다리 운동
 “레이싱 도중 브레이크를 밟을 때 600kg 정도의 입력으로 밟아야 하기 때문에 다리의 근력을 강화해야 한다. 하체가 부실하면 브레이크를 한 번만 밟아도 다리가 아작날 수 있으니까. 하프볼(공을 절반으로 나는 모양의 운동기구)로 브레이크를 밟을 때의 환경과 비슷한 조건을 만들어 훈련을 하면 도움이 된다. 양손에 아령을 들고 한쪽 발로 중심을 잡은 뒤 그림과 같이 하프볼을 한 발씩 밟아가며 다리 운동을 하자.”



4 반사 작용
 “레이싱에선 신호가 떨어지자마자 0.0001초라도 빨리 출발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반사작용을 향상시키기 위한 훈련을 한다. 모니터에 들어오는 신호에 맞춰 최대한 빨리 버튼을 누르는 일종의 두더지 게임 같은 거지. 사실 그것보다는 직접 카트를 타면서 실전 훈련을 하는 게 더 좋다. 나는 오프시즌일 때 카트를 레이싱 트랙에 가지고 가서 타는데, 역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전 훈련이 최고다. 레이싱 초보자도 대어섯 바퀴만 돌면 감을 잡을 수 있을 거다.”

MAXIM으로 변기 뚫는 법

변기가 막혔는데 뚫어뻥이 없어?
 MAXIM 잡지로 변기 뚫는 법을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배관공
 폴 오 그레디가 알려준다.



1. 일단 변기 밖으로 넘치는 물을
 쓰나미부터 멈춰야 하다. 변기 물탱크
 뚜껑을 열고 그 안에 있는 공 모양의
 부력을 들어서 범람하던 물을 멈춰라.
 아아... 기분 나쁘다...



2. MAXIM을 뽕뽕하게 돌려 말아 변기
 구멍에 꽂아 넣어라. 안다, 당신의 피와
 살갗은 MAXIM을 변기 안에 찢러 넣기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나...는 그렇다고
 우물쭈물대면 종이가 효율호물해지니
 한 방에 꽂는 게 좋다. 그다음 손목 힘을
 이용해 막혀 있는 통을 뚫어라. 대중
 뚫렸다 싶으면 시원하게 물을 내린다.



3. 내려갔나? 이제 됐다. 여친이랑
 헤어졌을 때처럼 가슴 한 구석이
 쓰러라겠지만 통을 물은 MAXIM은
 쓰레기통으로 보내주고, 풍진 세상을
 살다 간 MAXIM을 애도하며 한 권 더
 사러 가자. 정기 구독 신청은
 02-323-1182.



〈눈 성형술 6개월 후〉

〈눈 성형술 8개월 후〉

쌍꺼풀 없이 크고 시원한 확대 남성 눈 성형술

1. 쌍꺼풀이 생기지 않으면서 자연스런 모양으로 커집니다.
2. 눈을 감고 있어도 수술 흉터가 거의 드러나지 않습니다.
3. 수술 후 이미지가 지나치게 변하지 않습니다.

* 드물게 수술 후 염증 발생이나 좌우 비대칭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진성형외과의원

압구정역 4번출구 방향 / 02-3445-4514 / www.medoctor.co.kr

How To

Condomize



다 쓴 콘돔 재활용법 6



쓰고 난 콘돔이 너무 많아서 처치 곤란하던 에디터의 DIY 프로젝트. BY 조웅재

물고기가 동식물실



1 스위트 바나나 스무디

갑자기 아이스크림이 당기는 데 사 먹자니 돈이 없고 만들어 먹자니 귀찮아? 혹시 집에 바나나가 있다면 따라 해보자. 껍질을 까서 잘 씻은 콘돔을 씌우고 묶는다. 가슴 주무르듯 한참 만지작거리다 보면 내용물이 으개져 꿀렁꿀렁해진다. 이것을 냉동실에 넣고 1~2시간 후에 꺼낸 뒤 꼬트머리를 잘라 짜 먹는다. 주의의 문방구에서 팔던 불량 아이스크림이 오버랩되면서 동심이 산산조각 나던 그때의 트라우마가 되살아난다.



2 플렉서블 프루츠 팩

여행 시 백팩 안 수납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싶다면 콘돔을 이용하자. 우습게 보이지만 우겨 넣으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간다. 참고로 에디터는 굴 10개까지 넣어봤다. 내 건 아니지만 참 뿌듯했다. 비닐봉지보다 얇고 부피도 작아 계곡 물에 담가 시원하게 보관하기에도 좋다. 솔직히 찝찝하거나 되도록 껍질째 먹는 과일보다는 굴이나 오렌지 같은 게 더 좋겠지? 근데 쿵쿵, 이게 밤이야 굴이야?

3 비비드 아쿠아리움

물고기를 키우고 싶은데 값비싼 여항이 부담스럽다면 따라 해보자. 일단 콘돔에 남아 있는 윤활액과 체액(?)을 비누로 깨끗하게 씻는다. 기분 나쁜 기름기를 어느 정도 제거했다 싶으면 미온수를 채우고 물고기를 넣는다. 반드시 휴대용 공기 주입기를 이용해 산소를 적당히 채워야 한다. 콘돔 전체를 물로 채웠다면 질식한 물고기가 사뿐히 드러누워 수면 위로 싱크로나이즈하는 모습을 보게 될 거다.

숨막혀요!



4 안티 모이스춰 폰 세이버

한여름 바닷가에서 쓸 비싼 방수 팩을 구매하기가 부담된다면 콘돔을 이용하라. 스마트폰을 각진 육봉이라 생각하고 위에서부터 천천히 씌운다. 기포가 생기면 화면도 잘 안 보이고 터치감이 떨어지니 최대한 진공 상태로 만들 것. 생각보다 터치감이 좋다. 찢어질까 봐 겁이 나면 두 겹으로 씌우는 것도 나쁘지 않다. 자기가, 한 번 더?



5 데인저러스 버드건

알미운 친구를 골려주고 싶다면 콘돔의 초강력 탄성을 이용한 데인저러스 버드건을 추천한다. Y자형 튼튼한 나무 보디 양쪽에 콘돔 양 끝을 단단히 묶는다. 제대로 묶지 않으면 조준하다 콘돔으로 싸대기 맞는 '더럽게' 아픈 경험을 할 수도 있다. 참고로 천연고무가 아닌 고가의 초박형 폴리우레탄 제품은 탄성이 떨어져 파위가 약하다.

Best 상품!



6 워터프루프 레인 부츠

비 오는 날 컨버스하나 메시 소재의 신발을 신는 것은 큰일을 본 후 닦지 않은 것만큼이나 찝찝한 일이다. 갑자기 비가 내린다면 콘돔을 발끝에서부터 천천히 씌우자. 발 사이즈가 260mm 이상이라면 특대형 콘돔이 필요할 텐데 아아... 아마 평생 쓸 일이 없겠지. 아간에는 야광 콘돔을 이용해보는 것도 좋다. 발이 빛나는 밤을 연출할 수 있으니 교통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구라 아님.

대한민국 300만의 선택! 강남 동양아트홀 컴백!



국민연극

라이어



센스있는 남자라면 모두 주목!
5월, 내 여자를 위한 데이트 필수코스!

커플 **30%** 할인

2013년 2월 8일 (금) ~ OPEN RUN
동양아트홀 (신사역)
예매 | 인터파크 1544-1555 오픈리뷰 1588-5212 문의 | 오픈리뷰 1588-5212
기획, 제작 | 파파프로덕션 러닝타임 | 100분 가격정보 | 정가 30,000원



여자 오면 알아서
빠져준다니까!

이 자식이 여자 일에서
내 치부를 드러내서
피투를 낸다.

남자 둘이 함께 살 때 필요한 5가지



〈코미디빅리그〉의 콤비, 조세호&남창희가
들려주는 자취 생활 이야기. BY 손안나



남창희

생년월일: 1982년 7월 27일

데뷔: 2000년 SBS 〈기쁜 우리 토요일〉

‘스타 스톨 인천동산고’ 편

대표 캐릭터: 영화 〈색즉시공〉의 변태 역



조세호(양배추)

생년월일: 1982년 8월 9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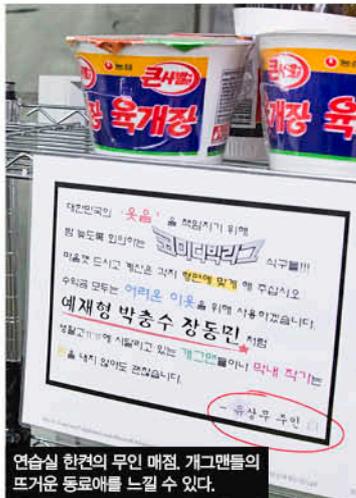
특이사항: MAXIM을 창간호부터 모이운

열혈 독자

대표 캐릭터: KBS 〈웃음충전소〉의 타짱



〈코미디빅리그〉 '대부'로 활동 중인 조세호와 남창희가 담당 PD에게 코너 검사를 받고 있다.



연습실 한편의 무인 매점. 개그맨들의 뜨거운 동료애를 느낄 수 있다.

1 자취방

둘이 같이 산다고 들었다.

조세호: 그렇다. 현재 우리 '만' 고급이라고 생각하는 묵동의 한 빌라에서 함께 자취하고 있다.

어쩌다 장성한 남자 둘이 같이 살게 됐나?

남창희: 둘이 콧비로 활동하면서 모텔 생활을 많이 했다. 그렇게 모텔 이곳저곳을 전전하다 결국 실리를 합치게 됐다.

조세호: 그동안 쓴 모텔비를 뽑아보니까 장난이 아니었다. 이 돈이면 차라리 같이 사는 게 나을 것 같았다. 러브 চে어가 있는 모텔에서 둘이 잔 적도 있다. 기분이 묘하더라. 둘이 쉬러 왔다고 하니가 주인장 표정이 일그러지더라고.

2 음식

집에서는 주로 어떤 음식을 먹는가?

남창희: 술안주로 둘이서 번데기탕을 끓여 먹는다. 집에서 요리하기도 간단하다. 물 좀 넣고 번데기 넣고 고추장 넣으면 끝이다. 매콤한 게 좋으면 거기에 청양고추 조금 넣어주면 되고.

조세호: 솔직히 자취하면서 "전 집에서 핫케이크 만들어 먹어요." 이런 말 하는 건 백 프로 빵이다. 손쉽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요리? 그런 게 어디 있다. 우리는 그냥 냉동 만두 사다 전자레인지에 돌려 먹는다. 가끔 흥진경 누나한테 굽실굽실해서 '흥진경 더 만두' 같은 것도 받아먹고.

남창희: 부추 만두를 추천한다. 진짜 맛있다.

3 집안일 부러먹을 수 있는 후배

집안일은 어떻게 분담하는가?

조세호: 스무 살 때 처음으로 혼자 살게 됐는데 엄마가 없으니까 집안일이 감당이 안 되더라. 그때 결심했다. 나중에 꼭 청소시킬 후배랑 같이 살겠다고...

남창희: 지금도 같이 사는 개그맨 후배가 한 명 있다. 우리가 숙식을 제공하는 대신 그 친구가 집안일을 책임진다. 이제 웬만한 주부보다 낫다.

조세호: 일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 거의 애완견 수준으로 우리를 반겨준다. 오늘 드라마를 봤는데 거기서 조인성이랑 송혜교가 어찌고저찌... 얼마 전에는 베란다에서 그 후배의 깊은 한숨 소리를 들었다. 산처럼 쌓인 빨랫감을 보고 어떻게 넘어야 할지 답이 안 나오다며 담배를 뽕뽕 피우더라.

남창희: 자취생들에게는 건조 기능이 있는 드럼 세탁기가 유용하다. 아무래도 빨랫감을 모아놨다가 주말에 한 번씩 세탁기를 돌리게 되는데, 자취방은 대부분 빨래를 널 곳이 마땅치 않으니까.

4 여자 이야기

각자의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오기도 하나?

조세호: 서로 약속했다. 누군가 여자를 초대하면 각자 일어서 빠져주기로. 문제는 여자친구가 없다는 거다. 여태껏 우리 집을 방문한 여자는 딱 두 명이다. 청소해주는 아주머니, 일본어 가르쳐주는 아주머니.

남창희: 아니다. 한 분 더 있다. 웅진코웨이 코디 아주머니. 사실 난 여자친구가 있는데, 조세호 눈치 보아서 아직 집에 못 데려갔다.

조세호에게도 여자 좀 소개해주지 그러냐?

조세호: 호감 가는 여성이 있으면 밀어줘도 시원찮을 판에 애가 다 망쳐버린다. "집착이 있는데 상관없어요? 지방간도 있는데 상관없어요?" 이런 얘기가 하고... 내가 아토피가 있는데 "아토피 가루 떨어진다" 하고 놀려서 결국 여자가 집에 가버린 적도 있다. 내 치부를 다 드러냈다. 심지어 무중 있다는 얘기도 했다.

남창희: 웃자고 한 얘기였다.

진짜 무중 있나?

조세호: 오...오른쪽만 있다.

5 끈끈한 우정

같이 살면서 싸우지는 않나?

조세호: 같이 살다 보니 정말 사소한 일로 많이 싸운다. 거의 이혼을 코앞에 둔 부부 수준이다. 솔직히 맞짱 뜨면 내가 이길 거다. 안 그래도 한번 링 위에서 제대로 붙어보자고 했다.

남창희: 둘이서 이종격투기를 한 적이 있는데, 내가 조세호의 팔을 부러뜨릴 뻔했다. 다른 선수들이 안 말렸으면 그때 넌 이미 작살났다.

조세호: 그때 방심했다. 링 위에서 15초만 있으면 넌 끝이다. 15초 만에 널 그로기 상태로 만들 수 있다.

대단한 우정이다. 사랑과 우정 중 하나를 택한다면?

조세호: 내 친구를 이해해줄 수 있는 여자를 택하겠다.

남창희: 잘 보라. 여기서는 '친구를 이해해주는 여자' 그딴 거 말고 진짜 둘 중 하나를 고르라는 거다.

조세호: 솔직히 난 여자.

남창희: 그렇다면 난 친구를 택하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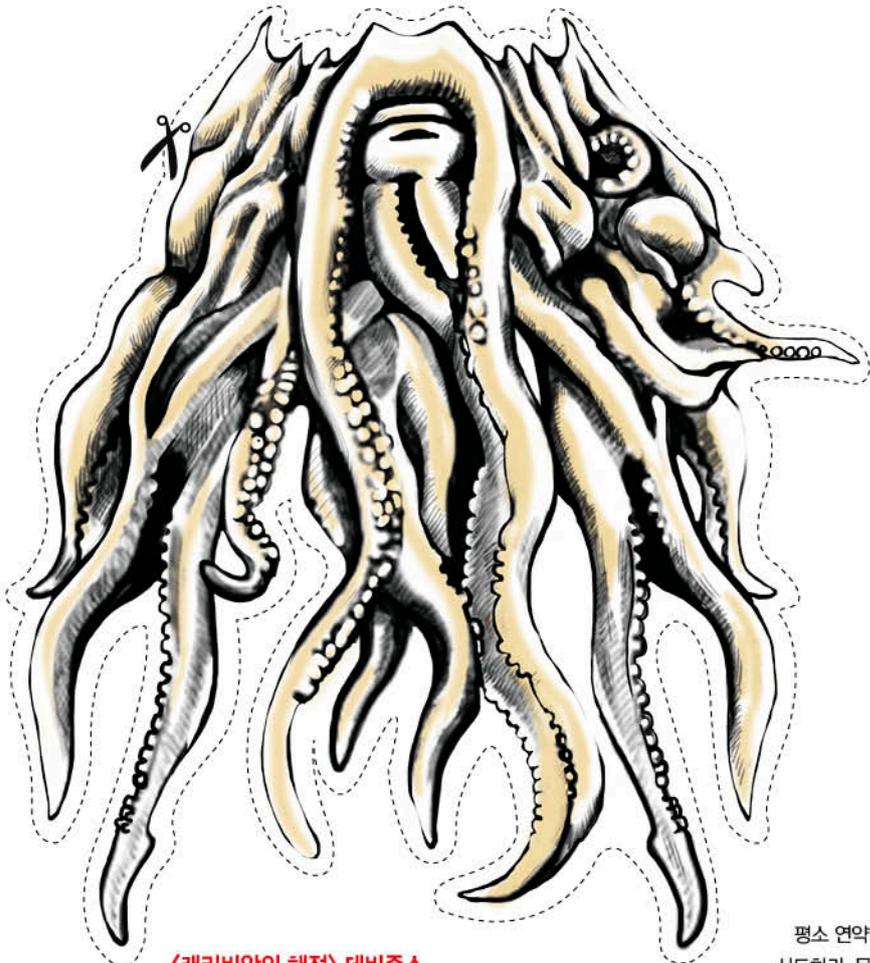
조세호: 예라이, 이 양아치야. 🐶



에디터가 이날 인터뷰에서 배운 점

1. 자취방에는 드럼 세탁기가 답.
2. 집에 여자를 데려오면 일어서 피해주자.
3. 남자끼리는 모텔에 쉬러 가는 게 아니다.
4. 조세호는 아토피가 심각하다.
5. 그래도 무중은 오른발에만 있다.

How To / Mustache



《캐리비안의 해적》 데비존스

악마의 저주를 받고 영원히 죽지 않고 바다를 떠도는 데비존스, 그의 저주를 풀려면 진정한 사랑을 만나야 한다고 한다. 오늘 밤, 그녀에게 사랑을 고백하려거든 이 녀석을 붙이고 나가자. MAXIM 잡지에 차마 가위질을 못 하겠다면 오징어 슷다리를 붙여도 무관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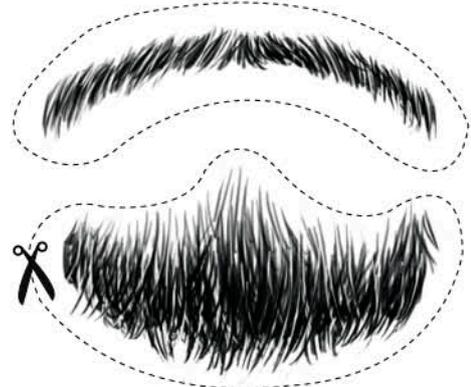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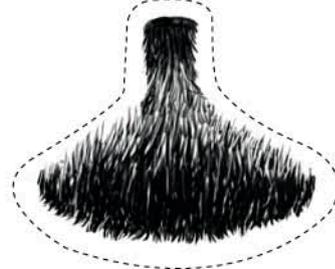
유명한 수염 만들기

뭔 짓을 해도 결국 이방 수염이 되는 당신을 위해 준비했다. 이 수염들을 오려 주둥이에 붙이면 당신도 초간지 수염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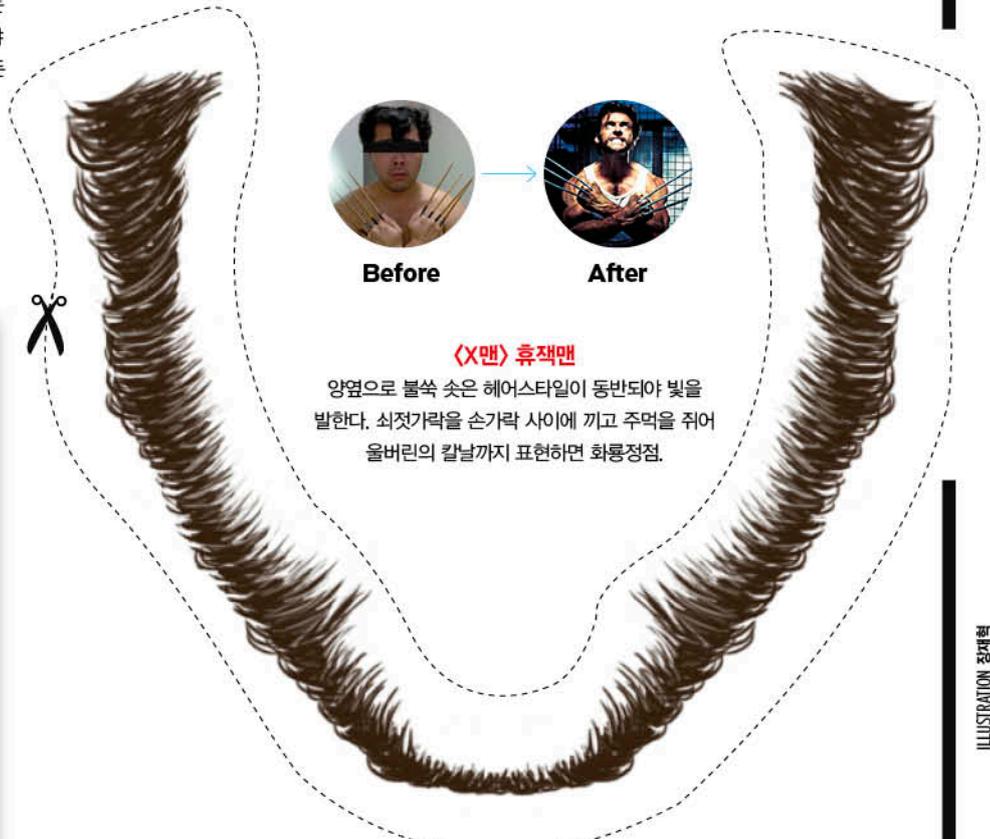
차승원

많은 수컷들이 차승원의 '소자' 수염 모양을 탐낸다. 하지만 자칫 어설피다간 동대문 옷가게 형처럼 보일 수 있다.



《바람의 화원》 문근영

평소 연약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 녀석을 붙이고 이미지 변신을 시도하라. 문근영을 순식간에 남자로 만드는 슈퍼 남성호르몬 유발 수염이다.



Before



After

《X맨》 휴잭맨

양옆으로 볼썽 솟은 헤어스타일이 동반되어야 빛을 발한다. 쇠젓가락을 손가락 사이에 끼고 주먹을 쥐어 울버린의 칼날까지 표현하면 화룡점정.

Smoke & Drink

알로하! 하와이 맥주



코코넛으로 가슴만 가린 여인들이 엉덩이를 살랑이는 하와이로 가자.

MODEL 2013 MISS MAXIM 본선 진출자 장유진



내 몸에도
귀여운 도마뱀
한마리 있는데
구경할래?



예쁜 여자는 예쁜 맥주를 좋아한다

몸통에 휘감은 라벨이 워낙 아가자기해서 한 번쯤 손이 간다. 차고 넘치는 이슬이나 폼이 작렬 맥주도 아니고... 이 정도면 고심해서 고른 티가 물씬 나니, 그녀에게 "널 존중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 도마뱀 로고가 트레이드마크인 코나 브루잉 컴퍼니는 하와이주에 위치한 소규모 양조장. 생산량이 적어 대부분은 하와이 내에서 생맥주로 소진된다. 그럼 바다 건너 한국의 대형마트까지 상륙한 이 병맥주의 정체는 뭐냐고? 미국 본토 공장에서 생산해 캐나다에서 병입 과정을 거친 후 다시 하와이로 역수입된, 한마디로 무늬만 하와이안이다.



빅 웨이브 골든 에일

오히려 섬 최고의 서핑 메카 와이메아 해변에서 겨울에 생기는 큰 파도를 모티브로 만들어진 맥주. 한 모금 마시면 맥주의 풍미가 완전한 황금빛 파도를 일으키며 거침없이 밀려온다! 탄산이 과하지 않아 목 넘김이 부드럽고 입안 가득 퍼지는 은은한 과일 향도 여성을 유혹하기에 제격이다. 가볍게 한두 병 마시다 보면 어느새 무아지경에 빠진 그녀와 당신의 허가 얽혀 있을 거다. 하지만 개운하고 드라이한 맥주 맛을 선호하는 이들은 "보리차를 마시는 듯한 싱송송한 맛에, 과일 향이 너무 과해서 느끼하다"라고 말하며 두 번째 잔을 거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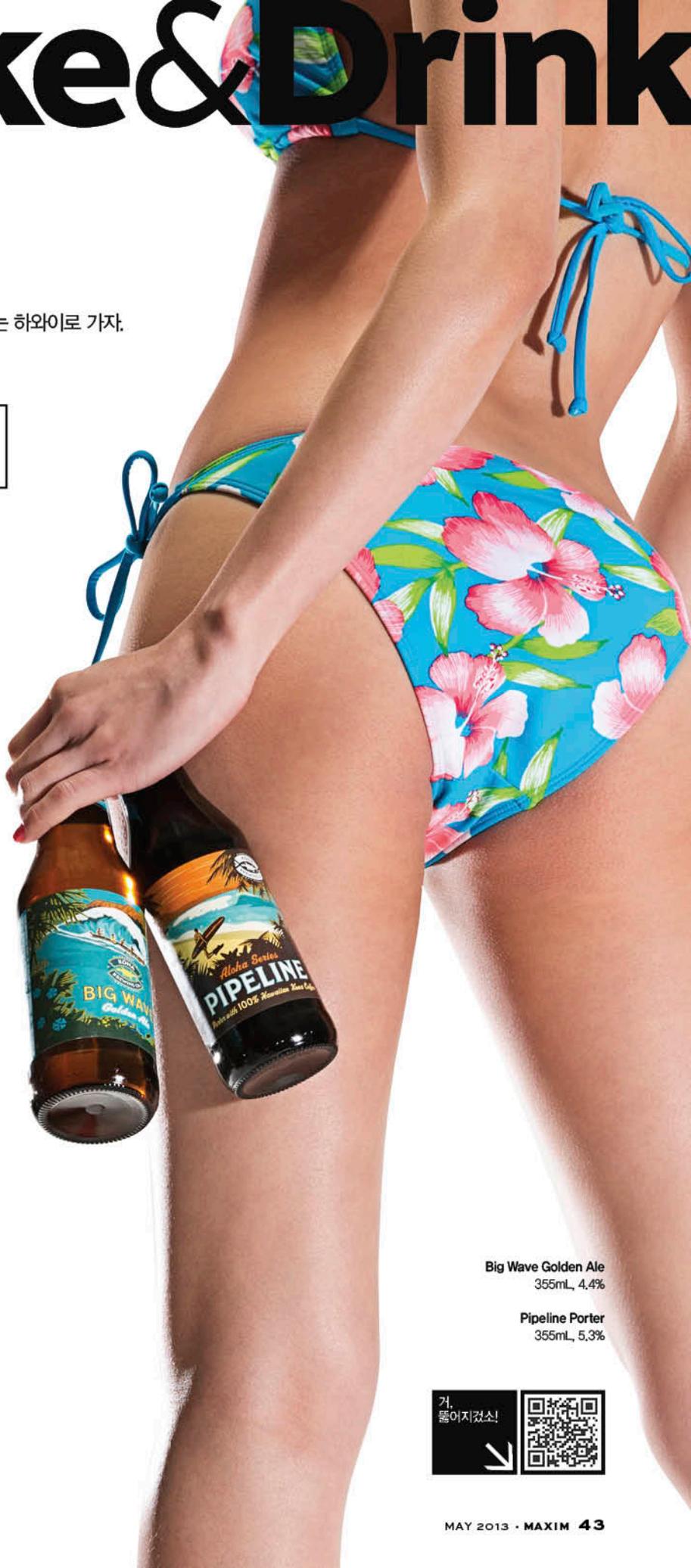
에디터의 한 줄 평: 맥주계의 까르보나라. 부드럽고 느끼하고... 딱 여자들이 좋아하는 맛.



파이프라인 포터

하와이에서 출라출만큼이나 유명한 코나 커피. 파이프라인 포터는 이 코나 커피를 첨가해 만든 맥주다. 언뜻 보면 보드카에 갈루아를 섞은 칵테일 '블랙 러시안'이 연상된다. 히타치노 네스트의 에스프레소 스타우트가 '에스프레소'라면, 파이프라인 포터는 그보다 연하고 질감도 가벼운 '아메리카노'다. 예상했겠지만 치맥에는 완전 비추. 커피 향 때문에 치킨 맛이 제대로 느껴지지도 않고, 살코기만 퍽퍽 씹어대는 기분이다. 콜라에 밥 말아 먹는 기분이랄까?

에디터의 한 줄 평: 가독이나 씹쓸한 포터 맥주에 커피까지 끼었다니... 에잇, 뭐!



Big Wave Golden Ale
355mL, 4.4%

Pipeline Porter
355mL, 5.3%

거,
뚫어지겠소!



Smoking Ace 5

영화 속 주인공들이 알려주는 담배 맛있게 피우는 방법!
난이도 별로 따라 하기 쉽게 정리해 주마. BY 조용재

보고 나면
당길 걸?



1 영웅본색 - 주윤발

먹으면서 피우면 맛있다! 난이도 ★

피우던 담배를 들고 노점에서 쌀국수를 후후 불어 먹던 주윤발. 적룡이 탄 차에 올라타 마지막 모금을 뺀 뒤 풍초를 버리고, 입 뚝 손가락을 "맛있나?"라고 묻는 적룡의 입에 묻힌다. 순간 멧쩍은 웃음이 연기와 함께 새어나온다. 쌀국수의 매콤함과 중년 남성이 뿜는 진한 담배향이 뒤섞여 구미를 당긴다. 금방이라도 사랑해요 밀키스 하고 외칠 것 같아!

2 더 게임 - 변희봉

붉은 성냥으로 불어야 맛있지! 난이도 ★★

변희봉이 신하균과 자택에서 대화하는 장면. 담배를 뒤집어 필터를 바닥에 툭툭 튕기는 변희봉은



"착" 하는 소리와 함께 성냥을 켜고 곧 우윳빛 연기가 방 안 가득 자욱하게 퍼진다. 구수한 화학 냄새와 어우러진 담배 향이 화면 밖까지 전해지는 것 같다. 아어서 30년 흡연 외길 짬뽕 좀 돼야 나온다는 검지와 중지 사이 깊은 곳에 담배 끼우기 스킬까지. 이 영화를 본 애연가들은 양철로 된 저 성냥 케이스를 청계천을 휘젓고 다니며 뒤져서라도 찾고 싶을 거다. 참고로 가까운 팀엔타임스 흡연실에 가면 성냥갑이 쌓여 있다. 가끔 몰래 들어가 몇 개씩 집어 오든가.

4 사생결단 - 류승범

금연 하다가 피워봤나? 난이도 ★★★★★

신병 때 훈련소에서 나와 자대에서 첫 담배를 피울 때 느꼈던 카타르시스 기억나?



구치소에서 담배를 굶은 류승범은 출소 후 마중 나온 후배의 차를 보자마자 "담배! 야! 담배! 이 새끼!"라고 외치며 미친 듯이 질주한다. 급한 듯한 손놀림으로 담뱃갑을 연신 쳐 대며 포장을 벗기고 말보로 레드 한 개비를 꺼내 불을 붙인다. 첫 모금을 깊게 들이마신 뒤 잠시 동안 연기를 머금고 기침을 하는 류승범. 이윽고 최고급 와인을 음미하는 소물리에처럼 만족스러운 듯 얼굴에 웃음을 띤다. 희열에 찬 그 모습에 보는 이조차 머리가 멍해진다.

3 비트 - 정우성, 유오성

땀 흘리고 피울 때 작살나지! 난이도 ★★★

대rob에서 패싸움을 하던 정우성과 유오성은 경찰의 눈을 피해 거리를 질주한다. 으스스한



골목으로 몸을 숨긴 그들은 경찰을 따돌린 것을 확인하고 마주보며 웃음 짓는다. 머리가 뚝이 되고 얼굴에 송골송골 멍이 맺힌 그들은 필터를 과감하게 뜯고(당시 이 장면 덕에 필터 빼고 담배 피우는 고딩이 많았다) 사이좋게 담배에 불을 붙인다. 격한 운동을 하고 숨이 찬 상태에서 피우는 담배 맛. 지친 몸이 더 노곤해지며 머리가 멍한 그 맛을 일량가 몰라. 아마 대한민국 남자 중 전투 충구를 치르고 난 뒤 피우는, 필터 빨기도 힘겨운 먼지 맛 담배를 모르는 이는 없을 테지.

5 레지던트 이블3 - 오데드 페르

죽음을 앞두고 피우는 맛? 난이도 ★★★★★

영화의 클라이맥스 신. 골초인 주인공은 뒤집힌 트럭 안에서 좌석 뒤편에 누군가 몰래 꽂쳐둔



담배를 발견한다. 그는 "황재했군"이라고 중얼거리며 다이내마이트와 입에 문 담배에 불을 붙인다. 긴박한 음악이 멈추고 고요한 바람 소리와 담뱃불 타들어가는 소리만이 정적을 깬다. 한 모금 깊게 들이마시는 "흡" 하는 소리와 함께 연기를 내뿜으며 길게 울려 퍼지는 "후" 하는 소리. 곧이어 음악이 다시 시작되고 좀뱃들이 남자를 향해 달려든다. 카메라가 zoom인되며 남자의 만족스러운 표정을 비추고 트레일러는 폭발한다. 들이 피우다 하나가 죽어도 모를 맛이지.

신상 담배 리스트



디자인 리뉴얼!
레조 에어로
1mg/5mg
공간 필터 부심
돋는 국산 브랜드

'레조 에어로'가 리패키징을 거쳐 다시 태어났다. 푸른색 패키지가 이제야 좀 시원해 보인다. 구멍 난 고양이가 봄맞이 꽃단장으로 손님 물이 좀 할 수 있을지 기대해본다. 가격 2,500원



숨어있는 한 개비,
보험 시가 19+알파
KT&G의 스테디셀링
제품 '보험 시가'가
100억 개비 돌파
기념으로 3주 동안

특별판을 판매한다. 기존 보험 시가 19개비와 실제 시가업 함유 권련지로 만든 보너스 1개비가 들어 있다. 20+@이었던 더 좋았을 텐데! 가격 2,500원



캡슐 라인의 신상,
말보로
하이브리드
1mg/5mg

양담배의 마스터 라인, 말보로가 캡슐 담배인 '말보로 하이브리드'를 출시했다. 기존 캡슐 제품은 맨틀 캡슐을 터뜨리기 전의 맛있는 맛이 약점이었다며 담뱃잎 블렌딩을 강화했다고, 가격 2,700원

성년의 날, 진짜 남자로 골추 서는 법

성년의 날 여자한테 키스받고 싶은
안경남은 주목하시라~! BY 정민지



5월 20일은 무슨 날?

매년 5월 셋째 주 월요일은 갓 스무 살을 맞이한 청춘 남녀가 진정한 성인으로 인정받는 날이다. 이날만큼은 성인 문화를 더욱 당당하게 즐길 수 있다는 동기점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냥 별 생각 없이 남자들끼리 PC방이나 드나들면서 소주 한잔 기울이는 사람도 있을 거다. 마음에 품고 있는 처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바뀌겠지만.

그래도 평생에 한 번 오는 성년의 날인데, 이대로 지나치기에는 낭만이 없잖아. 낭만이. 향수와 장미꽃 그리고 첫 키스를 받는 건 기대도 안 하지만 이 쓰리 콤보를 누군가에게 줄 수 있다면 인생에서 참 의미 있는 기억으로 평생 남을 것 같지 않아? 심지어 "첫 키스가 뭐임. 먹는 거임?" 이라고 말하는 눈물 나는 형제들아. 성년 대접을 그저 주민등록번호로 성인 인증이나 하는 데 찾지 말자. 무릇 성년이란 제 짝을 찾아 종족 번식하면서 대대손손 잘 먹고 잘 살아 조상님께 기쁨을 드려야 하지 않겠어?(성년의 날에 꼭 종족 번식을 하란 소리는 아니지만..예쁨)



예뻐~ 그 나이 퍼먹도록 뉘했어? 무릇 성년이란 짝짓기를 해야하는 법!



성년의 날 키스보다 달콤한 것!

일단 의미 있는 성년의 날을 보내기 위한 비법을 하나 알려주겠다. 그전에 당신이 그날 고백을 받는 것보다 고백을 하는 게 더 쉽다는 걸 염두하자(거울을 보면 이유를 알겠지?). 여자에게 환영받는 남성의 조건은 바로 쾌활한 성격에 훈훈한 외모! 외모가 조금 달리니 성격으로 밀어 붙이려는 수작은 금물. 남자들도 여자를 볼 때 예쁜 게 착한 거라고 말하지 않나? 여자들도 똑같이 느낄지? 얼굴이 안돼서 옷발로 여자를 꼬시려던 전략은 이제 옛말. 외모도 엄연한

스펙이라고!

당신 얼굴과 혼연일체되어버린 그놈의 안경은 외모 스펙의 기분을 해칠뿐더러 거추장스럽기 짝이 없다. 안경 너머로 숨은 훈훈한 외모는 그녀에게는 성년의 날 키스보다 더 달달하게 느껴질지도. 이제 그녀에게 장미꽃과 향수를 안겨주며 마지막엔 안경 없는 맨 얼굴로 그녀에게 고백을 하는 거다. 기분 좋은 상상에 흠뻑어오르는 피를 누르고, 지금 당장 MAXIM 공식 훈남 의사 김성일 원장을 찾아가자. 평생 기억에 남을 성년의 날을 꿈꾸면서.

MAXIM 공식 훈남 의사 서울밝은안과 김성일 원장의 말, 말, 말!

배우 지진혁을 닮은 외모와 의사라는 직업까지 갖춘 엄친아 김성일 원장! MAXIM 애독자이기도 한 김성일 원장이 안경남들의 고민을 하나 하나 해결해준다면?



도움말:
서울밝은안과
김성일 대표원장

Q. 원장님! 정말 안경만 벗어도 훈남으로 변신할 수 있을까요?

A. 글썄요. 본편이 어디 가겠습니까마는 저도 가끔 수술받은 후에 다시 안과를 방문하신 분들의 달라진 인상에 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날카로운 이미지를 부드럽게 바꾸기 위해 안경을 착용했지만, 자칫 유약한 이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깔끔한 인상을 위해 시력교정수술을 선호하는 남성도 늘고 있고요. 그뿐 아니라 운동을 즐기는 남성이라면 안경의 불편함을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겠지요?

Q. 수술이라 망설여집니다. 아프지 않나요?

A. 라식과 라섹 수술 모두 수술 중 통증은 없습니다. 특히 라식 수술은 수술 후 즉시 회복 효과를 느낄 수 있으며, 라섹 수술은 개인차가 있겠지만 보통 2~3 일이면 일상생활에 무리가 없습니다. 또 라섹 수술 후에는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진통제를 처방하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Q. 근데 의사도 MAXIM을 보나요?

A. 외롭고 힘들고 짜질하던 인턴 시절. 제게 MAXIM은 벗이요, 애인이요, 신앙과 같았지요. 제 기사가 MAXIM에 실리고 난 후, 연락 한 번 없던 역대 동기들이 폭풍 연락을 하더군요. 허허, 녀석들..

Q. 안경을 벗으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고 안경 렌즈도 두꺼운 고도근시입니다. 수술이 가능할까요?

A. 정확한 검사를 거쳐 본인의 각막 상태와 근시, 난시 등의 조건을 확인한 후 수술을 결정합니다. 초고도근시로 라식 및 라섹 수술이 불가능할 때는 ICL (안내렌즈삽입술)이라는 수술법이 있습니다. 기존 각막은 보존한 채, 눈 속 수정체와 홍채 사이에 렌즈를 삽입하는 수술법으로, 불가피하게 렌즈를 빼야 할 경우 다시 눈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Comment

MOVIE OF THE MONTH

불쾌하지만 맛있는 영화 〈노리개〉



연출, 배우, 흥행 요소라는 3박자를 갖춘 '불쾌한 맛'의 영화가 개봉했다. 한 손갈 맛보고 온 에디터가 절대 미각으로 썰을 풀어주마. 스포 없음! BY 조용재



논란의 중심 그리고 약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이 영화가 3년 전 장지연의 성 상납 파문에서 모티브를 따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분명 대중의 이목을 충분히 끌 수 있는 소재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것이 양날의 검으로 작용했을 때 이 영화가 지닐 약점은 결코 가볍지 않다. '성 상납'이라는 섹슈얼한 소재가 영화를 자칫 네이버 평점 4.64에 빛나는 〈썸머타임〉급으로 떨어뜨리진 않을까. 혹은 '유명 연예인의 자살'이라는 소재에 너무 기대어 감정에만 호소하는 알맹이 없는 영화로 보이진 않을까. 디카프리오와 장동건이 잘생긴 얼굴 때문에 연기력이 죽는다고 얘기하듯 〈노리개〉의 소재는 영화에 대한 관객의 객관적 평가를 저해할 수 있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사건이었다.

민감한 소재를 자연스럽게 풀어낸 감독의 센스

아마 최승호 감독은 영화에 대한 대중의 편견을 어떻게 피해갈지 골머리 좀 썩었을 거다. 하지만 그는 자칫 예리한 장면으로 도배될 수 있는 이야기를 교묘하고 집중력 있게 풀어냈다. 교묘하지만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법정 스릴러라는 전개 방식은 사람들에게 이야기 속 사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든 장치다. 영화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명확한 '부조리'라는 소스

한 방울을 떨어뜨렸다. 영화 속에서 드러나는 명확한 부조리는 현실의 모호한 음모와는 다르다.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부조리를 눈으로 직접 목격한 사람들은 미해결 사건에 대한 깊은 백침을 느낀다. 거기에 탄탄한 스릴러가 받쳐준다면, 결국 "기분은 더럽지만 영화는 좋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다.

배역에 몰입할 줄 아는 배우들의 명연기

배우들의 연기력 또한 영화의 목직함을 잘 지탱했다. "열혈 기자 캐릭터를 언젠가 한번 해보고 싶었다"라고 말하는 배우 마동석은 시나리오만 보고 단번에 캐스팅을 수락했다고 한다. 그가 뽐어내는 열혈 중년의 포스는 이 사건을 파헤치는 이장호 기자 역할에 완벽하게 흡수되었다. 다양한 영화에서 조연을 맡아온 그가 이 영화의 주연으로서 보여준 '몰입의 미학'은 송강호와 황정민의 연기에서 뽐어져 나오는 포스와 맞먹을 정도로 능익은 것이었다. 다만 그가 미소를 지으며 "힘내요, 끝까지 해박야죠" 하고 김 검사에게 대사를 치는 장면을 볼 때는 본인도 손발이 오그라들었다는 고백을 간담회에서 털어놓기도 했다. 한편 〈TV 방자전〉으로 색기 넘치는 향단이를 연기해 주목받은 민지현은 '눈'으로 연기할 줄 아는, 깊이가 있는 배우다. 비련의 배우 정지희라는 역할은 분명 과감한 노출뿐 아니라

이제 막 못 볼 꼴을 본 듯내기 여배우의 맨붕을 소화해야 했다. 스크린에 얼굴을 내민 것은 처음이지만, 연기자 생활 8년차라는 가볍지 않은 경력답게 그녀는 배우 정지희의 회로애락을 꼼꼼히 연기해냈다. "그것 계집 하나 죽었다고.." 라고 말하는 현성봉 회장을 때 죽이고 싶었다면, 당시 역시 그녀의 연기에서 뽐어져 나오는 페이스스를 제대로 느꼈다는 얘기가.

흥행 요소를 갖춘 영화 그 이상

〈도가니〉, 〈부러진 화살〉, 〈26년〉처럼 실화를 바탕으로 부조리를 그려낸 영화는 원래 유쾌함이 없다. 되레 팝콘 씹다 뱉쳐 앞자리를 걷어찬 뒤 콜라를 스크린에 집어던지고 싶은 정도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불쾌한 영화들이 실패한다는 얘기는 아니다. 앞서 언급한 영화는 모두 사건에 대한 '궁금증'과 현실 자각에 대한 '의무감'을 자극하는 공통된 흥행 요소를 지녔기 때문이다 (실제로 모두 300만 이상의 관객 물이를 하며 흥행에 성공했다). 〈노리개〉도 예외는 아니다. 동일한 흥행 요소를 갖췄기에 분명 유사한 관객 물이를 할 개연성이 크다. 하지만 단순히 감정에 호소하는 영화라 평가하는 이르다. 백문이 불여일견. 푸주옥 사골보다 진하게 우려낸 페이스스의 도가니를 맛볼 수 있을 거다. 🍵



시사회의 미녀 배우 감상기 영상빨 없는 여배우들의 실제 미모를 폭로한다.



이도아 실물이 훨씬 예쁘다

가장 먼저 입장한 이도아는 완벽한 비율을 자랑하며 "나 연예인이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영화에서 보여준 우물쭈문 눈매와 달리 석시하고 고풍스러운 눈매가 에디터를 유혹했다. 심지어 화장실 가다 마주쳐 실례했지만 키가 에디터보다 컸다. 애정이 눈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민제현 실물도 예쁘다

두 번째로 등장한 배우는 에디터 머리 위로 무수단 미시일이 떨어져도 반드시 실물을 보고 죽겠다던 민제현이었다. 김태희, 박진희, 설리의 경쟁만 모아놓은 듯 원래 예쁜 그녀에게 영상빨 따위 있을 리 없었다. 카메라를 비추다 눈이 마주친 에디터는 실성한 사람처럼 실실거리며 침을 흘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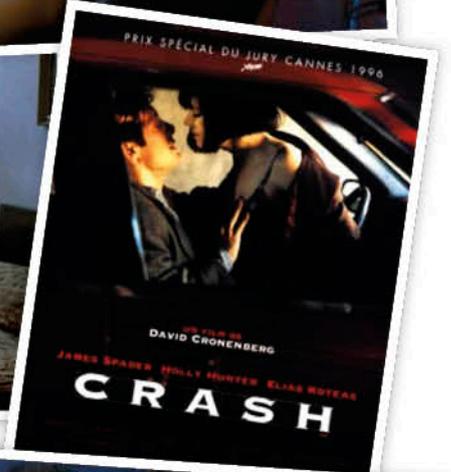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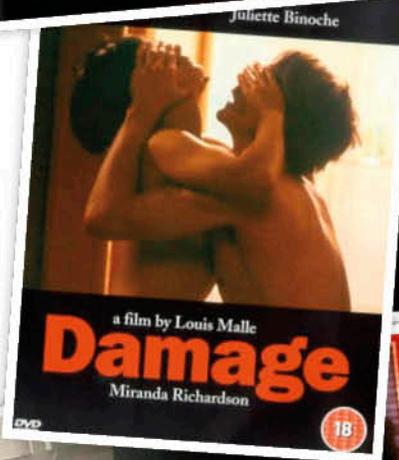
이승연 실물이 휘어어어얼얼한 예쁘다

이승연은 영화 속에서 분명 열혈 여검사 캐릭터답게 고정꼬장한 외모였다. 안 예했다는 얘기도. 하지만 시사회에 등장한 그녀의 옥체는 빛을 내뿜었고, 옆에서 영화를 함께 보던 여자 후배 에디터는 저 여자가 아까 그 여자 맞느냐며 혀를 내둘렀다. 여배우는 30대가 진성기러디니... 누님 나중에 저랑 인터뷰 한번 하시죠!



영화화한 에로틱 소설 5

 당신이 상상하는 모든 사랑이
다 이 안에 있다. BY 김희성





대학교 3학년 땀가, 전경린 작가의 소설에 무척이나 매료된 기억이 있다. '현대문학' 수업 시간에 전경린 작가의 <풀밭 위의 식사>란 작품을 배운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 그녀의 소설을 다 찾아본 거다. 참고로 전경린은 대한민국에서 '연애소설을 가장 잘 쓰는 작가'로 불리는 소설가다. 당시로서는 꽤 파격적인 정사 신으로 화제가 된 김윤진, 이종원 주연의 영화 <밀애>의 원작인 <내 생애 꼭 하루뿐일 특별한 날>도 그녀의 소설이다. 전경린의 소설에는 무미건조한 삶 속에서 일탈을 꿈꾸는 평범한 여주인공이 우연한 계기로 가정이 있는 남자와 폭풍 같은 사랑을 하는 이야기가 곧잘 등장했다. 나는 그렇게 불륜 소설에 흠뻑 빠져들게 됐다.

그땐 내가 어른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는 내 스무 살은 너무 어려서 사랑은커녕 연애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시기였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그건 비단 나뿐이 아니라 또래의 여자애들이 대부분 그랬던 것 같다. 내 경우에는 스물두 살쯤 사랑의 여러 가지 형태에 호기심을 갖게 됐다. 불륜 소설을 탐닉하게 된 까닭도 그 연장선이었다.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다.

언제나 현실 속 사랑은 책이나 영화에서 본 것과는 다르게 흘러가지만 그럼에도 사람들은 끊임없이 사랑을 소재로 한 이야기를 찾는다. 인도 여행을 위해 트루바 호에 탑승한 두 커플의 불륜을 그린 <비터문>

아들의 여자를 사랑한 50대 남자의 성적 욕망을 그린 <데미지>, 교통사고 이후 자동차와 연관된 사물에서 흥분을 느끼며 기이한 섹스를 즐기는 <크래시>, 9주 반 동안의 지배와 수치심, 피가학적 관계로 점철된 사랑을 그린 <나인 하프 워크>같이 사랑을 주제로 한 많은 소설이 읽히고, 또 영화로 만들어지는 걸 보면 말이다.

이 소설들의 공통점은 하나같이 '에로틱'하다는 데 있다. 그리고 내가 한때 빠져든 전경린의 소설과 마찬가지로 현실에서는 금기하는 사랑을 다뤘다는 데 있다. <비터문>에서는 오줌을 마시게 하고 똥을 먹이며 성적 쾌감을 느끼는 섹스가 등장하고, <나인 하프 워크>에서는 첫 장부터 손목을 스키프로 묶는 남자가 등장한다.

한 번의 진짜 섹스만 한 연애 소설이 어디 있겠느냐마는 그래도 사람들이 현실 세계의 사랑과 더불어 가상의 에로틱함을 추구하는 건 불륜과 가학성, 파격, 외설이 모두 뒤엉킨 이야기를 읽으면서 다양한 형태의 사랑을 접하고 자기 안에 내재된 금기된 욕망을 해소하고 싶어서 아닐까.

여기 다섯 가지의 사랑 이야기가 있다. 모두 원초적 욕망과 금기를 다룬 현대의 에로틱 소설이다. 금기된 사랑? 아니면 역겨운 정도의 가학적인 섹스? 당신은 지금 어떤 사랑을 꿈꾸고 있나?

에로틱 소설 미리 보기 눈이 번쩍 뜨이는 구절

내 엉덩이를 짓누르는 헬렌의 풍만한 허벅지, 내 어깨를 꼭 누르는 그녀의 왼쪽 주먹, 내 입술을 덮친 그녀의 입술, 내 네 번째 손가락으로 쓰다듬는 그녀의 축축한 항문은 자애로운 테크놀로지가 만들어낸 물품들로 뒤덮여 있었다. 형틀에 찍혀 나와 계기판 다이얼을 가려주는 계기판 차양, 지금은 가려져 보이지 않지만 튀어나온 스티어링 칼럼, 화려한 사이드 브레이크 손잡이가 바로 그런 것들이었다.
(p.107 <크래시> 중에서)

내 허벅지가 벌어지고 그의 허가 움직이면서 몸이 달아오른다. 약간의 움직임이 있자 그는 고개를 들고 자신이 애무하던 곳으로 내 손을 당긴다. 그 쾌감이 너무 익숙해서 거부할 시도도 하지 않고, 그러고 싶지도 않다. 평소처럼 검지와 중지를 거기 밀어 넣고 질정에

다가간다. “난 이게 좋더라고, 당신 얼굴을 보는 게 좋아요. 질정에 다다르면 당신은 정말 독특해지거든. 예쁜 표정을 멈추고 입을 짹 벌리고 이렇게 탐욕스러운 표정으로 변하거든.”
(p.19~20 <나인 하프 워크> 중에서)

오래전부터 레베카는 내가 자기 배설물과 친해지기를 바랐다고. 자기의 외음부만 애지중지하고 그 옆에 있는 다른 것은 소홀히한다고 나를 질책했소. (중략) 그녀는 대변을 보고 난 뒤에 내가 가서 혀로 거기를 닦도록 시켰다오. (중략) 그러고는 자신의 내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하나하나를 설명해주었다오. 그녀가 중얼거렸지요, “먹어, 나는 둥글고 빛나는 거야. 내 창자를 즐겨봐, 나를 천천히 맛봐, 앞으로 네 모습일 진흙을 먹어, 네 미래의 사체를 먹어.”
(p.132~133 <비터문> 중에서)



<부영사>
마르그리트 뒤투스 지음
장소미 옮김
에디션D/ 12,000원



<크래시>
제임스 발라드 지음
김미정 옮김
에디션D/ 12,000원



<비터문>
파스칼 브뤼크네르 지음
함유선 옮김
에디션D/ 12,000원



<데미지>
조세핀 하트 지음
공경희 옮김
에디션D/ 12,000원



<나인 하프 워크>
엘리자베스 맥닐 지음
공경희 옮김
에디션D/ 12,000원



'벚꽃 엔딩', 그 후 1년

잘 만든 봄노래 하나, 열 아이들 안 부럽다! BY 손안나

애니메이션 <초속 5센티미터> 중에서

→ 머라이어 캐리의 '올 아이 원트 포 크리스마스 이스 유(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같은 노래가 거리에 울려 퍼질 때, 비로소 우린 크리스마스가 왔음을 실감한다. 거리의 상점들부터 일제히 인테리어를 바꾸고 캐럴을 틀어대기 시작하니(그래야 새 시즌 상품의 구매가 늘어나니까) 안 들으려야 안 들을 수 없다. 크리스마스뿐만이 아니다. 여름마다 윤종신의 '꽃뽕수'를 강제청취 당한 지도 벌써 몇 년째. 어쩌면 계절의 변화는 거리에 울려 퍼지는 노래에서부터 시작되는 건지도 모른다.

길었던 겨울이 가고 봄이 오니, 발표된 지 1년도 더 지난 버스커버스커의 '벚꽃 엔딩'이 곳곳에서 다시 들려온다. 드라마에 삽입되거나, <불후의 명곡> 같은 프로그램에서 누가 리메이크를 한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지난 4월, 각종 음원차트 1위로 등극하며 신곡들을 발라버렸다. 대한민국 가요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다. "멤버들끼리 벚꽃축제에 갔다가 쌍쌍이 놀러 온 커플들을 보고 뻥쳐서" 만들었다기엔 어찌나 서정적으로 잘 포장했는지, 벚꽃놀이 가는 커플들이 요즘 차 안에서 꼭 듣는 노래가 바로 이 곡이다. 진정한 '봄의 캐럴'이다.

아이들 음악의 범람 때문이었을까? 지난해 '벚꽃 엔딩'은 그야말로 센세이션이었다. 등장과 동시에 큰 사랑을 받았고, 아티스트가 아닌 노래 자체에 팬덤이 형성됐다. 그리고 1년 뒤 봄이 돌아오자 사람들은 기다렸다는 듯 다시 이 곡을 꺼내 듣기 시작했다. 왜 하필 '벚꽃 엔딩'이냐고? 여자친구랑 벚꽃놀이 가면서 장사익의 '봄비'를 들을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게다가 여름 노래, 가을 노래 그리고 겨울 노래는 많은데, 유독 봄에는 이렇다 할 대표곡이 없다. 올해 '벚꽃 엔딩'을 한 번이라도 플레이해 본 사람이라면 다들 느꼈을 것이다. 이 유일무이한 봄의 캐럴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에디터가 추천하는 봄 맛이 송 3

꼭 벚꽃이 휘날려야만 봄 노래가 아니다!



김광석

'바람이 불어오는 곳'

도입부의 아름다운 기타선율이 봄바람처럼 귓가를 간지럽힌다. 후반부의 하모니카도 일품. 아아, 이렇게나 희망적인 봄의 연가라니...!



김현철

'봄이 와 (feat. 롤러코스터)'

나른하지만 세련된 대표 봄 노래. 봄을 맞이해서 새로운 인연을 기대하는 솔로들의 설렘을 잘 표현한 곡. 하지만 알다시피... 인생,겨요.



카드캡처 시쿠라 한국판 오프닝

'Catch you, Catch me'

<카드캡처 체리>를 시청하던 에디터는 어느새 이십 대 후반인데, 체리는 아직도 초등학교 4학년이다. 체리 이년, 아직도 네 인생은 봄날이구구!

Game

CHARACTER OF
THE MONTH

카오스 온라인: 리버스 레이드

치파오 입은 일본식 닌자라니,
이건 뭐 짜파구리 같은 건가?

리버스 레이드

환영술을 기반으로 적을 보내버리는 특급 암살자. 신성연합과 불사군단이 적대 관계로 대치하고 있는 세계관에서 그녀는 신성 연합 소속으로 교황 앨던 휘하의 특수부대 출신이었다. 하지만 적 진영을 탐색하던 그녀는 불사군단의 사령관에게 세뇌당했고, 이후 암살자가 되었다. 아군 특수부대 출신 미녀가 적군 기지에 들어갔다? 세뇌를 당한다라... 어째 어디까지 많이 들었는 소리라?
(카오스 온라인)에서는 몇몇 캐릭터에 한해 양측 진영에 소속되지 않은 '리버스'라는 중립 버전 캐릭터를 고를 수 있다. 이 레이드이라는 캐릭터 역시 리버스 버전으로 신성연합편 리버스보다 훨씬 훌륭한 썸머지가 포인트. 이제 날 환영술로 상대해줘.

카오스 온라인

출시 초기엔 (카오스 온라인(카온))을 보는 시선이 딱히 끈지 않았다. 솔직히 "이류작은 개나 쥐"라며 유난을 떨던 (LOL) 유저들의 텃새 탓에 캔슬레 피해를 본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그런 유저들도 서버 다운 등 접속 불가 상태가 되면 신혼방 정지된 뚝뚝 은근슬쩍 (카온)을 플레이하기 시작했다. 기대 이상으로 수려한 그래픽과 아름다운 일러스트 그리고 '신성연합'과 '불사군단'으로 나뉜 진영의 개념은 스타크래프트의 종족 개념을 도입한 것만큼이나 괜찮은 아이디어였다. 게다가 캐릭터의 외모를 바꿀 수 있는 '의상 카드'가 있는데, (LOL) 과는 비교도 안 될 화려한 노출이 돋보인다. 이 역시 게임의 인기에 한몫했다고 에디터(만)는 믿고 있다. 그나마 명맥을 이어가는, 몇 안 되는 순수 국산 AOS* 게임이니만큼 꾸준히 성장하길 기대한다.

•AOS(Aeon Of Strife)란?

AOS라는 용어는 과거 플레이어가 영웅 하나를 제어해 상대 진영을 깨부수는 (스타크래프트)의 유즈맵, Aeon Of Strife에서 유래했다. 3개의 선형 공격로가 있다는 점이나 제어 불가능한 아군 병력이 행군한다는 시스템 등이 현재 유행하는 (리그 오브 레전드)나 (카오스 온라인)의 모체가 되었다.

플랫폼	PC
등급	12세 이용가
개발사	네오엑트
유통사	세시소프트, 넥슨

분신과
화끈한
플레이!



넥슨이 부른 용병의 난입: WARFACE

 개점 사은 행사로 폐점을 하는 하루살이 온라인 FPS 게임들이 판치는 가운데, 크라이텍의 신작 <워페이스>가 콘솔 뺨치는 스펙으로 무장하고 나타났다. **BY 조용재**

워페이스(WARFACE)	
개발사/서비스사	크라이텍/넥슨
장르	FPS
플랫폼	PC 온라인
서비스 일정	2013년 상반기 서비스 예정

국산 온라인 FPS 계에 난입한 사기캐릭터

독일의 게임 개발사 '크라이텍(Crytek)'은 최근 마우스로 총질 좀 해봤다 싶은 유저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본 이름일 거다. 세계 최고의 게임 쇼, E3에서 <파 크라이>, <크라이시스> 등의 명작 게임으로 몇 차례 수상을 거머쥔 그 회사 맞다. 소문외계인을 고문해서 기술을 빼내 만들었다는 크라이엔진(CryENGINE)을 제작한 그 괴물 회사 말이다. 넥슨이 그런 크라이텍을 국산 온라인 FPS계로 끌어왔다는 사실은, 강서구 화곡동 조기축구회장님이 메시지를 용병으로 영입한 것과 마찬가지로 신이다.



스펙옵스는 레이저 포인터로 아군의 시야를 방해한다. 이래서 게임하면 눈 나빠진다는 거구나...

전장 속에서 싹트는 우정, PvE

<워페이스>는 온라인 상의 유저들과 손을 잡고 컴퓨터(AI)를 쳐부수는 협동 모드인 PvE(Player vs. Environment) 모드를 지원한다. 요즘은 워낙에 협동 모드를 지원하는 게임이 많아서 신선함은 떨어지지만, 방식은 다양하다. 적 로봇을 벌집으로 만들어 쓰러뜨려야 하는 '메크2300', 고립된 상황에서 아군의 구조를 기다리는 '서바이벌', 날아가는 헬기 맞추는 '헬기격추' 등 여러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어 유저들의 지루함을 한층 덜었다.

총알받이 호구를 벗어난 AI

협동 모드라 하면 백날 좀비만 나오는 여타 게임들과는 다르다. 플레이어 뿐 아니라 AI에게도 병과가 주어져 총알받이 '돌격병', 방패를 들고 찍어버리는 '실드기어', 레이저포인터로 시야방해를 하는 '스펙옵스' 등 차별점이 있다. (버추어 킵)처럼 손만 맞아도 온몸을 비틀며 쓰러지던 적들과는 다르다. 특히 중간보스인 '헤비거너'는 정면에서 그 자리에 있는 플레이어들을 몰살시킬 정도의 위력을 갖고 있다. 이 정도면 거의 마법사 아니야?



무시무시한 헤비거너, 정면승부로는 이길 수 없다.



중간보스로 들어가서 후방을 공격하자!
그러니 등짝 등짝을 부지!
역시 남자는 등짝을 봐야 한다.



거대 기체가 전장을 휘젓는 <베를필드>의 분위기를 섞어 놓은 것 같다.



O/C 거대병기 '메크2300'을 때려 부수는 협동 모드



방패를 들고 돌진하는 실드기어 앞에서 한번 쓰러지면 끝장이다. 후덜덜...

▶ 난전의 미학, PvP

반면 개싸움을 좋아하는 국내 유저들이 쌍수를 들고 반길 PvP(Player vs. Player) 모드는 평범하다. 시간이 끝날 때까지 상대 팀을 죽이는 '팀 데스매치'와 폭탄 설치로 임무를 수행하는 '폭파 미션'은 이미 타 게임에서도 사골이 녹도록 우려먹은 소재다. 반면 '공습요청'이라는 모드는 생소한데, 사실 상대 편 진영에 침투해 깃발을 뺏어 오는 'Capture the Flag'와 비슷한 모드로, 특정 거점을 점령한 뒤 공습을 요청해 적군의 타워를 박살내는 모드다.



FPS는 역시 개싸움이 재미지다니깐.



아군의 가슴을 활긱하게 만드는 메딕 전용 장비, 제세동기 100/100



게임 속 시간의 흐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현실 시간 가는 줄은 모른다.

▶ 다양한 병과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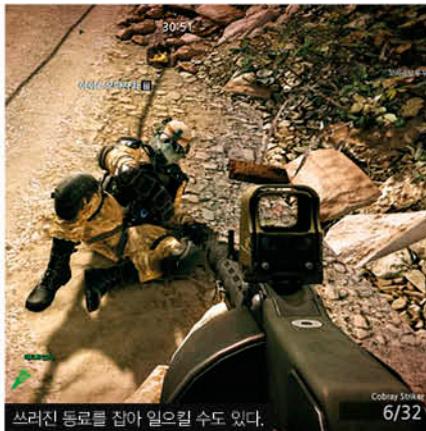
한창 인기몰이 중인 <아바>의 병과 시스템처럼 <워페이스> 역시 각자 취향에 따라 병과를 선택해 플레이할 수 있다. 병과는 네 가지로, 탄약보급을 담당하는 소총수 '라이플맨', 메딕킷과 제세동기로 동료를 살려 내는 '메딕', 크레이모어를 설치하는 '엔지니어', 원거리에서 적을 사살하는 '스나이퍼'로 나뉜다.

▶ 타임 오브 데이(Time of Day) 기능

이전 게임들은 동일한 맵을 단순히 '낮'과 '야간'으로 구분했을 뿐, 시간의 추이를 담지는 못했다. 하지만 <워페이스>에서는 게임을 플레이하며 시간의 흐름을 감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데, 예컨대 대낮에는 스나이퍼와 함께 시야가 넓은 고지를 점령해 한눈에 들어오는 적을 딱꿨다 딱잡고 쏘 죽이고 밤에는 어두운 골목 구석에 잠복해 있다가 방심한 틈을 노려 '뒤치기'로 적을 제압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뒤치기의 황제는 곧 밤의 황제

▶ 깨알같은 재미 요소

좋은 그래픽과 물리 엔진을 선택할 순 없었는지 신기한 기능을 많이 같이 넣었다. 예컨대 적의 총에 피격되어 쓰러진 동료를 일으켜 세우거나, 전투 중 실시간으로 총기를 개조해 긴박한 상황을 즐길 수도 있다. 또한 메딕이 갖고 있는 제세동기는 아군에게 좋은 치료 약품이 되지만, 적에게는 강력한 살상 무기다. 확률은 적지만, 제세동기로 적을 죽이면 일반 점수보다 3배나 많은 점수를 따낼 수 있다. 전장, 게임에서도 의사는 돈 잘 버네.



쓰러진 동료를 잡아 일으킬 수도 있다.



나는야 죽음의 천사, 백악의 천사 6/100



전투 중 파츠 교체는 듣도 보도 못한 훌륭한 발상이다. 30/90

▶ 뚜껑은 열어 봐야

해외에서 좀 뜸했다고 어설피게 한국 진출을 노렸다가 서둘러 망한 게임은 한둘이 아니다. <슬저 오브 포춘 온라인>이 그랬고, <레이크워즈> 역시 유저를 쫓쫓 굶다가 서비스를 접었다. 유수의 제작사가 직접 제작했다는 점에서 분명 화제는 되겠지만, 온라인 게임과 패키지 게임은 다르다. 온라인 게임의 생명은 역시 유저들의 입맛을 지속적으로 충족시키는 사후관리와 업데이트에 있다. 딱하니 내 놓고 "그래픽 쥘지? 그러니까 군말 말고 해"라며 무책임한 회피를 일삼다 보면 욕이란 욕은 다 쳐먹고 장사 접기 마련이다. 온라인 게임은 첫인상이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는 걸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이왕 서비스 하는 거, 유저 있을 때 잘 하라고



Stuff

GEAR OF THE MONTH

화려한 4탄의 컴백 GALAXY S4

이아~ 우리 브라데!
사과 앞에서 그렇게
찢찢매던 게 엇그제 같은데,
마이 컷네? BY 조웅재

SPEC CHECK

크기 69.8(W)x136.6(L)x7.9(H) mm
네트워크 3G(HSPA+ 42Mbps), 4G LTE
CPU 엑시노스 1.6GHz 옥타코어 AP
배터리 2,600mAh
카메라 후면 1,300만 화소, 전면 200만 화소
해상도 5인치 풀HD 슈퍼아몰레드(1920x1080)
색상 블랙 미스트, 화이트 프로스트



케이스 icover 갤럭시S4 아이딘 케이스

갤럭시S4의 필살 기능!



스마트 포즈(Smart Pause)

갤럭시S3에 있었던 눈길 인식 '스마트 스테이' 기능의 발전형으로, 동영상 시청하다가 사용자의 시선이 다른 곳을 향하면 동영상을 일시 정지한다. 물론 '안구' 인식인지 '고개' 인식인지는 아직 미스터리...



에어 제스처(Air Gesture)

갤럭시 노트에서 팬을 화면 가까이 대면 사진이나 영상의 미리 보기를 보여주던 기능이다. 적외선 센서 덕에 그냥 손가락을 갖다 대도 작동하며, 장갑을 끼고 있어도 인식한다! 아마 당신의 끈류를 갖다 대도 인식할 거다.



사운드 앤 샷(Sound & Shot)

사진과 함께 촬영 순간의 소리를 저장해 준다. "와 X발 몸매 제네" 라고 중얼거리며 도촬을 하면 나중에 사진첩을 뒤적대다 당신의 변태 같은 목소리를 함께 들을 수 있다는 얘기도.



〈갤럭시S〉가 세계를 무대로 첫선을 보였을 때까지만 해도 삼성이 이 시리즈를 네 번째 모델까지 찍어낼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지 못했다. 애플이들에게 즐기치게 까이고 잡스 옹에게 소송 공보를 당하며 아등바등 두 번째 모델을 내놓을 때까지도 예상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옴레기' 옴니아의 악몽 탓에 고난의 행군을 하던 삼성의 스마트폰은 어느덧 명실공히 안드로이드계의 메인스트림이 되었다. 게다가 이번 시리즈의 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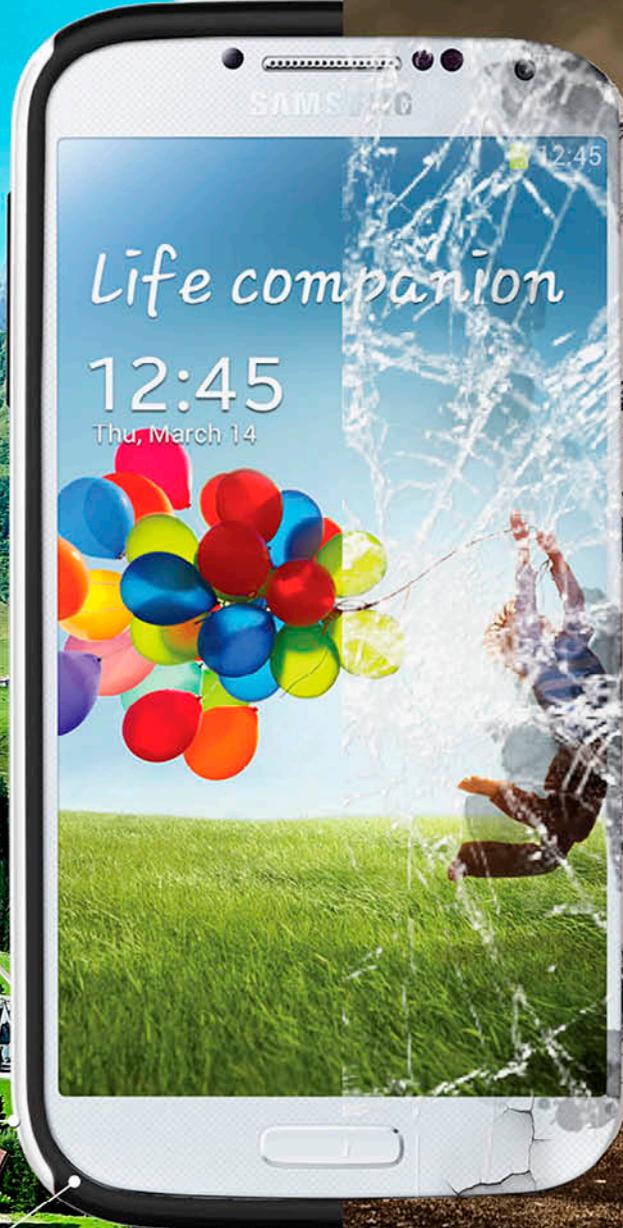
과정은 유난히도 순탄하다. 부족한 머리숱만 집스를 닮은 삼성 무선사업부 신중균 사장은 프레젠테이션을 기대 이상으로 깔끔하게 해냈다. 아이폰5에 대해 "별거 없다"는 사람들의 반응에 왠지 자신감도 생겼겠다. 이제 백색의 간달프처럼 화려하게 컴백한 〈갤럭시 S4〉를 대중들의 손에 쥐여 주는 일만 남은 셈이다. 출수 시리즈는 망한다는 징크스마저 피해 갔으니 얼마나 좋은가. 벌써 에디터의 사타구니가 기대감으로 축축해지는 느낌이다. 

icover or not



포르테는 폴리카보네이트와 실리콘의 이중구조로 되어 있어
예상치 못한 충격으로 부터 당신의 소중한 디바이스를 완벽히 보호해줍니다.

두께요? 슬림함은 그대로입니다.



폴리카보네이트

실리콘



iCOVER FORTE SEIRES

외부에 노출되는 하드케이스는 폴리카보네이트 소재로 충격에 강하여 소중한 디바이스를 보호해 줍니다.

안쪽 실리콘이 외부로부터 받는 충격을 흡수하여 예상치 못한 충격에서 디바이스를 보호해 줍니다.

화질 전쟁의 서막 옵티머스G PRO vs. 베가 NO.6

구린 화질 때문에 팔다리도 구분안 가는 걸그룹 영상을 보며 오만상 찌푸리던 시대는 끝났다. 올해 2분기부터 'HD급 스마트폰'을 내놓은 팬택과 LG의 격돌 현장을 HD급으로 적나라하게 파헤쳐주마.

어떻게 찍었을까?



옵티머스G PRO

예전부터 쌓아온 이미지에 비하면 요즘 LG의 위상이 신기할 정도다. 그 흔한 유심 칩도 지원 못 하던 휴대용계의 풍망 브랜드가 어느새 2인자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니 말이다. 옵티머스G PRO는 현존하는 디스플레이의 최강자라 불리는 LG의 주력 라인답게, 전신에 기립칠한 아이이 소라처럼 아름다운 액정 품질을 자랑한다. 그 덕에 딱히 특이하고 신박한 기능 따위 없어도 웬지 괜찮을 것 같다. 하지만 역시 보이지 않는 뭔가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언제나처럼 삼성 속 굵은 발언으로 맞짱 한번 뜯 날을 기대해본다. 홀리월드도 타이슨 이겼잖아. 그러니 모르는 일이지.

Good

- 슈퍼 번강쇠 배터리. 새끼, 남자네!
- 부드러운 스크롤과 높은 프레임.
- 얇은 베젤 덕에 최적화된 사이즈.

Bad

- 360도 VR 파노라마는 솔직히 기대 이하.
- 외장 메모리 지원 용량이 넉넉치 않다.
- 서터 스피드가 느린 편.

SPEC CHECK

크기 150.2(L) x 76.1(W) x 9.4(H)mm
 해상도 1920x1080 Full HD
 CPU 쿼드코어 1.7GHz
 RAM 2GB
 메모리 32GB(외장 최대 64GB 지원)
 배터리 3,140mAh
 후면 카메라 1300만 화소(4192x3104)
 출고가 968,000원

옵티머스G PRO의 숨겨진 필살기

내 폰과 대화

감백하고 휴대폰을 집에 두고 왔을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기능이다. 내 폰에 걸려온 부재 중 통화 혹은 문자메시지 등을 다른 사람의 휴대폰으로 확인할 수 있다. 희망고문스러운 잔인한 기능일세..

듀얼 FULL HD 카메라

비디오 혹은 카메라 촬영 시 전면과 후면 카메라를 동시에 구동해 양쪽에 뜨는 이미지를 함께 담을 수 있는 신기한 기능이다. 조만간 이 기능을 활용한 일반인 아동 시리즈가 많이 유출될 것 같다. 두근두근!



SPEC CHECK

크기 158.6(L) x 83.2(W) x 9.9(H)mm
 해상도 1920x1080 Full HD
 CPU 쿼드코어 1.5GHz
 RAM 2GB
 메모리 32GB(외장 최대 2TB 지원)
 배터리 3,140mAh
 후면 카메라 1300만 화소(4192x3104)
 출고가 849,200원

원피스 복시
 언더웨어 게스 언더웨어

베가 NO.6

팬택은 신모델을 출시할 때마다 참신한 광고와 톱 모델들을 내세우는 '장사 좀 할 줄 아는' 브랜드다. 동시대 출시되는 폰 가운데 항상 평균 이상의 스펙을 자랑하며 갤럭시, 옵티머스 같은 굴러와 브랜드에게 쟁들을 틈틈 던진다. '내가 더 센데, 한 판 붙지?'라며 어그로 끄는 능력이 보통이 아니다. 이번 시리즈 역시 V터치, 미니 윈도우 등 주목도 있는 참신한 하드웨어적 기능들을 탑재했다. 영원히 3인자로 남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극복하고 끊임없이 신제품을 내놓는 팬택의 도전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 이제 너넨 업데이트만 잘해주면 되는 거야.

Good

- 아이폰 부럽지 않은 부드러운 스크롤.
- HDR을 지원하는 선명하고 빠른 카메라.
- 짱짱한 외장 메모리 지원.

Bad

- 폰 크기에 비해 심히 두꺼운 베젤.
- 배터리가 스펙상 용량보다 빨리 닳는 느낌.
- 왠지 사후 지원이 안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베가 NO.6의 숨겨진 필살기

V터치

솔직히 엄지손가락 하나로 액정 전체를 다스리기에는 심히 무리가 있는 크기다. 사용 중 손이 뒤틀리며 쥐가 나는 고통을 겪을 수도 있다. 베가 NO.6의 후면 카메라 아래 부착된 판을 검지손가락으로 살짝 문대면, 페이지 넘김, 다음 곡 들기, 상단 바 내리기, 전화 받기 등 다양한 조작을 할 수 있다.

모션인식

베가 LTE 광고에서 밀가루 주무르던 여자가 보여준 바로 그 기능이다. 광고에서 보여준 통화 수신 용도로 쓸 때는 정말 기동차대! 하지만 갤러리 등을 작동하다 보면 좌우 인식이 불안정한 나머지 지맘대로 왔다갔다 할 때가 있다.



Man's Tools

다리 사이에 함마드릴 달고 태어났으면 한 번쯤 써봐야 할 남자의 공구들.

BY 조웅재
PHOTOGRAPH YuD
MODEL 최별하

그녀의 뜨거운 공구질!



구두 슈즈원

BOSCH 9"그라인더 GWS 24-230LVI

전기 모터로 원반 형태의 디스크 (날)를 고속 회전시켜 쇠붙이를 절단하거나 표면을 갈아내는 공구. 문자 그대로 '그라인더(Grinder)', 또는 한글로 '연마기'라고도 부른다. 보쉬의 9인치 그라인더는 동급 제품 중 최경량으로 케이블을 제외한 중량이 5kg에 불과하다. 절삭 중에 디스크가 철근 등에 걸려 손상되면 공구의 작동을 멈추는 '반동방지 (킵백스톱)' 기능이 있다. 그러다 갑자기 전원이 들어와 작동하는 위험한 상황을 막기 위해 '재시동 보호장치'도 탑재하고 있어, 유혈사태를 예방한다.

가격 27만 원대
문의 대영M&T(011-477-0944)

별하 SAYS:

이렇게 무거운 공구를 자유자재로 다룰 줄 아는 남자는 색시하죠. 근육남이 아니어도 멋져 보여요.



BLACK&DECKER
Multi EVO 181

블랙앤데커의 가정용 DIY 킷이라고 할 수 있는 만능 전동공구 멀티 이보 181. 하나의 보드에 직소, 샌더, 임팩트 드라이버, 멀티 진동 헤드 등 8가지의 헤드를 필요에 따라 갈아 끼우는 방식이다. 헤드 한 개당 가격이 3만 원 정도로, 10만 원대에 해당하는 각 제품을 구매하는 것보다 훨씬 경제적이다. 충전식 배터리를 장착해 무선으로 사용할 수 있어 기동성을 높였다.

가격 18만 원대, 헤드 개당 3만 원대
문의 블랙앤데커 코리아(02-3016-9200)

구두 슈즈원

Woman With A Tool



MAXIM's Tip

그라인더나 드릴처럼 고속 회전이 파괴력을 갖는 공구들을 사용할 땐 장갑을 벗어야 한다. 자칫 회전부에 장갑이 빨려 들어가면 손이 장갑처럼 너덜너덜해질 수도 있다.

별하 SAYS:

컴팩트하지만 잔재주가 많은 친구네요. 이런 공구를 쓰는 남자는 몸집은 작아도 머리 회전이 빨라서 센스가 좀 있는 그런 귀염둥이가 아닐까요?



**BOSCH 26mm 진동 드릴
GBH 2-26DFR**

공구 좀 다뤄본 사람들 사이에서는 '로타리 햄머드릴'로 불리는 제품이다. 목공이나 콘크리트벽을 뚫을 때 주로 이용한다. 일반 구형 가정용 드릴이 비트(날이 있는 쇠붙이 부분)를 돌리고 조여서 고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이 제품은 비트를 구멍에 밀어 끼우기만 하면 고정이 된다. 또 안전클러치가 탑재되어 있어 콘크리트나 목재 천공작업 중에 비트가 걸려도 손 병신이 되는 걸 피할 수 있다.

가격 29만 원대

문의 대영M&T(02-2268-4824)

별하 SAYS:

들고 있으려니까 묵직한 게 기관총을 들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드릴은 굉장히 샤프하고 도시적인 남자에게 어울릴 것 같네요. 에어컨 설치하느라 셔츠를 가슴까지 풀어헤친 섹시한 도시 남자?



MAXIM's Tip

요즘은 드릴로 콘크리트를 뚫다가 철근에 걸릴 경우를 대비해 안전클러치를 도입한 제품이 많다. 만약 비트가 걸리게 되면 힘으로 빼지 말고 조금씩 돌리거나 역방향으로 비트를 회전시켜 빼내야 쉽게 빠진다.



Woman With A Tool

BOSCH 충전식 앰프 (GML 18 LI)

공구 브랜드 보쉬에서 스피커를 만들다니, 하선정에서 핫소스를 내놓은 것만큼 이질적이다. 하지만 의외로 배터리 충전, 라디오 및 MP3 재생 등 꽤 쓸모있는 기능들을 탑재하고 있다. 육면체의 본체에 스피커가 사방으로 나 있어 작업장 한가운데 두면 어디서든 생생한 음악을 들을 수 있다. USB 포트가 내장돼 휴대폰이나 MP3P를 연결할 수 있으며, SD카드에 있는 음악도 재생할 수 있다. 내구성이 좋고 사운드도 뽕뽕해 작업 현장에 최적화되었지만, 디자인이 매우 멋져 집에 두고 쓰고 싶은 정도다.
가격 30만 원대 / 문의 보쉬(080-955-0909)

HELKO HW-600 다목적 손도끼

독일의 공구 브랜드 헬코(HELKO)사에서 직접 제작한 가정용 손도끼. 흙이 파인 인체공학적 손잡이를 도입해 손목의 피로도를 줄였다.
가격 28,000원 / 문의 데이비(031-962-7296)

대성 스틸 공구함 DS-503

내구성 문제로 플라스틱 소재만 사용하던 공구함에 스틸 소재를 사용해 내구성을 높였다. 깔끔한 마감처리와 넉넉한 수납공간이 돋보이는 제품.
가격 29,900원
문의 데이비(031-962-7296)

언더웨어 힐라 티바
구두 슈즈원



보쉬 스킵 7인치 5300 원형 톱

작지만 강력한 모터를 내장해 최대 62mm까지 정밀하고 빠른 커팅을 할 수 있는 전기톱이다. 절삭부를 제외하면 톱날이 거의 노출되어 있지 않으며 회전 잠금장치가 있어 사지절단 가능성을 낮췄다. 레더 페이스가 들어도 무섭지 않을 거다.

가격 6만 원대

문의 대영M&T(02-2268-4824)

별하 SAYS:

가볍고 콤팩트한 게... 섬세한 남자가 떠올라요. 디자인도 예뻐서 마초남과는 거리가 있을 것 같고... 오히려 패셔너블하면서 실용적인 남자가 사용할 것 같아요.



제일 CT64 콘크리트 타카

강력한 힘으로 핀을 박는 에어 타카. 드릴과 더불어 작업 현장에서 가장 흔히 보이는 공구일 거다. 제일 CT64는 그립 부분을 고무 밴딩으로 처리해 미끄러움을 줄였으며 가볍고 견고한 알루미늄 재질을 사용해 손모가지가 나갈 걱정은 버려도 좋다.

가격 11만 원대

문의 대영M&T(02-2268-4824)

별하 SAYS:

이런 위험한 공구를 다룰 줄 아는 남자는 굉장히 조심성 있고 냉철한 분위기의 사람일 것 같아요. 늘 침착해서 가만히 있어도 웬지 모르게 주변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그런 남자?

HAIR&MAKEUP 장혜민 FILM 이준원 ASSISTANT 김세형 김소용 COOPERATIONS 특.시02-546-7764 필라 티바(02-549-2036) 엔포리오 아르마니 언더웨어(02-3447-7725) 슈즈원(02-3443-3443-1703) BOSCH(080-955-0909) 디גיM&T(www.digim&t.com) 블랙앤드 화이트(02-3019-4200)

NATURAL CARE
tuning & dress up

➔
**세신 플라이어&
세신 BUFFALO 몽키렌치**
국산 공구 브랜드 세신공구의
컴팩트한 수직업용 공구 라인, 니퍼,
롱노우즈, 펜치 등 용도에 맞게 다양한
치수의 공구들이 출시되어 있다.
가격 각 7,000원, 9,300원
문의 다비아(031-962-7296)

➔
세신 파이프렌치
붉은색 페인팅이 강렬한 파이프 렌치.
가격 9,600원
문의 다비아(031-962-7296)

언더웨어 엔포리오 아르마니 언더웨어
하의 특시

MAXIM's Tip

렌치, 스패너, 멍키스패너, 플라이어?

직업용 공구를 보면 렌치, 스패너 등 부르는 단어는 다양하지만, 뭐가 어떻게 생기고 어디에 쓰이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 렌치(Wrench)와 스패너(Spanner)는 같은 공구로서, 너트를 조이거나 푸는 데 사용한다. 이 중, '멍키스패너'라고 부르는 것은 규격과 관계없이 물리는 부분을 나사로 조절할 수 있는 스패너를 말한다. 플라이어(Plier)는 작은 물건을 쥐거나 철사를 구부리고 절단하는 데 사용하는 공구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펜치'와 '니퍼'가 이에 속한다.



강한 녀석들

주말 캠핑은 물론이고 좀비 퇴치까지 책임져줄 끝 때리는 서바이벌 기어

WORX 20V 2.0 JawSaw

돌쇠가 이두박근 자랑하며 도끼질로 마님 꼬시던 시대는 갔다. 캠핑에서 멋지게 장작 패는 상남자로 어필하려면 여기 최고의 무기가 있다. 무선이라 편리하고 무게도 가벼운 이 전기톱은 스스로 기름칠까지 한다. 또한 단산남이 칼창으로 무장하듯, 연장 풀을 장착하면 더 높은 곳까지 닿을 수 있다. 칼날은 보호커버 안에 들어있어 당신이 손에서 육수를 뿜는 다한중 환자일지라도 톱이 미끄러져 능지처참 당할 가능성은 낮다.

\$160, worx.com

Bushnell PowerSync SolarWrap Charger

인적 없는 오지에서 휴대전화, MP3 플레이어, 태블릿 PC 등의 배터리가 떨어졌다고 상상해보라. 끔찍하다. Power Sync 라인의 이 태양열 충전기는 개별 구동되는 태양열 전지와 비정질 실리콘 필름으로 디자인되어, 한 해 쓰고 버리는 연약한 크리스마스 전구와는 달리 내구성이 뛰어나다. 한마디로 자질한 손상에는 끄떡없는 멋진 좋은 녀석이라는 말씀.

\$150, bushnell.com



내 팔 한쪽 보신분?



MSR Trail Lite Duo System

언제까지 캠핑 가서 번개탄에 까맣게 탄 목살을 집어 먹으며 암세포를 키울 텐가? 여기 이 가볍고 늘어붙지 않는 주방용품 세트와 함께라면 캠핑 식사 메뉴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다. 콤팩트한 사이즈의 냄비에 무려 그릇 두 개, 머그잔 두 개가 쏙 들어가니 부피도 덜 차지한다. 이제 남은 수납 여유 공간에 캠핑의 필수품 위스키, 코냑, 소주, 막걸리, 맥주, 와인 등 온갖 종류의 술을 짹짹 채우자고.

\$70, cascadedesigns.com



Zippo 4-in-1 Woodsman

네 개의 서바이벌 툴이 이 기어 하나에 모두 담겼다. 우즈맨엔 물건을 절단내는 활톱과 손도끼, 텐트 칠 때 용이한 망치와 말뚝 뽑기가 달려있다. 거짓말 조금 보태서 불 피우는 것 빼고는 다할 수 있다.

\$80, zippooutdoor.com



Therm-a-Rest Antares Sleeping Bag

추운 오지를 위해 태어난 초경량 아웃도어 제품. 거위털로 제작됐으며 무게는 900g 정도다. 침낭에 딸린 귀여운 후드는 당신의 대뇌 전두엽까지 따뜻하게 감싸준다. 따뜻한 한 마리의 애벌레가 되어 꿈틀대다가 아침 해가 떠오르면 훨훨 날아오르려!

\$350, cascadedesigns.com





The North Face Patrol 24 ABS Backpack

대용량 수납 공간은 기본. 거기에 무서운 눈사태를 신명나는 썰매여행으로 바꿔줄 에어백이 내장되어 있다. 간단한 조작으로 질소를 가득 넣으면 가방 속 에어백이 3초 안에 작동하여, 당신의 육신이 눈사태에 파묻히지 않도록 눈 위로 떠오르게 한다. 당신은 그저 구조권이 구출하러 달려와 동상으로 얼어붙은 다리에 따뜻한 오줌을 누 때까지 느긋하게 기다리면 된다.

\$1,179, thenorthface.com



SteriPEN Ultra Water Purifier

예수가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해 파티의 레전드가 됐다는 기적 알지? 이 휴대용 정수기는 그런 기적은 못 일으켜도 마실 물을 깨끗하게 할 수는 있다. USB나 외부 전원으로 충전되며, 1회 충전에 50L의 물을 정수할 정도로 꽤 효율적이다. 보너스로 이 제품의 OLED는 유사시에 플래시 불빛의 2배에 달하는 빛을 낼 수 있다.

\$100, steripen.com



Gerber Outrigger Knife

거버의 3인치 스테인리스 칼로 최첨단을 달려보자. 칼날이 아주 빠르게 튀어나오며, 그 방법도 아주 간단하다. 어쩌나 칼날이 순식간에 나오는지 아님 당신 앞에서 오돌오돌 떨고 있는 토끼가 "젠장! 저 새끼 칼 들었잖아!"라고 외칠 시간도 없을 거다.

\$49, gerbergear.com



LifeProof Nuüd iPad Case

방수와 충격 방지뿐 아니라 눈보라, 추위도 견디는 아이패드 보호 케이스. 아이패드로 게임을 하다 연패의 울화통을 못 이기고 한겨울 눈보라가 치는 창 밖으로 아이패드를 내동댕이치더라도 아이패드는 안전할 거란 얘기다(실제로 해본 사람이 있다면 증거사진 보내라. 우리도 궁금하다).

\$100, lifeproof.com

Leatherman OHT

이 과장한 생김새의 기어는 16가지 공구를 한곳에 모아 만든 만능 툴이다. 조작도 쉽다. 손목의 가벼운 조작만으로 펜치나 가위 같은 도구들이 푹 튀어나온다. 극한의 생존 환경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갖고 있다. 산소탱크를 여는 렌치, 다양한 종류의 스크루드라이버, 두 개의 칼,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시원한 맥주병 뚜껑을 딸 때 꼭 필요한 병따개가 있다!

\$82, leatherman.com



내 고추는 자르지 마~

MAXIM 뽐뿌질

총알 없으면 오려서 Pin-up!

뱅앤올룹슨에서 리스로 오디오를 구입하자!

자동차뿐 아니라 오디오도 리스하는 시대가 왔다. 뱅앤올룹슨에서 5월 말까지 무이자 리스 프로모션을 실시한다. 이 프로모션은 베오사운드 5 앙코르 모델 및 베오랩 12-2로 구성된 오디오 세트에 한하며 장기간 무이자 할부로 구매할 수 있어 소비자의 가격 부담을 줄였다. 프로모션 해당 모델을 제외한 뱅앤올룹슨 제품 역시 초 저금리의 리스를 통해 구매할 수 있다. 평소 뱅앤올룹슨의 오디오를 눈독 들였지만 가격 때문에 구매를 망설였던 소비자에게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번 프로모션에 대한 문의 및 상담은 입구정 본점을 비롯한 전국 6개 매장에서 가능하다. 뱅앤올룹슨(www.bang-olufsen.com)



최적의 갤럭시 S4 케이스를 찾고 있다면? 아이커버에서!

국내 최대 모바일 액세서리 브랜드 아이커버에서 갤럭시 S4 케이스 시리즈를 출시했다. 시리즈 중 외부 충격을 완벽히 흡수하는 포르테와 아이딘 시리즈는 아이커버의 베스트 상품. 또 스마트폰을 거치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스탠드 케이스도 만나볼 수 있다. 아이커버의 모든 케이스는 약 12g 정도로 가볍고 0.7mm의 두께로 그림감이 매우 좋다. 블리자드, 키스해링, 츠파츨스, 크랙엔칼 등 아이커버 만의 공식 라이선스 디자인 케이스도 곧 출시할 예정. 현재 아이커버 홈페이지에서는 갤럭시 S4 출시를 기념하여 많은 이벤트를 진행 중이니 공식 홈페이지를 방문해보자. 아이커버(www.icover.kr)

가격과 성능이 더욱 강해진 아이리버 스마트폰 ULALA5

아이리버에서 요금제와 통신사를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골라 사용할 수 있는 지급제 스마트폰 ULALA5를 출시했다. ULALA5는 가격 거품을 뺀 20만 원대의 5인치 스마트폰으로 1GHz 듀얼코어 프로세서에서 빠른 구동력을 자랑한다. 또 구글 안드로이드 4.1 젤리빈을 탑재해 높은 안정성과 속도를 지원한다. 로밍 없이 저렴한 요금으로 해외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듀얼 SIM 기능도 선보인다. 미니멀한 디자인과 블랙과 티타늄 실버 컬러 조합의 스마트폰은 사용자의 감각을 한층 더 업! 스마트폰의 가격과 성능을 까다롭게 비교하고 구입하는 소비자라면 ULALA5를 눈독 들여보는건 어떨까? 아이리버(www.iriver.co.kr)



음악도 즐기고 전화도 한다! 스피커 SRS-BTM8

몸을 맞이하 아외에서 사용 가능한 블루투스 스피커 SRS-BTM8을 소개한다. 스마트폰과 스피커가 원터치 연결만으로 간편하게 블루투스 페어링이 이루어지고 본체 내장형 마이크를 통해 핸드프리 통화도 가능하다. 특히 핸드백 형태의 디자인은 휴대하기가 간편해 아웃도어용으로 제격이다. 전원 연결 없이 건전지만으로 최대 20시간까지 연속 재생이 가능하여 장시간 이동할 때에도 오랫동안 음악을 감상할 수 있다. 제품은 블랙과 화이트 2종으로 출시된다. 149,000원, 소니코리아(www.sony.co.kr)



스마트 PC와 LTE의 만남, 아이브 스마트 PC LTE

본체와 키보드를 따로 분리해 노트북과 태블릿으로 사용 가능한 아이브 스마트 PC LTE 모델을 소개한다. 아이브 스마트 PC LTE 모델은 장소에 상관없이 어디서나 인터넷을 빠르게 사용할 수 있고 2GB 시스템 메모리, 64GB SSD 저장 장치를 자랑한다. 또 S펜을 통한 멀티 터치 방식을 지원해 태블릿처럼 편리하게 사용할 수도 있다. 이 모델은 삼성 디지털 프라자와 KT 직영 대리점에서 구입 가능하다. 선착순 구매자 1,000명에게는 다양한 사은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중! 다재다능한 스마트 PC에 LTE의 완벽한 조화가 궁금하다면 삼성전자와 함께하자. 삼성전자(www.samsung.com/sec)

흔들린 사진은 이제 안녕! 올림푸스 STYLUS SH-50

올림푸스에서 흔들림에 강한 디지털 카메라를 선보인다. STYLUS SH-50은 상하좌우를 기울일 때뿐 아니라 셔터를 누를 때 발생하는 흔들림까지 잡아주는 똑똑한 카메라다. 광학 24배줌 기능을 통해 멀리 있는 풍경을 바로 눈 앞에서 보는 듯한 선명한 사진을 얻을 수 있기도 하다. 사진 속 피부 보정을 자동으로 해주는 뷰티 모드 기능은 여친을 여신으로 변신시키는 기적을 선사한다. 사진이 흔들렸다는 이유로 다시 찍을 필요가 없는 똑똑한 카메라 STYLUS SH-50. 여친과 볼나들이 추억을 선명하게 남기고 싶다면 올림푸스 디지털 카메라를 추천한다. 올림푸스(www.olympus.co.kr)



- 국내 최고 수준의 포토그래퍼, 헤어/메이크업 아티스트, MAXIM 스태프와 함께 하는 멋진 화보 촬영의 주인공이 될 기회
- 2013 총 상금 700만 원 (온라인 예선만 통과해도 상금 10만 원)
- 온라인 예선 통과 시, MAXIM 월간 매거진 화보 촬영
- 8강 진출 시, MAXIM 특별판 매거진 표지 모델 발탁
- 우승 시, 2014년 MAXIM 월간 매거진 표지 모델로 선정 (1~12월호 중 하나)

참가 신청

MAXIM 홈페이지에서 **미스 맥심 참가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자신의 아름다운 몸매와 매력을 잘 표현한 사진 10장 이상을 업로드 한 뒤 MAXIM 독자들에게 전하는 한마디를 씁니다. 작성 완료 버튼을 누르면 끝~!

콘테스트 진행

2013 MISS MAXIM 콘테스트 온라인 예선에서는 본인이 올린 사진이 공개되며, 다른 참가자와 1대1 인기투표 대결을 벌이게 됩니다. 약 열흘 간의 대결에서 더 많은 독자들의 선택을 받은 참가자가 예선을 통과합니다. 온라인 예선을 통과하면? 승리하는 즉시 상금이 지급되며, **이달의 MISS MAXIM**으로 선정되어 화보 촬영에 들어갑니다. 해당 화보는 다음 달 MAXIM 매거진에 실리게 됩니다. 이후 MISS MAXIM 콘테스트 16강전에 진출하여 우승을 위한 토너먼트를 시작하게 됩니다. 16강부터는 상금도 더욱 커지니 숨은 매력녀들의 뜨거운 참가 신청 바랍니다!

문의

e-mail: missmaxim@maximkorea.net
www.maximkorea.net



MISS MAXIM in the World

MISS MAXIM의 인지도는 싸이급이다! 호주 MAXIM이 <올해의 한국인>으로 1위 싸이에 이어 2011 MISS MAXIM 우승자 이명희 양을 2위로 선정했다! 3위는 북한의 김정은. MISS MAXIM 이명희의 매력에 외국인도 푹 빠졌으니, 이제 당신이 세계에 매력을 발산할 차례다. 어서 도전하라!

미스 맥심
바로 가기



2013 MISS MAXIM CONTEST

세계적인 남성 잡지 MAXIM에서
모델 데뷔의 기회를 잡아라!



2012 MISS MAXIM
우승자 단영

Motor

CAR OF THE MONTH

WORLD PREMIERE **HND-9**
Luxury Sports Coupe Concept

모델 또한 약당 싱크로를 120%의 칼집이를 세워놓았다. 대체 이런 넘자는 어디서 데려오나요?



2013 SEOUL MOTOR SHOW MAXIM AWARD

권위 떨어
BY 유승민

2013 모터쇼 MAXIM AWARD
4관왕 싹쓸이

Hyundai HND-9 Venace

- 〈BEST 간지 활활〉 부문 대상
- 〈국산차가 미쳤어요〉 부문 대상
- 〈BEST 희망고문〉 부문 은상
- 〈약당의 자동차〉 부문 대상



홀그라운드 의 이점을 최대한 살려 안방 뒷밭에서 해외 유수의 명차를 울킬하기 위해 내놓은 현대의 비장의 무기 HND-9! 식인 상어를 연상시키는 후덜덜한 포스에 아가씨들 허벅지 짝으러 온 백돼지들도 HND-9 앞에서는 멈칫할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제네시스 쿠페 후속 모델의 디자인이라니! 정말 잔뜩 이렇게 나와버리면 벤츠도 포르쉐도 전부 오징어되는 거다. 지금까지의 모터쇼를 돌아보면 국산차 부스는 뭔 짓을 해도 수입차 부스보다 썰렁하기 일쑤였다. 그러나 이 날은

달랐다. HND-9이 갤러리들을 흡입하는 바람에 주변 부스가 썰렁해질 지경이었다. 작년 모터쇼까지 〈간지 활활〉부문 부동의 디펜딩 챔피언이었던 BMW i8이 산뜻-선량-정의로워 보이는 '착한 주인공' 느낌이라면 HND-9는 피도 눈물도 없는 악당, 하지만 폭풍 간지가 줄줄 흐르는 킬러의 자동차다. HND-9의 후덜덜한 병렬 포스는 현대 부스를 찾은 수많은 방문객의 오움을 지리게 하기에 충분했다. 때문에 현대 부스 근처에는 모터쇼 내내 지린내가 진동을 했다는 풍문이..

차보는지
레깅보는지
지켜보겠어



3관왕

BMW i8 Dynamic Efficient

〈BEST 최망고문〉 부문 대상
〈BEST 그림의 떡〉 부문 금상
〈주유소망해라〉 부문 구두쇠상



지난 서울 모터쇼까지 지존의 자리를 유지했던 BMW의 i5가 한 단계 내려섰다. 객관적인 미래형 포스로만 따지면 여전히 최고임은 분명하나, 재작년의 재탕이라는 점이 조금 아쉬웠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도 〈그림의 떡=콘셉트 카〉 부문에서 BMW의 i8을 따라올 녀석은 없는 듯, 푸르딩딩한 색깔답게 하이브리드인데다 힘은 354마력이면서 연비가 37km/L라니 말 다했다. 대체 뭘 연소시키면서 달리는 거지? 음양오행의 기운을 이용해서 달리나? 〈미션임파서블 4〉에서 톰 크루즈의 차로도 등장한 BMW i5는 이 디자인을 최대한 살려서 곧 양산형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근네 너네 2년전에도 그랬잖아. 곧 나온다고...



〈주유소망해라〉 부문 수전노상 TOYOTA FT-Bh



딱 생긴 것부터 식용유만 넣어도 가게 생겼다. 골판지로 만들었는지 차량 무게 786kg의 초 경량화를 실현했고, 연비는 48km/L다. MAXIM 편집부에서 취재용으로 고는 경차(쉐보레 스파크, 기아 모닝)가 연비 15km/L 쯤 되니까, 우리 경차 한달 치 기름으로 세 달 이상은 버틴다는 얘기가. 이 정도 되면 건너편 주유소 김싸랑 싸우자는 얘기.



〈주유소망해라〉 부문 구두쇠상 INFINITY LE



주유소 망하게 하는데 전기차만한 게 없다. 모터쇼의 단골 손님이 되어버린 전기차 중에 유독 눈에 띄는 신개념을 보여준 인피니티. 핸드폰도 아직 유선으로 충전하는 세상인데 인피니티의 LE 콘셉트카는 무선 충전이라는 신개념을 선보였다. 무선 충전 기술까지 나온 지금, 머지않아 옆집 전기를 무선으로 훔쳐 쓸 수 있는 궁극의 자동차가 나올 날도 머지 않았다.



우는 거 아니에요
TT

〈BEST 최망고문〉 부문 금상

LEXUS LF-LC



지난 11월호에 소개한 렉서스의 LF-CC를 기억하나? 새로 나올 IS 시리즈에 LF-CC의 디자인이 이식될 거라며 에디터가 잔뜩 설레바리를 친 것 말이다. 이번 서울 모터쇼에 공개된 새 IS시리즈를 보면 분명 그 디자인이 이식되긴 한 것 같은데... 털썩, 그때의 간지는 아니다. 하지만 또 다시 한줄기 희망 LF-CC 보다 더 가슴 떨리는 디자인의 LF-LC가 공개된 거다! 이 녀석은 IS에 반영 어쩌구 그런 소리 안 한다. 포르쉐911을 겨냥한 독자적인 슈퍼카로 LF-LC를 양산한 계획이 있다는 얘기가! 이 매체에 대해 여전히 독일차 빠들어들은 '비교할 데다가 비교하라'며 손사래를 치지만 밀 빠진 기름독 911을 발라먹을 연비의 하이브리드 슈퍼카 LF-LC가 나온다면 나라도 911 안 사겠다! 디자인에선 확실히 포르쉐보다 매력적이지 않아? 제발 양산만 해 달라!

〈숨 막히는 뒤테〉 부문

당신이 신호에 걸려서 서 있을 때, 당신이 썩 지나간 뒷모습을 돌아볼 그녀도, 뇌리에 남는 건 바로 뒤테.

〈숨 막히는 뒤테〉 부문 대상
LEXUS LFA



‘강남 아줌마 미용실 서를 말고 LFA를 국내 도입하라!’고 절규하는 수컷들의 티는 목마름을 여전히 개무시로 일관하고 있다. 이럴 거면 서를 모터쇼엔 왜 왔어. 어장 관리하는 거야? 〈어장관리〉부문 후보에도 오른 LFA가 일립지만, 전립선이 짜릿해지는 저 뒤테에 우리는 또 무너지고 말았다.

〈숨 막히는 뒤테〉 부문 금상
JAGUAR F-Type



뉴욕 오토쇼에서 디자인 킹을 먹은 F-Type이 곧 국내에 출시된다. 각종 디자인 상을 싹쓸이하고 있는 이 녀석의 진가는 앞테보다 뒤테 관상학적으로도 옆으로 길게 찢어진 눈을 봉황의 눈이라고 해서 천하를 지배한다고 했다.

특별상 〈WORST 무리수〉 상

문짝 손잡이 어디갔어?

쌍용 LIV-1



쌍용의 미래지향적인 SUV 콘셉트카. 매끈한 디자인을 위해 과감히 뒷문 손잡이를 생략한 점이 절정. 많은 기자들이 LIV-1에 대한 기사를 쏟아냈지만 이 황당한 뒷문 손잡이의 실종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미래의 디자인을 보여준 거니 문 여는 방법도 미래에 생각해보겠다는 건가? 뒷문을 여는 방법은 안에서 열어주는 방법, 손톱으로 뜯어서 여는 방법, 돌맹이로 창문을 내리치는 방법 등이 있을 듯.



〈BEST 어장관리〉 부문 대상 **NISSAN JUKE**

큐브 외엔 이렇다 할 히트작이 보이지 않던 닛산이다. 그런 닛산에게 주크는 그야말로 전 지구적 대박 히트였다. 2010년에 주크가 출시된 이후로 무려 50만대가 넘는 물량을 팔아치웠으니깐. 매월 편집부로 배달되는 MAXIM 미국판에도 주크는 심심치 않게 뒷표지 광고를 통째로 장식하고 있다. 대체 왜! 당신들은 주크를 국내에 내놓지 않는 건가? 저 동그란 눈알과 딱두꺼비같은 바디라인에 매료되어 이제나 저제나 주크의 한국 출시만 기다려온 게 4년째다. 올 하반기에 국내 판매 개시할 계획 있다고 말했는데 이번엔 믿어도 되는 거니?



〈불타는 화양리 쇼바를 올려라〉 부문 금상 **BMW Motorrad New R1200 GS**



지난 3월초에 출시되자마자 3주도 되지 않아 킨텍스에 공개된 따끈따끈한 신상이다. 서울 모터쇼장을 찾은 관람객 중 특히 오프로드 라이딩 마니아들은 새 R1200을 보고 눈 언저리가 찢어져서 다른 네발 차들은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을 거다. 모터사이클에서도 점차 지존의 자리를 굳혀가고 있는 BMW 모터라드의 아심작 뉴 R1200 GS를 손에 넣는 자, 이번 8.15 대폭주에서 총장의 자리를 꿰찰 것이다. 오파 달려! 빨아빠라바라바-



〈민중의 지팡이〉 부문 금상 **BMW Motorrad F800 GT POLICE BIKE**



대한민국 경찰 바이크가 어떤 기종인지 알고 있나? 당신이 만취 행패할 때 지구대 경장님이 타고 온 대림 VF가 경찰바이크의 전부라고 생각 한다면 오산이다. 당장 강변북로만 나가보면 할리데이비슨 폴리스를 심심찮게 볼 수 있는데, 2000년대 중반 들어서는 고장이 잦은 할리 대신 날렵하고 성능도 우월한 BMW R1200RT가 할리를 대체하기 시작했다(최할리는 요새 뭐하니?). BMW의 손맛을 느껴본 기동대 아저씨들을 정확히 겨냥해서 나온 F800 POLICE 바이크를 보고 뽀뿌가 오지 않을 폴리스가 있을까? “청장님임~ 저거 사주리!”

비싸게 구는 녀석들

성황리에 끝난 2013 서울 모터쇼지만, 욕도 바가지로 먹었다. 이유는 '볼 게 없다'는 것. 이미 출시돼서 강남 전시장에 있는 차들이 즐비한데 뭐하러 여기까지 오냐는 말이다. 이번 모터쇼에서 볼 수 있길 학수고대했건만 결국 나타나지 않아 킨텍스를 코엑스 지하주차장으로 만들어버린 결석생들을 꼽아봤다.



〈이렇게 하면 널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부문 **1위**

MINI 로켓맨

일관된 디자인으로 이만큼 열렬한 찬사를 받는 시리즈가 또 있을까? 여느 자동차가 단순히 일관된 디자인을 고수한다고 해서 MINI처럼 수집 욕구를 자극하지는 못한다.(당신도 SM3, SM5, SM7을 수집하고 싶지는 않을 거 아냐.) 하지만 MINI에 한 번 빠지면 클럽맨, 컨트리맨, 쿠페, 컨버터블 등등 이 귀여운 시리즈를 콜렉션해두고 싶은 욕구를 참기 힘들다. 그런 MINI 마니아들이 사진 속에서만 보던 로켓맨을 얼마나 만나고 싶어했는지 대체 알기나 하는 건가? 니가 없어 존나 슬펐어.



〈이렇게 하면 널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부문 **2위**

Peugeot 오닉스(Onyx)

에디터는 푸조 드라이버이자 열혈 마니아다. 하지만 솔직히 올해 푸조 & 시트로엥 부스는 참 심심했다. 파는 물건만 내 놓을 거면 아예 카드 단말기도 갖다놓지 그랬어? 너무도 보고파 꿈에 그리며 몽정을 일삼았던 푸조의 드림드림컨셉카 오닉스! 사진만 보아도 호흥이 가빠지고 귓속근이 수축되게 하던 너를 보지 못해 이번 모터쇼는 내게 무의미했어. 환불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널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부문 **3위**

캐딜락 ELR

대체 우리 조선을 이렇게 차별하는 이유가 뭐야? 불과 두 달 전 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 온갖 찬사를 쳐뭇쳐뭇한 ELR. 당연히 서울 모터쇼에서도 캐딜락 부스의 주인공이 되어줄 줄 알았다. 황당 콘셉트들을 압도하는 디자인을 가졌으면서도 당장 양산해도 이상하지 않을 현실적 포스! 궁극의 하이브리드 ELR. 이 올해 안에 시판될 거란 소식에 기름값 무서워 CTS를 마음속에 고이 집어두었던 많은 캐딜락빠들의 심박수가 증가하고 있다. 스팟팻팻

〈숨 막히는 뒤테〉 은상 **SPIRRA CREDIT**



토종슈퍼카 핸드메이드 장인 길드 '어울림모터스'에서 신형 괴물 '스피라 크레딧'을 발표했다. 최대 출력 600마력! 최고속도 320km/h! 제로백 3.5초! 애프터 서비스는 오로지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추자리에서만! 굉장하지 않은가!

〈숨 막히는 뒤테〉 동상 **LEXUS LF-LC**



〈BEST 희망고문〉 금상에 이어 뒤테 콘테스트에서도 동상의 영예를 안았다. 사실 같은 렉스스 가문에서 1등이 나오는 바람에 예의상 동상으로 밀린 점도 있다. 흠잡을 데 없는 뒤테잖아? 그런데 자네 지금 어딜 보고 있냐?

〈숨 막히는 뒤테〉 5위 **AUDI R8 v10**



명불하진! 이번주 금요일에도 청담동 클럽가의 처녀(?)들은 R8의 풍무니에 다리가 풀릴테지. 하지만 역시 신선함이 부족해서 5위 질투도 나고.

특별상 〈WORST 작명〉 상



YEBBUJANA S4

순수 국내 브랜드 '파워 프라자'의 순수 국내 기술 전기차. 그런데 이름은 무슨 생각으로 지은 거임? 딸 낳아도 그렇게 짓겠네. '박애뿐이 S4'



최속 최대 500km 주행
충전 1시간 이내

Motor

Hot Models



2013 Miss 서울 모터쇼

소문 난 잔치에 갔더니 메인디시보다
애피타이저가 더 찜뎀다. BY 조웅재

Classic Top10

클래식한 원피스 차림의 미녀들.
길고 짧은 거나 재볼까?

BEST 연예인 미모 상!



1 현대모비스 - 문지은

탤런트 최정원이 온 줄 알았다. 그녀 덕에 눈에 잘 안 띄던 제네시스가
환하게 빛났다. 포니2조차 벤츠로 둔갑시킬 정도의 비주얼이었다.



BEST 귀요미 상!



1 닛산 - 임은빈

큐브 옆에 선 초소형 레이싱걸이
귀여워 계속 힐끔거렸다. 얼마
전 페이스북 친구 됐다. 이런 날
받아줘서 고마워요.

1 포드 - 이예빈

알아봐 달라고
그렇게 앞에서 계속
알짱거렸지만 우릴
뵈주지 않았다. 왜
이래요. 같은 동네
살잖아요 누나...



BEST 직업정신 상!

BEST 배신감 상!



1 포르쉐 - 이지민

군대 가고 연락 끊긴 여자 후배가
생각나 눈사물이 뿜어졌다. 초미인은
아니지만 흔한 예쁜 얼굴이라 인기
절정이었지. 오빠가 맛있는 거 많이
사줬는데..



BEST 하이브리드 상!

↑ 렉서스 - 이신민

동양미 뭉친 풍기는 얼굴에 서양식 기락지라니. 저랑 어우동 화브 한번 갈까요?



BEST 스킨십 상!

↑ 렉서스 - 최별하

내 머리칼은 아직 당신을 기억하고 있어. 이번에 STUFF 화보(p.58)도 같이 찍었잖아. 그러니까 이제 날 알아봐 줘.



↑ 포르쉐 - 한송이

언제 봐도 반가운 한송이 씨는 질은 스킨모키와 블랙 원피스로 흑마법 포스를 풍겼다. 익스펙토 패트로늄!



BEST 마녀 상!



BEST 뒤통 상!

↑ 렉서스 - 최유나

김연아를 닮은 최유나의 뒤통은 가히 환상적이었다. 당신의 모습은 제 휴대폰에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겨두었습니다.



BEST 대세 상!

→ 포드 - 허윤미

요즘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허윤미에 에디터 역시 흘린 나머지 들고 있던 카메라를 지구 아래로 내리고 말았다. 쳇, 속바지를 입더니...



BEST 기력지 상!

→ 닛산 - 강유이

얼굴도 엄청 작으시고 기력지도 훌륭하시네요. 죄송하지만 미소만 받겠습니다. 저는 저보다 작은 여자가 좋거든요. 최하하.



BEST 포즈 상!

④ 웨보레 - 은빈

머리카락을 손으로 쥐고 있는 모습이 너무 예뻐서 에디터가 갸송한 사진. 하지만 제목은 '숨막히는 뒤통.JPG'



Modern Top10

은갈치 원피스를 벗은 상큼한 미녀들의 스타일 자랑.



BEST 여비서 상!

⑤ 포르쉐 - 주다하

오늘은 매혹적인 여비서 복장으로 등장한 주다하. 블라우스를 벗어던치고 체치 퍼포먼스라도 했다면 포르쉐 부스는 이마 인산인해로 무너졌을 거다.



BEST 조강지처 상!

① 르노삼성 - 김수아

4월호 식목일 화보 촬영 후 한 달도 안 되어서 재회한 수아영! 내가 이런 여자에게 삼질을 시키다니, 테레사 수녀에게 불경을 외게 한 것 같은 죄책감이 시달렸다.

BEST 성녀 상!

③ 폭스바겐 - 서진아

태어나 처음으로 이름을 와운 레이싱 모델이다. 드림을 치려고 해도 왠지 모르게 성스러운 기분이 몸을 휘감아 그릴 수 없었다.



BEST 조선미녀 상!



② 웨보레 - 김지아

단아하게 묶은 머리가 흰 피부와 어우러져 동양미를 분사하고 다닌 그녀. 개량한복을 입은 가마걸 콘셉트도 관찰았을텐데. 2품 가마 쿠페 옆에 끼고..



BEST 복고미녀 상!

① 쉐보레 - 이지우

검은 생머리에 푸른 색 배바지라니, 80년대 학원물에서 막 튀어나온 것 같았다. 청 넓은 모자는 바람에 날아가나?



BEST 카오스 상!

② 폭스바겐 - 김하음

지스타 취재 때 로브를 입고 있던 그녀는 오늘 착시 바지를 입고 있었다. 원래 좀 혼란스러운 스타일이세요?



BEST 애니팡녀 상!

③ 쉐보레 - 최승기

'초딩승기'로 유명한 그녀의 깜찍 머리띠를 발견! 날 둘러싼 이 공간이 지스타 애니팡 부스라는 착각이 들었다. 그때도, 지금도, 여전히 귀여운 그녀.



BEST S라인 상!

④ 폭스바겐 - 이유은

예쁘게 날씬한 몸매가 매력적인 이유는, 카메라를 들이대자 아무기가 춤을 추듯 완벽한 S라인을 그려냈다.



BEST 김밥 옆구리 상!

⑤ 어울림모터스 - 황아희

옆이 몹시 과감하게 터져서 사람들이 눈을 못 떤던 화제의 그 옷. 근데 아마 벗으면 옷 자국이 3일은 가지 않을까?



미녀와 슈퍼카



MAXIM
시승기
#28

VOLVO v40 D4 2.0

2013 서울 모터쇼에 막강 전학생이 나타났다. 야, 이 학교 짱이 누구야?



BY 유승민

3,980만 원



흔저옵서예

수입 중소형 해치백 전쟁. 니가 굳이 이 바닥으로 오겠다면 말리진 않아

**BMW 1시리즈 해치백
Sport Line = 3,980만 원**



애들아, 전학생 받아라.

아우디 A3 해치백 = 4,250만 원



야, 뭐 해. 전학생 받으라잖아.

벤츠 B클래스 = 3,980만 원



넌 가격이나 내려, X도 아닌게.

폭스바겐 골프 2.0 GTD = 4,090만 원



아 놔, 인제야 군번 풀리나?

현실드림카 vs. 드림드림카

남자에겐 보통 2가지 드림카가 있다. 현실 생각 안했을 때의 드림카와 주머니 사정을 고려한 드림카가 바로 그것이다. 전자는 그야말로 '드림'으로만 그치는 대상이다. 부가티 베이론, 람보르기니 레벤톤, 벤틀리 플라잉스퍼 등등 뭐 그런 거다. 실 능력도 없거니와 갑자기 그 돈이 생긴다해도 그 차를 사진 않는다(대출부터 갚아야지 이 사람이). 반대로 후자는 주머니 사정과 앞으로의 자금 사정을 고려했을 때 '3년만 피뎌 살' 생각하면 지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제일 맘에 드는 차를 뜻한다. 이 '현실 드림카'를 선정하는 기준은 훨씬 복잡하다. 연비, 실용성, 여친의 취향, 세컨녀의 취향, 할부프로그램 등 자동차가 아닌 나의 능력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내 직장이 할부금 다 갚을때까지 망하지 않고 버티줄 것인가도 검토해 봐야할지 모른다. 슈퍼카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이번 서울 모터쇼는 현실 드림카를 고르기에 딱 좋은 자리였다.

2013 모터쇼의 고민종결자

자연히 안구 호강을 목적으로 레벌지를 쫓아 눈길을 끌리는 구경꾼보다, 새 차 구입을 고민하며 계산기를 두드리던 유효 소비자에게 더욱 의미있는 모터쇼가 되었다. PC를 박차고 일어나 내 차 후보군을 실제로 한자리에서 비교 체크해 볼 절호의 찬스였던 셈이다. 게다가 이번 모터쇼에 발표되는 신차들이 적지 않았다. 허황된 콘셉트 가 말고 우리의 손에 닿는 그런 차들 말이다.

이 '뉴페이스'들은 우리의 치열한 고민을 한 방에 해결하는 역할을 하곤 한다. 마치 소나타와 SM5를 놓고 두 달쯤 고민하다 K5가 나오자 하루만에 계약하는 것처럼 말이다. 이번 모터쇼가 낳은 '고민 종결자' 중 하나가 바로 볼보의 v40이다. 4천만 원 선의 수입 해치백을 놓고 머리를 굴리던 소비자들에게 v40이라는 막강 옵션이 나타났다. 특히 볼보가 지금까지 메인 스트림이 아니었던 탓에 개성과 차별성을 중시하는 이들에겐 더욱 끌리는 옵션인 셈이다.

	BMW 1시리즈	볼보 V40	A3 해치백	B클래스	골프 GTD
연료	디젤	디젤	가솔린	디젤	디젤
구동방식	뒷바퀴 굴림	앞바퀴 굴림	앞바퀴 굴림	앞바퀴 굴림	앞바퀴 굴림
배기량	1,995cc	1,984cc	1,984cc	1,796 cc	1,968cc
연비	18.5 km/ℓ (1등급)	15.4 km/ℓ (2등급)	11.6 km/ℓ (3등급)	15.7 km/ℓ (2등급)	15.3km/ℓ (2등급)
최대출력	184마력	177마력	200마력	136마력	170마력



은근히 여자 꼬이는 해치백

'4천만 원 선의 수입 해치백을 놓고 머리를 굴리던 소비자' 그게 만약 당신이라면? v40 등장 전까지 당신의 고인 대상은 분명 BMW 1시리즈 해치백, 아우디 A3 해치백, 벤츠 B클래스, 폭스바겐 골프의 4파전이었을 거다. 그 쪽엔 관심없었다고?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관심을 한 번 가져봐라. 해치백을 끌고 다니는 남자는 여자들이 봤을 때 '안정적이고 가정적이며 자상한' 이미지를 주기 때문이다. 게다가 앞에 나열한 5가지 선택지는 왠지 4천만 원보단 비싼 것 같은 프리미엄 이미지를 주기 때문에 당신을 실제보다 더 능력 있고 더 행복한 스펙의 엄친아 품질남으로 보이게 하는 패치가 되어줄 거다. 이번 서울 모터쇼에서 사람들의 이목을 한 몸에 받은 v40이 킨텍스를 나와 1빠로 MAXIM 편집부에게로 보내졌다. 워낙 바쁜신 몸이라 드라마 출연 일정도 뻑뻑하게 잡혀있어서 3일간의 시승 기간을 다 채우지도 못하고 볼보에서 도로 회수해갔지만 어쨌거나 내가 1빠였다는 것을 위로 삼으며 아쉬움을 달랬다. 볼보 v40에 관심이 있다면 에디터가 시승한 사진 속의 저 색상을 강추, 완추한다. 사진으로는 잘 모를 수도 있는데 'Misty Blue Metallic'라는 저 색상이 그야말로 이 세상의 것이 아니다. 이 고려청자 톤은 희귀한 색깔을 여자들은 민트색이라고 하던데, 직접 보면 자동차 컬러로는 처음 보는 색상일 거다. 길바닥에 널려있는 검, 회, 백의 무채색 행진에 끼지 않으면서도 은은하고 따뜻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당신의 지저분한 인상에 깔끔함을 덧씌우기에도 그만이다.

결국은 BMW 1시리즈와의 선택일걸?

주행 성능이야 제원표를 보면 알거고, 디자인도 내가 이러네 저러네 떠들어 봤자 내 얘기일 뿐, 지금 위에 보이는 사진 속 디자인을 보고 당신이 느끼는 게 정답이다. 내가 해 줄 수 있는 건 앞서 말한 다른 선택지들과의 비교다. 같은 가격의 벤츠 B클래스는 어느 모로 봐도 v40 보다 구리다. 배기량도 출력도 훨씬 낮은 게 연비는 되려 더 나쁘기 때문이다. 폭스바겐 골프는 가격 차이도 별로 안나고, 배기량, 연비도 거의 같다. 단, v40의 힘이 좀 더 좋다. 골프빠가 아니라면 v40의 승리다. 아우디 A3는 더 구리다. 가솔린 엔진이라 연비가 v40보다 한참 나쁘다. 자연히 최대출력이 더 높긴 한데 당신은 지금 디젤을 원해서 여기까지 왔을 테니 원하는 바가 아닐 거다. 문제는 같은 가격의 BMW 1시리즈다. v40보다 배기량도 높고 최대출력도 더 높는데 연비는 오히려 더 좋다. 후륜 구동이라 승차감도 더 낫지만 후륜 구동의 취약인 겨울철 주행 안정성이 좀 걸린다.

공신차를 만드는 그 날까지!

안전의 대명사 볼보가 더 이상 에어백을 달 때가 없었는지 보행자용 에어백까지 장착했다. 보행자를 들이받으면 바깥에 에어백을 시전하며 보행자가 앞유리로 로켓트 박치기하는 것을 막아준다. 당신이 받아버린 보행자는 다리만 부러진 채 입은 썰어서 펌백 거리게 될 거다. 이거 좋은 거 맞지?

눈 오는날 빙그르르 도는게 싫으면 후륜은 비추다. BMW와의 비교는 결국 디자인 취향에서 갈리겠다. 지금까지 볼보와 BMW의 디자인 비교는 대부분 BMW의 승리로 끝나곤 했다. 볼보의 심심한 디자인이 발목을 잡았기 때문이다(실제로 그닥 심심하지 않은데도 브랜드 이미지 자체가 좀 심심했던 듯). 볼보가 그 점에 이를 같았나보다. v40은 볼보 집안의 막내이자 멧쟁이인 2도어 C30보다도 더 도발적으로 날을 세우고 있다. 언뜻 보기에 뒷모습은 C30과 비슷한 듯 하지만 왠지 더 매력적으로 보일 거다. 리어램프를 파격적인 L자 라인으로 뽑았기 때문이다. 차 바닥에서부터 감아올라오는 듯한 듀얼머플러 주변부는 오프로드도 거뜬할 듯 터프하다(요즘 볼보가 이 디자인에 꽂아서 전 모델이 다 이렇게 나옴). v40만의 백미는 역시 저 전투적인 휠캡이다. 순정 휠 중에 이만큼 공격적이고 파격적인 휠은 정말이지 처음 봤다. 그런데 이거... 메칸더 V 팔뚝에 찬 방패같다고 느낀 거 나 뿐인가? 팔리팔리랄랄랄라! 공격개시!! 🚗



Motor news

MINI, 컨트리맨 아트 콜라보레이션

MINI는 2013 서울 모터쇼 기간 동안 MINI 부스에서 팝 아티스트 김일동 작가와 함께 MINI 컨트리맨 아트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했다. MINI 컨트리맨 위에 다양한 색상의 테이프와 스텐실, 그래피티 스프레이 등 다양한 작업 도구를 활용해 제작했다. 김일동 작가는 생동감 넘치고 에너지가 충만한 도로 위의 야생마 같은 MINI의 모습을 형상화했다. 귀여운 외모 속에 박력 넘치는 심장을 지니고 있는 MINI 컨트리맨! 역시 너의 몸엔 뭘 해도 예술이구나~ 감동이다. 감동.

MINI(www.mini.co.kr)



현대자동차, 아반떼 쿠페 출시

현대자동차가 역동적인 주행 성능과 경제성까지 겸비한 아반떼 쿠페를 출시했다. 새롭게 선보인 아반떼 쿠페는 중형급 2.0 GDI 엔진을 탑재한 스포츠 쿠페다. 뛰어난 성능 뿐만 아니라 2도어 타입의 차별화된 외관 디자인을 통해 역동성을 강조했다. 아반떼 쿠페는 175마력 최대토크 21.3kg·m의 힘과 12.4km/L 연비로 준중형급 쿠페로서 뛰어난 힘과 경제성을 자랑한다. 아울러 서스펜션 강성을 높이고 스티어링 응답성을 향상시켜 기존 준중형급에서는 느낄 수 없던 주행 능력을 보인다. 고객 선호 사양을 대거 적용하면서도 2천만 원 미만으로 출시해 최고의 상품성과 합리적인 가격을 동시에 만족 시킨 아반떼 쿠페. 예이스네~

1,795만 원(스마트), 1,995만 원(프리미엄) 현대자동차(02-3464-2102)



이탈리안 트렌디 감성의 피아트 친퀘첸토 500C

이탈리아 자동차 브랜드의 아이콘 피아트의 친퀘첸토 500C는 시대를 넘나드는 트렌디한 디자인과 실용성을 겸비한 모델이다. 게다가 운전의 즐거움 및 뛰어난 안전성과 함께 50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소형차다. 친퀘첸토 500C는 1.4L 16V 멀티에어 엔진과 전자 제어식 6단 자동 변속기가 탑재되고 102마력의 힘을 자랑한다. 멀티에어 엔진과 함께 6단 전자제어식 자동 변속기는 최대 연료 고효율 범위 내에서 반응하여 12.4km/L의 연비로 친환경적인 드라이빙을 자랑한다. 또한 35가지 이상의 안전 사양이 장착되어 운전자뿐 아니라 모든 탑승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 한국 상륙 후 인기가 고공 행진 중인 이유가 있구나 역시!

3,300만 원, 피아트 코리아(www.fiat.co.kr)



한국 낫산 패스파인더 국내 첫 공개

서울 모터쇼에서 낫산이 완벽한 패밀리 어드벤처 차량으로 알려진 패스파인더 4세대를 공개했다. 1986년 1세대 출시 이후 거듭된 진화를 거친 4세대 모델은 3열 공간을 갖춘 7인승 SUV이다. 3.5리터 6기통 VQ엔진을 탑재했다. 게다가 차세대 엑스트로닉 CVT를 조합해 뛰어난 퍼포먼스를 자랑한다. 혁신적인 내부 설계는 3열에 위치한 탑승자까지도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했으며 넉넉한 공간을 통해 많은 양의 짐을 실을 수 있도록 고안됐다. 패스파인더는 현대적인 크로스오버와 대형 SUV의 장점을 집약한 모델이다. 아웃도어 활동이 잦아지는 요즘 패스파인더가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구나.

한국 낫산(주) (02-2085-8954)

BMW 모터라드, NEW R 1200 GS 출시

BMW 모터라드가 온-오프로드 엔듀로 모델인 NEW R 1200 GS를 출시한다. NEW R 1200 GS는 1,170cc 271통 박서 엔진으로 최고 125마력과 최대토크 12.8kg·m의 폭발적인 힘을 발휘한다. 기존의 R 1200 GS 모델보다 15마력 증가하고 연비가 24.4km/L로 뛰어난 경제성을 자랑한다. 게다가 레인, 로드, 다이내믹, 엔듀로, 엔듀로 프로의 5가지 다양한 주행 모드로



주행의 재미까지 선사한다. 기존의 R 1200 GS 모델은 500cc 이상의 대형 바이크 시장에서 독보적인 아이콘으로 자리잡았다. 이번에 강력한 엔진 성능과 한층 더 스포티해진 디자인으로 바이크 마니아들에게 또 하나의 아이콘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2,830만 원, BMW 모터라드(www.bmwmotorrad.co.kr)

독자의 차 화보촬영 프로젝트 This is My Car!

오너드라이버 독자를 위한 MAXIM Motor의 메가톤급 이벤트!
당신의 자동차를 사진으로 찍어 MAXIM 편집부로 보내라.
한 명(또는 한 팀)의 독자를 선정하여 당신의 자동차를
주인공으로 한 MAXIM 화보를 촬영하겠다! 당신의 애마에게
지상 최고의 호강을 시켜줘라!

“타 본 차 중에 제일 좋은 차는 뭐였나요?”

지난 5년간 수 십 종의 신차를 시승해 온
MAXIM의 자동차 전문 에디터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다. 그에 대한 그의 대답은 늘 한결같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차는
바로 '내 차' 입니다.



배기량, 최고속도, 마력 등... 수많은 기준을 놓고 서로 최고의
차라며 떠들어대지만 '내 차'라는 특별한 존재 앞에선 모두
무의미한 숫자일 뿐이다.

나와 함께 울고 웃고, 수많은 추억을 담고 달리는 '내 차'.
심지어 나를 묶어 살리는 것도 '내 차' 뿐이니까. 이 화보의
주인공은 어느 자동차 잡지처럼, 자동차 회사의 신차 홍보를
위해 제공된 '남의 차'가 아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쉴 새
없이 달려 준 바로 '당신의 차'다.

MISS MAXIM을 만나다!

잡지뿐만 만났던 미스맥시를 양 팔에
끼고 잊을 수 없는 기념 촬영! 간직해
뒀다가 아들에게 보여줘라. "아버지 이런
사람이었다."

당신의 차를 MAXIM 화보에 영원히 남기다!

레이싱걸을 거느린 모터쇼 슈퍼카처럼
당신의 자동차 인생의 한 페이지를
MAXIM에 영원히 남겨주마.

당신의 자동차를 전국에 뽐내라!

열심히 튜닝하고, 꾸민 당신의 자동차를
SNS 외엔 마땅히 자랑할 데가 없었나?
MAXIM이 대신 전국에 자랑해주겠다!

이게 정말 내 차 맞아?!

최고 수준의 MAXIM 포토그래퍼, 조명팀,
에디터가 당신의 자동차를 멋진 화보로
남기기 위해 총출동한다!

덤으로 1년 정기 구독까지!

당신의 차가 당신에게 공짜 구독 혜택도
안겨줄 거다. 당신의 애마가 실린 MAXIM
다음호가 정기 구독 첫 호!



<응모요령>

- 당신의 자동차를 직접 찍은 사진을
MAXIM으로 보내라.
- 당신의 이름/ 전화번호/ 거주지/ 차종
(모델명)/ 구입연도도 적어라.
- 메일 보낼 곳 :
event@maximkorea.net

<당첨 확률을 높이는 Tip>

- 당신의 차에 얽힌 재미진 시연을 적으면 더
유리하다.
- 안전한 차보다는 당신만의 개성으로 튜닝한
차가 더 유리하다. (갓 뽀는 새 차라면 튜닝
안 해도 좋다)
- 같은 차를 모는 동호회 친구가 있다면 함께
신청해도 좋다. 자동차 2대라면 미스맥시도
2명 데리고 나갈테니!

미스맥시와
만나려고 남의 차를
찍어서 보내면 큰
화를 입을 것야!



야구장에 쥐라기 시대가 열린다

티라노사우루스 뺨치는 'NC 다이노스'의 거침없는 도전

BY 강산(엑스포초이스 기자)



NC 김경문 감독이 선수들을 격려하고 있다.



'아홉 번째 심장' NC 다이노스가 힘찬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 지난해 퓨처스리그(2군) 남부리그 우승을 차지하며 경쟁력을 확인한 NC가 4월 2일 창원 마산구장에서 역사적인 데뷔 첫 1군 경기를 치렀다. 상대는 부산 경남 토종 인기 구단이자 '지역 라이벌'인 롯데 자이언츠다. 마산구장은 2011년까지 롯데가 제2의 홈구장으로 사용하던 곳이다. 팬들의 마음은 갈대와 같다. '마산 야재'들은 이제 거인이 아닌 공룡을 응원하기 위해 경기장을 찾는다. 마산구장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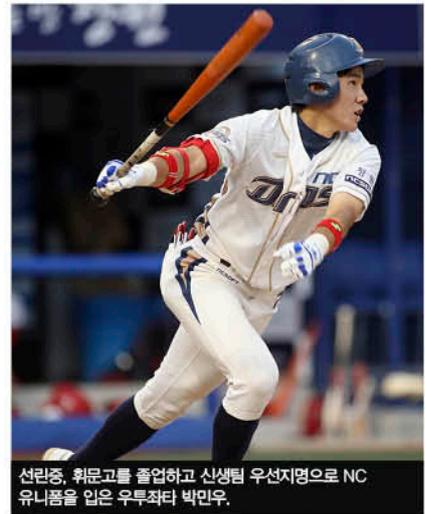
NC의 실력 좀 볼까?



발 빠른 전력 보강

NC 다이노스는 새 시즌을 앞두고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다. 기존 8개 구단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전력 보강 작업에 나선 것이다. 각 팀에서 보호선수(뺨기기 싫은 선수로 지정한 20명의 선수) 외 지명선수 8명을 데려왔다. 전 삼성 라이온즈 김중호, 전 SK와이브스 모창민, 전 두산베어스 곽창성, 전 롯데자이언츠 이승호, 전 KIA타이거즈 조영훈, 전 넥센 히어로즈 이태양, 전 LG트윈스 김태균, 전 한화이글스 송신영이 그들이다. 분명 경쟁력 있는 선수들이지만 기존 팀에는 자리가 없던 이들이 NC에 새 동지를 틀면서 주전급 전력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친정 팀에서 친법 신세이던 이들이 이제는 따순 밥 대접을 받으며 새로운 도약을 꿈꿀 수 있게 됐다.

이뿐이 아니다. 마치 블루마블 부동산 사고팔 듯 NC는 바쁘게 선수들을 영입했다. 자유계약선수(FA)가 된 이호준(전 SK와이브스), 이현곤(전 KIA타이거즈)을 각각 3년 20억, 2년 10억 5천만 원에 데려왔다. 이현곤의 영입과 함께 창단 후 첫 트레이드도 진행했다. 투수 김태형을 넥센에 보내고 차화준과 임창민을 받아오며 적극적인 전력 보강에 나섰다. 마운드 보강도 빠르게 이어졌다. NC는 지난 2년간 신인 드래프트에서 4명의 투수(노성호, 이민호, 윤형배, 이성민)를 우선 지명했다. 또 신생 팀의 특권으로 수준급 외국인 선수 애덤 윌크, 찰리 시릭, 에릭 해커를 영입했다. 약간 촌스럽지만 애덤(Adam), 찰리(Charlie), 에릭(Eric)의 이름 앞 글자를 따 이들은 'ACE 트리오'로 명명됐다.



선린중, 휘문고를 졸업하고 신생팀 우승자였으며 NC 유니폼을 입은 우투좌타 박민우.

하지만 기존 8개 구단과 견줘 선수층이 얇은 것은 어쩔 수 없다. 대부분 젊은 선수들로 구성된 이호준과 나성범 정도를 제외하면 당장 다른 팀을 상대로 선발을 꿰찰 정도의 타자를 찾기 힘들다. 젊은 선수들은 아직 공격과 수비에서 기다들을 부분이 많다. 하지만 젊은 패기를 앞세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야구를 펼치겠다는 것이 김경문 감독과 선수들의 각오다. 김 감독은 지난 3월 25일 열린 미디어 데이 행사에 참석해 "리그에 눈을 끼치지 않도록 하겠다"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명문 구단의 조건은 실력뿐이 아니다. 능력 있는 여자보다 예쁜 여자한테 남자가 고이는 법. 관중 유치를 위해 NC는 국내 최고 인기 치어리더로 꼽히는 김연정 치어리더를 '모셔'왔다. 그것도 라이벌 구단인 롯데에서 말이다

거침없이 가자

NC의 캐치프레이즈는 '거침없이 가자'다. 신생 팀의 패기를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이제 막 격투기를 시작한 열혈 청년이 호기롭게 표도르한테 덤빈다고 이길 수 있겠는가? 패기만으로는 경기에서 승리하기 쉽지 않다. 실력이 뒤따라야 한다. 선수들은 현재 그 '실력'을 키워나가는 과정이며 김경문 감독 이하 코칭스태프가 이를 부단히 돕고 있다. 선수들은 NC에서 또 다른 행복을 찾았다. 기존 구단에서는 후보 선수 혹은 2군 선수에 불과하던 그들은 이제 어엿한 주전 선수다. 응원가가 생겼고, 경기장에서 팬들이 그의 이름을 연호한다. 그것도 실 새 없이, 타석에 들어서서는 매 순간 말이다. 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격스러운 일인가. 그런데 NC의 9라운드 신인 권희동은 캐치프레이즈 그대로 '거침없이' 나왔다. 역사적인 자신의 첫 번째 응원가를 바꿔 달라고 요청했다. 응원가는 영화 <미션 임파서블>의 테마다. "둥둥둥둥 NC희동 권희동~ 권희동~ 안타" 글로 음악을 100% 설명할 수 없어 아쉬울 따름이다. <미션 임파서블>의 웅장함과과는 거리가 먼, 마치 초딩이 친구 약 올리는 느낌이다. 그는 체리필터의 노래 중 하나를 새 응원가로 요청했다. 그것도 마케팅팀 직원의 두 손을 꼭 붙잡고 말이다. 이게 바로 신인의 패기다.



데뷔전을 치르다

역사적인 1군 데뷔전을 치렀다. 지난 4월 2일 연고지 라이벌 롯데를 상대로 말이다. 창원 마산구장은 팬들로 가득했다. 이들은 경기 내내 응원가를 따라 불렀고, 선수들의 플레이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했다. 그러나 결과는 비극적이었다. 등장과 함께 퇴행한 전설의 가수 오리의 데뷔 무대가 떠올랐다. 역사적인 데뷔 첫 경기에서 4:0으로 완패한 것이다. 데뷔전에서 힘없이 무너진 NC는 롯데와 치른 3연전에서 내리 패했다. 평소 과격하기로 소문난 마산 팬들이 3연전이 끝난 뒤 NC의 구단 버스를 에워쌌다. 선수들과 김경문 감독은 걱정될 수밖에 없었다. 무기력한 패배에 응당 욕설을 듣지 않을까 불안했기



NC의 외국인 선수 3인방: 애덤 윌크, 찰리 시릭, 에릭 헤커. 이름 앞 글자를 따 일명 'ACE 트리오' 라고.



때문이다. 하지만 팬들은 "힘내라. 열심히 뛰는 모습 보여줘서 고맙다. 대구에서 잘하고 와라!" 하고 오히려 응원을 보냈다고 한다. 갓 1군에 발을 들여놓은 팀에게 이만한 에너지ドリンク이 또 있을까.

비록 개막 이후 7번 넘어서며 1군 무대의 높은 벽을 실감했지만, 미래는 밝다. 4월 11일, 7연패 이후 역사적인 첫 승을 챙겼다. 7전 8기를 제대로 보여준 셈이다. 그라운드에서 마음껏 자기 플레이를 펼치는 선수들과 김경문 감독이라는 든든한 버팀목도 있다. NC가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프로야구가 700만을 넘어 800만 관중 시대를 열 수 있다. 7전 8기 끝에 첫 승을 움켜쥔 NC의 향후 행보가 기대된다. 

한화의 13연패,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98~99시즌의 프로농구 동양 오리온스. 팀의 쌍두마차 김병철, 전희철 그리고 유망주인 박재일 선수까지 군대로 보내고, 당시 용병 중 최고의 센터라고 꼽히던 그레그 콜버트란 선수가 바림난 마누라를 잡으려 아반도주해 미국으로 날아가버렸다. 이렇게 진무후후한 32연패를 달성하며 오리온스는 최다 연패 세계 신기록을 세웠다. 그러나 한화, 기죽지 말고 파이팅!

순위	팀	승	패	승률	연속
1	현대	27	9	.750	6승
2	LG	23	13	.639	7패
3	기아	22	14	.611	2승
3	LG	22	14	.611	2승
5	LG	21	15	.583	1승
6	SBS	20	16	.556	2패
7	SBS	18	18	.500	2승
8	SK	14	22	.389	1패
9	SK	11	25	.306	3패
10	동	2	34	.056	31패

Oh, Happy **ELISHA C**

수영복 Zimmermann
구두 Jerome C. Rousseau
귀걸이 Karine Sultan
반지 Sam Lehr

Day!

UTHBERT



통 행크스, 메이플 시럽, 하키 게임... 캐나다가 우리에게 준 선물은 많다.
그러나 **엘리샤 커스버트**만큼 우리에게 열렬한 욕정을
불러일으킨 존재는 없었다. MAXIM이 꿈은 가장 아름다운
TV 속 여인 커스버트의 네 번째 MAXIM 화보를 마음껏 감상하시라
(얼마나 아찔하면 벌써 4번이나 찍었겠나?)

보디슈트 Zimmermann
셔츠 Yoonmi Lee
벨트 Elegantly Waisted
주얼리 Sam Lehr



엘리샤 커스버트

생년월일: 1982년 11월 30일

데뷔: 어린이 TV 시리즈
〈Popular Mechanics for Kids〉

출연작: 드라마 〈24시〉,
영화 〈러브 액츄얼리〉, 〈올드 스쿨〉,
〈내겐 너무 아찔한 그녀〉,
〈하우스 오브 왁스〉 등

현재: 드라마 〈해피엔딩〉에서 결혼식 도중
다른 남자와 함께 도망간 바람난 신부
알렉스 커크비치를 연기 중



수영복
Zimmermann
쇼츠
Giorgio Armani
벨트
Elegantly Waisted
귀걸이
Karine Sultan
팔찌
Sam Lehr
반지
Isharya

축하한다. MAXIM이 당신을 '미드에 나오는 가장 아름다운 여자'로 선정하겠노라!

정말 자랑스럽고 고마운 일이긴 한데, 다들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빅뱅이론>의 칼리 쿠오코, <모던 패밀리>의 소피아 베르가라 그리고 <뉴 걸>의 주이 디샤넬 같은 쟁쟁한 미녀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 중 가장 아름다운 한 사람을 뽑았단 말인가?
 아, 그렇다고 당신들과 싸우겠다는 소리는 아니고, 결과를 우아하게 받아들일 것이다. (웃음)

'제2의 <프렌즈>'라 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는 코믹 드라마 <해피엔딩>에 출연 중이다. 거기서 절친들과 끊임없이 수다를 떨며 남 뒷담화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특히 미남 톱가수 존 메이어 애길 하면서 그를 씹는 장면이 매우 통쾌했다.

누구든 안 가려고 씹어줄 테다. 누구도 피할 수 없다! 사실 우리 세대 사람들은 대중문화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대화 중에 연예인 얘기가 빠지는 일이 없다. 그걸 작가들이 잘 캐치한 것 같다. 천재적이다! 참고로 <행오버> 시리즈의 조각미남 브래들리 쿠퍼는 이미 여러 번 도마 위에 올랐고, <노트북>의 순정남 라이언 고슬링은 남자가 스카프를 착용했다는 이유로 까였다.

다른 여자들은 전부 그들에게 환장하던데, 당신은 그들이 별로 맘에 안 드나?

열두 살 때 좋아한 '뉴키즈 온 더 블럭'의 조던 나이트 이후로는 누구에게도 반한 적이 없다. 누가 이상형을 묻는다면 난 '오프라 윈프리'라고 대답할 거다. 남의 집에 놀러 갈 때도 자기 뒷밭에서 채소를 따고, 집 냉장고를 뒤져 음식을 바리바리 싸갈 것 같은 그녀의 후덕함이 좋다.

전작 드라마 <24시>는 시종일관 진지한 내용이었다. <해피엔딩> 관계자들은 어쩌다 <24시>의 킴 바우어(그녀의 배역)에게 코미디를 시킬 생각을 했을까?

아마 카메라가 없을 때 내가 종종 하는 우스꽝스럽고 익살스러운 행동 때문이 아닐까. 솔직히 말해서 내가 재미있는 사람이라서 뽑은 건 아닐 테니까 말이다. 한번은 <해피엔딩> 시즌 1을 찍을 때, 촬영장 뒤에서 일명 '투명 홀라후프 돌리기'를 하고 있었다. 그때 제작자 데이비드 카스피가 그 모습을 보고 미친듯이 웃어댔다. 그리고 그걸 계속 기억하고 있었는지 시즌 2를 찍을 때, '그때 그 춤을 춰보면 어떻겠냐고' 내게 제안했다. 마치 눈덩이가 굴러가듯 일이 점점 커지더니 진짜로 드라마에서 내 코믹댄스가 등장하게 됐다. 그리고 지금은, 정말 이제 무슨 짓이든 다 할 수 있는 경지에 다다랐다.

작년 크리스마스 에피소드에서 '힙합 산타' 인형과 댄스 배틀을 하며 과장한 춤을 추던 당신의 모습은 정말이지 압권이었다.

그 장면을 많이들 좋아하더라. 사람들의 반응이

“WITH THE GIRL NEXT DOOR, A LOT OF REAL PORN STARS TOLD ME I WAS LIKE THEIR JULIA ROBERTS FROM PRETTY WOMAN.”

재있었다. 다들 내가 몸치인 줄 알았나? 나도 춤 좀 추는 사람인데!

다른 시트콤들처럼 공개 라이브 코미디가 아니라 시청자들의 피드백을 바로 받지 못한다. 코미디에 대한 피드백은 어디서 얻는 편인가?

가끔 비행기를 탔을 때 누군가 <해피엔딩>을 보고 있는 걸 발견하면, 몰래 그를 지켜보면서 그가 웃는지, 안 웃는지를 확인한다. 그러다 갑자기 눈이 마주치면 어색하게 손을 흔들지.

얼마 전, 미국 코미디의 황태자 데이먼 웨이언스가 <해피엔딩>에 특별 출연했다. 그와 함께 작업한 소감은?

어린 시절부터 그의 영화 <죽을 길들이기>의 광팬이었다. 진짜 웃기다. "살인은 내 일이야, 이년들이야!(Killin' is my business, laaadiiiiies)!!" 이 대사는 한 칠백만 번 연속으로 돌려 봐도 뻥뻥 터진다. 실제로 그를 만나서 이 영화가 나에게 진정한 위대한 작품이라고 말했다. 물론 <선들러 리스트> 같은 영화는 아니지만, 나를 굉장한 명작이다.

최근 캐나다 아이스하키 선수 디온 패노프와 약혼했다. 싱글일 땐, 영화 <올드 스쿨>에서의 당신 캐릭터처럼 원나잇 스탠드에 몰한 여자였나?

전혀 아니다. 그건 그냥 남자들이 바라는 허구의 캐릭터일 뿐이다. 영화 속에는 있어도 현실에는 없는, 오직 꿈에서만 만날 수 있는 그런 판타지 캐릭터 말이다.

판타지 캐릭터란 말이 나와서 애긴데, 영화 <내겐

너무 아찔한 그녀(The Girl Next Door))에서 포르노 배우를 연기했다. 그 역할이야말로 남자들이 모두 바라는 환상의 캐릭터다. 영화 사상 최고의 판타지 캐릭터를 순위로 매긴다면, 그녀는 늘 상위에 들어갈 거다.

남자들이 그 캐릭터에 그토록 열광하는 이유는 아마 다 벗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다. 내가 거기서 울누드였다면 다들 "월, 이젠 좀 아닌데"라고 하면서 지나쳤을 수도 있지만, 완전히 벗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남자의 판타지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내겐 너무 아찔한 그녀> 중 한 장면은 실제 포르노 박람회장에서 촬영했다고 들었다. 그 박람회에서 뭐가 가장 인상적이었나?

거기서 진짜 포르노 배우들을 만났는데, 나에게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많았다. 그들에게 내가 <귀여운 여인>에 나오는 *줄리아 로버츠 같은 존재라고 말이다. 아주 고마운 말이긴 한데, 듣고 나니 뭔가 기분이... 묘했다.

*줄리아 로버츠는 이 영화에서 귀엽고 거침 없는 콜걸로 등장한다.

마지막 질문이다. 드라마 <24시>가 영화화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글쎄... 언젠가 영화화되긴 하겠지만, 그게 실현될 쯤에 난 한 60 억은 노인이 돼 있을 것 같다! 언젠가는 분명히 될 거다. 다만 그게 언제일지는 머느리도 모른다. 지금 그 질문은 나한테 물어봐야 소용 없다. 모든 것은 주인공 책 바우어(키퍼 서덜랜드)에게 달려있다. 책 바우어는 언제나 모든 것을 알고 있지. ☺

가죽 재킷 인터메조
청재킷 더파트먼트
신발 뉴발란스
시계 Aviator



ICON

Bigger Than Just Idol 장우혁

왕년 H.O.T. 간지가 어디 가랴.
아이돌 때보다 더 멋있어진 남자
장우혁이 진짜 남자에 대해 말한다.

WORDS 손안나 PHOTOGRAPH YuD



“ 자기 일에 자부심을 갖고 일하는 남자는 언젠가 최고가 된다 ”

촬영할 때 보니 여전히 춤 실력이 살아있더라.

나이 먹어서도 계속 춤을 추고 싶다. 그런 이유에서 몸 관리도 열심히 한다. 지난 몇 년 동안은 새벽 6시에 일어났다. 매일 아침 호두 몇 알, 아몬드 몇 알씩 먹고... 거의 스님처럼 생활했다.

정말인가? 지금 과자를 굉장히 맛있게 먹고 있지 않나?

사실 요새는 조금 쉬고 있다. 그것도 다 완급 조절이 필요하더라고.

‘버퍼링 댄스’ 같은 신기한 춤 동작은 어디서 영감을 얻어 만드는 건가?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해서 아프리카에 있는 친구가 미국에 있는 친구의 춤을 모방하고 그걸 또 누군가가 업그레이드하고... 그런 식이다. 나도 그런 데서 영감을 많이 받는다.

역시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인 건가?

어찌 보면 춤은 IT보다 더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애플이 아이폰을 만드는 기술을 공개하지는 않지만, 춤은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순간 무조건 공개가 돼버리니까 계속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다.

춤으로만 따지면 우리나라에서 당신은 몇 번째일까?

더이상 순위는 의미가 없는 것 같다. 지금도 이 순간에도 챔피언은 계속 바뀌고 있다. 아프리카에서 나왔다가 일본에서 나왔다가 베트남에서 나왔다가...

장우혁의 드림카는?

지금 타고 있다. 로보 미니. BMW 미니가 아니고, 영국 로보사에서 나온 클래식 카다. 오래된 차라서, 지금도 계속 수리하고 바뀌고 갈아주면서 그렇게 타고 있다.

수리비로 거의 차 한 대 값이 나오겠군.

나중에 내 아들에게 물려줄 생각이야. 할리우드 영화를 보면 아빠가 자기 캐딜락을 고쳐서 아들한테 물려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참 멋있더라고. 캐딜락은 너무 길어서 국내 사정에 안 맞으니까, 난 로보 미니를 물려주겠다. 이건 티코보다 작거든.

패션에도 상당히 관심이 많다고 들었다. 당신처럼 무심한 듯 시크하게 옷 입는 비법을 알려 달라. 꾸며야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자연스럽게 편하게

보이도록 입는 게 좋은 것 같다. 슬랙스(스판 소재의 헐렁한 팬츠)에 뉴발란스정도만 코디해도 멋스럽지 않을까?

싫어하는 이성의 옷차림은?

현란한 무늬의 스타킹을 싫어한다. 알코가 뾰족한 구두도 신밧드 같아서 별로... 보세라도 자기 이미지와 어울리는 가방을 드는 게 예쁘지, 과한 명품백 드는 것도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다. 안 어울리는 샬백 들고 있는 사람을 보면 “아, 강남 여자네.” 뭐 이런 생각밖에 안 든다.

밸런트 한혜진이 이상형이라고... 그녀와 기성용의 열애설을 접한 소감은?

한혜진 씨... 정말 실망이다.(웃음)

기성용처럼 여덟 살 연상을 만나 볼 생각이 있나?

없다. 내가 벌인 일이 워낙 많아서 결혼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자주 만나줄 수 없는데, 상대방에게 얼마나 미안하겠나.

그렇다면 8살 연하는?

좋다. 끝.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설립해서 아이들을 육성하고 있다고 들었다.

댄스 아카데미와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집목한 회사를 운영하다가 몇 년 전 법인을 설립하면서 본격적으로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시작했다. 음악, 패션, 뮤직비디오 등 여러모로 지금의 아이돌과는 180도 다를 거다.

회사 대표이지만 청소도 직접 한다고 들었다.

인테리어랑 건물 보수도 직접 했다. 가끔은 바닥 청소도 한다.

H.O.T.가 대결제를 들고 사무실 바닥을 닦는 모습이 상상이 가질 않는다.

내게 왜 그런 일까지 하느냐고 묻는 사람들도 있지만, 굳이 가오 잡아야 할 필요가 있을까? 장우혁은 장우혁이고 회사는 회사다. 나한테 백 원이 있어서 회사가 십 원을 가졌다면, 거기에 맞게 움직여야지.

경제관념이 철저하군.

어렸을 때부터 절약하는 습관이 배었다. 콘서트에

꽃힌 코드 뽑는 것도 그냥 습관이다. 우리 회사는 퇴근할 때 아예 두꺼비 집을 내린다. 다음날 출근 전까지 굳이 쓸데없는 전기를 낭비할 필요 없잖아?

얼마 전 수백억 대의 빌딩 자산가로 알려지며 화제가 됐다. 부자 되는 방법을 알려 달라.

당장 몇 십 만 원 더 모으고 안 모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멀리 보고 젊었을 때의 경험을 투자라고 생각해야 한다. 우동집을 차리고 싶으면 우동집에서 서빙부터 시작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나?

만약에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돈을 빌려 달라고 한다면?

그런 말 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교육을 철저히 해놓아야지.(웃음)

절친 김중민이나 토니안이 돈을 빌려 달라고 한다면?

안 빌려준다. 누가 돈 빌려달라고 하면 나는 그냥 전화번호를 지운다.

생각만해도 싫은가보군.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거 자체가 싫데다. 아니다. 실례를 넘어서 범죄다. 왜 사람을 고민하게 만드는지 말이다.

장우혁이 생각하는 못난 남자는 어떤 남자인가?

여기저기 돈 빌리고 다니는 남자.

그럼 당신이 생각하는 멋진 남자는?

자기 일에 자부심을 갖고 일하는 남자. 그런 사람은 언젠가는 최고가 된다.

최근에 그런 멋진 남자를 만난 적이 있나?

입구정 씨네시티 맞은 편 떡볶이 아저씨... 언젠가는 잘될 줄 알았다. 조리부터 포장까지 자기만의 방식으로 매뉴얼화 돼 있더라. 그 아저씨가 참 멋있어 보였다. 맛에 대한 자부심도 엄청나고.

그렇게 맛있나? 에디터에게도 위치를 알려달라.

포장마차로 시작해서 지금은 그 자리에 점포를 차린 걸로 알고 있다. 내가 시작한 엔터테인먼트 사업도 지금은 걸음마 단계지만, 그 떡볶이 아저씨처럼 자부심을 가지고 키워야겠다고 생각한다. 

재킷 더파트먼트
바지 G-by 게스
시계 Aviator



장우혁

생년월일: 1978년 5월 8일
직업: 가수, 프로듀서
데뷔: 1996년 H.O.T 1집 앨범
〈We Hate All Kinds Of Violence〉

좋아하는 운동: 축구
맡은 포지션: 미들 윙, 센터 포워드
요즘 관심사: 디제잉
무대에 함께 서고 싶은 아티스트:
서태지와 아이들
후회되는 일: 영화 〈늑대의 유혹〉의
강동원 역할을 거절한 것

HAIR&MAKEUP 유소영(070-8877-7735) FILM 김송기 ASSISTANTS 박영숙 이효진
COOPERATIONS 인터네트(02-2143-7673) 더파트먼트(02-515-0343) 미렐라벨(032-500-1524) Aviator(02-541-1700) G by 게스(02-3449-4935) 후미(02-3443-7808) 뉴발란스 by 피나클(02-3445-1235)

오함마로
망치출 추는
장우혁



DO-YEON in Wonderland

개그우먼 장도연이 이렇게 예쁘고 사랑스러운 여자였는지 알고 있었나?
햇살 좋은 5월의 봄날, 우린 그녀와 놀이동산 데이트를 했다. 엔도르핀
샘솟는 그녀의 미소에 어느새 당신도 헤벌쭙 따라 웃게 될걸?

BY 손안나 PHOTOGRAPH **Zho**







구두 슈즈원

촬영 내내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 너무 좋았다.

오늘 화보 안 찍었으면 어쩔 뻔했나?

솔직히 촬영 전에는 많이 졸았다. 얼마 전 박현화씨 화보를 보니, 엉덩이를 반쯤 드러내고 촬영했더라. 내 몸매가 많이 까서 좋을 게 없는 몸이거든.

놀이공원에 얽힌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나?

어렸을 때 어머니 아버지가 맞벌이를 하셔서 놀이공원에 많이 못 가봤다. 지금은 갈 사람이 없어서 못 가고 있다. 어쨌든 나이를 먹어도 똑같은지...

같이 가고 싶은 사람이 생기면 놀이공원에서 뭘 하고 싶은가?

그냥 남들 다 하는 거 있잖나. 손 잡고 놀이기구 타고, 츄러스 먹고 그런 거. 관람차에서 뽀뽀도 하고.(웃음)

언제부터 이렇게 키가 컸나?

초등학교 4학년 때 12cm가 크고, 5학년 때 13cm가 컸다. 더는 안 클 줄 알았는데 6학년 때 또 11cm가 크더라. 3년 동안 인생에서 클 키가 다 컸다. 희한하게 성장통 같은 것도 없이 무럭무럭 자랐다.

JTBC <이수근 김병만의 상류사회>에서 김병만의 뺨을 때려 고막을 파열시켰다. 어떻게 된 일인가?

그땐 열의만 너무 앞섰고, 힘은 센데 때리는 방법을 몰랐다. 따귀를 때려야 하는데 조준을 잘못한 것 같다. 김병만 선배님도 엄청 아팠을 텐데 "일하면서 그런 거니까 상관없다"며 쿨하게 넘어가시더라. 천사가 따로 없다.

원래 그렇게 힘이 센가?

세긴 센가 보다. 근데 이 힘을 어떻게 주체하지 못해서 그런지 무대에서 몸 쓰는 연기를 하고 나면 은몸에 멍이 든다.

고막이 파열될 정도로 때려주고 싶은 알미운 동료 개그맨이 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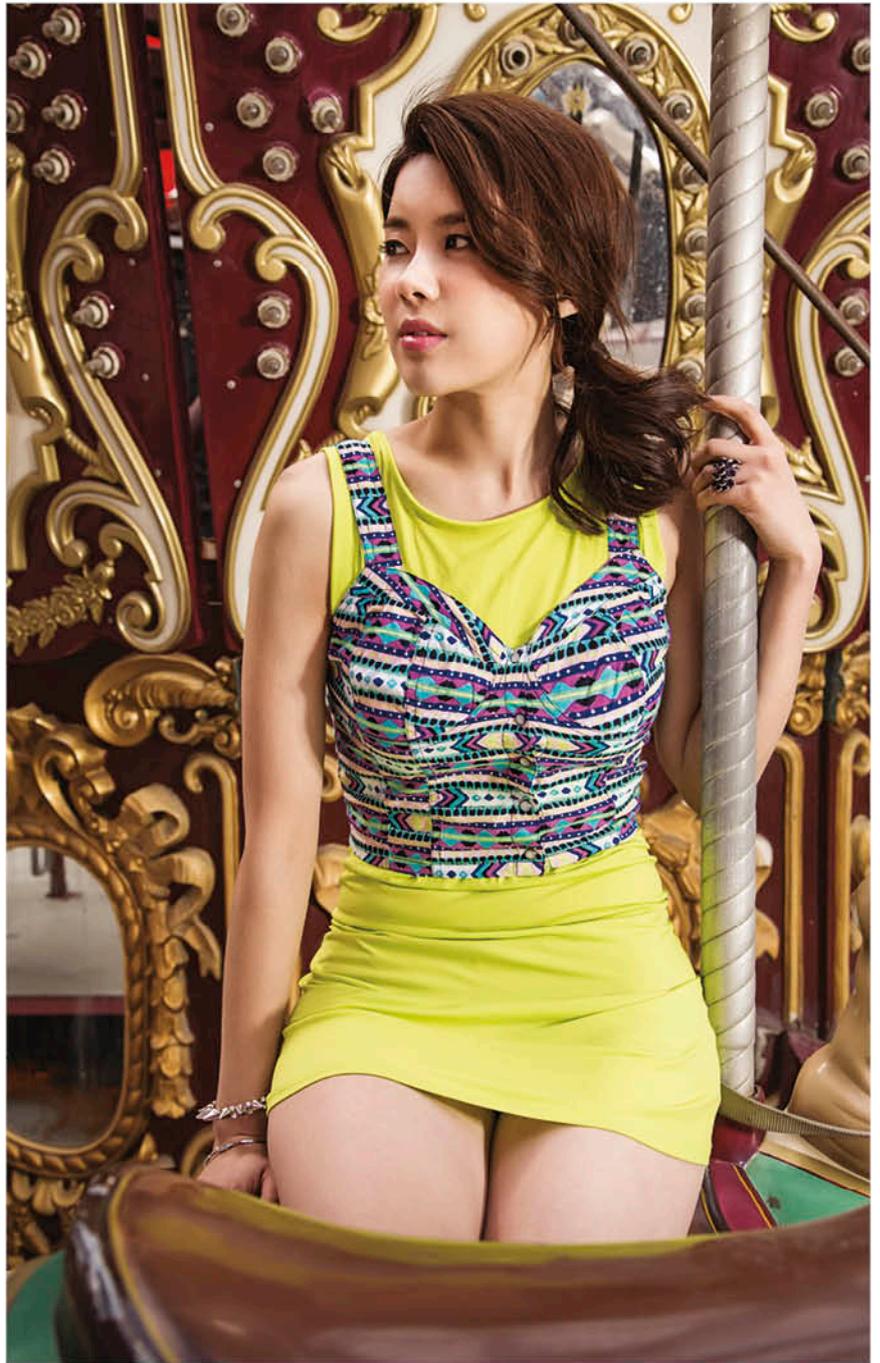
양세형 씨가 참 알미게 군다. 놀리면서 욕을 하거나 때리기도 하고, 사람이 싫어질 때쯤 되면 또 엄청 잘해준다. 그게 너무 알미다. 사람을 개쳐림 대하다가 갑자기 여자로 대한다니까?

박나래와 콤피 개그를 많이 한다. 혹시 본인이 예뻐 보이려고 일부러 그러는 건가?

아니다. 박나래보다 못생긴 개그우먼이 얼마나 많은데! 나래랑은 코드가 잘 맞아서 계속 같이하고 있다. 나래는 예뻐 보이려고 성형수술을 다 해놓고 얼굴에 수염까지 그려가면서 무대에 오르는 열정이 있다.

2006년 Mnet의 <토링 19금>에서 과거에 남자친구를 꼬이기 위해서 술에 돼지 발정제를 타본 적이 있다고 했다. 사실인가?

다 거짓말이다. 대학교 다닐 때 참여한 일반인 출연



프로그램인데, 일반인이 웃기는 방법에 대해 뭘 알겠나? 술자리에서 독하고 아하면 뺨빵 터지니까 그게 방송에서도 통할 줄 알았다. 그때 욕을 엄청 먹었다. 이래서 사람이 허를 잘 못 놀리면 안 된다.

그럼 남자를 유혹할 때 뭐가 효과가 있겠는가?

단연 술이다. 내가 술을 마시면 여자 짓을 좀 하게 되거든. 근데 술이 좀 세다. 옛날에 한창 잘 들어갈 땐 소주 한 3병 정도 마셨다.

<도전 1000곡>에서 '하얀 백지장 같은 처녀'라는 말을 했는데, 그 말의 의미는 뭔가?

수녀 같은 여자. 그냥 난 수녀다.

오늘 화보를 찍으면서 보니까 몸매가 너무 훌륭해서 놀랐다. 가슴이 작다는 콘셉트는 개그우먼으로서 억지로 짜낸 것 같은데.

맞다. 나도 내 가슴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니까.(웃음) 개그는 개그잖나. 사람들이 그런 인식을 갖더라도 내 남자는 알 테지. 그렇지 않다는 것을...

“

웃기려고 한 게 아닌데 내 포즈에
사람들이 웃는다. 내가 관절 꺾는 게
그렇게 웃긴가?

”



그녀의
하이패션
포오즈



구두 슈츠윌
자전거 임팩 람보르기니 에디션



연관 검색어로 '장도연 모유수유'가 뜬다.
〈롤러코스터〉의 극 중 역할 때문에 그런 건데
지우고 싶지 않은가?

전혀. 그때 진짜 재밌었다. 한창 태풍이 왔을
때라서 전국이 비상사태였는데, 검색어 순위가
'태풍'이 5위고, '장도연 모유수유'가 1위더라.
그것도 하루 종일. 지금 태풍이 와서 다 죽게
생겼는데 그깟 모유수유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그걸 검색하고 있지?

연관 검색어 중에 지우고 싶은 게 있나?

돼지 발정제. 연관 검색어라는 게 참 웃프다.
예전에 〈프로젝트 런웨이 코리아〉에서 특집으로
출연했을 때 심사 위원들한테 "니들이 패션에
대해 뭘 아냐 이 온스타일 것들이!" 이렇게
외쳤는데 그때 한창 연관 검색어로 '이 온스타일
것들이'가 떴다. 아니나 다를까 돼지 발정제가
바로 옆에 뜨더라.

플랫슈즈 스타일 마리오
필피 스와치비쥬



장도연

생년월일: 1985년 3월 10일

신체: 174cm

데뷔: 2007년 KBS 22기

공채 개그맨

라이벌 개그우먼: 안영미

이상형: 원숭이 상에 키가

적당하고 개그 코드가 맞는 사람

별명: 거인

주 서식지: 상암동 CJ E&M 센터,

홍대 도쿄마루

트친 하자:

twitter.com/@174517451745

(참고로 그녀의 트위터 프로필은

'거인 미녀 개그우먼♥'이다)



More in
MAXIM
IPAD

얼마 전부터 김기리와 신보라가 연애를 시작했다. 본인은 연애할 생각이 없나? 유상우는 어떤가? 조세호(양배추)는?
유상우는 멋있는 선배님이다. 하지만 과거에 개그우연을 너무 많이 만났다는 단점이 있다. 조세호는 내게 그냥 양배추다. 채소,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개그우연은 재밌는 남자를 좋아하나? 아니면 가만히 본인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을 좋아하나?
어쭙잖게 웃기려고 하는 사람이 제일 싫다. 꼭 개그우연을 이겨먹으려는 남자들이 있다. 웃음으로 먹고사는 직업인데 일반인이 어떻게 개그우연보다 더 웃기겠나? 개그적으로 웃긴 것보다 언변에 센스가 있거나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이 좋다.

무결점 민낯 피부로 유명하다. 과메기가 그 비법이라는 기사를 봤다. 우연찮게 과메기를 먹다가 찍은 사진이 기사화됐을 뿐이다. 휴대폰 카메라가 잡타 하나까지 잡아내지는 못하니까 뿌얌게 나왔다. 과메기 홍보대사라도 들어올 줄 알았는데 뭐가 없네?

경희대학교 시각디자인과를 휴학하고 개그우연의 길을 걷고 있는데, 원래 꿈은 무엇이었나?
광고 디자이너가 되고 싶었다. 우연찮게 대학교 3학년 때 공채 개그맨 시험을 봤는데 붙어서 이렇게 살고 있다. 광고 디자이너는 올 건너갔다. 나이 먹고 다시 처음부터 공부할 생각하니까 도저히 못 하겠다.

중국 패션 잡지인 (H STYLE)에 당신의 사진이 실렸다. 어떻게 하다가 중국까지 진출하게 됐나?
패션위크 때 포토 라인에 섰는데, 개그우연이 예쁜 척해보야 배우보다 안 예쁘잖나. 그래서 그냥 웃긴 포즈를 취했는데 그게 중국 잡지에 실렸다. 번역해보니까 "이 사람은 모델이 아니라 놀림개도 한국의 개그우연이다. 그녀의 포즈는 뭔가 다르다"라고 써 있더라.

평소에 그런 기이한 포즈 연습을 하는가? 전혀 안 한다. 솔직히 난 웃기려고 한 것도 아니고 멋있다고 생각해서 취한 포즈에 사람들이 웃더라. 내가 관심을 끄는 게 그렇게 웃긴가? 

FILM 감독기 HARR&MAKEUP 이영성 ASSISTANTS 박성욱 이홍선 COOPERATIONS 스와치버뷰(02-3149-9949) 스타일 머리오, 슈즈원(02-3443-1703) 밀팩 반보르가니, 에디션 by 제바이클로 반포점(02-3477-2121)



내 꽃밭칠 예뻐?

CL
No.1 Indie

Gate Flowers

지난 4월 7일, 단독 공연을 몇 시간 앞두고 리허설에 한창인 터프한 하드록 밴드 게이트 플라워즈를 만나고 왔다. BY 손연나



제8회 한국대중음악상 '올해의 신인상', '올해의 록 노래' 2관왕이라는 화려한 경력에도 불구하고 당시 그들의 EP 앨범은 겨우 200여 장 팔렸으며, 단독 공연 관객은 스무 명 남짓이었다. 2011년 그들을 대중적으로 알린 KBS 서바이벌 프로그램 <탑밴드>에 출연하기 전, 보컬 박근홍은 블로그에 이런 글을 남겼다. "〈탑밴드>에 나가는 것이 게이트 플라워즈의 음악을 바꾸지 않고 팀을 유지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다." 2005년 결성, 2006년 해체, 2008년 재결성 그리고 2012년 정규 1집 발매까지... 그 지난한 시간 동안 출판사 직원으로, 임시 학원 영어강사로, 일러스트레이터로, 공대생으로 살면서도 이들이 밴드 음악을 놓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반갑다. 당신들의 팬이다.

근홍: 고맙다.

중은: 정말인가? 앨범 샀나?

음반은 아직 못 샀다. 미안하다.

중은: 예이, 그럼 팬 아니다.

이번 앨범에서 '서울 발라드'라는 곡이 참 좋던데...

각자 이번 음반에서 가장 아끼는 곡을 꼽는다면?

재인: '서울 발라드'.

중은: 나도 '서울 발라드'.

근홍: 'We are One'. 이 곡이 제일 길다.

승식: '기억의 눈'. 내가 만들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발라드적인 감성이 묻어나오는 훌륭한 곡이다.

2005년에 결성된 밴드이지만, KBS <탑밴드>를 보고 새롭게 팬이 된 사람들이 많다. 신생 팬들에게 게이트

플라워즈의 입문 곡을 추천한다면?

근홍: '예비역'(2011 한국대중음악상 최우수 록 노래)을 추천한다. 하드록이라고 하니까 어렵고 대단할 거로 생각하지만, 막상 '예비역'을 들으면 놀랄 거다. 너무 쉬워서.

승식: 사실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노래다. 앨범 만들 때 곡이 모자라서 억지로 넣은 거였다.

중은: 공연에서 그거 하면 자살하고 싶을 정도다. (웃음).

근홍: 그래서 작년 12월 19일 이후로 안 하기로 했다.

한국대중음악상을 받는다는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어땠나?

승식: "드디어 뜨는구나...!"

기대했던 것처럼 났나?

승식: 전혀. 죽은 듯이 조용했다. 행사라도 하나 잡힐



지난 4월 7일, 홍대 클럽FF에서 게이트 플라워즈의 두 번째 EP 음반을 공개하는 단독 공연이 있었다.

줄 알았는데...

그때는 밴드 하려고 다들 투잡을 뛰었다던데...

근홍: 출판사에서 일하다가 <탑밴드>를 시작하면서 그만뒀다.

승식: 나는 그보다 6개월 전에 그만뒀다. 그때 막 음반이 나왔거든. 앨범 나오면 질 것 같아 생각하고 그만뒀는데... <탑밴드>가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

중은: 당시 나는 일러스트를 그려서 꽤 돈을 버는 편이었다.

재인: 비슷하다. 그때 학교에서 공부했고, 요즘엔 집에서 공부한다. 요즘엔 이펙터를 개발하고 있다. MAXIM 독자들이, 스피커 고장 나면 불러 달라. 출장 서비스도 간대(웃음).



지금은 다들 전업 음악인이 된 거군.

근홍: 그래서 지금이 금전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위기상황이다.

중은: 한국대중음악상 탔을 때도 솔직히 음악이 우리의 메인인 아니었다. 그때 그냥 '우리가 운이 좋구나.'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요즘엔 정말 스트레스가 엄청나다.

근홍: 아침에 일어나면 어떤 곡을 만들지에 대한

생각에 짜증부터 나고...

중은: 지금까지는 운이 80%이었다.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

나이드 직업도 성격도 전혀 다른 멤버들이 어떻게 모이게 됐나?

승식: 나랑 중은이는 일곱 살 적부터 같이 총싸우하던 부랄 친구다. 어렸을 때부터 같은 아파트 205호, 203호에 살았다. 둘이서 밴드를 했는데, 어느 날 공연장에서 근홍이 형의 밴드를 만난 거다. 근홍이 형은 우리 무탈 보고 '좀 하네' 정도로 생각했고, 우리는 완전 백이 간 거지.

근홍: 그 당시에 우리를 게이트 플라워즈로 모은 친구가 전 베이시스트였는데, 지금은 결혼해서 오늘이 애 돌잔치란다.



양중은의 추궁에 결국 공연 후, CD를 구입한 에디터.

게이트 플라워즈는 데뷔 8년만인 2012년 5월 29일, 첫 정규 음반 <TIMES>를 발표했다. 안에는 "믿어주세요, 우리가 가는 길을"이라는 글귀가 적혀있다. 좀 오글거리지만 그들의 행보를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멤버들이 진심으로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일 거다(근데 진짜 좀 오글거려요). 사운드는 이전보다 절제됐고, 가사 전달력은 눈에 띄게 좋아졌으며 그루브한 리듬감은 여전히 이들의 자랑이다. 자신들의 음악적 색깔을 지키면서도 이렇게나 멋있게 진화할 수 있구나... 앞으로도 그들이 가는 길을 무조건 믿어보기로 했다.



게이트 플라워즈의 추천곡

유재인, 양중은: TRACK 4, 서울 발라드
박근홍: TRACK 8, We Are One
염승식: TRACK 11, 기억의 틈

에디터의 추천곡

TRACK 6, 잘자라

Music

지금 게이트 플라워즈가 잘 된 걸 보고 배가 아프겠다.

근홍: 그때는 무대에서 '예비역' 연주하고 있으면 관객들이 막 나가고 그랬다.

승식: 지금은 대한민국 최고의 하드록발라드라고 상 받고 TV에 나오니까(웃음).

근홍: 그때 개가 나간 것도 여자 때문이었지?

승식: 여자 친구한테 "능력 없는 남자"라며 차인 것에 너무 큰 상처를 받아 음악을 그만뒀버렸다.

재인: 그게 현실이다.

근홍: 자기랑 관계없으면 음악 하는 남자보고 "와 멋있다"라고 하지만, 관계있으면 그렇게 못 하지. 다들 아니까. 돈이 안 된다는 걸..

그렇게 여자들한테 인기도 없는 밴드 음악을 계속하는 이유는?

근홍: 나도 이제 마흔이 되어 가는데, 단지 음악이 좋아서 이 일을 한다고만은 얘기할 수 없는 것 같다. 이제까지 쌓아온 게 아깝기도 하고, 여러모로 복잡한 심정이다.

승식: 상이고 인기고 이런 걸 떠나서 우리가 만족할 수 있을 때까지는 해야겠지.

흔히 밴드 활동이 결혼 생활만큼 힘들다고 하는데... 게이트 플라워즈는 2006년 한 번 해체했다가 재결성됐으니 재혼한 셈이다.

중은: 결혼한 내가 말하겠다. 정말로 비슷한 점이 꽤 있다. 부부가 한 번 싸웠다고 "그걸 거면 때려 치워!" 하고 이혼해버리기 쉽지 않듯이 밴드도 마찬가지다. 그동안 같이 합을 맞추며 이뤄둔 게 있는데, 해체하고 끝내버리기 어렵지.

근홍: 해체하려면 회사에 돈을 위약금을 몇 배나



들어줘야 하는 것도 비슷하다. 이혼소송 위자료처럼..

부부처럼 사소한 걸로도 많이 싸우나?

승식: 근홍이 형이 너무 깨끗하다.

근홍: 애비가 기본적으로 청소에 대한 상식이 없다. 이제 그만 정신 차리고 직업 가지라는 잔소리에 집에서 어머니랑 한창 싸우고 나왔는데, 연습실에 청소가 개편이다... 그러면 화가 나지. 창작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조그만 계기가 있으면 폭발한다.

중은: 이게 딱 아내와 남편의 모습이다.



할랄!

배가 고프지 기타를 핏고 있다. 쫓쫓... 젊은 사람이...

연습식은 '조이엄'이라는 이름으로 개인 활동을 했다. 특히 '의정부'라는 곡이 좋더라. 의정부라는 도시를 그렇게 서정적으로 노래하다니... 의정부 사람으로서 감사를 전한다.

승식: 예전 여자친구가 의정부에 살아서 '의정부'라고 지었다. 원래는 '정발산'으로 하려고 했다.

얼마 전 아끼던 기타를 잃어버렸다던데... 가져간 사람에게 한마디 해 달라.

승식: "자식 같은 아이입니다. 따뜻하게 잘 보살펴 주시고, 잘 쓰세요. 잘 닦아주세요. 안 걸리게 잘 보관하세요. 대신 걸리면 죽여버릴거야. 손가락을 다 분질러 버리겠다!!" 이 세상에 기타가 그렇게 많은데 왜 내가 한 기타에 집착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

근홍: 이게 바로 이 친구의 연애관이기도 하다.

승식: 부정하지는 않겠다.





다른 멤버들의 연애편은 어떤가?

재인: 연애편? 연애가 '관'이다. 한 번 빠지면 다른 데는 아예 신경을 못 쓴다는 의미로.

박근홍은 이번에 모태 솔로에서 벗어났다고?

중은: 목소리가 바뀐다. 이렇게 굵은 목소리가 연애편 때는 알아지더라.

가까이서 보니 정말 소희를 닮았다.

근홍: 나도 예전에는 대부분의 남자가 그렇듯이 외모에 대해 조그만 환상이 있었다. "나 정도면 괜찮지" 뭐, 이런 거.



정우성도 닮았다. 특히 인종이...

근홍: 옛날에는 장혁 닮았다는 말도 많이 들었다. 사진을 보여주겠다.



근홍: 그럼 뭐하나? <탑밴드>에서 찍힌 수많은 굴욕 샷 보고 현실을 알게 됐다. 절대 내가 잘생겨서 게이트 플라워즈를 좋아하는 게 아니구나...

승식: 설마 지금까지 그걸 몰랐던 말이야? 잘생겨서 좋아하는 줄 알았어?

근홍: 이 정도인 줄은 몰랐다. 어휴. 🙄



콘서트
구경하기



이름: 양중은
생년월일: 1980년 9월 1일
포지션: 드럼
특이사항: 동화책 <불을 끄면 별이 떠오 - 잘 알고 잘 쓰는 전기 에너지 지구 환경을 지켜요>의 삽화가다.
죽을 때까지 하나의 곡만 들을 수 있다면?: "그게 더 고통스럽겠다! 그냥 아무 것도 안 들을래."



이름: 박근홍
생년월일: 1977년 10월 6일
포지션: 보컬
특이사항: 인기 어렵겠지만 팀내 여성팬 지분율 55% 보유 중.
죽을 때까지 하나의 곡만 들을 수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긴 교향곡."



이름: 염승식
생년월일: 1981년 2월 4일
포지션: 기타
특이사항: 정재형과 김경진을 반반씩 닮았다.
죽을 때까지 하나의 곡만 들을 수 있다면?: "피아니스트 키스 자렛의 음반 <라스칼라> 즉흥연주."



이름: 유재인
생년월일: 1981년 2월 18일
포지션: 베이스
특이사항: 가진 옷의 80%가 체크무늬 셔츠라고.
죽을 때까지 하나의 곡만 들을 수 있다면?: "어메이징 그레이스. 오! 할렘루아!"

Milita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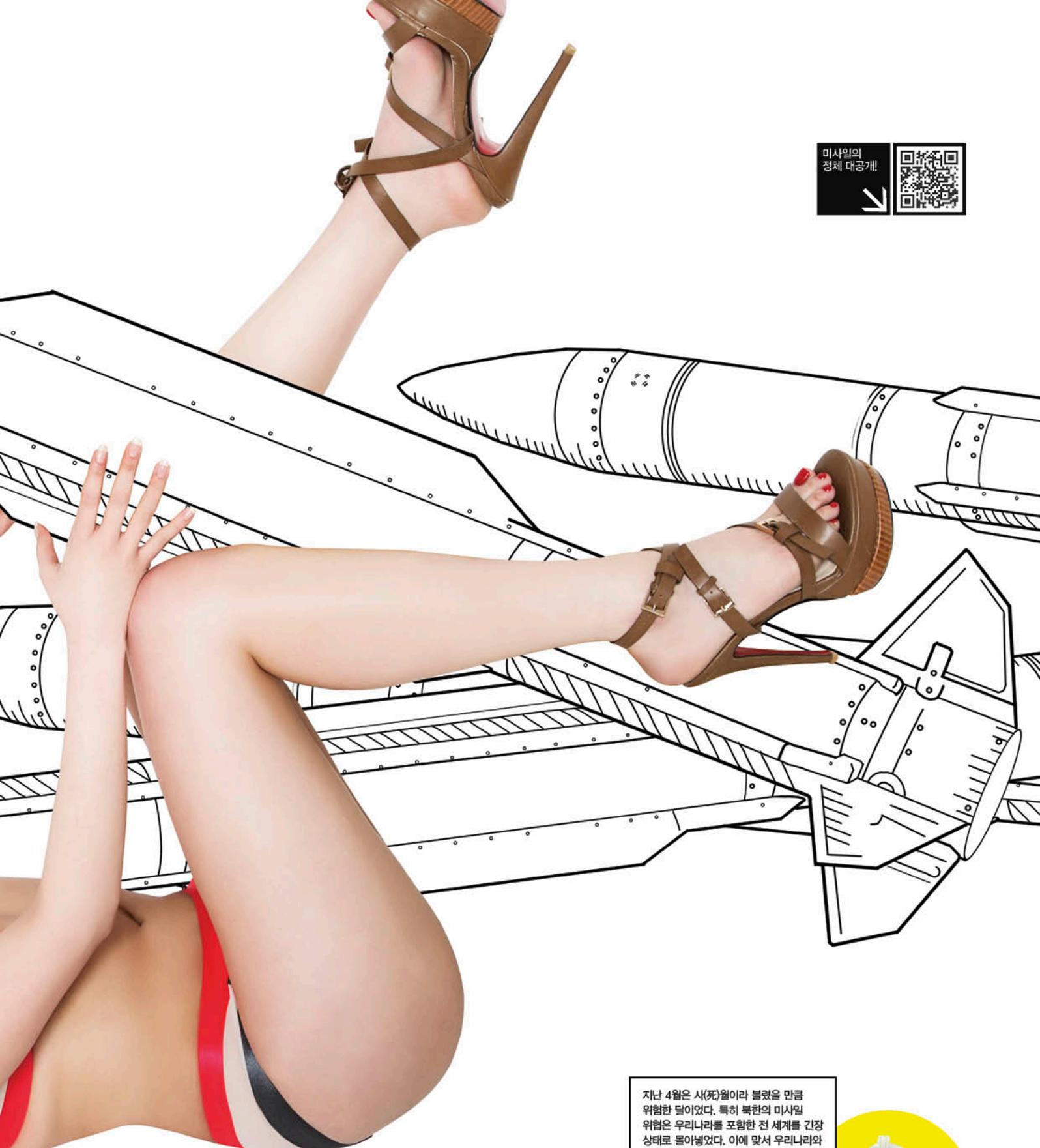
The Hottest Missiles Top 5

이번 달에는 미사일과 관련한 독자들의 궁금증을 해결하고자
크고 아름다운 엄상미와 MAXIM이 직접 나섰다!
지금부터 가장 강력하고 '핫한' 미사일 5기를 소개하겠다.

BY 군사전문가 김대영(www.cyworld.com/undercoverbrother)

MODEL 엄상미(2012 MISS MAXIM 준우승자)





미사일의
정체 대공개!



지난 4월은 사(死)월이라 불렸을 만큼 위험한 달이었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 위협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를 긴장 상태로 몰아넣었다. 이에 맞서 우리나라와 주변국은 각자 보유한 미사일을 북한을 향해 겨누고 있다.



김대영

Military

Minuteman-III

위협적인 지구 종말 무기

대륙간 탄도 미사일은 핵전쟁을 소재로 한 영화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골손님이다. 이 미사일은 일반적으로 5,000km 이상의 사거리를 자랑하며, 핵탄두를 장착하고 있다. 미니트맨-III(Minuteman-III)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미국이 보유한 핵무기 가운데 가장 강력한 무기로, 유사시 동맹국에 핵우산(핵을 보유하지 않은 국가가 적대국의 핵무기 공격을 받을 경우 동맹국이 그 적대국을 핵무기로 공격한다는 개념)을 제공할 수 있다. 이 미사일에는 W62 핵탄두 1발이 탑재되는데, 그 위력은 170kt에 이른다. 히로시마에 떨어진 '리틀 보이'가 16kt인 것을 감안하면 가히 넘사벽의 위력이다. 그러니까 북한이 핵무기로 우리를 공격하면 미국이 미니트맨-III를 김일성 동상 정수리에 떨어뜨릴 것이고, 평양이 불바다가 되는 건 시간문제라는 얘기가.

SPEC CHECK

종류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발사 중량 35,300kg
탄두 115kg(W62 탄두)
길이/직경 18.2m/1.7m
사거리 8,100km 이상
(미 대륙의 남북 길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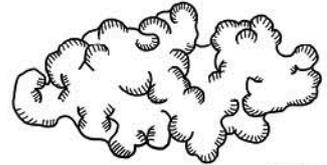


언더웨어 힐라 인티모

무수단 미사일

4월을 뜨겁게 달군 주인공!

무수단은 북한이 자체 개발한 중거리 탄도 미사일로 2007년 4월 인민군 창건일 기념 퍼레이드에서 처음 공개했다. 보통 중거리라 함은 사정거리 3,000~5,000km를 말하는데, 이는 대륙 간 탄도 미사일의 절반 정도에 해당한다. '무수단'이라는 이름은 대포동 미사일처럼 미사일이 발진된 북한의 지명에서 따온 명칭이며, 북한이 밝힌 공식 명칭은 아니다. 구 소련이 개발한 SS-N-6 탄도 미사일과 유사한 외형을 갖추고 있으며, 사정거리는 2,500~4,000km로 추정된다. 사거리는 긴 편이지만 명중률은 손으로 찝돌 던지는 것만큼이나 형편없다. 오차가 무려 1.5km라니, 흥대에 쓴 미사일이 신촌에 떨어진다는 얘기도.



언더웨어 게스 언더웨어



SPEC CHECK

- 종류 중거리 탄도 미사일
- 발사 중량 12,000kg
- 탄두 650kg~1t 이상(추정)
- 길이/직경 12m/1.5m
- 사거리 2,500~4,000km
- (북한에서 끝까지 거리)



KT

미사일의 위력을 측정하는 단위
 미사일의 폭발력을 측정하는 단위는 kt(킬로톤)이다. 1kt은 강력 폭약인 TNT 1,000톤에 해당하는 폭발력이다. 웬만한 구형 미사일 1발도 10kt 이상의 위력을 지녔으니, 정말 오금이 저리는 폭발력이 아닐 수 없다. 울레!

Military



현무 미사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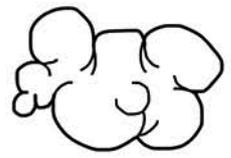
절대 꿀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전략 무기

'북방의 산'을 뜻하는 현무의 이름을 따 만든 국산 미사일. 1983년 북한의 아웅산 테러 사건을 계기로 개발에 착수했으며, 1987년 10월 1일 국군의 날 행사에서 처음 공개했다. 사거리는 고작 180km에 불과했으나 명중률은 당시 북한의 스킨 미사일에 비해 높았다. 2012년 4월 19일,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신형 현무 미사일이 공개되었는데, 바로 사거리 300km인 신형 탄도 미사일 현무-2와 500~1,500km인 순항 미사일 현무-3이 그것이다. 우리나라가 최초로 개발한 순항미사일이라는 데 의의가 있는 현무-3은 유사시 북한의 주요 군사 시설물을 타격할 예정이며, 이 가운데는 김정은의 관저도 포함된 것으로 추정된다.

SPEC CHECK

종류 단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 중량 7,355kg
탄두 450~600kg
길이/직경 12.5m/0.8m
사거리 180km

구두 슈즈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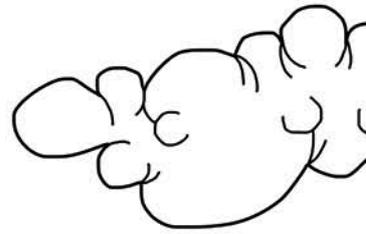
구두 슈즈원



SA-5

우리 군의 전투기를 노리는 북한의 지대공미사일

'지대공'이라는 말은 지상에서 공중으로 향한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지대공미사일이란 지상에서 발사해 항공기나 전투기를 격추하는 미사일을 말한다. 북한은 다양한 지대공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 가운데 가장 위협적인 것이 SA-5 지대공미사일이다. 북한은 1980년대 말 구 소련으로부터 SA-5 미사일을 무려 350여 발 도입했으며, 발사대 20여 기까지 들여와 황해도, 원산, 평양 인근에 배치했다. 사정거리는 우리나라 중부 지역까지 달하며, 마하4의 빠른 속도를 자랑한다. 하지만 역시 북한답게 정확도가 무척이나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물론 SA-5 지대공미사일의 레이더가 가동되면 우리 전투기는 고도 3,000m 이하로 내려가 추적을 피해야 하는 수고를 해야 한다.



SPEC CHECK

종류 지대공 미사일
 발사 중량 7,100kg
 탄두 217kg
 길이/직경 10,8m/0,85m
 사거리 300km
 요격고도 40km



31

아웅산 테러 사건의 사상자 수

북한이 1983년 10월 9일, 미얀마를 방문 중이던 전두환 대통령을 대상으로 자행한 테러 사건. 미얀마의 아웅산 묘소에서 강력한 폭발이 일어나 대통령의 수행원 17명이 사망하고 1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 사건으로 코스타리카, 코모로, 서사모아 3개국이 북한과 외교를 단절, 세계 69개국이 대북한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북한이 본격 양파의 길을 걷게 된 주요한 사건.

TEAM KILL

패트리엇 미사일

미사일 잡는 걸프전의 스타 미사일

미사일 잡는 미사일로 유명한 패트리엇 (Patriot) 지대공 미사일은 1991년 걸프전 당시 음속의 6배로 비행하는 이라크의 알 후세인(Ali Hussein)과 스커드(Scud) 탄도 미사일을 요격하면서 일약 스타로 등극했다. 애초 항공기 요격용으로 개발했지만, 이후 성능 향상 계획에 따라 탄도 미사일도 요격할 수 있게 되었다. 최신형 패트리엇 지대공 미사일인 PAC-3 미사일은 이전처럼 탄두에 폭발력을 내기 위한 작약을 갖고 있지 않다. 그 대신 낮은 속도로 펼쳐지는 금속 산탄을 내장해 미사일을 직접 요격한다. 특히 화학 탄두를 탑재한 탄도 미사일을 요격하는 데 최적화되었다.

패트리엇의 흑역사
2003년 이라크전에서 패트리엇의 최신형 PAC-3 미사일은 바람처럼 전장을 휩쓸고 다녔다. 하지만 당시 적과 아군을 구별하는 피아 식별(IFF) 시스템 장치에 문제가 발생해 아군 전투기 2대를 오인 격추하고 말았다. 스포츠에서의 자살골, 전투에서의 팀킬만큼 부끄러운 흑역사가 또 있을까.



SPEC CHECK

종류 지대공 미사일
발사 중량 935kg
탄두 75kg
길이/직경 5.2m/0.4m
사거리 160km
요격고도 20km 이상

32.2m

세계에서 가장 큰 미사일 R-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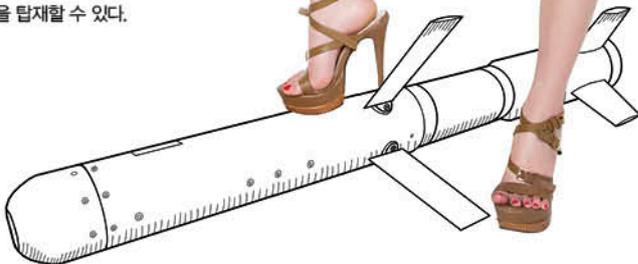
인류 최악의 무기로 꼽히는 R-36 대륙 간 탄도 미사일은 구 소련이 개발했다. 사거리는 10,000km 이상이며 길이는 32.2m로 웬만한 유람선 크기에 육박한다. 직경은 3.05m로 영국의 오스틴 미니 차량 길이와 같다. 탑재 가능한 핵탄두 수는 1~10개, 위력은 20메가톤으로 히로시마에 떨어진 핵폭탄의 100배 이상이다. 이에 미국과 나토는 'SS-18 사탄'이라는 별칭을 붙이기도 했다. 현재 러시아가 보유하고 있으며, 성능 개량을 거쳐 2020년까지 운용할 예정이다.



2.27kg

세계에서 가장 작은 미사일 스파이크(SPIKE)

미국이 개발한 스파이크 미사일은 길이 60cm에 무게 2.27kg으로, 한 손으로 들어도 부담스럽지 않은 크기와 무게를 자랑한다. 당초 대전차 미사일로 개발했으나, 무인 항공기에서 지상의 차량을 폭파하거나 테러리스트를 제거하는데 사용하는 미사일로 용도가 바뀌었다. 미군이 운용 중인 무인 공격기 프레데터는 헬파이어 대전차 미사일 2발을 장착하지만 스파이크 미사일이 실전에 배치될 경우 10여 발을 탑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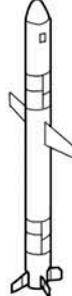
R-36 미사일 32.2m/3.05m
(길이/직경)



미니트맨 18.2m/1.7m



현무 미사일 12.5m/0.8m



무수단 미사일 12m/1.5m



SA-5 10.8m/0.85m



페트리엇 미사일 5.2m/0.4m



(영상미) 1.7m

스페이스 미사일 0.6m

Fight

KICK OF THE MONTH

부럽다!
머리술도 많고

오늘 머리 새로 했어.

뜨거웠던
현장 속으로!



진짜 남자만 오를 수 있다! ROAD FC 011



지난 4월 13일, 서울 잠실을 뒤흔든
그 함성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

BY 유승민

이달의 킥: 소쿠신의 파워풀 로킥

'소쿠신'이라 불리던 티에리 소쿠주와 데니스 강을 제압한 한국인 파이터 위승배의 이달 대전. 경기 초반, 두 선수는 긴장을 늦추지 않고 상대를 노려보며 견제하다 틈이 보일 때마다 잭, 킥을 주고받았다. 하지만 탄력, 스피드, 힘, 반사신경 등 전반적인 면에서 소쿠주의 우세로 기울었다. 특히 소쿠주의 로킥은 보는 사람의 오금이 저릴 정도로 압도적이었다. 잘 싸우던 위승배는 후반으로 갈수록 킥을 맞을 때마다 고통으로 얼굴을 찌푸렸고 다리는 바닥에 붙어 잘 움직이지 못했다. 소쿠주의 두툼한 장조림 근육과 흑인 특유의 탄력, 빠른 스피드로 완성한 파괴적인 로킥이 작렬하는 순간 위승배의 다리가 반대쪽으로 휘청 꺾이길 여러 번. 로킥 맞을 때 나는 소리는 또 어찌나 찔리던지 잠실 올림픽홀에 '쩍! 찌!' 소리가 울려 퍼졌다. 경기 결과는 소쿠주 심판 만장일치 판정승!

한 줄 요약: 이틀 킬 때 소쿠주를 꼭 데려와야겠다.



계체량 당시 서로를 도발하는 무랏 카진과 이형석 선수.



아이 귀여워! 새롭게 구성된 로드걸즈 박시현, 임지혜, 주다하(왼쪽부터).



이길우의 결정타가 문재훈의 턱에 꽂혔다. 빠직



로드걸즈의 은혜로운 프리허그 행사 장면.



송민중이 이윤준에게 초크를 걸고 있다. 죽일 생각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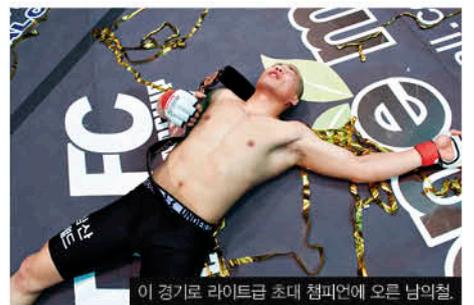
회를 거듭할수록 더 화려한 대진과 볼거리를 선사하는 로드FC! 011 대회는 더욱 더 막강했다. 12일, 동대문 헬로APM에서 열린 공개 계체량 전야제부터 이미 뜨거웠다. '로드걸즈'의 새 얼굴 'H킵녀' 임지혜는 이날은 풍만한 그것을 잠시 감추어 아쉬움을 남겼지만, 그녀의 따뜻한 마음은 시민들과의 프리허그 이벤트에서 가슴과 가슴으로 전해졌다. 세미 누드 공개로 화제를 모은 박시현 역시 특유의 눈웃음 애교로 남심을 자극했고, 늘씬하고 우아한 각선미 주다하 역시 팔이 닳도록 프리허그를 해주어 분위기를 훈훈하게 만들었다. 공개 계체량도 흥미로웠다. 특히 남의철은 특유의 시간방진 눈싸움을 하며 상대 쿠메 타카스케와 이마, 코를 맞고도 입술이 달기 직전까지 갔다. 아... 정말 무서운 광경이었다. 라모스와 처정한 선수 역시 일촉즉발의 몸싸움 직전까지 갔다. 하지만 키스보단 덜 무서웠다. 휴~



북 내몰으면 추위 찬기 걸려

쿠메의 목을 따뜻하게 감싼 남의철 선수의 온정.

챔피언 강경호가 UFC로 가면서 공석이 된 밴텀급 타이틀에 막강한 두 도전자가 나타났다. 같은 날 열린 <로드FC 영건스>에 등장한 타격 스페셜리스트 '이길우'가 그 중 하나다. 특히 둘다 강한 스트라이커로 이름난 이길우와 문재훈이 붙은 준결승 경기는 초장부터 살벌했다. 결과는 1라운드 2분 32초만에 이길우의 파운딩 KO승. 또 다른 밴텀급 결승 진출자는 송민중이다. 뛰어난 2라운드 압박으로 일란 요시히로를 이기고 올라온 송민중은 이어 정찬성의 '코리안좀비 MMA' 소속 선수 이윤준을 만났다. 상대의 등에 찰거머리처럼 붙어 백포지션을 공격하던 송민중은 1라운드 3분 3초 만에 리어네이키드초크로 서브미션 승을 거뒀다. 이길우와 송민중은 6월 22일, <로드FC 영건스 8>에서 챔피언을 가릴 예정이다.



이 경기로 라이트급 초대 챔피언에 오른 남의철.

이날의 하이라이트 남의철과 쿠메 타카스케의 라이트급 챔피언 결정전이 시작됐다. 한 일 대결답게 응원전도 뜨거웠다. 바로 뒤에 피켓을 든 일본인 응원군이 있었는데 "사이고 곤조", "쿠메 간버레", "쇼부 쇼부"를 외치는 그들의 열띤 목소리 때문에 마치 일본 애니 속 조연이 된 듯한 착각이 들었다. 정말 우열을 가리기 힘든 멋진 경기였다. 그래플링이 장기인 쿠메가 남의철의 테이크다운에 찢쩍 매기도 하고, 남의철은 쿠메에게 초크를 잡히기도 했다. 판정 논란에, 재경기를 해야 한다는 주장마저 나올 정도로 경기는 박빙이었다. 결과는 남의철의 판정승. 무덤덤할 줄 알았던 쿠메는 결국 아쉬움의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이로써 이날 출전한 일본 선수 4인 모두가 패배를 맞보았다. 🍷

남자 중의 남자 서투원 선수가 입장할 때, 절친 김범수가 응원곡을 열창해 분위기를 띄웠다. 객관적인 전력은 요아킴 한센이 압도적이었지만 서투원 역시 만만치 않았다. 오히려 강한 일격으로 한센을 높혀 파운딩을 하고 길로틴초크도 시도했다. 하지만 2라운드에서 한 수 위인 한센은 위기를 무사히 빠져나갔고 이후 서투원을 굴리며 압도했다. 결과는 2라운드에서 터진 암트라이앵글 초크로 요아킴 한센의 승리. 경기 후 한센은 "당신 같이 강한 상대와 싸우게 돼 영광이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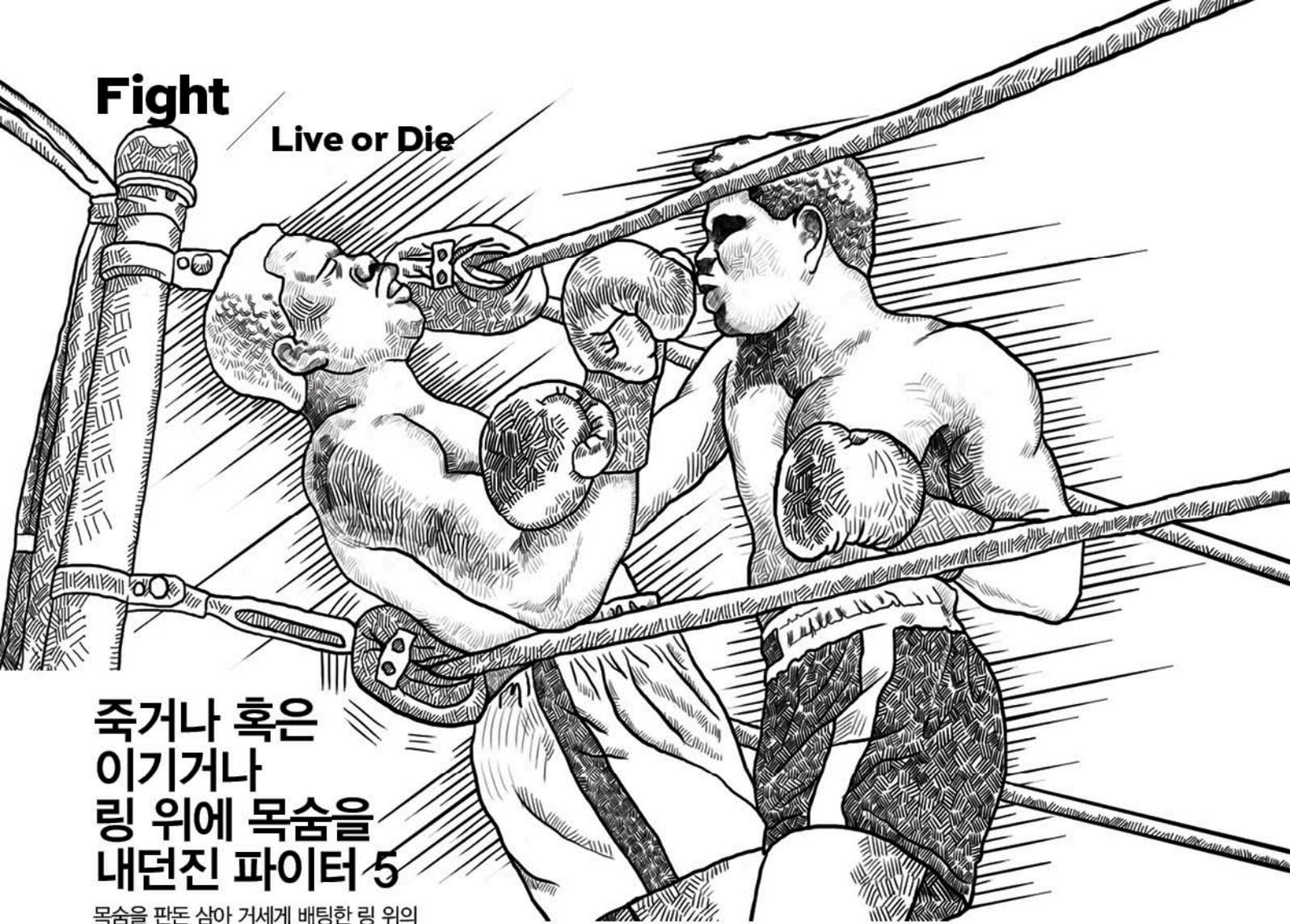
여보세요? 나 지금 경기 중이라 바빠!

요아킴 한센의 암트라이앵글초크 작렬!

다음 로드FC 경기는 6월 22일 강원도 원주에서 열릴 예정이다. 뜨거운 관심 부탁드린다

Fight

Live or Die



죽거나 혹은 이기거나 링 위에 목숨을 내던진 파이터 5

목숨을 판돈 삼아 거세게 배팅한 링 위의 파이터들, 그들의 최후를 살펴보자. BY 격투 칼럼니스트 이용수

산악인은 10명 중 한 명이 죽는다는 히말라야의 고산 등반을 왜 하는 것이며, 경마 기수는 레이스 도중 낙마해 말에 밟혀 죽을 수도 있는 위험을 어떻게 감수하는 걸까. 어부들이 베링 해의 넓은 바다로 어업 중에서도 가장 위험하다는 킹크랩을 잡으러 떠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돈과 명예'가 그곳에 있기 때문이다. 이를 얻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것, 그것은 남성 고유의 기질이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든 그들은 언제나 사선을 넘나들며 죽음의 무도를 펼치고 있다.

복서의 10%는 복싱으로 얻은 직권에 의해 사망하고, 30%는 영구 장애를 안은 채 남은 평생을 살아가고, 47%는 65세 이전에 사망한다. 복서 10명 중 1명은 복싱 때문에 죽고, 전체 복서의 반 정도가 평균 수명보다 15년 일찍 세상을 뜬다. 복싱 경기와 관련한 인명 피해를 연구해온 마누엘 벨라스케즈와 그의 제자들이 발표한 바로는 1890년(권투 경기에 글러브와 링을 도입한 시기)부터 2007년까지 복싱 경기의 사망자는 총 923명에 이른다.

1. 무너질지언정 물러서지 않는다.



1938년생인 에밀 그리피스는 공장 노동자였다. 더운 날씨 탓에 상의를 벗고 일하는 날이 많았다. 어느 날 그의 잘 발달한 상체를 본 공장주가 그를 길 클렌시라는 유명한 복싱 트레이너에게 데리고 갔다.

복싱에 입문한 뒤 불과 1년 만에 골든글러브를 수상할 정도로 그리피스는 천재적이었지만 성격만큼은 여느 복서와 달리 섬세하고 내성적이었다. 반면에 베니 파렛은 활발하고 적극적이었다. 쿠바에서 미국으로 넘어와 영어를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한 백인 여성에게 작업을 걸었고, 얼마 후 그녀와 결혼해 골인했을 정도였다.

그리피스가 스물세 살이던 1961년, 22승 1패의 전적으로 웰터급 세계 챔피언에 도전했다. 챔피언은 자신보다 한 살 많은 파렛이었다. 13라운드에 그리피스가 파렛을 눕히면서 웰터급의 새 챔피언이 되었다. 6개월 후 두 선수 간 리턴매치가 벌어졌다. 2차전을 위한 계체량에서 파렛은 그리피스를 '마리콘'이라고 놀려댔다. 마리콘은 스페인어로 '게이'라는 뜻이다. 요즘에야 게이라는 놀림이 장난 같을 수 있지만, 동성애자에 대한 이해와 관용이 부족하던 1960년대에 그 말은 심각한 모욕이었다. 그리피스의 성격이 일반적인 복싱 선수와 같았다면 그 자리에서 맞받아쳤겠지만, 그는 그러지 못했다. 상대의 심리전에 말려든 그리피스는 2차전을 내주었다. 1962년 3월 24일, 두 선수 간의 3차전이 벌어졌다. 파렛은

또다시 그리피스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퍼부으며 심리전을 걸었다.

뛰어난 스피드와 기술로 승부를 보는 게 그리피스의 스타일이었다. 그렇지만 파렛과 붙은 3차전에서는 공격 비중이 높았다. 상대가 도망가거나 붙잡힐 때까지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 파렛은 집요하게 달려들어 쉬지 않고 빈틈을 노리는 타입이었다. 경기 초반에는 그리피스의 우세였다. 하지만 6라운드 종료 직전 파렛의 레프트가 그리피스의 안면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면서 그리피스는 프로 데뷔 이후 최초의 다운을 당했다. 잠시 경기의 흐름이 파렛에게 넘어가는 듯 보였지만, 그리피스는 곧 회복했고 다시 우위를 점했다. 그리피스의 주먹은 파렛보다 강했다. 라운드가 거듭될수록 힘의 차이가 드러났다. 파렛은 물러서지 않고 그리피스의 손이 부러지기를 기다리는 듯 계속 밀고 들어왔지만, 파렛이 겨우 한두 대를 때리던 그리피스가 몇 배로 잡아주는 그림이 반복되었다.

12라운드, 코너 부근에서 그리피스의 라이트가 파렛의 턱에 적중했다. 짧은 펀치였지만 파렛은

순간적으로 다리가 풀렸다. 파렛은 코너 포스트에 몸을 의지한 상태로 겨우 서 있었다. 피 냄새를 맡은 그리피스는 강력한 펀치를 연이어 적중시켰다. 파렛은 이미 정신을 잃었지만, 코너 포스트 덕분에 넘어지지 않은 채 버티고 있었던 것인데 그 상황에서 그리피스의 강타가 무려 20여 회 더 쏟아졌다. 잠시 후 레프리가 TKO를 선언하며 그리피스를 떼어놓았을 때 파렛의 몸은 서서히 무너져내렸다. 경기가 있는 지 10일 후, 파렛은 뇌출혈로 불귀의 객이 되었다. 미국 전역에 생중계된 복싱 경기에서 선수가 사망한 최초의 사건이었다. 시청자들은 본의 아니게 사람이 죽는 장면을 TV로 보게 된 것이다. 경기 주심이던 루비 골드스테인은 조금 더 일찍 말리지 못한 자신을 책망했다.

그리피스는 이후 80여 전을 더 싸웠다. 미들급으로 체급을 올려 챔피언이 되기도 했다. 그의 상대에는 이탈리아의 국민적 영웅인 니노 벤베누티(65전 무패 주니어 미들급 챔피언이었으나 우리나라 최초의 세계 챔피언 김기수 선수에게 패하며 타이틀을 빼앗겼다)와 미들급 역대 최강자 중 한 명으로 손꼽히는 카를로스 몬존 같은 선수들이 있었다. 그렇지만

파렛의 사망 이후 그는 완전한 기교파로 변신했다. 강한 펀치를 내는데 심리적 부담을 많이 느꼈다고 한다. 2005년 그리피스는 파렛의 아들을 만나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다. 파렛의 아들은 그리피스의 잘못이 아니라고 답했다.

베니 파렛

출생 1937년 3월 14일

사망 2008년 1월 3일

통산 전적

50전 승리 35 무승부 3 패배 12

1961년 웰터급 세계 챔피언

2. 관을 지고 링에 오르다



레이 맨시니의 부친인 레니 맨시니는 우수한 복서였으나 제2차 세계대전으로 전장에 투입되었고 전쟁 중 부상을 당해 링에 복귀할 수 없었다. 레이 맨시니는 아버지의 못다 이룬 꿈에 도전했다. 아버지의 별명 '불뿔'도 물려받았다. 화려한 양 후과 멈추지 않는 전진 기동으로 명성을 쌓아가던 그는 스물두 살 때 '링 위의 백작' 알렉시스 알게요에게 도전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당시 3체급 정벌을 달성하고 복싱 역사상 최초의 4체급을 노리던 알게요는 맨시니에게 "너는 곧 세계 챔피언이 될 거다"라고 말했다. 그의 예언은 금방 현실이 되었다.

김득구

출생 1955년 1월 8일

사망 1982년 11월 18일

통산 전적

19전 승리 17 무승부 1 패배 1

1980년 한국 라이트급 챔피언

1982년 동양 라이트급 챔피언

1982년 세계권투협회(WBA)

라이트급 챔피언 타이틀전

1982년 5월, 맨시니는 WBA 라이트급 챔피언으로 등극했다. 첫 방어전에서 전 챔피언이던 에르네스토 에스파나를 6회 KO로 물리친 맨시니는 2차 방어전 도전자로 한국의 김득구를 선택했다. 모두 그 경기가 무명의 아시아인을 상대로 한번 쉬어가는 편만한 경기가 되리라고 예측했다.

1959년 강원도 거진에서 태어난 김득구는 가난했다. 아버지는 일찍 사망했고 어머니는 재혼했다. 그에 따라 그의 성도 원래 이씨였다가 김씨로 바뀌었다. 김득구는 열네 살에 단돈 3,000원을 쥐고 서울로

올라왔다. 서울에서 그는 구두닦이와 식당 배달일, 심지어 냄바주이까지 경험했다. 어느 날 그는 동아체육관의 김현치 관장에게 발탁됐다. 일류 복서 출신인 김현치 관장은 뛰어난 선수는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편견을 깨고 최고의 지도자로 거듭난 인물이었다. 김득구는 복싱에 목숨을 걸었다. 아마에서 33전 29승 4패 17KO를 기록하며 1978년 프로로 데뷔했다. 콤비네이션의 구사에 능숙한 공격적 왼손잡이로 성장한 그는 이후 1982년까지 7회의 KO승을 포함해 12연승을 내달렸다. 동양-태평양 챔피언이 되었고, 타이틀의 3차 방어전 이후 아시아에는 적수가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1982년 11월 14일, 김득구는 라스베이거스의 시저스 펠리스 호텔 야외 특설 링에 올랐다. 시저스 펠리스는 특별한 무대다. 아직 MMA에도 문호를 개방하지 않는, 세계 최고의 복싱 선수들만 발을 들일 수 있는 복싱의 성역이다. 경기 전, 김득구는 호텔의 전등갓에 한글로 여섯 자를 적어놓았다. 한 미국인 기자가 그것이 무슨 의미냐고 물었다. 김득구는 "죽거나 살거냐"라고 답해주었다.

보통의 권투 경기가 초반에는 서로 탐색에 공을 들이며 서서히 달아오르는 데 비해 이 경기는 시작부터 매우 뜨겁게 불이 붙었다. 김득구의 레프트 스트레이트와 이어지는 연속 공격이 맨시니의 턱을 계속 흔들었다. 맨시니도 수비보다 공격형 선수였지만 김득구의 맹렬한 기세에 놀란 듯, 좀처럼 페이스를 찾지 못하고 경기 초반을 김득구에게 내주었다.

Fight

Live or Die

맨시니의 코너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해설진에 참가한 슈퍼스타 슈가레이 레너도 김득구의 투혼에 경의를 표했다. 중반부에 들어서 맨시니의 몸이 풀리면서 두 선수 모두 혼신의 힘을 다해 정면에서 치고받는 장엄한 광경을 연출했다. 경기장의 압력은 높았고, 관중의 함성은 자축을 울리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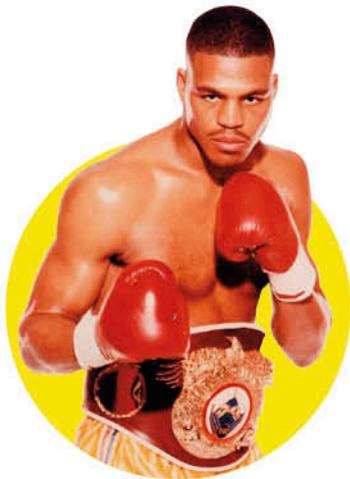
김득구는 극단적인 검량법으로 계량량 테스트를 겨우 통과했다. 이 경우 가장 타격을 입는 게 바로 스테미니아다. 10라운드쯤부터 김득구의 움직임이 둔해졌다. 체력의 한계에 도달한 것이다. 김득구는 남은 힘을 짜내 처절하게 저항했지만, 시간은 그의 편이 아니었다. 맨시니의 파상 공세는 끊임없이 이어졌다. 김득구는 이제 끝인가 싶다가도 라운드 중반에 다시 치고 나오며 끈질기게 기회를 노렸다. 그러나 14라운드, 맨시니는 레프트를 툭툭 던지며 거리를 재다가 강력한 라이트를 폴스윙으로 휘둘렀다. 김득구는 그것을 정타로 맞고 쓰러졌다. 그는 일어나지 못했고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검진 결과 경막하 혈종이 발견되었다. 수술로 혈종과 뇌실에 고인 100cc가량의 혈액을 제거했지만 김득구는 회복하지 못했고, 4일 후 끝내 사망했다. 그의 장기로



환자 2명의 목숨을 건졌다. 3개월 후 김득구의 모친이 농약을 마시고 자살했다. 8개월 후 경기의 주심이던 리처드 그린리 권총을 자신의 머리에 대고 방아쇠를 당겼다. 1984년 6월, 맨시니에게 도전한 리빙스턴 브램블은 미디어를 통해 맨시니를 살인자라고 공격했다. 맨시니는 브램블에게 KO패했다. 이후의 그는 더 이상 '뽀뽀'가 아니었다. 브램블에게 연패를 당한 후 맨시니는 은퇴와 복귀를 두 차례 반복했지만,

승리를 거두지는 못했다. 당시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지의 기자 팔프 윌리는 김득구-맨시니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맥아더 장군이 한국인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전사들이라고 말했는데, 그날 경기를 보고 그 말의 의미를 이해했다. 김득구가 그날 죽은 이유는 둘 중 한 명이 죽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치열하게 싸웠기 때문이다."

3. 크롱크 집의 에이스



맥클레란은 1967년에 태어났다. 황금색 바탕에 검은 스트라이프가 한 줄 들어간 경기복으로 상징되는 디트로이트의 명문 크롱크 집. 토머스 헌스가 성장했고, 우고 차베즈와 오스카 델라 호야, 에반드 홀리필드 등의 챔피언이 도움을 받았던 그곳에서 명 트레이너 에마누엘 스투어트의 조언을 받게 된 맥클레란은 녹아웃 머신으로 성장했다. 첫 10경기를 모두 KO로 장식한 맥클레란은 11전과 12전에 각각 판정패하며 주춤하는 듯했지만 그 후 12연승을 기록했고, 그중 KO시키지 못한 시합은

제럴드 맥클레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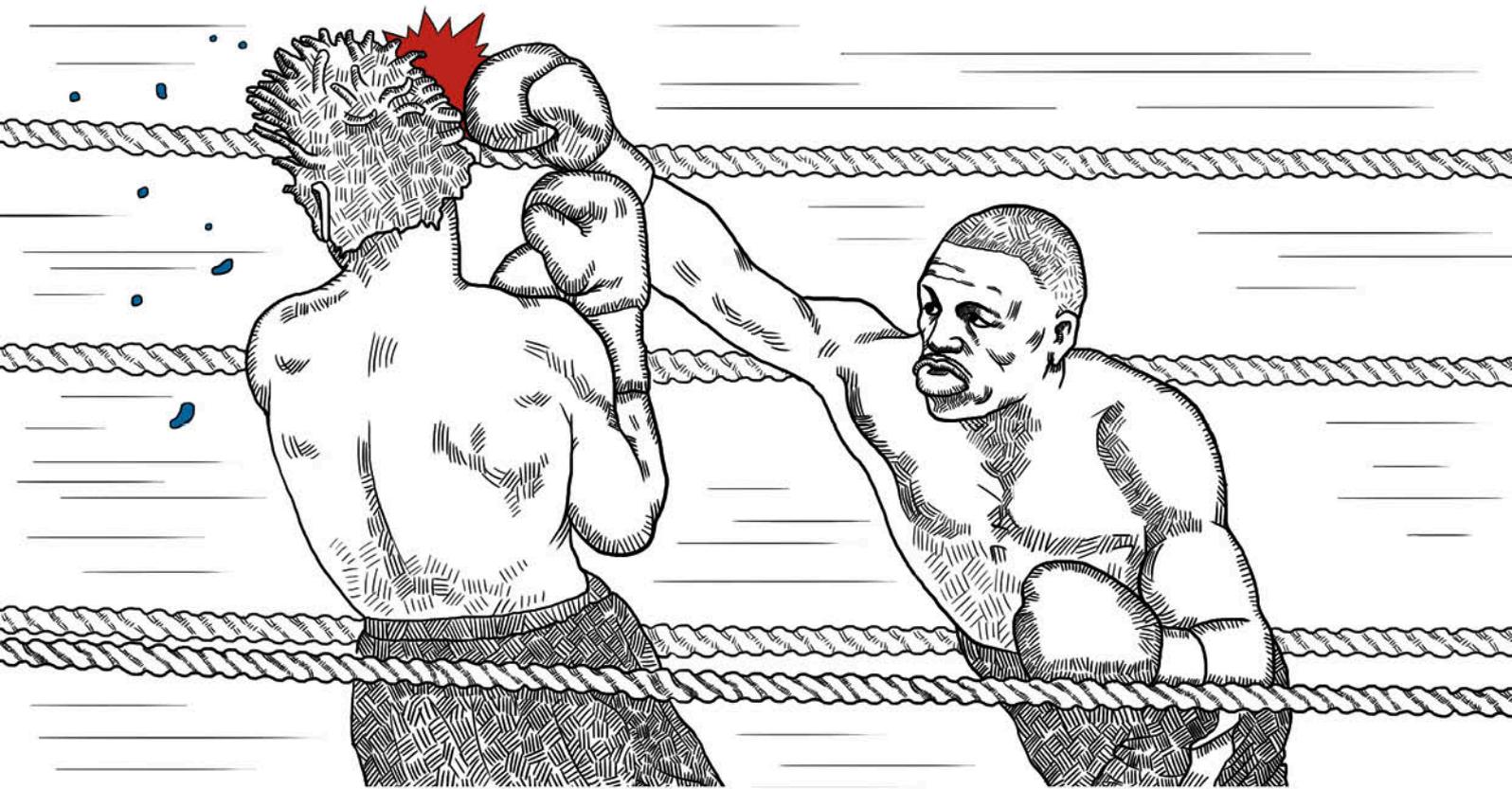
출생 1967년 10월 23일
사망 1995년 2월 25일
통산 전적
 34전 승리 31 무승부 0 패배 3

1991년 WBO 미들급 타이틀 챔피언
1993년 WBO 미들급 타이틀 챔피언
1994년 WBC 미들급 타이틀 챔피언
 3차 방어

단 두 차례였다. 맥클레란은 크롱크의 에이스로 촉망받았다. 맥클레란은 1991년, '아프리카의 야수' 존 무가비를 꺾으며 기대에 부응했고 공성이던 WBO 미들급 타이틀을 손에 넣었다. 1993년, 그는 WBC 미들급 타이틀에 도전하는데, 상대는 '카리브 해의 폭풍' 줄리언 잭슨이었다. 46승 1패 43KO의 전적을 지닌 이 챔피언은 당대 최고의 하드 펀처였고, 27승 2패 25KO의 맥클레란에게 이 시합은 단지 타이틀을 얻기 위한 것만이 아니었다. 체급대 최강의 KO 기술자를 가려내기 위한 이 경기의 5회, 맥클레란의

오버핸드 라이트와 레프트 훅이 적중해 잭슨에게 치명적인 대미지를 입혔고 잠시 후 심판은 경기 종료를 선언했다. 이후 세 차례의 타이틀전에서 전 챔피언 줄리언 잭슨과 다른 2명의 도전자를 모조리 1회에 때려잡은 제럴드 맥클레란의 시선이 상위 체급을 향했다.

'검은 파괴자(Dark Destroyer)' 나이젤 벤은 1964년생이다. 그의 집안은 스포츠로 유명한데, 영국 축구 국가 대표팀에서 흑인으로서 최초의 주장이 된 블랙폴 FC의 폴 인스와 사촌지간이다. 아마추어에서 41승 1패를 기록한 벤은 1987년 프로로 전향하고 데뷔전부터 22연속 KO승을 질주했다. 그는 대서양을 건너 미국 무대에 등장했고, 미국에서의 5연전을 모두 승리로 장식하고 미들급의 타이틀을 획득했다. 세계 타이틀 6체급을 석권한 레전드 챔피언 토머스 헌스의 천적으로 불리던 아이란 바클리를 1회에 쓰러뜨린 나이젤 벤은 영웅이 되어 영국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미국의 도전을 받아들여 1995년 제럴드 맥클레란 대 나이젤 벤의 경기가 성사되었다. 신장과 리치뿐 아니라 기술 면에서도 맥클레란의 우위가 점쳐진 경기였고 도박사들 역시 8:2로 맥클레란의 편에 섰다. 경기장을 가득 메운 홈팬들은 열광적으로 벤을 연호했다. 1라운드 로프에 물린 벤은 맥클레란의 라이트를 정타로 맞고 쓰러졌다. 넘어지면서 링 밖으로 흘러나간 벤은 가까스로 몸을 추슬렀고, 홈팬의 눈치를 보던 심판의 도움



덕에 겨우 초살을 면했다. 이어지는 경기에서 벤은 특유의 큰 궤적을 그리는 헤드워크와 강력한 오른손 단발을 적중시키며 1라운드의 실점을 만회해갔다. 클린치에서 벤은 자주 반칙을 날렸지만, 심판은 이에 대해 적절한 제재를 가하지 않았으며 이 점이 결국 비극을 잉태하는 전조가 된다. 라운드를 거듭할수록 경기는 박진감을 더해갔다. 치고 빠지는 작전과 스위치 스탠스를 적절히 구사하며 나이젤 벤을 괴롭히던 맥클레란이었지만, 간간히 터지는 벤의 단발 펀치 또한 막강했다. 7라운드까지 이르자 두 선수 중 누구도 우위를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8회에 맥클레란의 라이트를 허용한 벤은 크게 흔들렸고, 한동안 난타를 당하던 그는 다시 한 번

바닥에 쓰러지게 된다. 남은 25초를 겨우 버티고 벤은 다음 라운드를 맞게 되었는데, 9라운드에서 크게 스윙을 하며 앞으로 넘어지던 나이젤 벤의 머리에 맥클레란의 안면이 부딪혔다. 10라운드가 되자 9라운드에서의 박치기 때문인지 맥클레란은 눈을 자주 깜빡였다. 그리고 잠시 주춤한 순간 나이젤 벤의 라이트를 직격으로 맞고 첫 다운을 당했다. 경기가 재개되었지만 이미 맥클레란은 심각한 대미지를 입은 상태였고 시합은 곧 종료되었다.

시합 직후 맥클레란은 병원으로 후송돼 뇌출혈로 인한 혈전 제거 수술을 받았다. 수술 후 맥클레란은 2주간의 코마에서 깨어나 의식을 회복했지만, 청각의

80%와 자발 보행 능력 그리고 시력을 잃었다. 지금은 8세 수준으로 퇴행했다. 수술과 치료에 그동안 모은 재산을 다 소비한 그는 현재 고향에서 누이의 도움으로 생활하고 있다. 링 위가 아닌 지금, 그의 상대는 어둠과 고립감 그리고 생명이라는 이름의 공포다. 맥클레란은 자신을 방문한 사진작가 테디 블랙번에게 자신이 좋은 선수였는지 끊임없이 질문했다. 블랙번은 그에게 “너는 헌스를 능가하는 선수이며 크록크 짐의 황금색 트렁크가 가장 잘 어울리는 위대한 파이터였다”라고 말했다. 34전 31승 3패 29KO의 전적을 남기고 제럴드 ‘G-Man’ 맥클레란은 복싱이라는 스포츠의 그림자를 더욱 짙게 물들인 뒤 팬들의 곁을 떠났다.

4. 챔피언 최요삼의 비극



최요삼

출생 1974년 10월 16일
사망 2008년 1월 3일
통산 전적
 37전 승리 32 무승부 0 패배 5

2008년 체육훈장 백마장
2007년 세계복싱기구(WBO) 인터콘티넨탈 플라이급 챔피언
1999년 세계권투평의회(WBC) 라이트플라이급 챔피언

1989년 데뷔 이래 14전을 싸우는 동안 12명의 상대를 KO로 때려잡은 타이의 사만 소자투롱은 15전째에 무승부를, 16전째에 자국의 아스윈 실라카몽에게 첫 판정패를 당했다. 그러나 바로 다음 시합에서 같은 상대를 박살내고 WBC 미니멈급 챔피언 리카르도 로페즈에게 도전장을 던졌지만 패했다. 그 후 체급을 올린 소자투롱은 다시 11연승을 달렸다. 그중 7번의 KO승이 있었다. 26전 23승 2패 1무 18KO의 전적으로 소자투롱은 주니어 플라이급 WBC, IBF 통합 챔피언 움베르토 곤잘레스에게 도전했다. 재기를 노리던 장정구의 야망을 끝내 저지한 멕시코산 강타자 움베르토 곤잘레스와 맞붙은 사만 소자투롱은 처참한 유희의 난투극 끝에 곤잘레스를 멈췄고, <링> 지는 이 경기를 1995년 ‘Fight of the Year’로 선정했다. 1999년 소자투롱은

Fight

Live or Die

10차에 걸쳐 방어전에 성공하며 베테랑 챔피언이 되었다. 그의 11차 방어전 상대는 한국의 도전자 최요삼이었다.

1라운드 말미, 그림 같은 레프트 훅을 챔피언의 턱에 꽂아 넣으면서 최요삼은 기세를 올리기 시작했다. 이어지는 라운드에서도 최요삼은 경기를 완전히 지배했다. 3, 4라운드, 추운 날씨에 위축되었던 몸이 드디어 풀린 듯 소자투롱의 움직임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 4라운드 중반 소자투롱의 좌우 강타가 최요삼의 턱을 흔들기도 했다. 5라운드 들어서 최요삼은 박치기 파울로 감점을 당하지만, 개의치 않고 자기 페이스대로 경기를 운영한다. 6라운드, 최요삼의 펀치가 견딜 만했는지 소자투롱은 호쾌한 궤적을 그리던 좌우 훅을 앞세워 과감하게 전진해 들어왔다. 최요삼은 그림 같은 4연속 콤비네이션으로 상대의 의도를 분쇄했다. 하지만 소자투롱의 KO 율 70%의 강력한 훅과 어퍼의 회오리가 최요삼의 급소를 위협하고 있었다. 초반의 현란한 공격 패턴을 잡고 최요삼은 상대의 기세에 견제로 대응했고, 강타의 빈틈 사이사이에 치명적인 원투 스트레이트를 꽂아 넣었다. 후반에 들어서자 최요삼은 철저하게 아웃박스하고 클린치로 상대를 봉쇄했다. 마지막 라운드의 종료를 일리는 공이 울렸을 때 최요삼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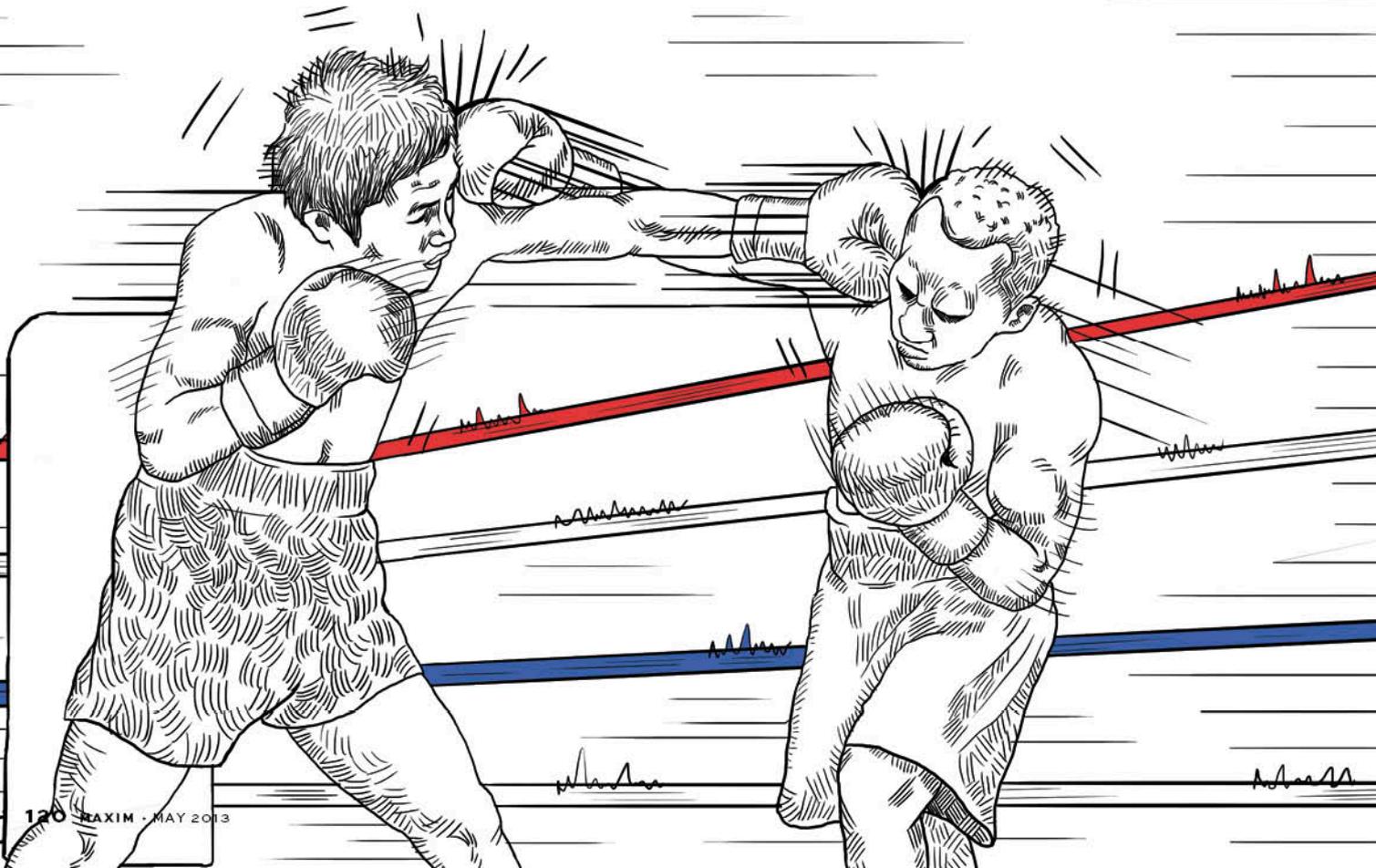
승리를 확신했고, 3명의 부심은 만장일치로 최요삼의 손을 들었다. 장정구의 패배와 유명우의 은퇴 이래 한반도를 떠난 라이트 플라이급의 왕좌가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온 순간이었다.

리턴매치. 이번에는 도전자의 입장이 되어 최요삼의 영지 서울을 향하던 역전 용사 사만 소자투롱. 대부분 소자투롱이 무난히 복수전에 성공할 것이라 믿었다. 그러나 새천년 벽두, 최요삼의 퍼포먼스는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다. 최요삼은 상대의 데이터를 입력한 정밀 기계처럼 한 치의 오차 없이 모든 라운드에서 우세를 점한 끝에 7회 만에 전 챔피언을 박살냈다.

그러나 복싱의 열기는 하루가 다르게 식어가고 있었고 미디어와 흥행 자본은 복싱보다 매력적인 투자처를 쫓았다. 설상가상으로 그는 13개월간 시합을 하지 못했다. 최요삼은 이제 두 차례 방어전을 치른 신생 챔피언이었고 경기 감각의 유지와 컨디션 조절이 생명과 같은 복싱이었다. 그리고 관중의 애정을 먹고사는 프로 검투사였다. 타이 출신의 명 챔피언 사만 소자투롱, 것처럼 강력한 적과 싸워 얻은 영광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점은 유달리 자존심이 강한 그에게 큰 상처가 됐다. 동기를 잃은 프로 스포츠 선수란 연료가 떨어진 자동차와 같다. 그런 그에게

돌아온 경기는 겨우 15전을 싸운 풋내기 일본인의 도전뿐이었다. 적지에서 얻어낸 화려한 KO승, 그러나 감동은 없었다.

2003년에서 2004년 9월까지 최요삼은 2승 3패를 기록하며 내리막길을 걷는 듯했다. 하지만 2005년 6월부터 2007년 9월까지 4KO가 포함된 5연승을 달리며 다시 한 번 도약을 노리던 그는 2007년 12월 인도네시아의 해리 아몰과 WBO 대륙 간 타이틀을 놓고 최후의 일전을 벌였다. 최요삼은 우세한 경기를 이끌었지만 마지막 라운드 종료 직전에 상대의 강타를 맞고 쓰러졌다. 힘들게 일어나 경기 종료될 때까지 버티던 그는 다시 실신하고 말았다. 경기 결과는 판정승이었지만 최요삼은 벨트를 차보지도 못한 채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뇌출혈로 수술을 받았지만, 그는 회복하지 못했다. 승리하면 라스베이거스로 건너가 세계 타이틀전을 치른다는 원대한 재기 계획도 물거품이 되었다. 최요삼은 떠나면서 4명에게 생명을 그리고 2명에게 빛을 선물했다. 그의 장기 기증 소식이 전국에 알려지면서 그를 따라 수많은 사람이 사후 장기 기증 각서에 서명했다.



5. 누가 배기석을 죽였나?



2010년 7월 17일, 배기석은 공석이던 슈퍼플라이급 한국 타이틀을 놓고 정진기와 대전했다. 8라운드 동안의 치열한 난타전 끝에 배기석은 8회 TKO패했고 경기 직후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한 끝에 병원으로 호송됐다. 뇌출혈 진단을 받은 그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21일 새벽, 끝내 영면에 들었다. 배기석의 인생은 시작부터 참담했다. 그의 아버지는 배기석이 세 살 때 사망했고, 어머니는 배기석과 당시 한 살이던 동생을 두고 집을 나갔다. 이후 두 형제를 보살핀 사람은 할머니였다. 배기석이 초등학교 시절부터 복싱을 선택한 이유는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집안의 형편을 놓고 당하는 괴롭힘과 놀림에 대한 자연스러운 저항이었다. 그는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기계공으로 일하면서 2003년 프로 복서로 데뷔했다. 수입은 전부 할머니에게 맡겼다. 세 식구가 생활하기에는 너무나 적은 액수였기 때문에 꼭 필요한 데 이외에는 지출을 피했다. 그럼에도 동생의 대학 학비는 당당하게 냈다. “운동만 하고 싶다. 일하면서 운동하는 것은 너무 힘들다.” 어느 날 배기석이 동생에게 털어놓은 고충이다.

할머니와 동생 그리고 주위에서는 권투를 포기하기를 중용했다. 하지만 그는 “딱 한 번만 더”라고 말하며 사각의 정글을 떠나지 못했다. 10만 원대의 대전료, 타이틀매치라고 해서 겨우 100만 원의 대전료를 지급하는 복싱계의 형편을 놓고 볼 때, 그런 대접을 받으면서도 링 위에 올라주는 선수들은 고마운 존재들이다. 하지만 한국권투위원회(이하 KBC)는 배기석의 사망 이후 몰염치한 태도를 보였다. 사고 당일 병원에 KBC 관계자 몇 명이 찾아오긴 했지만, 사후 처리에 대한 언급이라든지 보상에 대한 논의도 없었고, 심지어 자신들의 신분을 밝히지도 않은 채 얼굴만 내비친 후 황급히 사라졌다. 500여 만 원의 병원비가 해결이 안 돼 빈소로 사신을 운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장례식

일정은 엉망이 되었다. 유가족들에게 가해진 두 번째 칼질이었다.

배기석이 유명을 달리한 과정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당시 KBC가 얼마나 유명무실한 기관이었는지 잘 드러난다. 배기석은 17일 경기 이전 두 경기를 연속해 KO패한 상태였다. 이런 경우 다시 경기를 치르기 전에 의학적 소견이 필요한 것은 상식이다. 실제로 KBC의 규정에도 이것이 명문화돼 있다. 하지만 KBC는 이 과정을 무시했다. 의사의 진단을 참고했다면 참사를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또 2연속 KO패한 다음 경기에서 한 체급 위의 타이틀매치를 승인한 점 역시 그리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는다. 경기 도중, 버팅(머리로 상대 편을 박는 반칙 행위)이 계속 일어났는데, 레프리가 이에 대해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 이것은 경기 진행상의 오류로 단지 레프리의 자질 문제라기보다는 최종적으로 KBC가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다.

유가족은 KBC를 상대로 1억 6,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감행했다. 주요 쟁점은 앞서 밝힌 2연속 KO패 이후 의학적 소견을 참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기를 승인한 점에 대한 것이었다. 법정에서 KBC는 두 경기 연속이 아닌 “3연속 KO패한 선수들부터 의학 소견을 첨부하는 것으로 2009년 규정을 개정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것은 이사회 의결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안이라는 원고 측 주장이 나왔고, 이사회 의회록을 제출하라는 요구가 이어지자 KBC는 “이사회 회의록을 도난당했다”라는 황당한 변명을 내놓았다.

법원은 KBC 편이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6부(부장판사 강성국)는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권투 경기 특성상 KBC는 선수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라고 밝혔지만 “관련 규정이 바뀐 것으로 인정되고 KBC의 보호 의무 위반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판결 취지를 설명했다. 2000년도부터 쪽 이어져온, “2연속 KO패 이후에는 의사의 소견을

참고한 이후 경기를 승인한다”라는 조항이 갑자기 2009년에 ‘3연속 KO패’로 개정되었고, 이 과정에서 이사회가 그 안건을 승인했는지도 확실하지 않은 마당에 법원이 무슨 근거로 “관련 규정이 바뀐 것으로 인정된다”라고 판결했는지 쉽게 이해가 가지 않은 부분이다.

실령 판결을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KBC의 행정에는 커다란 오류가 있다. 김득구와 최오삼 사건을 겪으면서 우리 복싱계는 안전 기준을 점점 더 높여가야 하는 게 당연했다. 즉 2연속 KO패가 아니라 단 한 번이라도 KO패했을 때는 머리 부위의 정밀 검진을 받는 쪽으로 규정이 바뀌었어야 한다. 그게 발전이다. KBC가 밝힌 바(혹은 거짓말)로는 그들은 퇴보를 선택한 것이다. 현재 KBC는 구 집행부와 신 집행부가 서로 관할권을 주장하며 또 다른 소송으로 대립 중이다(김주환 회장의 구 집행부는 배기석 유족에게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태도이며 홍수환-유명우의 신 집행부는 배기석의 유가족에게 KBC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데에 이미 동의한 상태다). ☹

배기석

출생 198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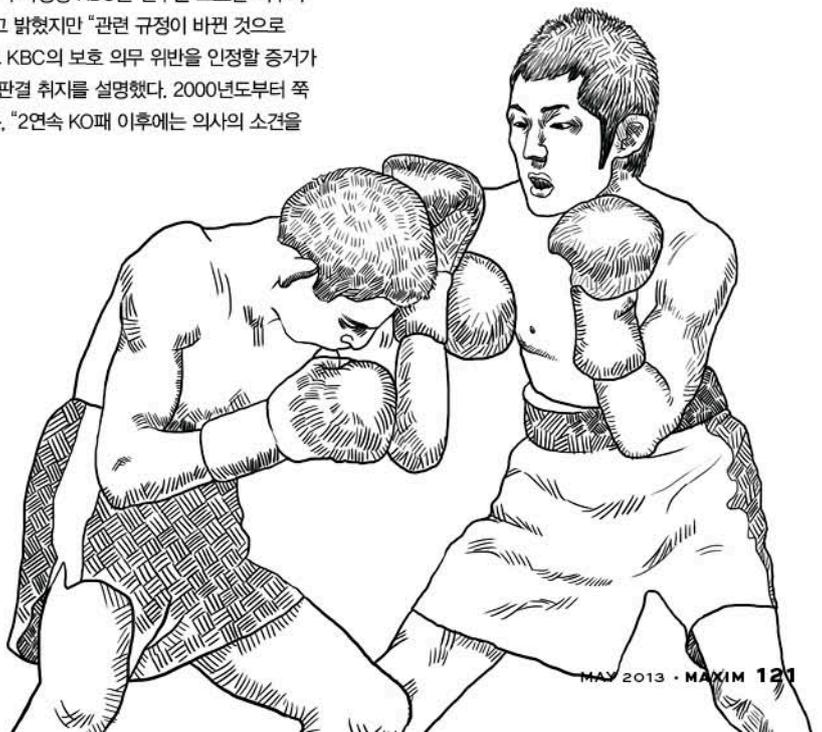
사망 2010년 7월 21일

통산 전적

15전 승리 7 무승부 1 패배 7

2008년 한국 플라이급 타이틀전

2007년 한국 슈퍼플라이급 타이틀전



MAXIM MAN 답게

오래오래 잘 사는 법



BY Jesse Brukman, Patrick Carone, Laura Leu, Mike Olson, and David Swanson, 김희성

담배 끊고 술 끊어도 어차피 인간은 다 죽는다.
 인생 뭐 있나? 한번 살다 가는 인생 푸지게 먹
 고 마시고 섹스도 더 많이 하는 거야.
 그래, 그렇게 살다 멋지게 죽는 거야!
 마치 우리처럼. 금연 따위 하지 않고도 더 오래,
 더 강하게 살 수 있는 20가지 방법을 알려줄게
 (과학적으로 검증된 거니까 믿어 봐도 좋아).

illustrations by KOREN SHADMI

① 하루 종일 모니터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라면 팔을 앞으로 뻗어 '하이파이브 테스트'를 해봐라. 모니터에 손이 닿아 하이파이브를 할 수 있는 거리라면 너무 가까이 앉아 있는 거다. 모니터에 손이 닿지 않도록 늘 적정 거리를 유지할 것.

③ 사람 이름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면 인사 뒤에 상대방의 이름을 불러라. "만나서 반갑습니다, 철수 씨", "안녕하세요, 영희 씨"처럼 말이다. 이런 방법만으로도 기억력을 30%나 높일 수 있다. 약수를 하면 더 도움이 된다. "초면에 사랑합니다, 효성 씨."

② 하루에 계핏가루를 한 스푼씩 먹으면 신진대사가 활발해진다. 혈당 조절에도 좋다.

④ 운동한 다음에는 게토레이 대신 초코 우유 한 잔을 마셔라. 초코 우유의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피곤한 근육을 재생하는 데 도움을 주고 초코 우유의 수분은 탈수현상을 막아줄 거다. 칼슘은 보너스!



By the Numbers

0.5

매일 한쪽 발에서 약 0.5L의 땀이 쏟아진다.

THE TOTAL PACKAGE

왜 힘입, 멋진 팔과 복근에만 신경 쓰는가?
 당신의 몸 전체를 단단하고 쫄뻤게 만들어보자!



곧휴

곧휴를 절반 정도만 받기시킨 다음 윤희유를 바르고, 엄지와 검지로 OK 시안을 만들어 안으로 쓱 끼워 넣어라. 그리고 귀두 끝에 닿기 직전까지 밀어 올린다. 이걸 50회 반복하면 곧휴가 길어진다. 하지만 신경이 손상될 수도 있다는 단점이...

허

복근뿐 아니라 허도 푸시업을 하면 단단해진다. 허를 쪽 내민 다음 손가락으로 허를 아래로 눌러라. 동시에 허는 손가락을 들어 올리려고 해야 한다. 이 상태로 5초간 버티라. 더욱 힘차고 단단한 당신의 허 놀림에 그녀가 비명을 지를 거다.

얼굴

코로 숨을 들이마신 다음 숨을 참은 채 눈을 감고 있는 대로 오만상을 지어라. 그리고 나서 입으로 천천히 숨을 내뿔으며 허를 내밀고 눈알을 위로 굴러라. 하루에 세 번씩 양치하듯 반복하면 탄력 있고 주름 없는 탱탱한 피부를 만들 수 있다.

발가락

당신의 귀엽고 사랑스러운 발가락의 힘을 더 키우고 싶다면 바닥에 구슬이나 콩을 20개 정도 뿌려놓고 발가락으로 하나씩 집어 올리는 연습을 해라. 전쟁 나서 언제 팔 병신이 될지도 모르니 부지런히 수련해놓을 것.

5 가끔은 좀비처럼 타 개체의 내장을 뜯어 먹는 것도 수명 연장에 도움이 된다. 송아지 간이나 소 머릿고기(뇌), 선지 같은 것을 한데 섞어서 내장탕을 만들어 먹으면 마법을 쓸 수 있게 되거나, 최소한 마법 같은 폭풍 설사를 하게 될 거다.

6 감기에 걸렸을 때 코를 너무 자주 풀지 마라. 코를 풀면 비강 속 점액의 흐름이 바뀌어 오히려 콧물이 나오는 속도가 느려진다. 더 오랜 기간 코 찢찢이로 살아야 한다는 말이다. 코를 짹짹 푸는 대신 약을 먹거나, 아니면 최대한 콧물을 참았다가 한 번에 콧구멍 하나씩만 풀어라. 콧물 로켓 발사!

7 잠이 보약이다. 밤에 한 시간 더 자는 것은 연봉이 7,000만 원 오르는 것과 같은 정도의 행복감을 준다. 우린 남들보다 서너 시간은 더 자니까 연봉이 해마다 2억 넘게 오르는 거랑 마찬가지로? 와 행복하다... 와하하... 근데 눈물이 나는 건 왜지?

8 하루에 필요한 열량이 얼마인지 궁금한가? 당신이 운동을 잘 하지 않는 편이라면 몸무게에 12를 곱하면 된다.

9 통계학적으로 월요일에 심장마비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 월요일 아침에는 마음을 차분하게 하는 클래식이라도 들으면서 출근할 것 세상에 출근하기 싫은 직장인이 이렇게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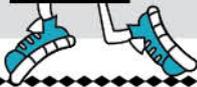
10 공중화장실을 사용할 땐 화장실 입구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칸에 들어가라. 소심한 사람들은 되도록 입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구석진 칸을 애용하기 때문에 입구에 가까운 칸일수록 세균이 더 적을 거다. 물론 휴지도 가장 많겠지?



By the Numbers

2

하루 중 당신이 앉아 있는 시간이 3시간 이하라면 수명은 2년 더 늘어났다. 직장 타만 할 게 아니다. TV 보는 시간을 2시간 이내로 줄이면 1.4년을 더 살 수 있다.



영생하는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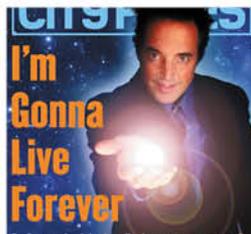
장수를 위한 여섯 가지 팁

세계 최장수 장수 지역을 연구 중인 댄 부트너에게 물어봤다. "어떻게 하면 벽에 통찰할 때까지 살 수 있나요?"

1. "술은 먹고 싶을 때 마음껏 마셔라. 음주를 즐기는 사람들이 금주하는 사람보다 오래 산다. 하지만 하루에 세 잔 넘게 마시면 안 된다. 그리고 설탕을 타서 마시지 마라."
2. "걸기나 육체노동 같은 일상 활동이 마라톤이나 아령을 드는 것보다 건강에 훨씬 좋다. 길게 봤을 때 웨이트 트레이닝이나 마라톤은 장수 비법과 거리가 멀다."
3. "커피는 생명 연장에 아주 좋다! 유럽의 장수촌으로 유명한 그리스의 이카리아 섬 주민들은 하루에 커피를 네댓 잔씩 마신다. 이는 파킨슨병과 당뇨병 발병률이 낮은 것과 상관관계가 있다."
4. "탄산음료는 절대 마시지 마라. 그건 그냥 설탕 덩어리다. 내가 방문했던 모든 장수 지역 사람들은 미국인이 섭취하는 정제 설탕량의 극히 일부만 먹고 있었다."

5. "사회생활을 즐기는 사람들이 더 오래 산다. 매일 밤 나가서 노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이카리아 섬의 남성 대부분은 90세나 100세에도 성 생활을 활발하게 하고 있었다!"

6. "내가 방문한 장수촌 사람들은 콩과 견과류를 많이 먹는다. 고기는 한 달에 다섯 번 정도 먹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Maxim Tested

주스의 제왕

해독 주스 다이어트로 알게 된 다섯 가지 사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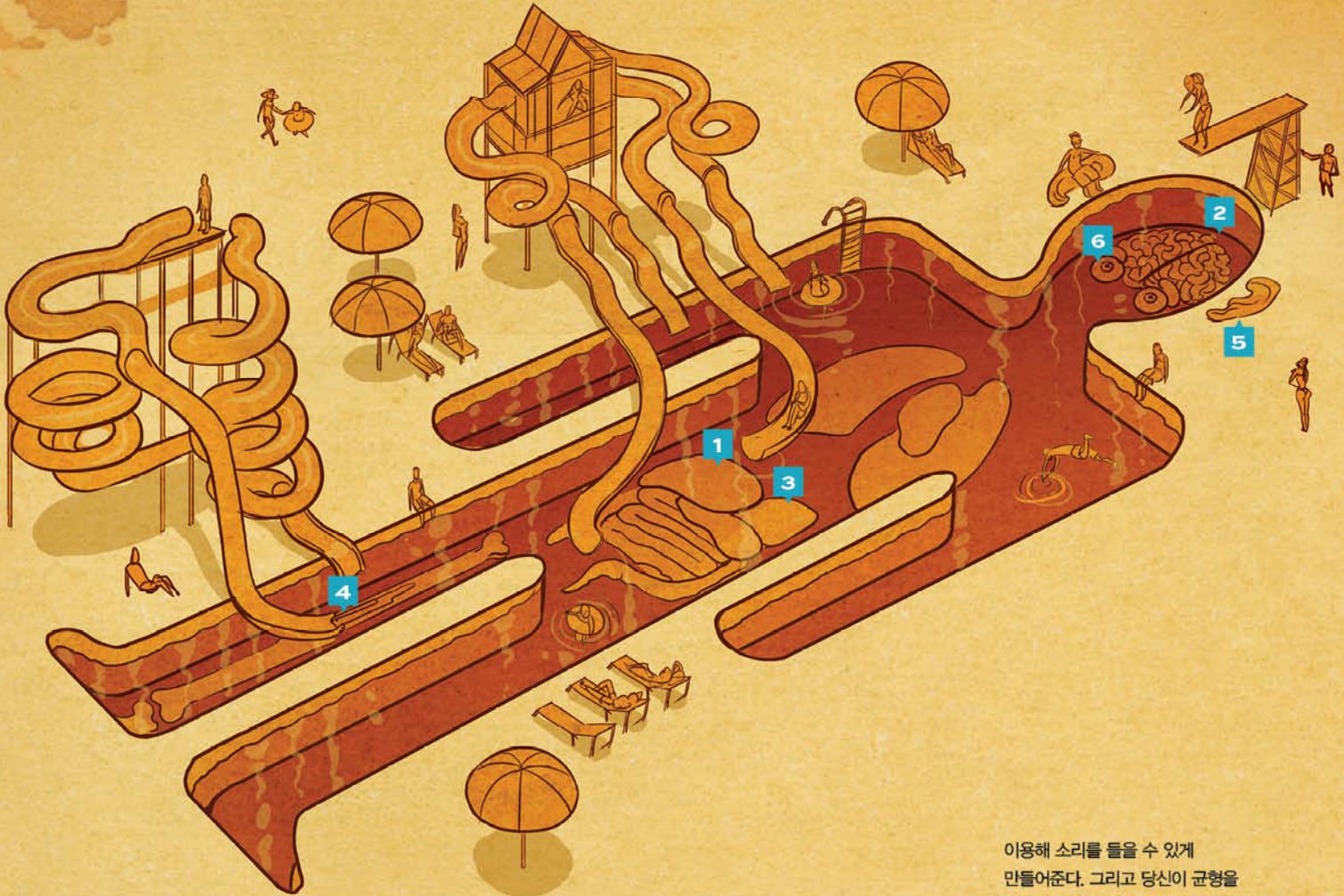
평소 고기와 술 식단만 고수해온 MAXIM 에디터가 직접 실험체가 되어 해독 주스 다이어트를 해봤다.

1. 채소를 사서 삶고 갈아야 하기 때문에 만들기가 참 귀찮다. 그래서 아예 만들어놓은 해독 주스를 배달시켰는데 엄청 비쌌다. 최소 한 병에 만 원은 넘는다. 하지만 편하긴 진짜 편하다. 그냥 주는 대로 마시면 되니까 아침? 주스, 점심은? 주스, 물론 저녁도 주스.
2. 보시다시피 아주 맛이 없다. 하지만 몸에 쓴 약이 몸에 좋다고 했던가. 드레싱을 뿌리지 않은 샐러드를 1,000그램 먹은 것에 맞먹는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다.
3. 마셔도 배가 고프고 일주일 동안은 방귀가 계속 나온다. 그나마 난 풀 맛, 매콤한 레모네이드, 코코넛 밀크 맛 등 다양한 주스를 먹어서 버틸 수 있었다.
4. 고기를 못 먹어서 그렇지 자꾸 짜증이 난다. 게다가 입을 열 때마다 이 다이어트 얘길 해대며, 주변 사람들마저 짜증나게 만들었다.
5. 하지만 이 모든 고난과 역경을 겪고 나니 그동안 참길 잘했다는 생각이 마구마구 들었다. 일단 숙면을 취할 수 있었고 몸 속 독소가 모두 빠진 느낌이었다. 피부도 좋아졌다. 해독 주스 다이어트를 마치니 가장 좋은 점은? 다시 몸에 엄청 나쁜 내 예전 식단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다.

-David Swanson

HUMAN WATER PARK

당신의 몸에 흐르는
끈적하고 걸쭉한 액체들이 하는 일.



1. 담즙

생산지: 간

하는 일: 당신이 먹는 지방 덩어리를 소화시킨다.

담즙이 샌다면: 폭풍 구토를 하며 위 속에 있는 모든 내용물을 토하게 될 것이다. 빈 위장에는 담즙과 위액만 남겠지.

2. 뇌척수액

생산지: 뇌

하는 일: 젤리 같은 당신의 뇌를 두개골 안에 무사히 보관할 수 있는 건 뇌척수액 덕분이다. 뇌를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고 뇌 자체 무게 때문에 멍개지는 걸 막아주니까. 우린 맨날 미친놈 같은 생각만 떠오르는 걸 보니 뇌척수액이 없어서 충격을 너무

많이 받았나 봐...

뇌척수액이 샌다면: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 사력을 다해 폭풍 섹스를 하길. 뇌척수액이 샌다는 건 곧 죽는다는 소리거든. 울지 마. 좋은 곳으로 갈 거야.

3. 미즙

생산지: 위

하는 일: 위에 가득 들어 있는 위산과 담즙이 음식물을 녹이면 그때 분해된 음식물이 죽처럼 끈적끈적해진다. 이게 바로 미즙이다. 그리고 이것은 소장으로 보내진다.

미즙이 샌다면: 미즙의 산성은 당신의 소중한 장기를 손상시키고 염증을 유발할 확률이 높다. 어쨌거나 복부에 칼빵 맞는 건 피하자고.

4. 피

생산지: 골수

하는 일: 몸 전체로 산소를 운반하고 포도당을 옮긴다. 병마와 싸우는 착한 세포들도 몸 곳곳으로 옮겨준다. 으쌰라 으쌰!

피가 샌다면: 아마 칼에 찔렸거나 불에 탔거나 총에 맞았거나 주먹으로 맞거나, 아니면 칼 맞고 주먹으로 또 맞았겠지. 피가 철철 난다고 무서워할 거 없다. 몸은 상처가 나면 상처 쪽으로 피를 보내 치료를 도우려 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칼에 맞았는데 피가 안 나는 게 더 무서운 거야.

5. 내임파액

생산지: 귀

하는 일: 내임파액은 귀 안쪽을 둘러싸고 있는 액체이며 그 파동을

이용해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만들어준다. 그리고 당신이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준다. 내임파액의 압력이 증가하면 갑자기 심하게 어지럽고 토할 것 같다. 이를 메니에르증후군이라고 하는데 한지민, 유지태가 이 병을 앓고 있다. **내임파액이 샌다면:** 귀가 안 들린다. 그리고 똑바로 서 있지 못한다.

6. 눈물

생산지: 눈물샘

하는 일: 지속적으로 안구를 적셔주는 윤활제 역할을 한다. 가끔 되게 슬프거나 눈에 이물질이 들어가면 과도하게 분비된다. 눈물샘은 나이가 들면 막히기도 한다. 늙으면 서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구나.

눈물이 샌다면: 설리나 현아한테 남친이 생긴 거겠지.

-Jess Brukman

11 약간의 알코올을 섭취하는 것은 기억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한 연구에 따르면 매일 두 잔의 와인을 마신 사람들이 그러지 않은 사람보다 알츠하이머에 걸릴 확률이 45%나 적었다.

12 하지만 와인을 매일 마시면 치아가 보라색으로 변색될 수 있다. 레드 와인을 마시기 전에 치즈 한 조각을 깨물면 치즈의 지방이 막을 형성해 레드 와인에서 함유된 타닌 성분으로부터 치아를 보호해줄 거다.

13 하루에 먹는 열량을 10cal씩만 줄여도 1년에 0.5kg는 저절로 빠진다. 0.5kg라고 무시하지 마라. 스무 살 때부터 했으면 대학교 졸업할 때쯤엔 3kg 정도는 그냥 빠져 있을 거란 소리다. 참고로 10cal는 프링글스 칩 하나와 같은 열량이니 앞으로 프링글스를 먹을 때 마지막 하나는 꼭 남길 것. 하지만 일다시 프링글스는 한번 두껍게 열면 멈추기가 과학적으로 불가능하지.

14 무언가 기억해내야 하는데 잘 안 떠오르지 않을 땐 숨을 깊고 천천히 내쉬어라. 이렇게 하면 뇌 속의 전기 자극 흐름이 바뀌면서 뇌가 낮잠에서 방금 깨어났을 때보다 말뚱말뚱한 상태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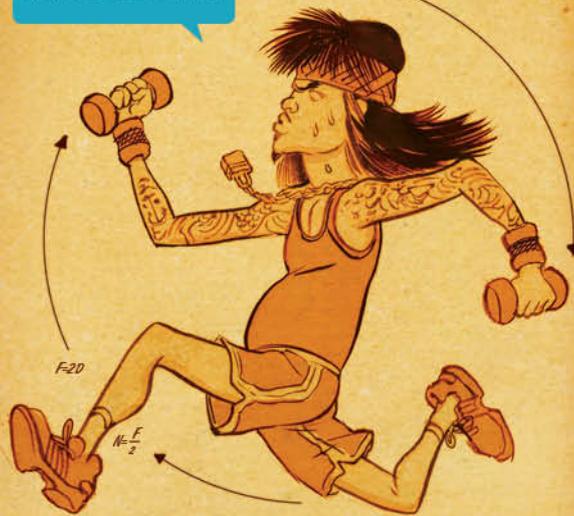
15 매일 치즈 두 장을 먹으면 당뇨병에 걸릴 위험을 12% 줄일 수 있다. 그렇다고 매일 치즈 '케이크' 두 조각을 먹으면 정반대의 효과를 불러올 거다.

16 껌을 씹으면 뇌로 가는 혈량이 증가해 집중력이 높아진다. 아, 껌을 씹는 데 집중하란 얘기가 아니었어!



전성기 시절로 돌아가려고
X빠지게 운동하는 건 아니야

Fig. 1.6



NIKKI SIXX'S LIFE TIP

마약중독 탓에 여러 차례 철창 신세를 지는 등 험난한 삶을 살았던 밴드 머틀리 크루의 베이시스트 니키 식스의 인생 가이드. 그동안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면서 그가 얻은 몇 가지 인생의 교훈을 배워보자.

과거의 당신처럼 고난의 행군을 견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나?

- 물을 많이 마셔라.
- 우울증 치료제를 복용해라.
- 콘돔을 꺼라.
- 헤어스프레이를 사용해라.
- 칼을 소지하고 다녀라.
- 여친한테는 항상 'Yes'라고 대답해라.

고난과 역경을 피하기 위한 조언도 좀 해달라.

- 페라리 사면 망한다. 토요타 프리우스를 사라.
- 베이비파우더에 코를 박아라. 코카인이 아니라.
- 혈관에 잭 다니엘을 꽂는 짓거리 대신 관장이나 해라.
- 규칙적으로 샤워해라.
- 매일 명상을 하거나 자위를 해라. 필요하면 필요하지 않든...

당신은 죽을 고비를 참 많이 겪었다.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 있을 수 있었나?

롤링스톤스의 키스 리처드나 모토 헤드의 레미에 비하면 내 경우는 한날 밤 바람에 불과하다.

전성기 때와 비교했을 때 지금의 삶은 어떤가?

일주일 중 5일은 운동을 하려고 한다. 사실 20대 때보다 지금의 내 몸이 더 좋은 것 같다.

아직도 술에 찢어 사나?

전혀.



By the Numbers

10

의식하든 하지 못했든 우리 하루 평균 10번 방귀를 똥다. 우리 모두는 방귀 대장 뽕뽕이었어...



PFFFF!

17 수면 장애가 있다면 미국 미니애폴리스로 이사를 가면 된다. 미니애폴리스는 미국에서 가장 잠자기 좋은 도시로 뽑혔다. 조사 결과 거주자들은 평균적으로 한 달에 23일 숙면을 취한다고, 즉 엄청 심심한 도시라는 거지.

18 공짜로 코골이를 치료하는 방법: 잠옷 뒤에 탁구공을 붙인다. 이렇게 하면 당신은 옆으로 누워서 잘 수밖에 없다. 옆으로 누워 자연 허와 목젓이 기도를 막지 않아 코를 안 골게 되거든.

19 팔꿈치로 통장 비밀번호를 누르는 기술만 터득해도 몇 년은 더 산다. 영국의 한 조사에 따르면 현금 지급기에는 공중화장실 변기만큼 세균이 득실댄다. 돈을 뽑을 때마다 똥을 만진다는 거다.

20 기쁜 소식 하나. 아동 중독이 당신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다. 한 달에 21번 사정을 하는 사람은 그러지 않는 평균 남성보다 전립선암에 걸릴 확률이 33%나 더 낮았다. 근데 뭐라고? 평균 남성이 한 달에 사정을 21번도 안 한단 말이야?

낮잠의 미학

점심 먹고 졸려 미치겠을 때 써먹을 훌륭한 변명거리들.

낮잠 10~20분
더욱 민첩해진다.



낮잠 30~60분
기억력을 증가시킨다.



낮잠 60~90분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킨다.



By the Numbers

8시간 이상 자라. 비만에 안 걸릴 확률이 15%나 높아진다.

코골이 치료기를 사용하면서 알게된 네 가지 사실들

코를 너무 심하게 골아서 최근에 여친에게 대차게 차이고 시름에 빠져있는 한 MAXIM 에디터가 뉴욕의 수면 전문가 데이비드 볼피 박사의 도움을 받아 코골이 탈출에 성공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줄 알았던 코골이가 알고보니 자신의 생명까지 갇아먹고 있었다. 그 생생한 치료 후기, 하나도 빠짐없이 들려주마!



1 볼피 박사가 내 머리를 면밀히 관찰하더니 "코나 입속 공간이 차단돼 공기가 통하는 공간이 좁아지면서 콧속에 진동을 일으켜 코골이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알고 보니 내 문제는 혀에 있었다. 아놔! 내가 잘 때 공기의 흐름을 방해했던 거다. 젠장!

2 볼피 박사는 나에게 이상한 장비를 하나 건넸다. 그것은 내가 잘 때 몇 번이나 숨을 멈추는지를 측정하는 기계였다. 코골이는 단지 같은 침대에 누워 있는 섹스 파트너를 짜증나게 할뿐 아니라 갑자기 자다가 숨이 멈추고 심장병이나 발작을 일으킬 수도 있는 수면성 무호흡증을 초래할 수도 있다. 기계는 내가 수면성 무호흡증이 약간 있다고 진단했다. 무려 한 시간에 19번이나 숨을 멈췄다! 정말 공포 영화가 따로 없었다.

3 무호흡증과 코골이를 없애기 위해 볼피 박사는 내게 구강 기기 하나를 맞춰줬다. 플라스틱으로 만든 제품이었었는데 내 턱과 혀를 앞으로 조금씩 밀어내는 역할을 한다고 했다. SM 플레이용 개구기인 줄 알았는데 약간 실망이다. 어쨌든 섹시하다.

4 괜히 수면 전문가가 아니었다. 그 장치는 확실히 효과가 있었다. 맘이 식은 여친이 다시 돌아왔거든. 여친 말로는 내가 자는 도중에 거의 코를 골지 않는다고 했다. 그리고 두 번째 수면 테스트에서는 한 시간에 4번밖에 호흡이 멈추지 않았다. 이제 자다가 심장병으로 웨질 확률이나 내 코골이에 짜증난 그녀가 잠든 나를 칼로 찔러 죽을 확률은 낮아졌다. 나이스.

-Patrick Carone

MISS M



한냥

취미 스트리트 댄스, 판소리

특기 춤

이상형 재미있는 남자

좋아하는 음식 떡볶이

주량 소맥 4,000cc

활동 지역 압구정, 강남 일대

자신있는 신체 부위 가슴

2013 MISS MAXIM CONTEST

여섯 번째 본선진출자

한냥

SNS에서 유명세를 타 무려
2,000 명이 넘는 팬을
거느리고(?) 있는 애교 넘치는
한양대 고양이 BY 김희성 (MBC) 조용제

AXIM

반갑다! MISS MAXIM은 어떻게 알고 지원했나?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하고 싶었는데 이제 성인도 됐고 해서 지원했다.

술버릇이 있다면? 술이 좀 들어가면 신발 벗고 여기저기를 푹푹푹 뛰어나다. 흥대에서 마시면 흥대 한 바퀴를 돌고, 강남에서 마시면 강남 한 바퀴를 다 돌고 온다.

들어본 작업 멘트 중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고2 때, 어떤 남자가 전화 번호 달래서 알려줬는데, 성희롱 문자가 난리도

아니었다. '하고 싶다'나 뭐라나...(웃음)

마음에 있는 남자가 있으면 어떤 식으로 들이대는 편인가? 그냥 들이댄다. "나랑 밥 먹자"고 하면서 말이지.

스포츠 좋아하나? 야구 좋아한다. SK 팬이고 김상현 선수를 좋아한다.

담고 싶은 연예인이 있는지? 제시카 고메즈가 롤모델이고 시노자키 아이도 좋아한다. 가슴이 크고 약간 골격도

있으면서 통통한 스타일을 좋아한다. 일본의 AV배우 아즈사 나가사와도 좋아한다(웃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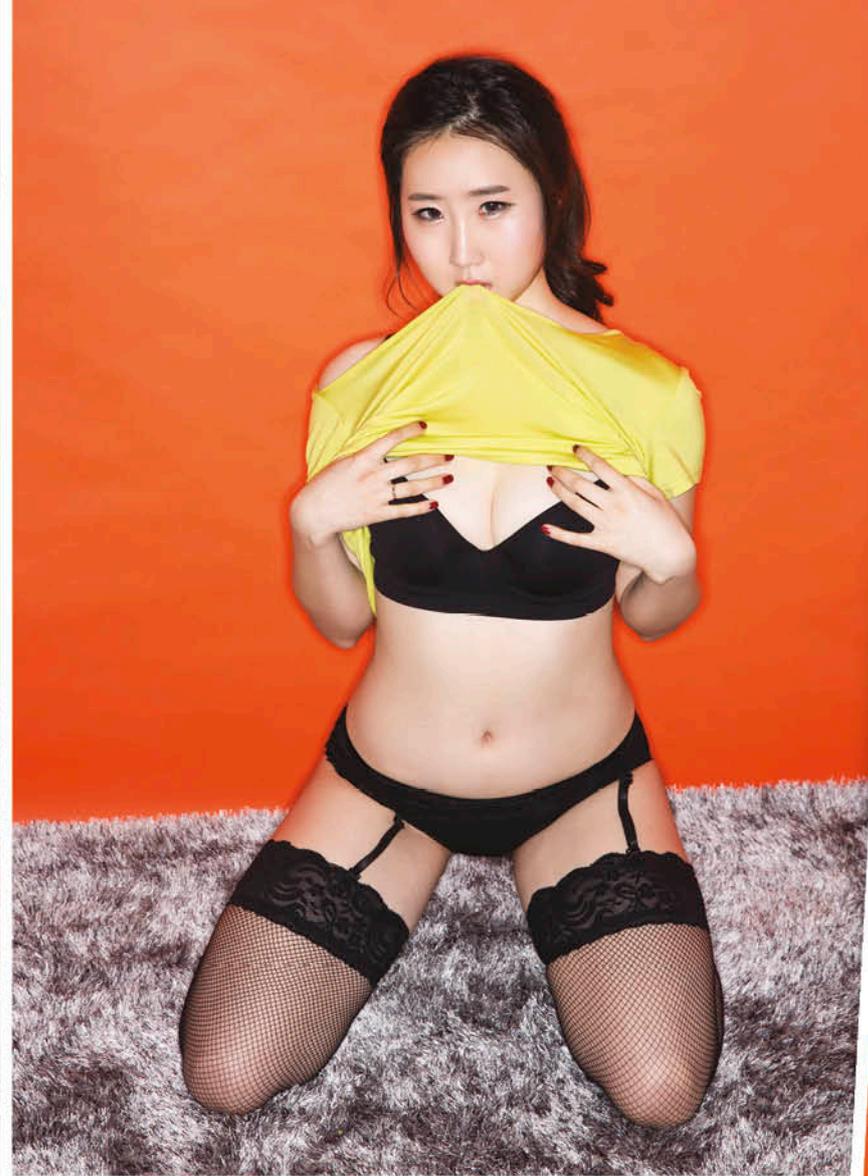
나중에 다시 태어났더니 '얼굴과 몸매 중 하나만 택하라'면 뭘 택하고 싶은가? 몸매. 얼굴은 뜯어고치면 되잖아. 가슴에 실리콘 넣는 것보다는 얼굴에 보형물 넣는 걸 택하겠다. 요즘은 의학이 좋아서 얼굴은 티가 안나는데 가슴은 아직 아닌 것 같다.

MAXIM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 MAXIM의 가슴왕은 나야. 내가 제일 클 걸?(웃음)



금방이라도
날릴 것
같아!





2013 MISS MAXIM CONTEST

일곱 번째 본선진출자

귀흥지

포동포동 앳된 얼굴만큼 귀여운 사투리를 구사하는 섹시 베이글녀

MISS MAXIM 촬영은 어땠나? 할 만 하던가?

신기하고 재미있었다. MAXIM을 1년 전부터 보기 시작했는데 김희성 에디터를 직접 본 것도 신기하고 촬영장에 온 것도 되게 신기하다.

예선전 상대가 만만치 않았나. 검은 피부의 혼혈

섹시 미녀라니! 완전 섹시해서 식겁했다. 잠을 못 잘 정도였으니까.

그녀를 이긴 결정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나?

동양적인 페이스가 먹히지 않았을까?(웃음)

남자들이 종종 대쉬하는 편인가? 보통 뭐라고

하면서 접근하는지? "남자친구 있게 생겼는데 왜 남친 안 사귀냐", "없으면 나랑 사귀자" 이렇게. 심지어 여자가 들이댄 적도 두 번이나 있다!

올해 들은 가장 흥미진진한 얘기가. 그래서 어떻게

했나? 처음엔 좋은 언니였는데, 귀엽다고 하면서 계속 스킨십을 하더라. 점점 수위가 높아져서 나중엔 도가 지나칠 정도까지 터치했다. 놀라서 다음부터 그 언니랑 연락도 안 하게 됐다.

남자를 볼 때 성격, 돈, 능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은 신경 쓰지 않는다. 같이 있을 때 부담이

없는 사람이 좋다. 아무리 좋아도 같이 있을 때 불편한 사람이 있잖나? 그런 사람은 싫다.

어떤 스타일의 남자 옷을 좋아하나?

자기한테 어울리는 걸 입는 사람이 좋다. 하지만 그렇다고 캐릭터 그려진 후드티 입고 바지에 체인 주렁주렁 달고 있는 남자는 질색이다.

어떤 사랑을 하고 싶나? 당신을 예습해야겠다.

음,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좋아한다. "내가 아무리 좋아해도 재는 날 안 좋아할 거야" 같은 느낌이랄까. 좀 깊은 관계가 되기 전의 단계에서 머무는 걸 좋아하는 것 같다.

MAXIM을 많이 봤다면 MISS MAXIM도 많이

봤겠네? 누구를 제일 좋아하나? 엄상미 씨를 좋아한다. 최현아 언니랑은 트위터 친구라서 얼마 전에 "선배님 조언 좀 해 주세요" 라고 하니깐 "떨지 마시고~ 화이팅!"이라고 해 줬다. 엄상미 씨는 아직 맞팔 안 해줬다.(웃음)

마지막으로 MAXIM 독자들에게 한 마디 부탁한다.

저 지금 하늘로 날아갈 것처럼 너무너무 신나요! 신기하고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언더웨어 르페

베이글녀란
이런 것



구향지

취미 집에서 혼자 놀기
특기 주판
이상형 공통점이 생긴 사람
좋아하는 음식 스시
주랑 막걸리 조금
활동 지역 대학가
자신있는 신체 부위 다리, 볼살

MISS MAXIM



2013
MISS MAXIM
CONTEST

여덟 번째 본선진출자

장유진

자칭 말당의 고수 당기지 않아도
끌려갈 것 같은 섹시함의 소유자

언더웨어 세트 게스언더웨어
쿠두 슈즈함

진정한
스타인
감상하기



촬영 할 때 보니까 포즈나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
그런가?(웃음) 피팅 모델로 일하고 있다.

살면서 가장 오랫동안 자 본 기억은?
하루 종일. 이틀동안 게임 하면서 날 새고 그 다음날 종일 자기도 하고..

무슨 게임을 하길래?
<서든 어택>을 주로 하는데 계급은 소위다.

몸매 라인이 예술이다. 평소에 주로 하는 운동이 있는지?
자기 전에 윗몸일으키기나 간단한 몸풀기 정도만 한다. '고양이 자세' 같은 거 있잖아.

이성을 유혹하는 당신만의 필살기가 있나?
유혹이라기보다는 밀당을 잘 하는 나만의 비법이 있다.

남자가 밀당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특별한 게 필요하진 않다. 눈치만 빨라도 밀당의 고수가 될 수 있다.(웃음)

그러면 당신은 남자와 밀당하다 진 적이 있나?
없다. 혹시라도 밀당에서 질 것 같으면 내가 먼저 쏙 빠진다.

MAXIM 독자들에게 한 마디!
여러분의 열렬한 응원 부탁드릴게요!

장유진
취미 잠

이상형 요리 잘 하는 남자

좋아하는 음식

치즈가 들어간 음식

주랑 전혀 못 마심

활동 지역 대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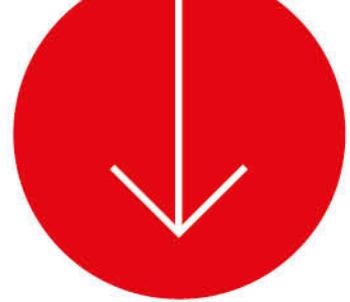
자신있는 신체 부위 새글 라인



5,000 WOMEN WANT YOU

(TO KNOW WHAT
THEY WANT IN BED!)

PHOTOGRAPH ERIC RAY DAVIDSON



우린 남자새끼들이 바라는 섹스가 뭔지 이미 잘 알고 있다(더 많이, 무조건 많이). 중요한 건 우리의 상대들이 뭘 원하는지다. MAXIM은 당신이 침실에서 사랑받길 늘 기원한다. 마치 자기 일처럼 말이다! 그래서 국적불문하고 18~40세 사이의 여성 5천 명에게 물었다. 그녀들의 촉촉하고 은밀한 침실 희망사항은 무엇일까? 비밀로 숨겨온 못된 섹스 판타지부터 일상적인 섹스 습관, 유혹의 기술까지 다양한 질문을 던져 그녀들의 솔직한 고백을 모아왔다. 사실 일부 통계 결과는 상당히 충격적이었다. 우리도 MAXIM 간판 매력녀 김 모 에디터의 보충 설명이 없었다면 이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했을 거다. 하지만 결과를 떠나서 일단 여기에 참여해주신 여성분들에게 남성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어쨌거나 기사를 떠나서 말이야, 5천 명의 여자들이 스리섬, 공공장소에서의 관계, 섹스 중 문자질 하기 그리고 흥미진진한 레즈비언 경험까지 우리에게 고백했다는 사실만으로 콧김이 뜨거워진다. 이 경사스러운 내용을 당신과 공유한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설문에 2천 명의 수컷들도 참여했다. 걱정 마라, 답변을 모조리, 아주 갈기갈기 찢어버렸으니까. 불행히도 이 설문을 정리한 MAXIM

편집부 인턴의 머릿속에는 시커먼 수컷들의 자위 습관을 그런 이미지가 떠나질 않았다고 전해진다.

섹스에 대해 얼마나 자주 상상하나?

- 일주일에 한 번 **12.6%**
- 하루에 한 번 **41.4%**
- 하루에 서너 번 **37.3%**
- 죄송한데, 질문이 뭐였죠?
아한 상상하느라
못 들었어요. **8.7%**

당신은 얼마나 자주 자위를 하나?

- 한 달에 한 번 **13.0%**
- 일주일에 한 번 **23.0%**
- 일주일에 여러 차례 **45.1%**
- 매일 **11.6%**
- 전혀 안 함 **7.3%**

남자에게 반했을 때 나는 남자에게 이런 신호를 보낸다:

- 그 남자 주변에서 말을 많이 한다. 마치 입에 설사병이 난 것처럼. **17.5%**
- 그가 말할 때마다 웃는다. **36.1%**
- 그와 대화할 때 팔이나 다리를 터치한다. **30.6%**
- 팔쪽에 그의 이름을 문신으로 새긴다. **0.9%**
- 기타 응답: "그가 하는 모든 말에 생트집을 잡는다. 그러면서 늘 그를 응시한다." **14.9%**

37 퍼센트의 여성 응답자들이 자기보다 키가 작은 남자를 만나느니 대머리나 동보를 만나겠다고 답했다.



거울아, 거울아... 최고의 위치 선점이로구나.

33

퍼센트의 여성들은 자신이 남자에게 입으로 서비스를 해줬다면 남자들도 자신에게 똑같이 해주기를 바란다. 오늘부터 입과 혀를 철사장으로 단련하라!

남자친구감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는 무엇인가?

- 외모가 섹시해야 한다. **3.1%**
- 경제력이 있어야 한다. **1.2%**
- 재미있어야 한다. **56.7%**
- 침대에서의 기술이 좋아야 한다. **8.2%**
- 내 게이 친구들보다 웃을 잘 입어야 한다. **0.7%**
- 기타 응답: "내가 그를 좋아하는 것보다 나를 더 많이 좋아해야 한다." **30.1%**

이런 페북 프로필의 남성을 볼 때 가장 비호감이 치솟는다:

- 친구가 지나치게 많다. 페친 1,000명 이상이라니! **12.9%**
- 이곳저곳 체크인한 흔적이 너무 많다. 안 간 데가 없네. **22.0%**
- 사진, 친구 목록, 담벼락 메시지 등 모든 것이 비공개다. **9.2%**
- 전 여친과 찍은 사진으로 도배되어있다. **42.1%**
- 고양이 사진으로 도배되어있다. **13.8%**

68

퍼센트의 여성들이 옆에 남친이 없을 때 자기들도 포르노를 본다고 고백했다. 좋은 거 있음 공유 줘.

젠장
이게 뭐야
NO. 1



그녀가 당신과 사귀었던 진짜 이유는 뭘까?

힌트: 당신의 끝내주는 인품 때문은 아니야.

"내가 가고 싶던 콘도의 연간 회원권을 가지고 있었다."

"대학 시절 만난 그 남자는 차가 있어서 나를 마트에 데려다줄 수 있었다."

"뺑을 사줬다."

"오렐 기술이 끝내줬다."

"클럽 기도였다. 그래서 내 친구들이랑 나를 공짜로 클럽에 데려다주었다."

오렐섹스 해주는 걸 좋아하나?

- 완전 싫다. 난 안 해준다. **3.7%**
- 먼저 그가 해줄 때만 한다. **7.4%**
- 가끔 기분에 따라서 해준다. **49.1%**
- 물론 좋아하지! **39.8%**

선호하는 남성의 속옷 스타일은?

- 사각 트렁크 **26.1%**
- 타이트한 하얀 팬티. **2.0%**
- 복서 브리프 (타이트한 사각). **68.4%**
- 남성용 티팬티. **0.5%**
- 노팬티! **3.0%**

당신을 오르가즘에 도달하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 오렐섹스 받을 때 **7.4%**
- 그가 손가락을 쓸 때 **37.1%**
- 내가 위에 올라탔을 때 **23.4%**
- 자위할 때 **27.8%**
-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 같은 야한 책을 읽을 때 **4.3%**
- 기타 응답: "그가 향문을 손가락으로 애무하며 오렐섹스를 해줄 때" **4.3%**

당신이 레즈비언이라면 이중 어떤 여성 스타와 자고 싶나?



영화배우
엠마 스톤
44.4%

섹시 모델
케이트 업튼
29.7%

영국 왕세자비
케이트 미들턴
10.9%

슈퍼 모델
지젤 번천
10.4%

래퍼
니키 미나즈
3.8%

**뒤를 활용한 섹스,
어느 수위까지
가능한가?**

절대 No. 내 엉덩이에는
그 무엇도 넣을 수 없다.

41.7%

손가락 정도?

19.5%

입술이나 혀 매우.

10.0%

애널섹스 OK!

28.8%

**당신을 가장
달아오르게 만들었던
영화를 꼽는다면?**

- 훈남들이 클럽에서 섹시 퍼포먼스를 펼치는 <매직 마이크> **70.2%**
- 명불허전 <타이타닉 3D> **12.4%**
- 출산을 앞둔 커플 이야기 <임신한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4.5%**
- 액션 영웅 총출동! <익스펜더블2> **12.9%**

**남자와 핸드폰으로 섹스팅
(은밀한 채팅)을 할 때 수위는
어디까지?**

- 왕크하는 이모티콘. **23.4%**
- 은밀하고 야한 말. **39.9%**
- 속옷만 입은 내 사진. **18.3%**
- 알몸 사진과 동영상. **18.4%**

젠장
이게 뭐야
NO. 2



**그녀들의 섹스
판타지가 궁금해!**

가장 인상이었던
(동시에 좀 식겁한)
그녀들의 섹스 경험담.

"사위 중 섹스를 하며
소변 세례 받기."

"내 남자친구에게 오일 섹스를
해주고 있는 다른 여자를 뒤에서
애무해 가버리게 하기."

"섹스 중에 게임 속
캐릭터가 하는 욕을 흉내내기."

"해적 물놀이 판타지."

"자웅동체와 섹스하기."

5 천 명의 여성 중 미국의 꽃미남
팝스타 저스틴 비버와 자고
싶다고 응답한 여성은 1%에 불과했다.
그러니까... 뭐야, 50명이나 되잖아? 이
새끼 존나 부럽네.

아냐, 1%라니...
고추라도 내놔야하나?



이거 말고 인간 쓰리쿠션 할래요?



34

여자와 애정행각을 해봤다고 말한 여성들의 퍼센트.
18%는 섹스까지 해봤다고 답했다. 아, 너무 하네.
우린 왜 안 끼워주냐!

51 퍼센트의 여자들이 제대로 작동하기만 한다면 남자 성기 사이즈는 상관없다고 말했다.

뭐 좀 박아드릴까?



10 퍼센트의 여성이 자신의 직장 상사와 그렇고 그런 관계를 맺었다고 응답했다.

18 퍼센트의 여자들이 섹스 중에 문자메시지나 기록을 확인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중요한 순간에는 잠시 꺼두시라니까요!

첫 만남부터 섹스까지 걸리는 시간은 보통 어느 정도인가?

- 첫 번째 데이트에도 상관없다. **17.3%**
- 두세 번째 데이트. **47.4%**
- 7~10번 정도 만난 다음. **30.8%**
- 결혼 전엔 안 된다! **4.5%**

젠장
이게 뭐야
NO. 3



그녀가 경험한 최고의 아웃도어 섹스

그녀들이 고백한 자신들의 특별한 야외 교접 장소는 어디?

"로마 콜로세움."

"시청 건물 옥상에서."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다리 밑."

"야구장."



46 퍼센트의 여자들은 슷총각인 남자와 자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그가 아무리 멋진 운동선수라고 해도 말이다.

원나잇을 한 후, 그 남자가 당신 옆에 얼마동안 머물러주길 원하나?

- 밤을 함께 보내고 아침에 일어나 함께 브런치를 먹는다. **49.4%**
- 내가 잠들 때까지. **9.6%**
- 최소 30분. **28.4%**
- 최대한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다. 우리 끝났어! **12.6%**

그가 어떤 섹스 소품을 침실로 가져오길 원하는가?

- 양초와 마사지 오일. **25.9%**
- 채찍, 사슬, 수갑. **22.5%**
- 먹을 것. **4.9%**
- 섹스 토이 (바이브레이터, 딜도). **41.8%**
- 기타 응답: "남자친구가 비닐 소재의 보디슈트를 입고 오면 좋겠다." **4.9%**



나는 이런 모습을 보자마자 그 남자의 방을 뛰쳐나올 거다.

- 다른 여자와 함께 찍은 사진이 액자에 담겨 있을 때. **28.7%**
- 액션 피규어 수집광임을 알게 됐을 때. **6.6%**
- 명칭한 문구가 적힌 포스터를 방에 붙여놓았을 때. **26.7%**
- 그가 말한 '침대'가 사실은 거실 바닥에 깔아놓은 이불이란 걸 알게 됐을 때. **26.5%**
- 기타 응답: "미드 <텍스터> 속 살인마 텍스터가 살인할 때 쓰는 '비닐 덮힌 방' 같은 게 펼쳐졌을 때. 그런 건 TV에서나 멋있지." **11.5%**

내 남자가 의심스러울 때, 나는 이런 스파이짓까지 해봤다.

- 남자친구의 인터넷 검색 기록을 뒤졌다. **19.7%**
- 그의 문자메시지, 이메일, 전화 기록을 확인했다. **32.7%**
- 그의 페이스북 계정을 해킹했다. **4.9%**
- 위 응답 모두 이미 해봤다. **42.7%**

얼마나 섹스를 자주 하는가?

- 매일. **7.4%**
- 일주일에 세 번에서 다섯 번. **37.1%**
- 한 달에 한 몇 번 한다. **23.4%**
- 한 지 꽤 됐다. 그래서 기분이 별로 좋지 못하다. **27.8%**
- 한 지 꽤 됐다. 드라마 챙겨보느라 바빴단 말야! **4.3%**

지금까지 삶을 섞은 남자는 몇 명인가?

- 아직 성 경험이 없다. **5.0%**
- 1~4명. **38.7%**
- 5~10명. **24.9%**
- 11~20명. **18.2%**
- 21~30명. **6.8%**
- 30명 넘어가면서 세는 걸 포기했다. **6.4%**

50 퍼센트, 즉 여성의 2명 중 하나는 종종 가짜로 오르가슴을 연기한다고 답했다. 이유는 오직 하나. 당신 기분 상하지 말라고.



남자친구의 페니스에 별명을 붙인 적이 있나?

- 아니. **87.4%**
- 그렇다. **12.6%**



그럼 당신의 음부에 별명을 붙인 적은 있나?

- 아니. **90.5%**
- 그렇다. **9.5%**

나는 이런 상황이라면 스리섬을 할 수 있다.

- 낯선 사람 두 명과 한다면. **8.5%**
- 남자친구와, 나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여자와 한다면. **25.8%**
- 어떤 경우든 좀 어렵다. **65.7%**

3 여자 10명 중 3명 이상은 섹시한 옷을 입었을 때 바람을 피우고 싶다고 느낀다.

최근 국내 한 쇼핑몰에서 행한 설문 조사 결과, '언제 바람 피우고 싶냐'는 질문을 했다. 전체 응답자(218명) 중 36%가 '섹시한 옷을 입었을 때'라고 답했다. 2위는 '벗꽃 필 때', 3위는 '남자친구가 추려해 보일 때'였다. 그녀가 평소보다 섹시하게 입고 나온 날, 마침 벗꽃이 흩날리는데, 내 모습이 그날따라 하필 꼬질꼬질하다면? 제깬! 빌어먹을! 이런 똑같은!

43 퍼센트의 여자들은 '남자가 집중해서 운전할 때 가장 섹시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새하얀 셔츠를 입었을 때', '땀 흘리며 운동할 때', '웃기 시이로 살짝 속살이 보일 때' 등의 응답이 있었다. 그녀가 평소보다 섹시하게 입고 나온 날, 마침 벗꽃이 흩날리는데, 내 모습이 하필 그날따라 꼬질꼬질하고, 갑자기 땀에 살짝 젖어 땀병해진 흰 셔츠를 입은 택시기사 이저씨라도 나쁘면 정말 큰일이다.



72 퍼센트의 여자들은 우리가 스트립 클럽에 가도 그걸 바람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Amazing Battle #6

MAXIM VS 고릴라크루

열혈 MAXIM 신입들과, 구형 엔진 중 그녀가 가장 솔만한 원정은 매니저

박민수(Zebra)

김상미

오태진(Touch)

박해미

황범이

김일환(키왕)

김경진(Big Toe)

발레리나를 사랑한 비보이 '고릴라크루'와의 대결! 서정적이고 감성적이던 그들의 연기는 순 구라였다! 대결에 돌입하자마자 흥분한 떡판 고릴라로 변해버린 그들과 MAXIM 새내기들의, 흥대 패권을 두고 벌인 한판 승부!

아직 꽃샘추위가 채 가시지 않은 4월 9일 오후 2시,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것 같은 먹구름 아래 MAXIM과 고릴라크루가 대결을 벌이기 위해 흥대 앞 비보이 전용 공연장에 모였다. 춤으로 단련해 나주평야처럼 딱 벌어진 남성 비보이들의 어깨를 보고 자신감을 상실한 MAXIM 남자 신입 직원들은 "세 살 때부터 류머티즘 관절염을 앓았다"고 주장하며 심판을 시켜달라고 교장을 부렸다. 미모만으로는 어디 가서도 빠지지 않을 MAXIM 신입 여직원들도 한 포스 하는 고릴라크루의 여성 멤버들을 보고 "저 언니들 왕년에 연도날 춤 췄을 것 같다"라며 지레 몸을 사렸다. 아직 게임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기싸움에서 완전히 발려버린 것이다.

1Round 돼지 씨름



엘보싱처럼 울퉁불퉁한 시스팩은 없다. 하지만 신성인 반입을 치르는데 가장 중요하다는 허벅지와 허리는 불철주야 단련해온 MAXIM 남자 직원들이다. 그들이 한 목소리로 돼지 씨름을 기선제압용 첫 종목으로 제안했다.

오빠 오늘 끝나고 시간 돼?



중나, 새까?



경기 방식은 2명씩 출전에 서바이벌 방식으로 진행했다. 밤 문화를 선도해오던 '밤일 열리어담타' 경영지원팀의 인재만 인턴사원이 "허벅지는 나를 이길 사람이 없다"며 호기롭게 선봉장으로 출전했다. 체대 출신답게 탄탄한 몸매에 실한 허벅지였다. 동료 여직원들의 응징한 눈길을 한몸에 받으며 출전한 그는 진주 남강 논개마냥 적장을 끌어안고 장렬히 전사했다.



이후 MAXIM 직원들은 비보이들의 육탄전에 낙엽처럼 쓸쓸히 떨어져나갔다. 그 중 가장 추하게 나가떨어진 한 남자 직원은 그날을 회상하며 매일 스쿼트 5세트로 피의 복수를 다짐하고 있다. 경기는 이번 없이 고릴라크루의 일방적 승리로 끝났다.

4:2 고릴라크루 勝!



2Round 휴지 불기

창동 어린이 수영단에서 이름을 떨쳤다는 편집부의 스타일링 에디터 장혜민과 핑스 북식호흡으로 만나는 여자마다 사랑의 사자후를 뿜어대는 원정운 매니저의 날숨만 밀고 간 경기다.



하지만 믿음은 곧 비극이 되었다. 나머지 멤버들의 다 죽어가는 가냘픈 숨결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것이다. 휴지를 위로 후속 불어 떨어뜨리지만 않으면 되는 단순한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모두 병신춤을 추며 장렬히 전사했고, 그중 몇몇은 인간문화재에게 직접 진수받은 듯한 봉산탈춤 실력을 선보이며 나가떨어졌다. 고릴라크루 멤버는 병신 같지만 멋있는 세레모니를 펼쳐며 순진한 MAXIM 신입들을 능욕했다. 약 뺨길로 의심되는 고릴라크루에게 도핑테스트를 요구했지만 묵살되고 말았다.



이번 경기 역시 고릴라크루가 MAXIM을 처바르며 손쉽게 끝났다. 빅정욱 인턴 에디터는 패배를 승복하지 못하고 재대결을 요청했지만 결국 더욱 강력해진 병신춤 앵콜 무대만 남긴 채 끝나고 말았다.



4:2 고릴라크루 勝!

Amazing Battle #6

3Round 콩 옮기기



DJ DOC 형님들 말처럼 젓가락질 잘해야만 밥 잘 먹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게임에선 이길 수 있다. 체력이 요구되는 경기에서 내리 패해 열폭하던 MAXIM 스태프들이 고도의 지능과 집중력, 그리고 동양적인 선의 미학을 모두 요하는 엘리트 게임을 제안했다. 이른바 콩 옮기기. 우리 젓가락으로 콩을 집어 다른 접시로 많이 가져온 팀이 승리하는 스탠더드 방식을 택했다.



경기가 시작되자 독이 오를 대로 오른 MAXIM 직원들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반칙을 남발하며 방해공작에 나섰다. 고릴라크루도 반격에 나서면서 젓가락 칼싸움이 벌어졌다. 평소 화려한 손스킬을 자랑하던 MAXIM의 한 여자 스태프는 <베르사유의 장미> 속 오스칼처럼 우아하고 비장한 젓가락 공격으로 고릴라크루 멤버 김상미 씨의 심기를 건드렸다(잘했어!).



MAXIM 진압 지원들은 "거참 사람 상스럽게 만들지 말고 이런 거라도 좀 우리가 아깝시다"라고 읊조리며 모두의 집중력을 흠트리는 개인페를 개척했다. 결국 원정은 매니저가 한 번 젓가락질에 콩 두 알씩 옮기는 더블액션 신공을 발휘하며 MAXIM을 승리로 이끌었다.

고릴라크루 멤버들은 패배의 망연 자실함을 당실당실 춤으로 표현했다. 참으로 아름다웠다.



4:2 MAXIM 勝!

4Round 빵 받아먹기



홍대 비보이 전용극장 안에는 어떻게든 무승부를 만들려는 MAXIM 스태프와 어떻게든 경기를 끝내겠다는 고릴라크루 멤버들의 비장할만이 감돌았다. 마지막 라운드, 2명이 짝을 지어 약 5m 거리에서 던져주는 빵을 입으로 받아먹는 게임으로 결정했다.



고릴라크루가 먼저 기선제압에 돌입했다. 칠월칠석 건우, 지너 모델로 직행하듯 빵이 입으로 쓱쓱 들쭉했다.



반면 MAXIM의 상황은 처참했다. 앞나가 돌출된 한 에디터는 골키퍼 이운재가 스페인전에서 승부차기 선방하듯 앞으로 모든 빵을 밀어냈다. 안재만 인턴은 입으로 받아먹으라고 했더니 인종과 미간으로 빵을 쳐내는 신비한 기술을 시전했다. 한가지 위안이 있다면 장해민 스타일링 에디터가 류현진급 제구력을 지녔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남자한테 추파를 던지더니... 던지는 거 하나는 선수였구나!



4:2 고릴라크루 勝!



결국 내기에 진 MAXIM이 치킨을 샀다. 치느님을 영접하는 이들의 평온한 표정을 보라!

최종 결과
3:1
고릴라크루 勝!

여러분의 도전을 기다린다!

학교, 동아리, 직장... 어떤 단체도 상관없다. MAXIM에 도전장을 던져라. 도전 방법은 간단하다. 아래 QR 코드를 스캔하여 단체명, 참가 인원, 날짜, 도전 종목 3가지, 내기 항목을 적은 댓글을 달거나 reader@maximkorea.net으로 메일을 보내라. 이기면 소원 들어주기!



Style

SHOES OF THE MONTH

잘빠졌다

늘씬한 다리보다 잘빠진 신발들

신발
찍으랬더니
다리만
찍었네



Adidas Consortium Tech super WCAP Pack

아디다스 컨소시엄 테크 슈퍼는 아디다스가 새롭게 선보이는 1990년대 모델 소개 프로젝트의 시발점으로, 1992년 발매하던 러닝화 테크 슈퍼를 부활시킨 모델이다.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을 겨냥한 선수용 트레이닝화로, 처음 출시한 지 20년이 지난 지금도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다. 뒤에 붙은 'WCAP'는 'The Water Color Animal Print Pack'의 약자로, 수채화 느낌으로 표현한 동물무늬라는 뜻이다.

가격 175,000원





Adidas Consortium Matchplay WCAP-Leopard

아디다스가 제러미 스콧과 협업을
진행하면서 호피 무늬를 활용한 디자인
제품이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다.
매치플레이는 1982년에 미국의 전설적인
테니스 선수 아서 애시를 모티브로
출시한 모델이며, 30년이 흘러도 두터운
마니아층을 형성하고 있다. 테니스화로
제작했기 때문에 편안한 착화감은 물론,
고급 가죽으로 신발을 감싸 내구성 또한
우수하다.

가격 159,000원

Style / T-Shirt

Go Away

여행의 계절이 돌아왔다. 여기 다양한 탈 것들을 테마로 만든 티셔츠를 입으면 여행 기분이 100% UP!



Vans
OTW 갤러리: 사모라 티셔츠
\$22, shop.vans.com



Threadless Select
비행기 104대 by Jenny Odell T-shirt
\$30, threadless.com



Nautica
Learn to Sail 티셔츠
\$30, nautica.com



Altru apparel
뉴욕 타임즈 택시 티셔츠
\$36, altruapparel.com

PHOTOGRAPH Ben Goldstein STYLING Miako Katoh IMAGE DREAMSTIME



Lifetime Collective
아이올로스 활공 티셔츠
\$44, lifetimecollective.com



Hurley
배 그림 티셔츠
\$25, hurley.com



French Connection
서핑남 티셔츠
\$44, at Dazzle,
Hilcrest Heights, Md.



Toes on the Nose
인력기 티셔츠
\$30, zappos.com



Silver Jeans Co.
모터사이클 티셔츠
\$38, silverjeans.com



Quicksilver
롤리개그 슬림핏 티셔츠
\$23, quicksilver.com

바람아 멈추어다오

봄바람 좋다고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면
황사 때문에 얼굴이 걸레가 될 거다. 황사로부터
피부를 지켜줄 클렌징&보습 제품이 여기 있다.



1. 크리닉 린스-오프 포밍 클렌저

크림 무스 타입이며, 푹신푹신한 거품을
형성에 수분 손실을 방지하고 피부
마찰을 줄인다.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발랐나 의심스러울 정도로 부드러운
거품의 쿠션감 덕분에 세안이 아니라
아이유와 뽀를 맞대고 부비부비하는
기분이 든다.

150mL 가격 32,000원

2. 오리진스 클린 에너지 젠틀 클렌징 오일

기름으로 기름을 녹이는 원리로, 황사가
영겨 붙은 피지와 노폐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한다. 게다가 클렌징하는 동안
수분을 잡아주고 영양까지 공급한다.
한번 써보면 여자들이 밤마다 클렌징
오일로 세안한 자기 피부 만져보며
자백하는 이유를 이해하게 될 거다.

150mL 가격 38,000원

3. 닥터 브로너스 유칼립투스 퓨어 캐스틸 솜

유기농 유칼립투스 오일이 들어 있다.
유칼립투스는 살균력이 있어 염증과
트러블에 직빵이라 요즘같이 황사가 부는
날씨엔 피부용 보약과 같다. 코알라 이
자식, 이 좋은 걸 혼자만 먹고 있었네.

238mL 가격 12,500원

4. 뉴트로지나 딥 클린 브라이트닝 멀베리 울트라 폼 클렌저

멜라닌 색소 생성을 억제하고 혈색을
맑게 바꿔주는 멀베리 성분이 들어 있다.
칙칙한 피부 때문에 벗꽃 배경 사진에
혼자만 고목 같을까 봐 걱정인가?
항산화의 대명사 안토시아닌을 무려
포도의 23배, 검정콩의 9배나 함유한
멀베리의 브라이트닝 파워를 믿어보자.

175mL 가격 17,000원

5. 비오텀 옴므 웨이셜 스크럽

풍부한 거품에 섞인 원형의 스크럽
입자가 딥 클렌징을 돕는다. 봄을 맞아 코
한 가득 만개한 블랙헤드 때문에 애인과
얼굴 맞대는 일조차 뿌리치는 수컷이겐
스크럽이 정답이다. 아스팔트 쿨통에
사포질 실시!

150mL 가격 34,000원

6. 키엘 웨이셜 퓨어 에너지자이징 웨이시 워시

카페인과 멘톨 성분의 콜링 작용으로
사용감이 상쾌하다. 피로에 찌든 피부에
시원하게 마사지는 느낌이 맘에
든다. 상쾌한 느낌뿐 아니라 세정력도
만렘이어서, 피부에 짙럽하게 달라붙은
황사를 말끔히 씻어낸다.

250mL 가격 26,000원

7. 아벤느 클리안스 젤 네프와이양

아벤느 온천수가 다량 함유돼 과다 피지와 노폐물을 잡아준다. 기름종이 시너 장은 너끈히 투명 셀로판지로 바꿔버리는 호르몬 분비가 왕성한 20대 초반에게 추천한다.
200mL 가격 27,000원

8. 꽃을 든 남자 싸이 에너지팩토리 맨즈 수분 크림 젤

월드 스타 싸이가 모델이라 요즘 잘나가는 제용, 산수유, 헛개나무, 인삼 성분이 남성을 위한 에너지를 채워주니 피부 세포가 말춤을 춘다. 산세비에리아 잎 추출물과 이쿠악실 복합체가 수분을 지켜 '물광 피부'로 가꿔준다.
50mL 가격 23,000원

9. 리햐픽 런던 노 사인

두바이처럼 기름이 마구 샘솟는 개기를 우전 지성형 피부라면 리햐픽 런던 수분 로션을 써보자. 남아프리카 세더버그 식재에서만 자생한다는 미네랄 함유의 대명사 루이보스 성분이 피부를 뽀송뽀송하게 가꿔준다.
50mL 가격 38,000원

10. 랩시리즈 파워 브라이팅 워터 로션 +DR4

피부 변색을 줄이는 랩시리즈의 독자적 기술 DR4를 사용해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한다. 침 흘리고 잔 것처럼 매일 얼굴에 각질이 하얗게 일어나는 당신에게 추천한다. 이테라타일로 얼굴을 대패질하는 미려한 짓은 이제 그만!
200mL 가격 53,000원

11. 클리안스 에프터 셰이브 에너지아저

산뜻한 워터 타입이 에프터 셰이브, 외부의 유해 환경 요소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상처 치료제 마데카솔의 재료로도 쓰이는 셉텔라 아시이타카 성분이 서툰 칼질에 상처 입은 당신의 피부를 어루만져줄 거다.
100mL 가격 46,000원

12. SK-II 맨 페이스 트리트먼트 에센스

피부 속 영양을 보충하는 피테라 성분이 들어 있어 기름에 시달리던 당신 피부를 비옥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 확실히 피부가 촉촉해지고 피지 분비량이 눈에 띄게 줄었다. 하지만 가격이...
150mL 가격 170,000원



COOPERATION: 꽃을 든 남자(080-604-1734) 뉴트로지나(050-024-1414) 닥터 브로닉스(02-3414-1109) 랩시리즈(02-3440-2774) 리햐픽(1600-5477) 비오템 울프(080-022-3332) 아벤느(080-024-1188) SK-II(080-023-3333) 오리진스(02-3440-2830) 크리니크(02-3440-2773) 클리안스(080-542-9052) 키엘(080-022-3332)



패션 피플 되는 법

서울패션위크에서 발견한 패션 피플의 법칙. 당신도 패션 피플이 될 수 있다!

BY 김희성 MODEL 조종재



1. 클러치로 에지를 더한다

숄더백 따위 흔한 스타일의 가방은 이곳에 없다. 양 어깨에 걸친 코트 사이로 폼나게 든 클러치가 패션 파플룩을 완성했다. 사실 처음엔 웬 일수꾼이 이렇게 많나 생각했어.

2. 걸웃엔 절대로 팔을 넣지 않는다

역시 패션위크였다. 전국 팔도에서 옷 좀 입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모인 것 같았다. 각자의 개성을 잘 살린 튀는 스타일을 추구하는 중에도 그들 사이를 관통하는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바로 걸웃은 걸칠 뿐 팔을 절대로 넣지 않는다는 사실. 이들에게 걸웃은 추워서 입는 게 아니라는 진리를 깨달았다. 걸웃은 걸칠 뿐!



3. 김구 안경알으로 포인트를 준다

백범 김구 선생이 생전에 자주 끼던 스타일의 안경으로 한껏 멋을 냈다. 김구 스타일 안경의 업글 버전인 기본 안경테에 선글라스를 부착한 클립은 선글라스도 많이 보였다. 무심하게 콧잔등에 걸치기만 했는데도 나미와 붕붕, 철이와 미애, '모기야'를 부르던 그룹 콜라가 재밌는 것 같았다. 끼기만 하면 정재형스러워지는 동그란 안경은 패션 피플의 필수품으로 추정된다.

4. 바지 밑단은 무조건 걸어 올린다

자고로 패션 피플이라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꼼꼼하게 신경 쓰는 노력과 의지를 보여야 한다. 바지 밑단을 접어 올리니 다리도 길어 보이고 패션 감각도 있어 보였다. 그리고 롤업했을 때 드러나는 충천연색 양말까지 작은 디테일 하나도 놓치지 않았다.

5. 정체불명의 아이템 하나 이상을 무조건 매치한다

'이건 도대체 어디에 쓰는 물건인고' 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 용도를 알 수 없는 아이템이나 7080 느낌이 물씬 나는 화려한 패턴의 넥타이나 스카프를 매치하니 패션을 좀 아는 사람처럼 보였다. 광장시장 한번 조져?



패션 피플 체험기

패션위크에서 배워온 스타일링 노하우로 대한민국 보통 남자 조용재 에디터를 변신시켜 거리에 내보냈다. 왠지 인형놀이 하는 기분인데?



안경 비제아클래식 바이 엠투아이티씨 350,000원
 싱글코트 브라운브레스 158,000원
 팔찌 브라운브레스 10,000원
 펜홀더 브라운브레스 12,000원

Before

After

헤어스타일	평소 조용재 에디터는 머리에 술이 별로 없으며 머리를 앞으로 내리고 다니는 스타일을 고수했다.	드라이기로 열을 가해 위로 뿔뿔하게 세운 다음 왁스와 스프레이로 고정하니 키가 훨씬 커보이고 한결 자신감 있는 모습이었다. 머리술도 더 많아 보이는 것 같다.
피부	평소 선크림은 케녕 비비크림이나 컬러 로션 따위는 전혀 바르고 다니지 않는 전형적인 대한민국 남자. (아, 가끔 팩은 한다고 하던데... 티가 안 난다)	파운데이션으로 피부 톤을 살짝 정리한 다음 내로라하는 패션 피플들만 한다는 스모키 메이크업을 시도해봤다. 하기 싫다고 징징했지만 선배의 권함으로 강제 시술! 집터와 여드름 자국이 가려져 피부가 10배는 좋아 보였지만 가까이서 보니 좀... 징그럽다.
안경	마치 태어날 때부터 끼고 태어난 것 같은 사각 볼테 안경을 한 번도 벗은 적이 없다. 처음에는 코가 달린 안경을 쓰고 다니는 줄 알았다.	백범 선생 스타일의 안경을 시도했다. 크리에이티브한 인재처럼 보이긴 했으나 안경이 얼굴에 너무 딱 맞았다는 게 함정.
액세서리	왼쪽 귀의 피어싱 이외에는 어떤 장신구도 착용하지 않았다. 그나마 끼던 커를 링도 요즘엔 안 보이는 듯...	화려한 패턴의 스카프와 개구리 무늬 펜꽂이를 목에 걸게 했다. 그의 목에서 봄이 느껴진다.
가방	여느 직장인처럼 백팩을 메고 출근한다.	클러치를 들러줬다. 김구 선생을 존경하는 일수꾼 같았다.
양말	무늬도 없고 색깔도 튀지 않는, 정말 무난한 단색 양말만 신는다.	바지 밑단을 롤업한 뒤 화려한 초록색 스트라이프가 멋들어진 양말을 신겼다. (웅재 씨, 미안...)



뭐 이런 걸 다...

패션 피플이 되니 모르는 사람이 먼저 말을 걸어왔다. 길 가던 아주머니는 "아유 예쁘다"라며 조용재 에디터의 손에 호두를 쥐어주었다. 이거 관찰네!



조용재 에디터를 보기 위한 인파로 흥대 일대가 마비됐다.



웅재씨, 눈은 왜 감았어?



우리도 이렇게 물릴 줄 몰랐다.

조용재 에디터가 지나가자 그를 쳐다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한 무리의 외국인은 그를 보고 "샤이니 같다"라며 카메라를 들이밀었다. 한류 스타 조용재가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훗... 이렇게 강제 해외 진출하는 건가?

수노래방 일바생도 "형님, 스타일이 죽이시는데요"라며 노래 한 곡 하고 가라고 붙잡았다. 그냥 가겠다고 하니 "지금 오시면 서비스 대박인데..."라며 못내 아쉬워했다. 남자까지 사로잡는 마성의 조용재 에디터였다.

Style

Fashion King



“나 같은 스타일 어때?”
 “스카프가 노홍철 같아요.”
 “이런 오빠 있으면 어떨 것 같아? 완전 학교 다닐 맛
 날 것 같지. 그치?”
 “창피해서 벗으라고 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오빠도
 이라고 다녀... 하...”
 “원래 어떤 스타일의 남자를 좋아해?”
 “자기한테 맞게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럼 나는 지금 안 어울리는 것 같애?”
 “네...”

이대로 소녀 팬도 생기나 했지만 인피니트와 B1A4에
 조련돼 있는 중딩들까지는 조련하지 못했다.

노래방 서비스를 당차게 거절하고 흥대 주차장 거리를
 걸어 내려가는데 걸그룹 뺨치는 미녀 삼총사를 발견했다.
 아쉽게도 그녀들이 먼저 조웅재 에디터에게 눈길을 주거나
 말을 걸진 않았다. 옷만 패션 피플처럼 입는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었나 보다. 오기가 생겼는지 그는 미녀들에게
 다짜고짜 다가가 “내가 번호 물어보면 어떡할 거냐”고
 멘트를 날렸다. 미녀 삼총사는 “커피 정도는 먹을 수 있다”
 라고 말했다. 오늘이 다행 생일이구나!



어머, 저 오빠
 팔이 없나봐.



야 빨리 백 원
 줘서 보내.



역세사리 가게마저 정크벅크. 그녀는
 조웅재 에디터에게 오늘 의상에 맞는
 팔찌를 골라주는 호의마저 베풀었다.
 팔찌를 채워줄 때 살이 스쳤다. 조웅재
 에디터의 숨결이 거칠어졌다.

코맹이들은 그를 보자 놀랐는지 울음보
 가 터지기 일보 직전이었다. 조웅재
 에디터의 패션에 대해 온몸으로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고 있었다.



내 잇몸미소 한 방이면 모두가 쓰러지지

**Watch
out!**



헬다이버의 가죽밴드 워치, SB2C-3001

젊은 층의 시선을 사로잡는 브랜드 HELLDIVER SB2C-3001 시리즈는 따사로운 날씨에 어울리는 블루코팅 글라스와 오픈 형식의 독특한 용두로 눈길을 끈다. 날짜, 요일, 24시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JAPAN 멀티 무브를 사용하여 잔고장이 없으며 무난한 디자인으로 어떠한 패션에도 잘 어울린다. 게다가 기본 57입 방수와 통가죽 밴드로 편하게 착용할 수 있다. 자칫 단조로워 보일 수 있는 측면엔 HELLDIVER 로고 각인과 함께 디테일한 퀄리티까지 겸비하였다. 로즈골드, 블랙, 실버 3가지 가죽 모델과 2가지 메탈 밴드 모델이 대기하고 있으니 가까운 매장과 홈페이지에서 제품을 만나보자.
269,000원, 헬다이버(1644-3885, www.helldiverwatches.com)



자스페로의 커플 라인 VERTICALE 출시

겨우내 바퀴벌레처럼 웅크리고 있던 커플들이 따뜻한 양지로 나오는 계절이 도래했다. 이런 커플의 계절을 맞이해 자스페로에서 커플 라인을 출시했다. 단디하고 우아한 디자인이 돋보이는 자스페로 VERTICALE 은 남녀 모두가 착용해도 어색함이 없다. 야광보다 100배 밝은 수퍼 루미노스 코팅이 되어 있어 칙흑 같은 어둠속에서도 시계는 영롱하게 시간을 알려준다. 또한 입체적인 다이얼은 섬세함을 느끼게 한다. 메탈 밴드와 가죽 밴드 호환이 가능해 그날그날 스타일에 맞춰 매치하기 좋다.
378,000원, 자스페로(1688-8907, www.zaspero.co.kr)

**그래도 태양은 다시 뜬다.
ALBA Sun & Moon AV9001X**

ALBA에서 업그레이드 된 썬앤문 AV9001X 모델을 선보인다. 기존의 문페이스 시계는 달의 모양만을 알려주고 가격도 비싼데 비해 썬앤문 시계는 표시창을 통해 오전 오후를 구분 할 수 있도록 해와 달이 모두 표시되도록 설계되었다. 사무실에서 햇살 한번 못 쬐고 사는 당신, 그리고 밤낮이 바뀐 생활로 해가 과연 뜨는 건지 궁금한 당신에게도 해가 뜨고 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줄 것이다. 썬앤문 기능 외에도 1/10초 단위 크로노그래프 기능에 클래식한 디자인까지 갖추고 있으니 이만한 아이템이 없다.

23만 원, 세이코알바
(02-511-3182,
www.albawatch.co.kr)



붉은 밤 루미노스, 9082.BO 한정판 출시

루미노스는 라틴어로 밝은 밤을 의미한다. 미국에서는 강한 군인 시계로 자리잡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아웃도어 워치로서 부동의 신뢰를 받고 있다. 이번에 출시된 9082.BO SR-71 Blackbird는 100m 방수 기능을 갖고 있으며 10년간 품질을 보증하는 루미노스 발광 테크놀로지를 탑재했다. 자기 발광형 가스 캡슐이 내장되어 있어 극지방에서도 오래 쓸 수 있다. 단단해 보이는 블랙 컬러 스테인레스에 레드 포인트로 더욱 강렬한 인상을 준다. 전 세계 500개 한정 판매 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소장 가치가 높다. 시간이 흐를수록 당신의 손목에서 더욱 빛을 발할 워치!
335만 원, 미림시계
(02-757-9866, www.luminowatch.co.kr)



독일 명품 시계 브루노슈너 백화점에도 상륙

독일의 전통 깊은 고급 명품시계인 브루노슈너가 대한민국 백화점에 입점했다. 브루노슈너는 독일 고급 시계에만 부여되는 GLASHÜTTE/SA의 인증을 받을 만큼 품질 면에서는 흠잡을 데가 없다. 브루노슈너의 모든 모델은 사파이어 크리스탈 글라스와 허쉬쉬 밴드를 사용하여 고품질을 자랑한다. 또한 스위스 무브먼트 기술을 자체적으로 수정하고 다듬어 완성도를 높였다. 명품 시계로 손색이 없는 워치 브랜드 브루노슈너, 올 봄 그대의 손목에 독일의 기품을 뽐내보자.
(주)노 코퍼레이션 (02-3397-7100, www.konocorp.com)

Style news

봄 점퍼의 꽃, 토마 밀리터리 빈티지 점퍼

간절기 옷으로 어떤 아우터를 사야할지 고민이라면 주목하라. 캐릭터 캐주얼룩 토마(TTOMA)가 스포링 밀리터리 점퍼를 출시한다. 이 점퍼는 봄 분위기가 물씬 나는 밝은 컬러와 사파리 빈티지가 돋보인다. 또 여유 있게 떨어지는 핏감과 빅사이즈의 포켓 때문에 야외 활동 시 부담 없이 걸치기 좋다. 제품은 남녀공용으로 출시되어 어떠한 패션 아이템과 매치해도 멋스러운 것이 특징. 제품은 오펜지와 카키 2가지 컬러로 만나볼 수 있다. 218,000원, 토마인터네셔널(ttomainternational.com)



노바 핸드 메이드 아이템, 신제품 H5003 출시

스타일 좋다는 말 좀 들어본 사람이라면 안경 하나도 패션 아이템으로 꼼꼼히 신경 써야 하는 법. 그래서 준비한 것은 일본 명품 브랜드인 노바의 핸드 메이드 아이템 (NOVA HAND MADE ITEM) 아이웨어다. 특히 신제품 H-5003은 호피 무늬와 금속 장식으로 도시적인 감성을 자랑한다. 안경 브릿지에 있는 음각 문양은 빈티지한 느낌까지 선보여 특유의 고급스러움을 느낄 수 있다. 호피 무늬를 좋아하지만 옷에는 부담스러운 당신, 포인트로 안경에 호랑이 가죽 무늬를 장식해보면 어떨까?

엠투아이티씨(02-777-0241~2)



지보르고노비의 포인트 선글라스

야외 활동은 많아지고 자외선 지수가 상승하는 요즘, 남들보다 앞서 포인트 선글라스를 준비하는 건 어떨까? 지보르고노비 선글라스는 아웃도어 패션에 포인트를 더하는 스타일리시함이 돋보이는 제품이다. 안경테의 다리 부분에 밝은 컬러가 포인트이며 착용감이 우수해 스포츠와 레저 활동에 유용한 아이템이 된다. 5월 각종 페스티벌에서 자유분방하고 튀고 싶은 코디를 원한다면 지보르고노비 선글라스는 필수! 제품은 전국 안경점에서 구매가 가능하며 전화 문의도 가능하다.

㈜필립(053-856-5156)

플래그원, 초경량 하이퍼 라이트 재킷 출시

낮엔 덥고 아침 저녁은 추운 요즘 같은 날씨에 걸치기 좋은 재킷을 소개한다. 플래그원의 초경량 하이퍼 라이트 재킷은 매우 얇은 섬유를 사용한 초경량 제품이다. 휴대 또한 간편해 필요할 때마다 꺼내 입기 좋다. 또 재킷 내부의 몸을 외부로 배출해주면서 쾌적한 착용감까지 느낄 수 있다. 날씨에 따라 이너웨어나 아우터로도 착용 가능하면서 저렴한 가격에 사계절 내내 입을 수 있는 효자 아이템. 화이트, 블루, 옐로우, 핑크 등 화사한 컬러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다양한 색상으로 패션 감각을 살펴보자.

69,000원, 플래그원(www.flag1.co.kr)



로알엘라스틱, 봄 피크닉 커플 스니커즈 출시

로알엘라스틱이 봄 피크닉용 커플 스니커즈 퍼펫을 출시했다. 로알엘라스틱 퍼펫은 봄의 기운을 느낄 수 있는 자연스러운 컬러감과 스타일이 돋보이는 가벼운 캔버스 소재를 채택했다. 끈 대신 엘라스틱 밴드를 사용해 신축성이 좋고, 밑창의 쿠션과 뒤꿈치에 위치한 스웨이드 패치로 오랜 시간 걸어도 편안하다. 개인에 맞는 최적의 피팅감을 제공하며, 감각적인 슬림 핏으로 어떤 옷에도 편하게 매치가 가능하다. 보기만 해도 발이 편안해 보이는 로알엘라스틱 퍼펫, 역시 따뜻해지는 봄나들이의 기본은 편한 신발 아니겠어?

로알엘라스틱(1588-3637)



델리카에서 제안하는 봄날의 황태자

다양한 스타일 속에서 자신에게 꼭 맞는 스타일링을 연출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남성 셀렉트샵 델리카에서 당신을 위해 세미 클래식 스타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센스 있는 스타일링을 제안한다. 인터넷 제품 구매 뿐 아니라 오프라인 샵에서도 직접 스타일링을 받을 수 있어 패션 자침에 매우 유용하다. 지금 자신의 스타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젊음의 거리 홍대에 있는 델리카를 방문해 자신만의 스타일로 변신해보자. 패션니스타? 이제 어렵지 않아요~!

델리카(www.delika.co.kr)



* 흑백처리된 커버의 월호는 품질을 의미합니다.

MAXIM
과월호
총알 배송!
(총알을 드리진 않아요)

자난 호 MAXIM을 놓쳤나?
 구독과도 같은 당신의 MAXIM 컬렉션에 이빨이 빠졌나?
 서점에서, 인터넷 서점에서 MAXIM 과월호를 구할 순 없다.
 좌절하지 말고 www.maximkorea.net으로 오래
 MAXIM 홈페이지의 과월호 구매 메뉴로 들어오시면 지금까지 나온 MAXIM
 매거진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그녀가 품질되기 전에 어서 쟁취하시길!
 *평일 오후 4시 이전에 입금하시는 독자님께서는 당일 발송 가능합니다.
 일부 과월호는 품질되었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보여줄게



Private Lesson in Library **Natalin Avci**

벌거벗은 채 코트 하나만 달랑 걸친 여자.
나탈린 아브치가 화끈한 입담으로 당신을 유혹하러 왔다!
바바리맨들, 하반기 간수 잘하셔야겠네. WORDS 조웅재





이름이 특이하다. '나탈린 (Natalin)'까지는 알겠는데, 'Avci'는 어떻게 읽는 건가?

별걸 다 문네.(웃음) 아브치(Av-cee)라고 읽으면 된다.

당신같은 여자는 알몸에 트랜치코트만 입으면 섹시한데, 남자가 그러면 변태 같다. 당신은 남자니까 본 적 없지? 둘 중 하나다. 엄청 섹시하거나. 엄청 끔찍하다. 하지만 만약 조니 뎀이나 디카프리오가 그렇게 입었다면... 아, 난 그들을 딱 두 단어로 표현하고 싶다. '섹스의 아이콘'이라고.

학창 시절, 도서관에서 사는 모범생이었나? 거의 학교에 나가지 않았다. 고등학교, 대학교 전부 졸업했다는 게 나조차 신기할 정도니까.(웃음)

남자도 많이 꼬였겠지? 믿을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내성적인 학생이었다. 나의 이런 섹슈얼한 모습은 열아홉이 돼서야 나타났다. 사실 요즘도 남자가 그렇게 많이 꼬이진 않는다.

낯선 곳에서의 섹스는 짜릿하다. 특별히 추천하는 장소가 있디면? 조금 고전적이긴 하지만 자동차 뒷좌석은 어떨까? 아, 너무 뻘한가?(웃음)

레즈비언 섹스를 어떻게 생각하나?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말은 섹스에서 통하는 얘기다. 자기들만 좋으면 되는 거지. 물론 개인적으로는 남자+여자 섹스가 좋다.

섹시한 남자가 갖춰야 할 조건은 뭘까? 자신감으로 가득 찬 남자만큼 멋지고 섹시한 남자는 없다. 겉으로 드러나는 '섹시함'은 그다음 얘기고.

스타일, 매너, 섹스 중 남자를 볼 때 가장 우선시하는 것은 무엇인가? 당연히 매너지. 매너만 좋다면 당신의 스타일, 섹스 스킬은 문제가 안 된다.

만났던 남자 중 최악을 한 명 꼽자면? 전에 파리에서 만난 그 자식은 정말 가련이었다. 내가 티키 출신이라는 걸 몰랐던 그 티키 남자가 친구랑 티키어로 대화를 하면서 "품만 있으면 애 친구한테 작업 칠 수 있을 것 같아! 일단 애부터 빨리 어떻게 좀 해 볼게!"라고 뻔뻔하게 얘기하더라고.



언어가 아예 안 통하는 남자랑 연애할 수
있나? 한국 남자, 참 귀찮은데 말이다.
말이 안 통하면 어때? 몸은 최고의
의사소통 수단이다. 몸으로 대화하면
되잖아?(웃음) 게다가 난 불고기라면
사족을 못 쓴다. 김치까지 있다면 더 좋지.
애 갑자기 먹고 싶어지잖아!

〈지.아이.조〉의 이병헌이나 ‘강남 스타일’의
싸이 같은 한국 남자 스타는 어떤가?
미안하지만 잘 모르겠다. 하지만 ‘싸이
(PSY)’라니, 왠지 하루 종일 데이트해도
재밌을 것 같은 이름이다.

아시아 남자와 서양 남자의 섹시함은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나?
‘섹시하다’라는 의미가 담긴 말을 쓰지
않는 나라는 없을걸? 전 세계 모든 사람의
섹시하다는 기준은 비슷할 거다.

요리 잘하는 남자는 어떤가?

앞치마를 입고 나를 위해 요리하는
남자만큼 섹시한 게 없다! 요리 잘하는
남자는 맛있지, 아, 내 말은 그 남자
음식이 맛있을 거란 얘기였다.(웃음)

강아지, 고양이, 파충류 중 선호하는
애완동물은?

강아지!

그렇다면 ‘남자’를 애완동물로 삼는 건
어떨까?

글쎄, 자신을 개처럼 다루면 좋아할
남자들이 얼마나 있을지 잘 모르겠다.

☺



“
말이 안 통해도 된다.
몸으로 대화하면 되잖아?
”



PHOTOGRAPH MICHAEL VINCENT HAIR ANDREW HER HERNANDEZ MAKEUP BEAUTYBYNADIA STYLING IANNATALIN LOCATION DUPLEX ON 3RD BOOKED BY VMG | IMAGE GROUP PR



NATALIN AVCI

태어난 곳: 미국 L.A.

생일: 11월 4일

좋아하는 음식:

어머니가 해주신 모든 것

신체 중 가장 sexy한 부분:

등에서 허리로 이어지는 라인

좋아하는 스포츠:

농구

이상형:

체격 좋고, 미소가 예쁘고

재미있는 남자

Party

DJ of the Month





어서와, DJ 작업실은
처음이지?

DJ KOO! Rock the party!

구준엽

잘 노는 오빠는 어떻게 사는지 궁금했다.
그래서 대한민국 대표 디제이,
구준엽의 작업실을 슝격했다. BY 손안나

다음 타자는
누구?



Party DJ of the Month



준엽이 스크렐렉스랑 사진 찍었어요. 후잉후잉.

DJ KOO

이름: 구준엽

나이: 1969년 9월 11일

좋아하는 음악:

춤 출 수 있는 음악

추천하는 클럽:

OCTAGON, MASS

클론으로 아시아를 호령하던 게 엇그제 같은데, 이젠 디제이쿠가 더 익숙하다. 얼마 전 UMF(Ultra Music Festival) IN MIAMI 한국 대표로도 참가했다고? 오늘 막 귀국했다.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영광인데 정말 최고의 무대였다.

그곳에 가면 세계 유명 DJ들을 다 만나겠군.

스크렐렉스¹⁾, 레이드백 루크²⁾, 제드³⁾한테 내 음악과 뮤직비디오가 담긴 USB를 전달했다. 그랬더니 "This is awesome!"이라며 놀라더라. 이게 그 사람들의 노트북에 꽂혀있는 날! 나는 대박인 거다.



반박디라!

클러버들이 계속 기분이 업돼 있지는 않을 텐데...

디제잉할 때 강약 조절은 어떻게 하나?

몇 시간 동안 짜놓은 걸 틀면 나도 재미없고 듣는 사람도 지겹다. 오프닝 한두 곡은 대강 머릿속에 구상해놓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노느냐에 따라 바뀐다. 그래서 공연 중에는 절대 술을 마시지 않는다. 나 혼자 신나있다가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노래를 따라 부르면서도 머릿속으로는 "언제 들어가야 하지?", "다음엔 뭐 틀어야 하지?" 계속 고민한다.

가장 자신 있는 디제잉 기술은?

힙합 디제이는 스크래치⁴⁾도 하고, 저글링⁵⁾도 하지만, 일렉트로닉 디제이는 그런 게 없다. 스킵보다 선곡과 분위기를 잘 이끌어 나가는 게 더 중요하다. 지금도 좋은 곡을 찾기 위해 적어도 하루에 4시간 이상은 작업실에 틀어박혀 노래를 찾는다.

디제이로서 디제이쿠만의 강점은 뭐가?

나는 대중음악을 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대중이 좋아하는 게 뭔지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남들이 모르는 노래를 틀면서 품 잡고 싶은 생각은 없다. 나는 무조건 사람들이 잘 듣고 신나게 춤출 수 있는 음악을 틀다.

처음 디제이로서 무대에 선 순간을 기억하는가?

2006년, 처음 디제이에 도전했는데 그때는 동료 디제이뿐 아니라 클러버들도 나를 디제이로 인정하지 않았다. 연예인이 디제잉을 한다는 게 신기하니까 처음 한두 곡에는 관심을 보이다가 나중엔 다들 술 마시러 자리를 뜨더라. 그때는 나도 그루브가 뭔지도 모르고 멋있는 곡만 틀었다. 자기들은 놀고 싶는데 자주 막히니까 "저 새끼 뭐냐?"라는 욕도 많이 들었다.

하지만 지금은 UMF에 참가하는 한국 대표 DJ다!

어떤 사람들은 UMF도 연예인으로 이름이 있기 때문에 간 게 아니냐고 말하는데, 솔직히 미국 애들이 나를 어떻게 알아? 개들이 내가 클론인지 뭔지 관심이나 있겠어?



디제잉 용어 사전

1. 스크렐렉스

덱스텝의 제왕이라 불리는 유명 디제이. 참고로 덱스텝이란 낮은 주파수와 느린 템포의 사운드를 일컫는 덱(dub)과 두 박자를 쪼개 4/4박자를 만드는 2스텝(2step)리듬을 결합한 일렉트로닉 장르다.

2. 레이드백 루크

필리핀 출신의 DJ. 듣는 사람이 어지러울 만큼 현란한 디제잉을 선보이는 것으로 유명.

3. 제드

레이디 가가의 프로듀서 겸 유명 DJ.

4. 스크래치

LP의 원하는 소리 부분에 바늘을 올려놓고 믹서의 크로스 페이더를 이용해 굵은 음을 내는 기술. 일명 '휘끼휘끼'.

5. 저글링

두 개의 레코드판을 턴테이블에 놓고 믹서를 이용해 전혀 새로운 비트를 만들어 내는 고난도 기술.

6. BPM

음악의 속도를 숫자로 표시한 것으로, 그 수가 클수록 빠르다. 1BPM은 1분이다.

7. 다프트 핑크

프랑스 일렉트로 음악 듀오. 항상 헬멧을 쓰고 무대에 오른다.

8. 티에스토

트랜스 음악과 일렉트로닉 댄스로 활동하는 네덜란드의 음악 프로듀서.

9. 데이비드 게타

프랑스 파리 출신 하우스 음악 프로듀서 겸 DJ, 각종 DJ 순위에서 1위로 꼽힌다.

후처헨싱!!



아이언맨 가면을 쓰고 공연 중인 디제이 쿠



1990년대 클럽의 인기는 그야말로 사이니급이었다.



구준엽이 가장 좋아하는 디제이, 닥트 펑크는 헬멧을 쓰고 공연을 펼치는 걸로 유명하다.

처음 시작하는 디제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이 노래와 저 노래의 BPM⁶을 맞춰서 이어주면 모든 연습이 끝났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트는 건 배우기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다. 관객과 내가 하나가 될 수 있는 호흡점을 찾는 게 중요하다.

당신이 생각하는 세계 최고의 디제이는?
개인적으로 멋있다고 생각하는 디제이는 닥트 펑크⁷지만 롤모델 삼고 싶은 디제이는 티에스토⁸와 데이비드 게타⁹다. 나도 그들처럼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커머셜하고 멜로딕한 음악을 추구한다.

무대에서 다양한 퍼포먼스를 한다. <나가수 2>에서 아이언맨 코스튬을 하고 나온 적도 있던데...
닥트 펑크처럼 나만의 헬멧을 만들고 싶다. 나도 이제 점점 늙어가는데, 헬멧을 쓰면 세월의 흔적도 감출 수 있으니 평생 무대에 설 수 있을 것 같다.

처음에 디제잉을 배워야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초연'의 영광봉 춤이 어디서 나왔겠나? 다 클럽에서 놀다가 배운 거다. 원래 클럽 문화를 좋아하고 일렉트로닉 음악에 관심이 많았다. 친구가 불의의 사고를 당하면서 새로운 선택을 해야 했다. 점점 나이를 먹어 춤을 출 수 없는 나이가 되는 것도 걱정이었고, 클럽 디제이로써 직업 춤을 추는 건 아니지만, 사람들을 춤추게 만드는 직업이니 나한테 딱이었다.

외국인이 놀면 색사하다고 말하고 우리나라 사람이 화끈하게 놀면 손가락질하는 분위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게 다 유교 사상 때문이다. 다행히 요즘 젊은 친구들이 많이 바뀌고 있다.

당신이 한참 클럽에서 놀던 때와 지금은 분위기가 다르다.

그렇다. 그때만 해도 다들 소극적이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아니다. 얼마 전에는 클럽 천장에 매달려 있는 친구들도 봤다.(웃음) 요즘에는 스킨십도 거침없이 한다. 사랑하는 사람끼리 키스하는데 야하게 논다는 등, 클럽 같은 곳에서 마약을 한다는 등 좋지 않은 시선도 많지만 지금껏 우리나라 클럽에서 마약을 파는 모습은 단 한 번도 못 봤다.

그런데도 마치 클럽이 마약의 온상지처럼 비치고 있다.

꼭 안 와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다. 비난하는 사람들도 속으로는 그렇게 놀고 싶을걸? 자기들은 룸살롱에서 더 더럽게 놀면서 말이야.

동갑 친구들과 세대 차이를 많이 느끼겠다.
또래와는 안 논다. 안 맞아. 소주 마시면서 "요즘 회사가 어쩌고저쩌고"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피곤하다. 룸살롱 가자고 하면 매번 싫다고 말하고 빠져나온다.

강용석과 고등학교 동창이라고 들었다.
친하진 않다. 나는 날라리였고 그 친구는 공부를 잘했다. 경기고등학교였는데 (강)원래랑 나는 수학 C반이었다. 60명 중에 58등, 59등 하는...

어머, C반이 아니라 '씨발'이라고 한 줄 알았다.
어쨌거나 당신은 강용석보다 동안이다.
사는 방식이 달라서 그렇다. 난 음악을 하고 젊은 문화를 접하니까. 옷을 이렇게 입으니 행동도 젊어지고, 행동이 젊어지니, 생각도 젊어지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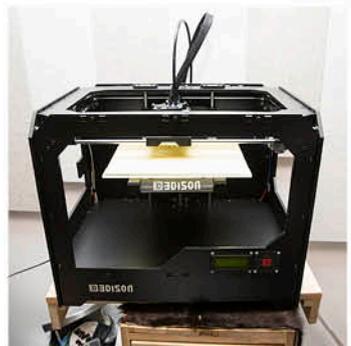
DJ KOO's Favorite Item 3

쿠아저씨의 보물상자!



1. 닥트 펑크 한정판 베어브릭

"베어브릭 해외 사이트에서 광클릭한 끝에 겨우 구했다. 원래도 비싼데 저건 닥트 펑크 리미티드라서 즐라 비싸."



2. 3D 프린터

"3차원으로 프린트가 된다. 내가 베어브릭을 엄청 좋아하는데 이걸로는 100마리도 만들 수 있다고!"



3. 구준엽 헤드폰

"내가 직접 커스터마이징한,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헤드폰이다. 간지나지?"

Party



마린 룩
감상하기



Cruise Night



마린 룩은 언제나
우릴 조련시키지. BY 김희성

이날의 파티 장소: 클럽 옥타곤



클럽 파티를 찾는 사람이 점차 많아지면서 한때는 부비부비만이 전부인 줄 알던 클럽씬에 다양한 파티 문화가 생겨났다. 클러버들의 기대치가 올라감에 따라 우후죽순 생겨난 파티 브랜드들은 어느 순간 신선하고 기발한 콘셉트의 파티를 내놓는게 싫더니 그마저 이제 약간 시들해진 분위기다. 어차피 클럽이란 공간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한정돼 있고 클러버들이 좋아하는 게 뻔하기 때문에 파티 브랜드간 콘셉트도 서로 겹치게 된 거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승자는 있었다.





때는 2012년 4월 12일, 이날은 호화 유람선 타이타닉이 침몰한 지 100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CLUB OCTAGON(클럽 옥타곤)은 타이타닉호의 100주기를 기리기 위한 파티를 열었는데, 이것이 바로 CRUISE NIGHT PARTY의 시작이었다. 디카프리오도 이 사실을 알면 기뻐하겠지?



Party



크루즈 파티의 드레스 코드는 WHITE or NAVY. 와펜, 건장, 해군모 등으로 해군 코스프레를 한 클러버와 마린 룩을 차려입은 미녀들로 파티 분위기가 고조됐다. 하지만 이젠 빙산의 일각이었다. 이 파티를 기획한 옥타곤 마케팅 팀장 마루PD는 "클럽 전체를 아예 하나의 거대 크루즈로 만들 생각까지 했다. 여름에는 클럽 내부에 있는 수영장에 물을 가득 채워 고급 크루즈처럼 꾸미기까지 하지만 지금은 추워서 물을 다 뺐다"는 아쉬운 소식을 전했다. 그 대신 대형 전광판에는 크루즈 운행과 해외 크루즈 파티 영상을 띄워 진짜 크루즈 파티에 온 것 같은 착각마저 들게 했다.





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크루즈 파티의 백미는 '크루즈 걸'들의 퍼포먼스였다. 아니, 크루즈 걸의 존재 자체가 수컷들을 뜨겁게 만들었다. 더 대박인 건 크루즈 걸의 정체였다. 그녀들의 보디 스펙이 어찌지 남다르다 했는데 자세히 보니 레이싱 모델이었다. 만화 <원피스>처럼 1기, 2기 등으로 기수가 나뉘어 있는데 현재는 박시현, 이성화, 김나현 등이 크루즈 걸로 활동하고 있다. 그녀들을 보니 소원을 말해보라며 단체로 학다리춤을 추던 소녀시대의 군무를 봤을 때보다 더한 충격이 물려왔다. 아, 여름에 다시 오고 만다. 진짜. 🍹



진짜로 이런 전역 선물을 나라에서 준다면 참 좋을 텐데...

전역자 우대 MAXIM 정기 구독 평생 30% 할인

제대가 까마득한 전국 군바리의 부러움을 사고 싶지 않나? 민간인으로 복귀한 후 사바세계를 즐기는 티를 팍팍 내고 싶은가? MAXIM에 전역 신고 하면 정기 구독을 평생 30% 할인 받고, 후임들에게 MAXIM 1년치를 선물할 수 있다. 덤으로 멋진 시계를 받는 행운까지 누리보자. 어서 신청하러!

신청 자격

전역 후 3개월 이내의 꿈과 의욕 충만한 예비역

신청 방법

1. www.maximkorea.net 접속
2. Board에서 '전역 인증 게시판' 클릭
3. 본인의 전역증 이미지를 업로드하면
4. 전역증 확인 후 '정기 구독 평생 30% 할인 특별우대권'이 발급된다!
5. 자세한 신청 방법은 '전역 인증 게시판' 이용 안내를 참고하도록!

전역 인증
게시판
바로 가기



간첩 신고는 113,
전역 신고는
MAXIM으로!

오직
전역자만을 위한
초 대박 혜택
3가지!

30%

하나. 정기 구독 평생 30% 할인!
당신 할아버지가 월남 참전 용사가
아니어도 상관없는 국가공공자금 혜택이
주어진다!



둘. 군 생활 까마득한 자대 후임들을 위해
당신 이름으로 선물을 보내준다!
당신이 머물던 자대 내무실로
MAXIM 과월호 12권을 무료로 쏜다!



셋. 전역 자랑질이 뛰어난 신청자 2명에게 멋진
'세이코알반' 손목시계를 증정한다!
아오, 손목에서 간지가 막 그냥 폭발하네!
(~2013년 5월 20일까지)

전역자랑깸

네가 재벌 2세라도 절대 가입할 수 없다. 국가를 위해 2년을 희생한 진짜 남자에게만 주어지는 국가유공자급 평생 멤버십!



평생 30%

윤선필
잘 지내고 있나?
1군 헌병대 째찌들이!
꽃피는 봄이 오면 전역이라고 하더니 정말 봄이 찾아와 이렇게 너, 희, 들, 만 빼놓고 전역을 해버렸구나. ㅋㅋ 바깥세상은 너무나도 좋다. 공기도 맑고 여자들도 맑고, 모든 것이 아름답기만 하다. 군대 있을 때, 전역하면 MAXIM 자랑깸에 올린다고 했는데 정말 이렇게 너희들 과월호 보내줄라고 올린다! 사랑한다. 수고해라!



평생 30%

정재원
눈물의 포옹을 했지만 뭔가 아쉬워 한 번 더 인사를 남기기 위해서 정거기독을 신청한다. 너희들이 있어서 군 생활에 좀 더 재미를 느꼈고, 나갈 때도 많이 아쉬웠다. 언제 이렇게 정신나간 짓거리로 시간 때워보겠냐. ㅋㅋ 너희들이 있어 군 생활 중에 심심한 날이 없었던 것 같다. ^^



평생 30%

임현우
안녕, 8293친구들? 최대의 사살관리병 형이야. 전역한 지 엄청 지난 거 같은데 내 친구들은 예비군 7년차도 있고, 간부 출신도 있어서 맨날 째찌 소리 들어, 이래서 군대는 일찍 가야하나 봐. 형이 뭘 해줄까 생각하다가 맥심 보니 거기에 군부대로 과월호 보내주는 게 있더라고. 보너스로 나도 좀 싸게 사고, 평생 ^^ 형이 8293으로 맥심 12권 날릴게. 다들 그 착박한 곳에서 조금만 더 힘내고 나오면 연락해. 운동 열심히 해서 몸장 돼서 나와라.



평생 30%

정주영
북한 김정은 돼지새끼 때문에 내가 군 생활 할 때보다 몇 배는 힘들게 고생하고 있는 후임들이야. 내가 언젠가 한 번 보내준다고 했는데 이제야 이렇게 보낸다. 하루하루 놓고 보면 안 가는 거 같지만 돌아보면 군 생활 흑이야. 흑, 군 생활 중에 남는 거는 정말 인맥밖에 없는 것 같다. 서로서로 잘 지내고, 요새는 너무 서로서로 잘 지내서 탈이긴 하다만은. ㅋㅋ 이게 언제 도착할지 모르겠지만 늘 몸 건강히 지내길 바랄게. 전역하고 부산 오면 연락하삼. ㅎㅎ



평생 30%

김호수
전역한 지 2주 이제 지났다. 전역 앞두고 북괴니스탄의 김정오니가 최후의 결전이니 뭐니 개드립을 쳤지만 결국 전역 사회 나오니까 싸세다. 근데 군대 때보다는 좋다. 고생해라. 나는 폭풍 소설 집필이나 해하지. ㅎㅎ



평생 30%

이우현
전역한 지 벌써 일주일이란 시간이 흘렀는데 솔직히 바로 칼 북학해서 학교 다니는 것 때문에 별로 적응이 안 된다. 나는 여기 적응해서 재미있게 살 테니 너희는 열심히 땀이 쳐라. ㅋㅋ 그리고 성우야, 인사계면 전역증에 사진정도는 붙여줘라. 내가 맥심 전역자 인증하려고 내가 불었다. 임야.



평생 30%

박영근
부대 안은 여전히 겨울이겠지? 개동밭에 살아도 아승이 더 나은 것처럼, 막노동용 해도 사회가 훨씬 낫다. 우리가 육해공 중에 제일 긴 공군 아니냐? 나 제대 할 때쯤 들어온 신병은 올해, 내년 말 지나고도 제대 못한다지? 오 제발! 신이시여! 그 신병들에게 자비할! 그 신병들은 내년 동계 올림픽도, 브라질 월드컵도, 인천 아시안게임도, 심지어 2015년 제야의 종소리도 군대 안에서 보고 들어가 하잖아? 애들이, 진짜 민중, 자객중, 연허중 다 따봤지만 군대 2년 하고 얻은 전역증만큼 기쁜 게 없다. 끝으로 항상 고마웠던 후임들이야 나갈 때 기분 어떠냐고 물었지? 답은? 전역! 존나 좋군!!



평생 30%

민영우
전방해역의 창끝 부대로서 출동 임무를 다하는 후임들이야! 잘 지내냐. 영후 형이다. 20개월 동안 백령도며 연평도며, 같이 지낸 게 잊고제 같은데 벌써 전역을 했다. 내가 일병, 병장일 때 받은 너희들이 이제 벌써 상병, 일병, 병장(진)이구나. 우리 출동 임무 수행하면서 맥심으로 버티고 그랬잖아. 보고 싶어도 매진돼서 못 살 때도 있었고, 형이 이렇게나마 너희에게 선물을 주고 싶다. 곧 훈련이다 뭐다 바블 텐데 파이팅이다. 외박, 외출 때 연락해. 밥 한 끼 정도는 사줄게.



평생 30%

김문선
나는 안다. 우리 부대가 독립부대라 규모는 작지만 맥심 신간은 큰 부대 못지 않게 열심히 돌아다니는 것을, 군대에선 말년에 째찌 놀리는 맛으로 하루하루 버텨왔다. 근데 말야, 민간인 돼서까지 놀릴 줄은 몰랐지? 얼마 전엔 동기랑 전역자 데리고 맥심 파티도 다녀온 형이야. 너희 근무 설 때, 맨 앞줄이라 맥심 2월호 받았는데 문지기 주고 왔어. (아저씨, 집에 이거 있어요? 가져요. 전 벌써 하나 있거든요.) 과월호 보내줄게. 여유있게 돌려 읽어. 형은 아이패드로 사서 볼게. 민간인이잖아? 날씨 추운데 고생해라. 연락하구, 사랑해! •P-S: 왜 사냐?



평생 30%

김영준
애들이, 보고 있나? 너희한테 과월호 보내준다고 내가 전역인증 한다고 했지? 맥심 보다가 내 글 보고 약! 하면서 낙오 탈지도 모르겠구나. ^^ 조금 있으면 훈련인데 암~청 출겠네? 철원은 날씨가 너무 추워서 김기도 잘 안 걸리잖아. ㅋㅋ 훈련 받다보면 너희도 곧 전역하는 날이 올 거야. 그날까지 파이팅하고 건강해라!



평생 30%

신희성
따로 연락 안 해도 너희들 생각 많이 한다. 스치듯 한 약속 지킨다. 말년 되면 시간 안 가니까 잠 차서 하루에 한 권씩만 읽어라. 근데 그래도 어차피 시간 안 감. ㅋㅋ



평생 30%

이성철
전역하면 걱정이라고 하던데... 전역하면 좋다. 정말로! 키득키득. 너희들도 빨리 전역해서 한 번 만나자. 너희들이 쓰고 왜냐면 군인은 돈이 많잖아? 난 민간인이라 돈이 없다. 한턱 싸



평생 30%

이태호
이젠 나보다 더 군 생활에 대해서 잘 알 터이니 군 생활에 대한 얘기보다는 부모님께 효도하고 자주 전화도 드리고, 친구나 주변 사람들에게도 잘하라는 말을 해주고 싶구나. 군 생활 길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쓰시는지 너희들 책임이니까 낭비하지 말고 살아. 제일 좋은 건 몸 건강히 제대하는 것이니 말성부리지 말고 꼭 참고 지내야지 대한민국 모든 육해공 해병대 징병여러분들! 몸 건강히 무사히 군복무 마치십시오!



평생 30%

원태연
보이나? 밥 짓고 있을 친구들이!!? 매일 21일, 우리는 서점을 향했지. 마지막에 있는 전역 인증 캘러리 보면서 뭔가 나랑은 다른 세계인줄 알았는데, 보이나? 내대! 해군 제9 잠수함전단 영내식당 조리병들! MAXIM 받을 때마다 내 생각해라! 쫄만 고생하고~! 파이팅이다.

위 14명들 비אות 총 18명의 용사들이 MAXIM에 전역을 신고하고 정거기독 평생 30% VIP가 되었다!

MAXIM BUYER'S EDGE



운동 전에 마시는 파워에이드 리커버 출시

코카콜라사의 세계적인 스포츠 음료 브랜드 파워에이드에서 신제품 파워에이드 리커버를 출시했다. 파워에이드 리커버는 운동 시 많은 활동량으로 에너지가 소비되는 것을 대비해 운동 전에 마시는 음료다. 상쾌한 향과 가벼운 스파클링이 함유되어 가볍게 즐기기가 좋다. 또 타우린과 전해질, 비타민이 함유되어 과도하게 땀을 흘리게 될 경우 충분한 수분 보충이 이뤄지도록 돕는다. 이제 파워에이드 리커버 하나면 내 몸이 피곤해지는 찰나에 ENERGY UP!
파워에이드(www.thepowerade.co.kr)



무연담배 스누스(SNUS), 국내 출시

이제까지 경험해본 적 없는 새로운 담배맛을 원한다면 무연담배 스누스를 추천한다. (주)스누스맨이 수입하는 덴마크 프리미엄 무연담배 스누스가 4월 29일 국내에 출시된다. 독특하고 다양한 맛의 오프로드, 전통 스누스 맛의 팬텀, 보다 강한 맛의 썬더로 총 3가지 브랜드를 선보인다. 제품은 총 10가지로 구성되어 입맛과 취향에 따라 선택하면 된다. 간접 흡연의 피해가 전혀 없는 스누스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큰 장점. 스누스는 전국 스누스맨 전문 매장 및 취급 판매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7,300원(오프로드, 팬텀), 7,800원(썬더), 8,000원(오프로드 미니)
스누스맨(www.snusman.co.kr)

다비도프 카페, 리치 아로마 인스턴트 스틱

유럽 정통의 프리미엄 커피 다비도프 (Davidoff)가 인스턴트 스틱 커피를 선보인다. 스틱 형태의 다비도프 카페는 등산이나 야외 활동에도 편리하게 고품격의 커피 맛을 즐길 수 있다. 특히 남미와 동아프리카의 원두를 사용하여 풍부하고 강렬한 맛을 자랑한다. 또 100% 아라비카 원두로 만들어졌으며 해발 고도 900m 이상의 고산 지대에서만 자라는 원두만 사용한다. 값싼 스틱 커피와 차원이 다른 최고급 커피콩만 사용한 것이다. 스틱은 한 상자 25개 스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9,000원에 만날 수 있다.
성유엔터프라이즈(02-847-7026)



엠도씨 올데이 미스트로 하루 종일 촉촉하게~!

피지가 많고 칙칙한 피부가 고민이라면 엠도씨 화이트닝 올데이 미스트를 사용해보면 어떨까?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미스트 타입에 미백 기능을 더한 것이 특징인 이 제품은 현재 엠도씨 쇼핑몰에서 인기리에 판매 중이다. 특히 미백 효과가 있는 카테킨을 함유한 천연식물추출물이 피부의 노화를 억제하고 탄력 있는 피부로 가꾸어준다. 또 멜라닌 색소의 생성과 침착을 억제하고 끈적임 없는 나노 왁스를 이용해 피부의 보습막을 형성한다. 집티 없이 환하고 깨끗한 피부를 갖고 싶은 남성이라면 꼭 한번 사용해볼 것.

21,000원, 엠도씨(www.mdockorea.com)



나도 데이트 할수있다!

봄맞이 시력교정수술은 서울밝은안과와 함께~!

봄이 온 것이 애석한 솔로 안경남은 시력교정수술 상담을 받아보는 건 어떨까? 짧은 봄을 솔로 남자들끼리 PC방에서 죽치기엔 사나이의 청춘이 너무나 아깝다. 더군다나 의미 있는 청춘을 보내려면 뜨거운 연애도 필요한 법! 안경남이 한번의 시력교정수술로 외모가 한층 업그레이드 된다면 솔로 탈출은 시간 문제다. 또 두꺼운 돋보기 안경 너머로 숨겨 놓았던 눈빛이 여럿 봄 처녀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릴지도. 특히 MAXIM 에디터가 추천하는 서울밝은안과에서는 5월 한 달간 시력교정수술을 최대 30%를 할인해 주는 이벤트가 진행 중이니 참고하시길!
서울밝은안과(1566-0838, www.yourlasik.co.kr)

버거킹! 풍성한 킹박스 출시

버거킹에서는 2~3인 세트메뉴를 한 박스에 담아 푸짐하게 즐길 수 있는 킹박스를 출시한다. 이번에 출시되는 킹박스는 한 번에 여러 가지 메뉴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즐길 수 있는 특별 메뉴로 본격적인 나들이철을 맞이해 가족, 연인들이 언제 어디서나 즐길 수 있다. 킹박스는 와퍼와 와퍼주니어, 텐더 4조각, 어니언링, 웨지감자, 콘샐러드, 콜라 2잔으로 구성된다. 킹박스는 특수매장을 제외한 전 매장서 만날 수 있다. 생각만 해도 침 고이는 킹박스, 역시 버거중에 왕은 왕입니다옹~ 맥도르나르 보고 있나?



15,000원, 버거킹(www.burgerking.co.kr)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사나이들의 대결! UFC 헤비급 챔피언전 전세계 UFC 팬들이 기다리던 UFC 160 헤비급 챔피언전이 5월 26일 라스베이거스 MGM 그랜드 가든 아레나에서 펼쳐진다. 빅매치인 케인 벨라스케즈와 빅풋 안토니오 실바의 UFC 헤비급 챔피언전이 열린다. 또 전 헤비급 챔피언 주니어 도스 산토스와 슈퍼 사모아인 마크 헛트의 헤비급 챔피언 도전자 결정전 역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 외에도 그레이 메이나다, 도널드 세로니, 글로버 테세이라 등 UFC 인기 파이터가 총 출동하는 UFC 160. 5월 26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슈퍼액션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오빠들~ 많은 시청 부탁해요~! 슈퍼액션(080-080-0780)



〈대한민국 이문세〉 콘서트

히트 공연의 대가로 명성이 자자한 이문세가 대한민국이라는 타이틀로 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 기회에 '붉은 노을', '광화문연가', '휘파람',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등 국민가요로 자리잡은 주옥같은 그의 노래를 라이브로 들을 수 있는 기회다. 이문세 리메이크가 난무하는 요즘, 원곡을 듣는 맛이 더욱 쓸쓸하겠지? 이문세 콘서트의 정점을 찍는 무대를 선보이겠다고 하니 처녀시절 이문세 팬이었을 엄마를 위해 선물해 보는 것도 좋을 듯.

무봉기획단(02-747-1252, www.mooboong.com)

부부의 날, 르페 커플언더웨어로 신혼분위기 내볼까?

5월 21일은 부부의 날이다. 둘(2)이 하나(1)가 된다는 뜻으로 사랑을 담은 날. 이런 날 르페 커플 속옷 세트로 볼타는 밤을 보내는 건 어떨까? 감각적인 디자인은 부부 뿐 아니라 커플이 착용하기에도 안성맞춤이다. 커플티를 입고 다니자고 즐라대는 여친이 있다면 속옷으로 둘만 아는 커플룩을 입자는 제안을 해도 좋다. 게다가 날도 풀려 여행의 계절이 왔으니 화끈하게 커플 속옷으로 일체감을 뽐내보자. 합체하면 그게 부부자~ 뭐!

브라프라몰(1544-6101, www.brupra.com)



열정적인 당상을 위한 새로운 향수 우오모(UOMO) 출시

우오모는 열정적인 삶을 살며 자신의 운명을 향해 나아가는 현대 남성을 상징하는 에르메네질도 제냐의 새로운 남성 향수 브랜드다. 이번에 출시된 우오모 향수는 이탈리아 칼라브리아에 있는 제냐 소유의 들뜬에서 재배되는 천연 제냐 베르가못과 바이올렛 꽃 향을 섞어 강렬한 향을 선사한다. 역동적이고 수평적인 즐무늬의 보틀은 열정적인 남성상을 상징한다. 에르메네질도 제냐의 새로운 향수 우오모! 5월부터 전국 백화점에서 판매하니 방문해서 향을 맡아보자. 쿵쿵~

65,000원(30ml), 에르메네질도 제냐(02-3440-2774)





소드걸스 TCG, 1,000만 원 규모의 챔피언십 개최

미소녀와 함께 어마어마한 상금을 손에 거머쥌 수 있는 기회를 소개한다. 바로 5월 26일에 대학로 직영 매장 다이브다이스샵에서 열리는 미소녀 트레이딩 카드 게임 소드걸스 TCG의 챔피언십이다. 총 상금 1,000만 원 규모의 이번 챔피언십은 참가비 무료로 우승 상금 200만 원, 준우승 상금 100만 원을 포함해 4등까지 상금이 수여된다. 5등부터 64등에게는 소드걸스 TCG 포일 컬렉션 및 부스터 팩 등의 풍성한 상품이 기다리고 있다. 참가자 전원에게 프로모션 카드가 제공되며, 우승자는 특별히 '게임의 지배자' 카드의 능력을 기획할 수 있는 영광까지 주어진다. 현재 소드걸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챔피언십을 위한 예선전 일정을 확인할 수 있다.

소드걸스 TCG(www.sg-tcg.com)

황사에도 촉촉한 피부로,

닥터자르트 세라미딘 라이트 크림 출시

중국에서 황사바람이 어택하는 봄이 도래했다. 기분 좋은 날씨를 만치는 주범이지만 무엇보다 내 피부를 건조하게 만드는 주범인 황사 바람. 그에 맞서는 당신을 위해 닥터자르트 세라미딘 라이트 크림을 추천한다. 가볍지만 응축력이 강력해 바르는 순간 수분입자가 퍼지며 장시간 보습효과를 유지할 수 있다. 또 적은 양으로 오래오래 쓸 수 있는 일들함까지 겸비했다. 민감한 피부에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해성분은 단 0.001%도 들어있지 않은 세라미딘 라이트 크림. 물 몸은 세라미딘 라이트 크림으로 소중한 피부를 지켜보자.

닥터자르트(www.drjart.com)



샴페인 엠, 프로토콜 글라스 세트 증정 프로모션 실시

세계 3대 샴페인 브랜드 엠(G.H. MUMM)이 4월부터 두 달간 주요 백화점 및 레스토랑, 트렌디 바에서 엠을 주문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세련된 디자인의 엠 프로토콜 글라스 세트를 증정한다. 또한 패키지 안에는 올바른 샴페인 글라스 고르는 법, 글라스 잡는 법이 위트 있는 일러스트와 함께 담겨 있어 유익함을 더했다. 프랑스에서 가장 사랑 받는 엠은 상큼한 과일 맛과 달콤함이 살짝 감도는 캐러멜의 풍미가 완벽히 조화되어 부드럽고도 상쾌한 맛을 전해준다. 상쾌한 엠도 즐기고 전용잔도 함께 얻을 수 있는 이번 기회 놓치지 말자.

G.H. MUMM(www.mumm.co.kr)

데이트 걱정은 이제 그만, 연극 <채권자들>

매번 여친을 만날 때 어떤 데이트를 할지 고민하는 당신을 위해 데이트 코스를 하나 제안한다. 바로 봄의 기운을 만끽하며 대학로에서 밥 한끼 먹고 연극 <채권자들>을 관람하는 것. 알핏 들으면 채권 추심으로 얼룩진 연극으로 상상할 수도 있지만 실상은 자신을 떠난 전처에게 복수를 하는 남자의 이야기를 다룬다. 연극을 이용해 여친에게 바람 피우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암묵적인 메시지까지 전달하는 퍼펙트한 데이트가 된다. 연극에 대한 자세한 일정은 아르코예술극장 홈페이지를 참고하자. 아르코예술극장(www.hanpac.or.kr)



리엔케이 트리트먼트 하나면 피부 관리 끝!

봄에 어울리는 꽃님 피부가 되고 싶은 남자라면 주목하시라. 리엔케이에서 건조함, 칙칙함, 탄력 저하 등 남성의 피부 고민을 한번에 해결해 줄 트리트먼트 제품을 출시했다. 리엔케이 옴 올인원 리바이탈라이저는 스킨, 로션, 에센스 기능을 입축한 기능성 제품으로 세안 후 제품 하나만 사용해도 촉촉하고 생기 있는 피부로 가꿔준다. 또 스프레이 타입의 에센스는 미세한 수분 입자가 분사되어 피부에 가볍고 빠르게 흡수된다. 끈적임 없이 상쾌한 스킨 관리가 필요한 남성에게 안성맞춤.

리엔케이(www.re-nk.co.kr)



Unpicked

이 달의 몹쓸 사진

불에 탄 1등급 꽃등심 같은 B컷 대 방출!



HOW TO 콘돔 재활용법 (p.38)

이걸 안 쓴 이유 물고기가 자꾸 엄한 곳으로 들어가서, 거기 뭐 좋은 거 있느냐?



STYLE 패션 피플 체험기 (p.150)

이걸 안 쓴 이유 에디터가 외다리 같아서, 목발도 없는데 수고하셨네요.



MUSIC 게이트 플라워즈 (p.102)

이걸 안 쓴 이유 기타리스트 염승식이 너무 심하게 느끼고 있어서, 소..솔로로 간단!



개그우먼 장도연 화보 (p.94)

이걸 안 쓴 이유 장도연이 타고 있는 말이 화열에 차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아서.



Unpicked

Military



TOP SECRET! 미사일의 정체는?!!

우리는 MILITARY 기사(p.106)에 들어갈 화보 촬영을 위해 진짜 미사일 대신 죽부인을 가져와 엄상미 씨 다리에 끼우거나 올라타게 했다. 죽부인을 남친 다루듯 연기에 몰입한 모델에게 박수!

독점 인터뷰! 죽부인의 근황

가슴. 가슴을 보자.

이 정도는 견이지.



영상 편집에 참견하기

원고 쓰기



그러니까... 상미가 제 위에 앉았을 때...

원고 벨랑 안 내나?

편집장으로 변신하기

인터뷰하기



맥주 화보 (p.43)

이걸 안 쓴 이유 손의 위치가 오묘하니 뒤로 마시고 있는 것 같아서.



MISS MAXIM 장유진 (p.128)

이걸 안 쓴 이유 사우나 온 아저씨처럼 다리를 굽고 있는 것 같아서.



STUFF 남자의 공구 (p.58)

이걸 안 쓴 이유 스타일링 에디터가 모델 최별하의 뺨을 때리고 있는 것 같아서. 예뻐서 재수없어!



로드 FC 전야제 (p.114)

이걸 안 쓴 이유 다들 장풍을 쓰고 있는 것 같아서.



헤비급 세계 챔피언전
케인 벨라스케즈 VS 안토니오 실바



헤비급 세계 챔피언전

UFC 160

헤비급 타이틀 도전자 결정전
마크 헌트 VS 주니어 도스 산토스

5월 26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SUPER ACTION

수퍼액션
공식 블로그



MAXIM



KOREA



ICON 장우혁

MAXIM이 만난 심대의 우상은 산전 수전 다 겪은
어른 남자가 되어 있었다. 냉혹한 세상을 통찰하는
장우혁의 송곳 토크, 돌려서 말하기 그런 거 없어.

EDITOR'S VIEW

영화 속 형님들에게 배우는
담배 만나게 피우는 법
눈을 땀 수가 없다
영화 <노리개>

GADGET SPECIAL

상반기 평정 갤럭시S4
HD 디스플레이 대결!
옵티머스 vs. VEGA

HOW TO LIVE SMART

모르면 멸망! 직장 상사 언어 해석법
친환경 콘돔 재활용법
초간단 간지 수염 만드는 법
친구와 같이 자취할 때 꼭 필요한 생존 기술

양배추와 남창희가 모텔 대실한 사연

MAXIM 취향 레이싱 모델 최별하의

NAUGHTY GARAGE

50 Cent

50 CENT와 MAXIM의 죽음에 관한 대화

NEW CHALLENGER

NC 다이노스 KBO 입성하기까지 풀 스토리

GOOD BOOKS

출판 사상 가장 에로틱한 소설 5

BLOODY RING

아비규환, 혈전의 로드FC 011

불꽃남자 이야기 PART 2

링 위에 목숨을 내던진 다섯 명의 불꽃 파이터

MAY 2013



www.maximkorea.net

